

01

November
20252025/11/03
monday, am 9:10 | 32위
김양선

#1일차 : 기대

라이팅 챌린지 첫 날 키워드는 '기대'입니다. 챌린지의 첫 날, 11월로 들어가는 초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여러분은 어떤 가슴떨리는 기대를 하고 있나요? 평소 기대했거나, 다른 사람의 기대를 받아본 경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써보세요.

😊 15 💬 0

2025/11/03
monday, am 9:33 | 30위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일차 "기대"를 받아본 경험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지원을 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날이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 키워드를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역아동센터에 다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한 번 지역아동센터에서 봉하 마을에 놀러갔습니다. 놀러갔을 때 저는 열이 많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저를 밤새도록 간호해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들께 큰

은혜를 입어서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 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원서 지원을 할 때 한림대 사회복지학부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서를 지원하였을 때 부모님, 친척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 부담이 되었지만, 한 편으로 속 마음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서 지원 결과 확인을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확인 했습니다. 그 이후 들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여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2025-2학기 라이팅 챌린지 활동을 "기대"합니다.

😊 14 💬 16

채은비(생명과학과) 원서를 넣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때가 생각나네요. 전 진짜 마지막날에 추합했는데 전화를 받기 전까지 기대와 실망을 거듭하던 기억이 납니다

2025/11/03
monday, am 10:52 | 31위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1일차 '기대'

기대는 저에게 '쌍둥이' 같습니다
'기대'라는 감정을 통해
'실망과 실망'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새 학기, 새 친구, 새 학년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이라는 키워드가
미래와 현실의 괴리감을 통해
실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대회에서 상을 받을 때
우리는 대회에 참여한
누구나 다 기대감을 가지고 결과를
기다리지만
등수가 정해지고 나면 누구나
조금 또는 많은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대를 통해 실망을 느낄 수도
반대로 실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기에
이런 감정을 억제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기대를 안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를 통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을 느껴왔기 때문에
라이팅 챌린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16 💬 15

이준호(사회복지학부) 수진님께서 작성해주신 글
내용 중에서 "실망과 실망"이라는 두 가지의
감정이 쌍둥이라는 표현이 매우 공감이 되면서
좋은 표현 인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1:56 | 23위
김서영(중국학과)

#1일차 기대.

이 단어를 들으면 괜히 심장이 조금 뻐라진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은 이미 별별 상상으로 가득하다.

대학교 생활이 그렇다.

뭔가 대단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데, 막상 하루를 보내면 그냥 평범한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도 내일은 다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기대'라는 거겠지.

오늘은 이 글쓰기를 시작하는 첫날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괜히 진지해진다.
나는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살짝 된다.

그래도 기대된다.

내가 뭘 쓰게 될지,

3주 뒤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단어를 다시
보게 될지.

지금은 그냥

조용히 시작선 위에 선 기분이다.

조금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다.

'기대'라는 단어가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것
같다.

😊 13 💬 7

이준호(사회복지학부) 저도 대학생활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하루가 지나면 다음 날은 다름지
모른다는 기대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대학생생활 하면서 평상시보다 얼마나 변했는지 기대가 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2:37 | 24원

문전우(철학과)

#1일차 기대

언제부터인가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인지'하면서 미래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의 과거를 기억하자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그런 내 모습을 보지 않으려 인지를 회피하고 이런 전제 조건들로 인해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내 모습들로 인해 나는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라 생각해 매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에 무조건적인 고개만 끄덕이는 기계가 되었다. 그러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배를 훔친 사건을 부끄러워하여 회심한 듯 나 또한 어머니의 병으로 내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찌가 안 좋으셨다. 과로의 여파인지 혹은 나의 무심함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전신마취의 수술까지 병행하셨으므로 내 방탕의 마침표를 찍게 하셨다. 난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내 현재를 바꾸고 싶었다. 이러한 의지의 방향으로 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미래를 한 번더 품고 싶어졌다. 단 한순간도 내 몸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던 곳으로 원할히 움직여주지 않았다. 늘 짐처럼 느껴졌고 많이 무거웠다. 그렇기에 나는 내 몸을 움직여보고 싶었다. 역도 선수는 어떤 무게가 제일 무겁냐고 묻는 질문에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자신의 몸이 제일 무겁다고 하였는데 이는 진리인 것 같다. 내 몸을 움직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었다. 그럼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전에 느껴본적 없는

쾌활함이 느껴졌다. 하늘은 유독 청량했고 찻잔의 찻잎이 증발하여 상쾌함을 주었다. 그때 맞이한 세상은 처음으로 느껴본적 없는 세상의 따뜻함이었고 내가 만든 것이었다. 만약 그때와 같은 하루가 반복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에 나는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보며 끊임없이 현재를 달렸다. 그러자 내게도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다행히 병상에서 회복하셨고 어머니를 맞이한 나는 전에 있던 나와는 다른 사람 같다고 말해주셨다.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수면 그리고 조그마한 실패에도 의지가 꺾였던 지난날에 비하여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르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셨다. 어쩌면 신뢰하고 신뢰받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 같다. 어머니의 안쓰럽게 바라보던 눈길이 신뢰의 눈빛으로 바뀌던 그날이 마치 내게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 같았다. 저런 눈빛을 끊임없이 받고자 하는 욕구가 솟구쳤고 나는 기대라는 행위가 내 목표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부끄러움을 조금 몰아내고 과거의 나와 밀연적인 약속을 나누었다.

😊 13 💬 8

정우현(철학과) 당신의 용기에 전율이 흐릅니다. 매우 응원합니다!!



2025/11/03

monday, pm 3:20 | 17원

윤지호(일본학과)

#1일차 기대

기대라는 것은 연애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이다. 다들 한번쯤은 연애를 해봤거나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의 이성적 관심을 받은적이 있을것이다. 그할때 누구나

기대를 하게된다. 특히 연애,썸에 있어 최대의 기대는 일면식이 없는 이성의 연락처를 물어봐 혹시라도 연락처를 받았다면 그것이 연애에 있어 최고의 기대를 선사해준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의 기대는 일면식도 없는 이성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해 애프터 약속이 잡힌다면 이것이 두번째로 큰 기대라고 생각한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성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애프터가 잡힌다면 온종일 그 날만을 생각하고 시간이 빨리 흘러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하지만 연락처를 물어봤다가 무시를 당하거나 애프터에 실패하면 기대는 모래성마냥 우수수 무너지고 모든 의욕과 전신의 힘이 쭉 빠져버린다. 반면 애프터 약속이 잡히면 하늘을 날아오르듯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과 힘이 넘친다. 이렇듯 기대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기대 하나로 사람의 기분과 사기,의욕을 좌우한다. 나는 기대가 없는 삶보다는 기대가 있는 삶이 훨씬 풍요롭고 의욕넘치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 역시 정확히 2주뒤인 월요일 삼프터 약속이 잡혔다. 약속이 잡힌것만으로 기대가 되고 남은 기간동안 공부와 알바 자기계발을 할 의욕이 넘친다. 다들 하루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이 기대가 되는 경험을 해봤으면 한다. 참고로 말해두지만 삼프터의 상대는 일면식도 없는 이성은 아니다.

😊 12 💬 5

이준호(사회복지학부) 인간관계에서 기대가 있다면 그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사람의 기분을 좌우 한다는 말이 공감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3:31 | 22원

최지훈 (사회복지학과)

#1일차 #기대

[마흔여섯 번째 접시]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레 기대하지 않으려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꼭꼭 눌러 담아도 조용히 피어오르는 향 연기처럼 조금씩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기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는 이때, 우리는 참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 부정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무언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의 혼합입니다. 마치 궁금중과 두려움이 한 곳 차이인 것처럼 기대 역시 정의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밴드에서 느끼는 이 기대는 좋은 쪽에 가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큼니다. 하얀 밴드가 우리들의 오색 빛깔 이야기로 수놓아지길 바랍니다.

[뽕뽕뽕, 오늘의 뽕 접시가 닳았습니다.]

😊 9 💬 6

김서연(콘텐츠it) 저 또한 앞으로의 밴드 활동이 기대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3:32 | 18원

유채원(일본학과)

#1일차 기대

간접 체험만으로 마음은 기대로 부른다. 요즘 인스타그램 릴스에 해외여행 브이로그가 자주 보인다. 짧은 시간에 나는 일본도 가고,

영국도 가고, 튀르키예에 갔다 오기도 한다. 종종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바로 구글 지도의 '미래여행' 목록에 그곳을 추가한다. 언젠가 세계여행을 다녀와야 할 것만 같이 여러 나라의 장소들이 저장되어 있다.

여행의 기대는 가기 전에 최고조를 친다.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는 것부터 설렌다. 무엇보다도 여행에서 가고 싶은 곳을 구글 지도에 찍어둘 때가 가장 신난다. 찍어둔 곳을 모두 갈 수 없음을 알기에 허업없이 새로운 장소를 찾는다. 미지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가야 하지.'라는 생각이 코베기도 나타나지 않게끔 지도를 알록달록하게 채운다.

기대를 충족시키는 건 어렵다. 리뷰가 실제와 다르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나는 박탈을 친 기대를 다른 기대로 채우는 편이다. 근처의 괜찮은 곳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돌발 상황은 여행의 묘미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는 실망보다 기대를 품는 편이 좋다. 어떤 새로운 일이 발생할까!

기대로 시작하여 기대로 끝나는 여행. 미지의 곳에 간다는 기대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고 싶다는 기대로 바뀐다. 같은 지역을 가도 그날의 날씨, 내 상태 등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즉, 언제나 기대를 품을 수 있다.

😊 12 💬 6

이준호(사회복지학부) 기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실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는 어디에 있든 생길 수 밖에 없는 감정이에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3:34 | 16위
정서현(법학과)

#1일차 '기대'

저에게 '기대'란 부정적임과 동시에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중적인 단어입니다. '기대'가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순간은 아마 저에 대한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기대감이었던 거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집안의 장녀로 항상 어른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자라왔고,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에 항상 어른들의 말과 행동들을 유심히 살핀 후 따라 행동하곤 했습니다. 아마 대학 입시 준비를 할 때 집안에서 가장 먼저 대학에 진학하는 입장이자보니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조용하고 항상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보니 공부를 잘 할 거 같다는 기대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공부를 잘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속으로 '멋대로 기대하고 멋대로 실망하는 게 기분 안 좋다'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일 큰 기대는 아마 대학에 입학하고 첫 등교를 할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은 두렵기도 하였지만 역시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하는 마음가짐도 생겼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좋게 봐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나쁠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 12 💬 4

이준호(사회복지학부) 저는 집에서 장남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부모님, 친척 어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셔서 큰 부담감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큰 기대가 대학 첫 등교의 긍정적 효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3:54 | 19위
정우현(법학과)

#1일차

저에게 기대란 약속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문을 겁니다. "이번 시험은 무조건 잘 봐야 해." 그렇게 약속은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그리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대를 해놓고 실망하는 일은 정말 많았습니다. 제 능력을 의심하고 반성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 스스로와 약속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와 약속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저와 잠깐 절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무관심했던 시기였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요. 하지만 저 자신과의 약속은 더더욱 예민합니다. 저 스스로에게 실망감이 너무 커지거든요. 저는 다시 저에게 기대를 해보려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친구끼리는 이해해 주니까요. 때면 약속을 지키진 않아도 그래도 꽤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저는 완전히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받아주기도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저는 다시 타인과 약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저와 같은 인간이기에 넘어갈 수 있는 마음 정도는 가지려고 합니다. 약속을 했다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와 다시 친해지려 합니다. 이렇게요!



😊 10 💬 6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마음 정도를 가지려고 한다는 우현님의 생각이 공감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3:58 | 15위
김서연(콘텐츠)

#1일차 키워드 : 기대

성인이 되고 처음 술을 마실 때, 무척이나 기대에 부풀었다. 집안 어른들은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었고, 주변 친구 중 성인이 되기 전까지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건 내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원래는 성인이 되자마자 마실 계획이었으나 12월31일에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다. 결국 처음으로 술을 마신 건 대학에 들어온 후다. 첫 시도는 소주였는데, 소주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썼고, 내 몸에 잘 맞지 않았다. 소주를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복통이 왔다. 첫 시도는 좋지 않았지만, 나는 술 마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뒤로 와인, 양주, 맥주 등을 기대하고 다양하게 마셔왔다. 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는 달콤한 스파클링 와인이나 칵테일이 제일 좋았다. 부모님이 자주 드셔서 제일 기대를 하고 마신 레드 와인은 내 입맛에 맞지 않았다. 아직 어려서 그 맛을 모르는 걸까?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와인을 드시는데 나는 한 모금 넘길 때마다 멈칫하며 표정을 찌푸렸다. 결국 몇 모금 마시지 못하고 부모님 몰래 와인에 사이다를 섞기까지 했다. 부모님이 보셨다면 기겁하셨을 거다. 내가 레드 와인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신 듯했지만, 혹시나 입맛에 맞는 레드와인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시고 나에게 레드 와인을 권하셨고, 나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년 레드 와인을 마실 때마다 한쪽에는 레드 와인을, 다른 한쪽에는 사이다를 놓고 번갈아가며 마시고 있다.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레드와인이랑 사이다를 번갈아가며 마신다는 점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네요 저도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언제쯤 진정한 술의 맛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5:10 | 15위
하현주(영어영문학과)

#1일차
기대라는 키워드를 받고 기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층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대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질이지만 우리에게 막대한,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무언가 같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 따라, 특정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유의어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가 저에겐 기대라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기대라는 한자는 [기약할 기 기다릴 대]로, 기약한 것을

기다림이라는 뜻을 지녔는데, 소망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를 소망하고, 소원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큰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게 해줍니다. 자칫 큰 기대는 큰 절망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절망 또한 소망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를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게 해줍니다. 기대의 대상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머릿속에 크게 스치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 분들인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 선수 분들의 이름들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주는 기대가 부담은 아닐까, 수천, 수만 명의 기대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 한 나라의 기대를 받고 저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어떤 걸까, 그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막대한 절망의 긍정적인 형태의 기대는, 받는 대상에겐 다른 형태로 변질되어 전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특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대라는 단어의 오묘한 성질 같습니다.

예전에 미술 관련 강의를 들다, 좋은 그림이란, 그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해당 챌린지를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3주 동안 여러 글들을 통해 독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을 써보고, 많은 글들을 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3주 동안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때로는 기대가 누군가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을것같다는 말이 인상깊네요 또 저도 좋은 글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예시가 아마 '명언'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는 명언을 읽고 생각하면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니까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5:52 | 16위
한보경(생명과학과)

#1일차 #기대

내가 생각하는 기대는 희망과 비슷한 말 같습니다. 희망을 가질 때 기대도 가지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지 않은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것에 희망을 가지고 그에 따른 기대도 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나는 다양한 것에 기대하는 사람이어서 #1일차 매일매일 다른 기대를 품고 움직입니다. 오늘도 시험을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과 저녁에 닭갈비를 먹으러 가기로 했기에 여러 좋은 감정들이 떠오릅니다. 닭갈비가 맛있었으면 하는 기대와 과제를 못 끝내고 먹으러 가지만, 과제를 무사히 제출할 수 있을거란 희망을 품고 친구들과 닭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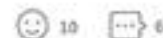
채은배(생명과학과) 작은 일에 기대와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게 참 좋은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6:57 | 15위
최은실(국어국문학과)

#1일차
기대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영화입니다. 예고편이나 배우, 감독, 장르 등의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영화를 선택하고 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특별한 "결말"을 기대하며

감상할 때 각자 다른 감정을 느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하거나 원하던 결말일 때, 그 차이가 극명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다른 작품을 보거나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곤 합니다.

저는 기대는 "동기"이자 "결말"을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는 희망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고 실패의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줍니다. '희망'보다는 가깝고 '꿈'보다는 단순하며 결과와 달라도 금방 회복하고 다시 할 수 있는게 '기대' 아닐까요?



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평소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제가 '기대'하면서 본다는 걸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2025/11/03
monday, pm 7:07 | 15위
채은배(생명과학과)

#1일차
#기대
애꿎은 언필이나 들었다 냅다. 온몸을 꿈질거리며, 학습지예나 집중하라는 엄마 잔소리는 한 귀로 흘리고는 온 신경은 문밖 소리에 집중. 긴 복도에 익숙한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뒤이어 들리는 열쇠 돌리는 소리. '아빠!'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이며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는 우리 남매. 언제나처럼 꺼내주는 주머니 속 군것질거리. 어떨 때는 까만 봉다리.
사람 만날 일이 참 많으시면 우리 아빠. 오늘은 어느 아무개의 모친상. 내일은 또 다른 아무개의 딸아이 결혼식. 또 내일모는 중요한 미팅...

랩에 고목 싸인 주먹만 한 떡, 디저트 코너에서 집어 온 게 분명한 탕자굴, 와! 오늘은 치킨!!!

미팅에서는 쟁겨울 만한 게 없었나봐. 언제나 무엇 하나라도 쟁겨 오시던 우리 아빠. 그때 우린 아무것도 몰랐지만.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된 마음.

'너희가 나중에 자식 낳아봐야 한다. 집에 들어올 때 자식새끼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떤 기분인지'

아니, 아직은 난 모를지도.

아빠가 어떤 기대를 품고 그 복도를 걸어오셨는지....

나를 이렇게 키우셨는지, 유독 하루가 고된 날이면 꼭 기숙사에 돌아오기 전 어디에라도 들리는 게 습관이 되었다.

계산원에게 아빠 카드를 내밀며 속으로 생각한다.

'아빠. 이거 아빠가 사주는 거야'

나를 이렇게 키우셨는지, 나도 귀찮길에 뭐라도 내 손에 쥐여 주는 거야.

😊 11 💬 4

최시연(생명과학과) 너무 소중한 추억들이야. 그런 아버지가 있는게 부럽다.

2025/11/03

monday, pm 7:08 | 25위
박혜원(생명과학과)

#1일자

막연한 바람은 아니다. 오늘의 불만족에서 비롯되어 충분하지 않은 지금의 나는 내일에 많은 걸 건다. 더 나아지고 싶은 바람이 내일이라는 공간에 이월된다. 그래서 기대는 빛이다. 오늘에 만족하지 못한 내가 내일에 지분을 이루는 조용한 채우다. 하지만 매일이 그렇지는 않다. 가끔은 욕심이 많아진다. 행복한 오늘을 보내고도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배부른 마음이다.

할머니도 지금 나에게 미스코리아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좁은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이다. 현실을 망각하는 욕망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의 이야기이다.

멀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닿고 싶다. 나는 기대에 기대어 살아간다. 나는 내일을 기대한다.

😊 13 💬 5

최시연(생명과학과) 오늘에 만족하지 못한 내가 내일에 지불하는 조용한 채우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 글이었어요!

2025/11/03

monday, pm 7:35 | 16위
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1일자 #기대

이번 주는 소소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시간 후면 콘서트 티켓팅이 있다. 올해 초부터 동생과 함께 콘서트를 가자고 약속했지만 서로 시간이 안 맞고, 또 같이 응원하는 팀이 없어서 11월인 지금까지도 같이 콘서트를 가지 못했다. 그렇게 약 1년을 기다려 드디어 동생도 알고 나도 아는 엔플라잉이 콘서트를 한다고 해, 같이 가기로 했다. 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벌써 콘서트장에 있는 것만 같은 설렘과 기대감이 넘쳐 난다. 꼭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불과 며칠 전 중간고사가 끝났다. 아난 강의도 있겠지만, 내가 듣는 수업은 시험이 끝난 바로 그다음 주, 즉 이번 주 대면 수업에서 성적을 바로 알려 준다. 물론 성적은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오겠지만 그래도 혹여, 어떤 우연의 일지로, 내가 노력한 것에 작은 행운이 더해져

아주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며칠 내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월급날이 온다. 월급을 받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사실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아르바이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달에는 조금 특별하게 월급을 써보려고 한다. 곧 있으면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다. 우리 집은 생일 외의 기념일은 생기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 결혼 기념일엔 서프라이즈로 레터링 케이크를 준비해 보려고 한다. 부모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실지도?

P.S. 콘서트 2연석 잡았습니다!!

😊 12 💬 5

허태원(소프트웨어학부) 콘서트 티켓팅 저도 많은 추억이 있는데요, 꼭 보고 싶고 같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해서 기뻐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번엔 꼭 티켓팅에 성공해서서 동생분과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5/11/03

monday, pm 7:59 | 16위
허태원(소프트웨어학부)

#1일자

기대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수 없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돌아보면 내가 오랫동안 기대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 꼭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과 함께, 오히려 허무하거나 아쉬웠던 순간도 비슷한 만큼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큰 기대 없이 그저 할 일을 묵묵히

하다가 맞이한 결과는 오히려 만족스러웠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보다는 과정을 믿으려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만 과정을 다하면 결과는 어느새 기대 이상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과정을 보내고 그 과정의 끝에서 따뜻한 기대와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 9 💬 4

최지윤(사회복지학과)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더 큰 결과를 가져올 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모두의 결과가 좋으면 좋겠네요!

2025/11/03

monday, pm 9:36 | 14위
윤여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기대

기대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었다. 기대에서 오는 설렘과 기쁨보다 실망에서 오는 우울이 더 견디기 어려워 애써 기대하지 않은 날들이 많았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하루를 보내는 데 익숙해졌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다보니 문득 내가 기대하는 법을 잊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기대할 것도 없는 하루, 결국 무언가에 실레보지도 않은 채 끝나는 건 아닐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실망감을 피하려 달아버렸던 마음에 이제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은 것이다. 비록 기대와 실망이 한 세트더라도,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러나 또 다시 한 번 희망을 걸어보는 하루하루가 더 값지고 의미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다. 이제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루여도, 매일 또 새롭게 기대를 걸 무언가를 찾으려 그렇게 내일을 기다리려고 한다.

😊 6 💬 2

조은채(간호학과) 저도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순간들이 많아서 공감되네요. 그럼에도 희망을 걸어보려는 자세가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2025/11/03
monday, pm 9:37 | 12위
민사아 (글로벌학부)

#1일차 주제: 기대

우리가 '기대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린다는 뜻을 넘어서다. 기대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마음을 먼저 보내는 일이며, 그 미래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조용한 믿음이다. 그래서 기대는 늘 미래를 향한다. 우리는 기대를 통해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 가능성이 우리를 앞으로 걸어 가게 만든다.

기대의 대상은 각자 다르다. 어떤 이는 새로운 도전을, 또 다른 이는 일상의 평온을 기대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의 발걸음에는, 크고 작은 기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기대를 잃는 순간,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되고 삶은 추진력을 잃는다. 때로는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실망이 두려워 기대를 멈춘다면, 그런 삶을 멈추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품으며 살아가야 할까? 나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그 기대를 지키기 위한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발전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해보길 바란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 목표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기대는 미래의 약속과 같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삶을 빛나게 만든다. 오늘 만큼은 잠시 멈춰 서서, 나의 기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6  3

조은채(간호학과) 사람은 역시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군요. 기대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9:39 | 20위
조은채(간호학과)

#1일차 #기대

글을 잘 쓰면 좋겠다. 노래를 잘 부르면 좋겠다. 높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다. 멋진 외모를 가지면 좋겠다. 좋은 학교에 다니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 좋겠다.

행복을 바라서 걸었던 기대가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나의 욕을 걸게 한다. 누군가가 걸어 준 사랑의 목걸이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힌다.

나의 가벼운 기대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소설의 첫 장을 펼치던 마음과, 불이 꺼지며 영화가 시작되던 순간과, 선물 포장을 뜯어보던 마음과,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던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이 순간은 버려지고 만학의 미래만 남았구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목숨을 저버리는 사람아 너의 기대에 누가 무게를 실었는가?

 9  4

하현주(영어영문학과) 자주 글썽어보게 되고 생각해보게 되는 글인 것 같아요. 필자분의 좋은 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1/03
monday, pm 10:40 | 15위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일차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실망감은 찾아온다. 그 허탈함이 개인이 혼자 복치고 장구치고 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나태함으로 나타나는 것 일 수도 있다.

살면서 스치듯 사라지는 인연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의의를 두어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음에도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나랑 결이 다른 사람이어서, 또 내가 만학도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결국 나는 결도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게 다 내가 그대들에게 기대를 한 탓이다.

나의 기대는 내 스스로 컨트롤이라도 할 수 있지만, 타인이 나를 향한 기대감은 통제불능이다. "너를 위한 말이다, 너의 미래를 위하여" 라며 그들은 자기는 해 본 적도 없는 노력을

기대라는 말로 폭력을 휘두른다. 친할아버지는 친할머니가 푸신 이야기들과 내가 직접 겪은 할아버지를 통해 그는 일평생 한량이었다. 그런 그가 사랑이라는 일그러진 애정으로 공무원, 군인, 파일럿, 역사를 지금껏 내게 직업으로 삼으라고 말하였다. 우선 나는 위 직업군을 할 만큼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엄동이 힘이 없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나는 대학에 큰 뜻이 없어서 늦게 들어온 것도 있다. 결국 지금은 도피로 대학을 온 것이다. 점점 사회로 내몰아지는 상황으로부터의 회피. 이런 나에게 그런 직업군은 맞지 않다. 놀기 좋아하는 성향을 직계로 준 사람이 누군지 잊으셨는지, 할아버지부터 증명하시라는 말이 항상 목구멍에서 맴돌다 결국 삼킨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기대에 둘둘 감겨 압박감이 심해지면 다시 나는 새벽의 시간을 온 몸으로 느낀다. 가장 선명해지는 내 의식의 시간이자, 나 자신의 나태함을 가장 혐오하는 공간으로.

 6  3

조은채(간호학과) 타인을 향한 선부른 기대는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독이 되기도 하겠네요.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10:43 | 18위
정우형(정치행정학과)

#1일차

#기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대개는 어떤 상황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소비를 해서 탕진하고(제 얘기 아닙니다), 늦게 자서 키가 작고(제 얘기 절대 아닙니다), 과식해서 살이 찌고(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기대'의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만약 기대를 원인으로 본다면, 그 결과는 미지수이죠.
그렇지만 기대를 결과로서 본다면 원인에 의존하고 싶은, 기대고 싶은 마음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여라.",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다 잘 될 거야."가 그것입니다.
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대'라는 헛된 환상에 의존했고,
현실에 직면한 순간 빠르게, 그리고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또, 2021년작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간의 셀 수도 없이 많았던 기대, 그리고 그걸 완전히 덮던 실망이 떠오르더군요.

"그럼 뼈뼉하게 앉아서 비판만 하고 있어야 하나?"고 물으신다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온 바다를 개척해 나갈 때 근거 없는 믿음과 기대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더 철저히 공부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학기 라이팅 챌린지에서는

최우수상을 기대하게 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7 💬 4

김서연(콘텐츠it)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그저 긍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누군가는 실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글을 읽고 알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3
monday, pm 11:02 | 15위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일자

기대는 적절히

Gen.G Esports. 일명 젠지는 이젠 국민 게임이 된 리그오브레전드(롤)의 대한민국 프로게임단이다. 젠지는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 최강팀으로 불리고 있다. 국내 리그오브레전드 대회인 LCK의 우승컵을 연속으로 들어 올리며 그 무력은 여러 차례 입증된바. 그러나 유독 세계대회인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월드컵)'에서는 기를 못 쓰며 잘하면 8강, 많이 가빠야 4강을 넘기지 못하고 매년 활락의 고비를 마셨다. 젠지라는 이름으로 들어 올린 월드컵 우승컵은 팀이 해당 이름을 쓰기 시작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도 전무하다.

젠지가 월드컵에서 활락하는 날이면, 그날은 경기 영상을 담은 유튜브의 댓글이 말 그대로 창이 났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을 비난하는 댓글, 타 팀과 비교하며 젠지의 앞날을 저주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위로도, 격려도, 존중도 없다. 매년 "이번에는 다르다"며 기대를 받았던 젠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국내리그를 손쉽게 우승하며 '압도적인 월드컵 우승 후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이들 전인 11월 1일, 월드컵 4강에서 'KT 롤스터'에게 3:1로 패배했다. 댓글창에 역대급 비난이 쏟아지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감정은 적절한 선을 조절할 때만 삶에 이로운 요소다. 가령 분노는 불의에 저항하는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과해지면 삶을 괴락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질병이 된다. 그런데 현재 롤 프로리그를 즐겨 보는 사람 중 일부는 이 분노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인 듯하다. 눈을 찌푸리게 하는 댓글 중 일부는 젠지를 응원했던 팬들이 썼다. 기대를 너무 해버린 나머지 결과에 크게 실망하고 선수들에게 분노해 욕설과 원색적 비난을 참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 타 팀 팬들의 조롱은 덩이다. 기대를 조절하지 못했고, 그 기대가 분노로 변질되는 순간까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이들을 진정 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스포츠의 묘미가 바로 여기 있다. 경기의 결과는 결과창이 공인되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오는 긴장감, 원하는 미래를 위해 열정을 퍼붓는 선수들,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대하며 하나가 되는 관객들, 이런 모든 요소가 화합할 때 스포츠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 장면은 예술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롤이라는 게임이 E-Sports(이스포츠포)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롤이 단순히 게임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로 불리기 위해서는 팬들의 성숙한 댓글 문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온라인과 익명이라는 장벽 뒤에 숨어 자신의 비틀린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기대는 절대 예술이 될 수 없다. 과거 성남시는 마약, 술, 담배와 더불어 게임까지 '4대 중독'으로 묶으려 했다. 확실히 게임이 기대라는 감정을 분노로 변질되게 한다면 그것은 중독이자 질병이다. 이런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팬들이 먼저 노력해야 할 때다. 부디 그들의 기대가 분노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하지 않은 결과에도 견딜 수 있기를, 이스포츠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 6 💬 4

박혜원 (생명과학과)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죠.. 하지만 그 실망을 비난으로 돌지 않는 게 진짜 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03
monday, pm 11:31 | 12위
정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1일자 기대:

사람들의 기대를 양분 삼아 힘을 얻던 때가 있었다. 너는 또래보다 특출나, 너 성공할 거야, 너는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인 것만 같았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 믿음이 나를 더 노력하게 했다. 노력할수록 더 많은 칭찬과 시선을 받았고 나는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깨달았다. 어릴 적 조금 빠르다는 이유로 영재라 불렸던 나는, 결국 그 이름에 오만해진 사람이었음지도 모른다. 세상의 기대는 점점 높아졌지만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다. 특별하다고 믿어온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생각에 모든 의지를 잃었다. 특출나다는 것, 평범하다는 것.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말은 너무도 주관적이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평범함이 나쁜 것도 아니고, 특별함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었다. 그 기준은 결국 사회가 만들어놓은 틀일 뿐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틀에 맞추어 살았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며,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환상 속에서 나를

짜아내렸다.

나는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 나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나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사회는 여전히 기대에 부응한 사람은 특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범하다고 구분하지만, 이제 나는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인정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싶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 스스로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싶다.

😊 5 💬 3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내가 나에게 하는 기대와 남이 나에게 하는 기대는 미묘하지만서도 무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기대만 안고 살아가면 좋겠네요!

2025/11/03
monday, pm 11:55 | 12위
안도연(러시아 학과)

#1일차
#기대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대하며 산다.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오길,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앞으로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길..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같이 커지는 것 같다.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괜히 기대했나 봐"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온다.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면 덜 아플 줄 알았다. 하지만 기대를 완전히 버리면 마음이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들었다. 설레지 않고,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때 기대는 결국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걸 깨달았다.

물론 요즘 사회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심어준다. SNS를 켜면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꿈을 이루고, 또 누군가는 늘 행복해 보인다.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게 된다.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결국 비교로 이어지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기대한다. 완벽한 결과가 아닌 조금 더 나은 모습의 내가 되길. 기대는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자라게 만든다. 실망하더라도 다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뜻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또 한 번 내일을 기대한다. 실망보다는 행복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하면서

😊 4 💬 0

2025/11/03
monday, pm 11:59 | 11위
김영주 (화학과)

#1일차

두 손 모아 소망하는 당신을 나는 바라보고 있다.
겉이 많은 나는 당신의 옆 자리에 앉아 입을 댄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이루어질 염원에 대해서 말한다.
주저하다가 다시 한 번 묻는다.
정말 이루어 질까요?
당신은 믿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눈이 마주친다.
기대하는자의 눈빛은 대체될 수 없고
비교할 것이 없으며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은 낙담과 온전히 싸우고 있다.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나는 말 없이 그곳을 빠져나와 먼 곳으로 도망친다.
힘없는 무게가 아직 버겁다.

😊 4 💬 0

2025/11/04
tuesday, am 12:01 | 16위
송준하(백대어터전공)

#1일차 기대와 실망은 항상 붙어 다닌다.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기 나름이다. 모든 일이 항상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기대를 충족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도를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이다. 무기력과 패배주의가 학습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 삶의 의지가 많이 줄어들다. 기대심은 삶의 의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순진한 낙관주의 아닐까?

😊 6 💬 0

2025/11/04
tuesday, am 12:20 | 29위
김양선

#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첫 날 키워드가 무엇일지 '기대'하며 밴드를 열어본 친구들, 키워드를 가지고 무슨 글을 쓸지 궁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앞으로 3주 동안 글쓰기가 기대된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반갑습니다. 주위사람들의 기대, 나 자신에 대한 기대, 성과물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게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모두 성장하기 바랄게요. 11월의 나날들을

여러분의 다채로운 글을 읽는 기쁨을 누리길 '기대'합니다. 3주간 잘해봅시다.

😊 14 💬 0

2025/11/04
tuesday, am 1:27 | 15위
홍예진(바이오메디컬)

#1일차
기대

사람들은 저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한다. 나도 항상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고는 한다. 기대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부담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적절하면 기대를 받는 사람에게도 주는 사람에게도 좋은 효과를 준다. 그제 반해 너무 과하면 기대를 받는 사람은 무너지거나 기대를 주는 사람이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알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하는 기대는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으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 것 같다. 나도 안 좋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 여러번 노력했지만 자주 예전으로 돌아가곤 했다. 자신이 자신을 바꾸는 것도 힘든데 타인의 기대를 수용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기대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 6 💬 0



2025/11/04
tuesday, am 8:10 | 28일째
김수진

#2일차 키워드 : 비밀번호

오늘의 키워드는 '비밀번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비밀번호'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나요?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혹은 여러분만이 아는 소중한 비밀(암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소중한 비밀번호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번호처럼 숨기고 싶은 나만의 공간이나 이야기, 정보보호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 11 🗨️ 0



2025/11/04
tuesday, am 10:17 | 14일째
하현주(영어영문학과)

#2일차 : 비밀번호

비밀번호하면 나옴엔 자물쇠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 할머니와 같이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었던 순간이나, 초등학교 시절 사물함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이나. 내 속에 존재하는 비밀번호라는 키워드는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암호로 존재했던 순간보다, 옛날에, 우리곁에 디지털 보단 아날로그가 더 익숙했던 시절 존재했던 곁에 있던 사람과 비밀번호를 같이 설정하고 자칫하면 비밀번호를 까먹어 같이 애를 썼던 순간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고 소중한 다가오는 것 같다.

😊 8 🗨️ 6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옛날 그 시절에는 현재와 비밀번호가 정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현주님의 글을 읽고 공감도 되고 추억도 떠오르는 것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am 10:51 | 20일째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2일차 '비밀번호'

저는 '비밀번호'라는 키워드를 보면 제일 먼저 '윤하의 비밀번호 486'이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제가 두 살이었을 당시 즉 2007년에 발매된 노래였고 이 노래를 알게 된건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래방을 자주 갔을 때 한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도 가사였지만 486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인가 싶어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봤는데 그 숫자가 '사랑해'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의 획수를 따와 486이라는 암호를 만들었고 뽀빠 시대의 대표적인 암호들이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되게 신기하다" 이 정도의 생각이었지만 계속해서 노래를 듣고 곰씹고 생각해보니 호기심과 신기함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우리는 비밀번호가 나를 보호해 주는 수단으로 생각해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덜 발전했던 그때 그 시절은 비밀번호가 나를 보호해 주는 수단이 아닌 나 그리고 주변인의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암호 그 자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암호들을 통해서 연인, 친구,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비밀스럽고 친근하게 소통했다는 점이 비밀번호 하나만으로 그 시대의 모습 일부분을 보여주는 기분이 들어 왠지 기분이 오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이팅 챌린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그 비밀번호가 어떤 추억을 불러일으키나요?

비밀번호 486

전체 **곡정보** 관련영상 수록앨범 관련

You're my secret boy boy boy
boy boy boy
어렵다고 포기하진 않아줘
너 하나만 원하는 날 알아줘
비밀번호 같은 남자들에게
여자들은 늘 속곤 하는걸
날 애태우고 달랠줄 아는
니가 되길 바래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번 웃고
여섯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수 있도록
You're my secret boy boy boy
boy boy boy
boy boy boy
boy boy boy

😊 9 🗨️ 13

김서연(콘텐츠it)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486이라는 숫자는 그때 그 시절에 사랑한다고 말로 하는 것과는 약간은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am 11:50 | 21일째
윤지호(일본학과)

#2일차

'비밀번호'

이번에는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때는 내가 초등학교 1,2학년때이다. 그 당시는 토요일에 격주로 학교를 가서 놀토(노는토요일)라는 개념이 있는 때였다. 당시 나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 빠져있었다. 계기는 문방구에 파는 메이플스토리 딱지였다. 딱지치기만 하던 나에게 그 딱지가 게임이 원조라는 말을 듣고 메이플을 시작했다. 너무나 어린 나는 게임 회원가입 하는 방법을 몰라 아빠에게 회원가입을 부탁했고 아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정으로 게임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 혼자 했지만 아빠는 재밌어보였는지 우리는 번갈아가면서 같은 계정으로 게임을 했다. 아빠가 출근한 낮에는 내가 게임을 하고 저녁에는 아빠가 게임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덧 레벨 80을 넘겼고 4차 전직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메이플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레벨80을 찍는건 정말 몇달이 걸리고 몬스터를 잡아도 정말 경험치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땀과 지인의 도움으로 자람이라는 보스몬스터를 잡고 자람의 투구라는 정말 희귀하고 좋은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 당시 자람의 투구는 고레벨과 멧의 상징이었고 장착하면 캐릭터의 능력치가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다. 아빠는 그 아이템이 마음에 드셨는지 항상 장착하고 계셨고 애지중지 아끼셨다. 하지만 사건은 일어났다. 친구들과 찜질방을 가기로 약속한 날 나는 찜질방에서 메이플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찜질방 안에 있는 pc로 아빠의 계정으로 접속해 메이플을 즐겼다. 다음날 저녁 메이플에 접속해 보니 아빠와 내가 몇달동안 키운 캐릭터의 아이템과 메소(게임 돈)가

전부 사라져있었다. 물론 자음의 투구도 말이다. 처음에는 오류인줄 알고 아니 오류일거라 믿고 몇번을 재접속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아버지께 알리자 아버지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게임을 접속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지 나랑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그렇게 몇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결국 아버지는 극대노를 하고 몇달동안 키운 캐릭터를 눈물을 머금고 삭제하셨다. 아버지는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내가 모르게 바꾸고 새 캐릭터를 생성했고 나도 회원가입을 해서 우리 둘은 각자 새로운 캐릭터를 키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직업은 도적이고 내 직업은 전사였다. 물론 우리 아버지의 진짜 직업은 회사원이다. 아버지는 한번 키운 경험이 있어서 금방 고레벨을 달성했고 나는 꾸준히 몬스터를 잡으며 느리지만 천천히 아버지의 레벨을 따라갔다. 아버지가 고레벨이 되자 나는 아버지께 펠과 훈지(고레벨 유저가 저레벨 유저를 도와주는것)를 부탁했지만 국룰도 없었고 아버지가 만든 길드에 가입신청을 하면 길드장인 우리아버지는 칼거절을 하기 일쑤였으며 파티사냥은 어렵도 없었다. 심지어 내 캐릭터의 인기도를 내린적도 있다. 여하튼 그렇게 우리아버지는 200레벨을 달성하고 게임을 접으셨고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나에게 절대 본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주거나 빌려주거나 하시지 않으신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존경하고 같은 게임을 한 유저로서도 존경한다. 그 당시 메이플은 200레벨이 최고레벨이며 200레벨을 찍는것은 절대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우리아버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200레벨을 찍으셨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디어와 비밀번호 계정은 절대 남에게 빌려주지말것 그리고 비밀번호는 어렵게 설정할 것 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참고로 당시 200레벨을 찍은 우리아버지의 캐릭터 닉네임은 '독고다아' 였다.

😊 3 💬 4

하현주(영어영문학과)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04
tuesday, pm 12:29 | 2298
문전우(철학자)

#2일차 비밀번호

우리는 너와 나를 구분하고 '너'가 '나'의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만 알고 있는 번호를 잠그게 되었다. 그 속에서 나는 안전하나 곧 권태를 느끼게 되었다. 안전하다는 건 변화가 없는 일. 변화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줌으로 나는 나를 보호하겠다는 명분하에 스스로 도태를 걸었다. 지옥에 대한 여러 서술 중에 가장 나를 두렵게 한 것은 변화하지 않는 무간지옥인 것 같다. 그 속에 죄인들은 안전하다고 믿으나 이는 곧 스스로를 영원히 인지하지 못하는 형벌이기에 나 또한 무간지옥에 갇혀있었다.

그런 지옥에서 탈출한 건 단순한 계기였다. 나는 학창시절 내가 원하는 특성화고 대신에 주위의 성원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당연히 나는 적응하지 못했고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책이라도 읽으라고 했던 계기가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다. 무슨 책이든 읽자는 마음에 집에 있던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읽었다. 주인공과 나는 인종도 삶을 살아온 태도도 모든 것이 달랐으나 오직 하나의 부품으로서 상실해 가는 인간이라는 점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동정하게 되었다. 동정이란 불쌍히 여긴다는 뜻도 있지만 한자 뜻을 풀이해 보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이다. 나는 잊었던 마음의 도어락에 동정이라는 비밀번호를 열고 밖을 나오게

되었다.

그 후로 활자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다. 책은 하얀 심연에 검은 별로 빛나는 우주 같았다. 그런 우주를 많이 바라볼 수록 내 가슴 속에 파도가 격하게 차올라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 주었다. 명징한 정신으로 타인에 대한 궁금증이 봉우리처럼 오르고 타인의 비밀번호에 공감을 누르며 들어갔다. 타인의 속 깊은 바다를 들여다보면 나태함에 편히 누워 세상을 어렵짐작 했던 미움함이 내 얼굴을 붉게 만들곤 했다. 반대로 타인의 미움함으로 나의 개성이 위협받을 때 책은 안전한 비밀번호가 되어 나의 철문이 되어주었다. 사람간에 증상모략한 혐오는 무지에 기반을 두고 있음으로 나의 방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독서는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입, 나의 코이며 비방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다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바둑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창호 9단의 말로 이 글을 매듭짓고 싶다. '상대방이 역류를 일으켰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그러니 나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자세야말로 최고의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 3 💬 4

하현주(영어영문학과) 동정의 한자 뜻풀이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었군요. 깊게 빠져있게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필자들의 좋은 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11/04
tuesday, pm 12:37 | 1898
김서연(콘텐츠비)

#2일차 키워드 :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나에게 매년 작은 어려움을 준다. 혹시라도 털릴까 싶어 사이트마다 같으면 안 되고, 어딘가에 적어놔도 안 된다. 그렇다보니 사용하는 비밀번호만 10가지가 넘는다. 그 중 기억하는 건 자주 사용하는 3개 정도다.

핸드폰에서 로그인을 하면 그 기록이 남아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로그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굳이 비밀번호를 외울 필요가 사라진다. 하지만 아예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을 해야 할 때는 비밀번호를 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럴 때마다 기억을 더듬으며 하나둘씩 쳐본다. 그러다 결국 4번째 실패를 하고 나서야 비밀번호 찾기를 누른다. 그렇게 변경한 비밀번호만 한 달에 4~5개는 된다. 이렇게 자주 변경하다 보니 이제는 더 헛갈린다. 심지어 변경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비밀번호를 또 변경한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내 기억력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탓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어딘가에 적어놓기는 불안하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다 보니 이제는 그 상황이 오면 한숨부터 나온다. 특히 새 폰으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새 폰으로 변경하게 되면 로그인을 하나하나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앱만 20개는 넘는 것 같은데 언제 다 로그인할 수 있을지 한숨을 쉬며 결국 당장 사용하는 앱만 로그인하곤 한다. 몇 달 전에 폰을 새로 바꿨는데 아마 지금도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앱이 몇 개 있을 거다.

😊 3 💬 4

김수진(미래융합스쿨) 저는 그래서 모든 비밀번호를 통일해서 쓰는 것 같아요 여러 개 쓰면 헷갈릴 것 같아서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pm 12:42 | 20일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2일차 "비밀번호" 키워드를 생각하면 저는 가장 먼저 게임 계정이 생각납니다. 우선 게임 계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면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카트라이더, 발로란트, 오버워치 등 많은 게임을 접목했지만,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물론 게임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오버워치 아이디 계정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같이 공유했습니다. 저는 계정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2~3개 정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계정을 빌려주고 나서 저도 게임을 하기 위해 계정 로그인을 하고 게임에 접속했는데 계정이 영구 정지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 계정을 몇 일 정지를 받은 적이 있으나, 영구 정지가 돼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제 계정을 빌린 이유는 친구는 자신의 지인에게 제 계정을 빌려주고, 친구의 지인은 제 계정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제 계정으로 게임에서 심한 욕설과 비매너 플레이로 제 계정을 영구 정지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한 게 싫어서 친구에게 좋게 물어봤는데 친구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긴 겁니다. 그 친구랑 고등학교 졸업식 이후로 연락을 끊고 지내기로 마음 먹고, 그때 이후로 저는 누구든 계정을 빌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비밀번호는 게임 계정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 마음의 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준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다시 한 번

비밀번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요?

😊 11 💬 8

김서연(콘텐츠it) 남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욕설과 비매너 플레이를 하다니.. 저도 계정을 가끔 빌려주는 편인데.. 조심해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pm 3:20 | 20일음
김서연(중국학과)

#2일차 비밀번호.
이 단어를 보면 괜히 긴장이 된다.
잊어버렸나? 틀렸나? 다시 설정해야 하나?
오늘도 로그인 한 번 하려다가 세 번은 막혔다.

각 사이트마다 다른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건 때문에
내 손가락이 진심으로 삐끗했다.
결국 재설정 눌렀더니, 매일 인증에 문자 인증까지...
중간에 짜증이 나서 내가 내 계정에 로그인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비밀번호는 단순히 계정의 열쇠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나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어버렸다는 것.
내가 쓴 글, 내 사진, 내 친구들, 내 기록들.
그 모든 게 숫자와 문자 몇 개의 조합에 달려 있다니
참 이상하면서도 무섭다.

SNS 해킹 뉴스 볼 때마다
괜히 나도 누가 내 계정에 들어올까 불안해진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또 까먹는다.

결국 오늘도 나는 '본인 인증'이라는 싸움을 했다.

자주 접속하지 않는 사이트는 매번 잊어버리고는 한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다.
이번엔 제발, 기억하자.

😊 8 💬 5

채은비(생명과학과) 본인인증은 언제나 성가시죠... 잘 읽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pm 4:23 | 17일음
김영주 (화학과)

#2일차

누군가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번호'입니다.
특히 비밀번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보안용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어떤 번호를 사용하시나요? 보통은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이용할까 싶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특정번호가 확인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통해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한 프로그램에서 무명가수를 접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감정에 온전히 힘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잠시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재생할 때면 생기와 작은 행복이 있었고, 그 존재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감정은 둔해지거나 흥미를 잃고 곧 잊히게 됩니다.

보안 번호를 새로 만들어야했던 그 당시에, 저는 생각없이 그 가수의 참가번호를 입력해 넣습니다.
한 번 그렇게 사용을 하고나니 그 이후 대부분을 같은 번호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무심코 등록해버린 번호가 지금까지 과거의 나를 떠오르게 합니다. 좋아했던 노래와 가수의 진상, 첫 소절을 듣고 입을 틀어막은 채 모니터를 바라보던 저의 모습들이 그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의식이 닿기도 전에, 나의 인생 곳곳에 어떤 영향력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노래를 직접 듣지 않아도 비밀 번호를 생각해 내는 순간조차 잊혀진 어떤 기억을 떠올리니 말이죠. 희미하지만 분명히 실재했던 그날들로부터 받는 작은 온기들이 있고, 그런 사소한 것들에 기대어 이어지는 것이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8 💬 3

조은채(간호학과) 사소한 것 같은 비밀번호에도 소중한 기억이 들어 있네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기를 꿈꾸게 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pm 4:35 | 14일음
정서현(법학과)

#2일차 '비밀번호'

나에게 비밀번호는 항상 고민거리이다.
하나의 계정에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보다는, 주제에 따라 계정을 나누어 쓰는 것을 좋아한다. 항상 계정을 만들 때 비밀번호가 골치덩어리이다. 처음에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기도 귀찮고, 딱히 좋은 조합이 떠오르지도 않아서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하나로 통일해버렸었다. 한 번 휴대폰이 해킹당할 위험에 처한 적이 있어서

그 때부터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나의 추억 암호이기도 하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생일 날짜나, 나의 개인적인 기념일, 꼭 기억하고 싶은 날짜 등을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편이라, 가끔씩 비밀번호를 입력하다보면 좋아했던 연예인이 떠오르기도 하거나 기념일이 떠올라서 추억에 잠기곤 한다.

😊 7 💬 5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비밀번호를 만들고 그것만 쓰는 편이에요 잘 까먹을 것 같아서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pm 4:53 | 12위
정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 비밀번호

어느날 학교갔다가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가 갑자기 기억이 안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말이다. 키패드에 손가락을 올리고 기억을 더듬어 눌러보려는데 머리가 새하얗다. 머리속에 떠오르는 익숙한 번호들이 있지만 뭔가 아닌것 같은 예감이 들고 실제로도 아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내 머리속은 하얗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분명 어제 산책하고 나서 이 현관문을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다. 근데 비밀번호를 입력했던 순간은 기억이 안난다. 다른 이웃이 먼저 비밀번호를 눌러 연 현관을 따라 들어갔었나? 그제야는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문을 열었을 때 쯤썩 들어갔다. 털이 복슬복슬한 하얀 개와 함께 산책을 나오는 이웃이었는데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기억하고 있다. 어제는 부모님이 사용하는 카드키를

사용해서 같이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다. 차키에 같이 있는 카드키는 현관에 가까이 가져가기만 해도 문이 열린다. 카드키는 처음 이 집에 이사왔을 때 가족 수만큼 받았다. 엄마아빠는 카드키를 들고 다니고, 나랑 동생은 안들고 다니므로 카드키가 아직 두개나 남아있다. 여분의 카드키는 책상서랍 어딘가에 던져놔던 기억이 난다. 그게 있으면 현관을 열 수 있을것이었다. 빨리 카드키를 가져와서 현관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카드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렇게 나는 집에 들어와 책상서랍 속 카드키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람은 가끔 멍청해질 때가 있다. 너무나 익숙해져버려 생각을 거치지 않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데, 이후 생각해보면 그 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난다. 나는 집에 와서 카드키를 찾을 때까지 내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너무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동에 익숙해진 나머지, 아무생각 없이 카드키를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만 하다가 왜 카드키를 가져와야 하는지도 까먹고 말았다. 익숙함은, 때로 생각보다 더 완벽한 최면이다.

😊 7 💬 4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가끔씩 문득문득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당연한 기억이라는 생각이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복기시켜야겠네요!



2025/11/04
tuesday, pm 6:45 | 17위
정우현(철학과)

#2일차

비밀번호 즉 비밀에 대한 암호이다. 나는 비밀번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냥 내가 평소에 쓰던 비밀번호를 사용한다. 나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중학생 때 게임 아이디를 거래한 것이 유일하다. 그만큼 나의 비밀번호는 소중한 것이다. 그만큼 아니라 나는 평소에 비밀이라는 것을 잘 말하지 않는다. 알려줘도 상관없을만한 정보들만 말을 한다. 그러나 누군가한테는 말하지 못할 말들도 서서치 않게 된다. 이것이 비밀일까?

나는 비밀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게 됐다. 비밀을 말함으로써 후회가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추고 싶은 비밀을 만들지 않게 됐다. 비밀은 감추고 싶어 하는 무언가인데 감추고 싶은 것이 없으면 비밀은 없어진다. 그리고 실령 부끄러운 기억이라도 나에게서는 비밀이 아니다. 나의 일대기 중 하나일 뿐 비밀로 취급하고 싶지는 않다. 그만큼 나는 나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비밀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다는 것이고 남다른 무언가를 갖게 해준다.

감추는 사람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고 드러내도 좋은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발전 동력으로 쓰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는 밝혀도 뽀뽀할만한 비밀들을 만들고 싶다. 감추면 감출수록 나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바보가 된다. 그렇기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보여주어도 뽀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비밀로 인해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ps.리플리 영화는 꼭 보세요! 리플리 중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5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마치 들리고 싶은 비밀처럼 느껴집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비밀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2025/11/04
tuesday, pm 6:54 | 13위
유채원(일본학과)

#2일차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푸는 재미. 키워드를 보자마자 나는 방탈출이 생각났다. 몇 달에 한 번씩 방탈출 게임을 즐긴다. 막상 탈출했던 적은 한 손에 꼽히지만, 비밀번호를 푸는 점이 내 머리를 기분 좋게 달군다. 비밀번호를 풀어서 자물쇠가 열릴 때 휘몰아치는 짜릿함이 정기적으로 나를 방탈출의 세계로 이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비밀번호가 있다. 중학생 때 친구와 단둘이 방탈출 카페에 갔었다. 우리는 힌트 힌트를 전부 소모하였고 마지막 자물쇠만이 남았다. 단서가 될만한 것은 숫자로도 그림으로도 글자로도 안 보이는 검은색들이었다. 친구와 나는 3분 동안 "뭐지."라는 소리만 반복하는 영무세가 되었다.

말과 비슷한 형식의 느낌이었다.
이게 무엇이냐 생각하는가?



직원이 들어와서 한 문제 남았는데 아쉽다며
정답을 알려주었다. 답이 생각보다 쉬워서
맥이 빠졌던 기억이 있다.

답은 데칼코마니!
각 칸에 있는 검정을 아래로 도장 찍듯이
그러보면, 왼쪽부터 순서대로 3081로 해석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친구와 '데칼코마니'를 한숨처럼
내뱉었다. 그날 이후 데칼코마니 비밀번호를
방탈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그 사실이
저 기억을 더 선명히 하였다.

😊 7 💬 5

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와 데칼코마니!
방탈출에서 데칼코마니 암호는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2025/11/04
tuesday, pm 7:11 | 15명
최은실(국어국문학과)

#2일차
#비밀번호

도어락에 어떤 잘못된 숫자를 눌러도
마지막에 입력된 번호와 비밀번호가 맞다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 저는 '비밀번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런 도어락의 기능이
부모님과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몇 번을 틀려도
기회가 있고 나중에 다시 시도할 수 있어서
이것저것 입력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곤
합니다. 그런 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은 마음의 문이 닫힌 걸 보게 되죠.

흔히 비밀번호라면서 다시 찾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을
열기까지 오래 걸리곤 합니다. 저는 여러
번명, 핑계 끝에야 '용서'를 구했고, 부모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서로를 믿기에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마스터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7 💬 1

최지운 (사회복지학과) 둘 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나길 바라요!

2025/11/04
tuesday, pm 7:32 | 15명
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2일차 : 비밀번호

어려본은 기숙사에 사시나요? 아니면 자취를
하시나요? 전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은
본가에서 보냅니다. 이게 비밀번호랑 무슨
상관이나가요? 곧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왔다갔다를 하다 보니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무려 3개나 됩니다. 집 비밀번호,
아파트 단지 비밀번호 그리고 기숙사
비밀번호 이렇게요. 그래서인지 비밀번호를
바꿔 입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가기야 하는데 자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곤 '이게 왜 안열리지?'하며
다시 눌러봅니다. 한 세 번쯤 입력하면 그제야
지금 기숙사에 있다는 걸 깨닫곤 제대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별 생각없이
비밀번호를 누르다보니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할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누르려고도
해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자체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포기하고 누르기로
했습니다.

문이 안 열릴 때마다 제발 룸메이트가 방에
없기를 바랍니다. 방에 있는 룸메이트
입장에선, 비밀번호를 세 번이나 틀리면 제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방 문을 열려고 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라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없겠지..?'
하면서 문을 열면 도랑도랑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룸메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하.

😊 8 💬 5

허태원(소프트웨어학부) 다른 말이지만 저는 가끔
기억이 안나면 무의식으로 눌러보려 해요 가끔 제
손가락이 저의 기억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025/11/04
tuesday, pm 8:35 | 16명
채은비(생명과학과)

#2일차
#비밀번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다빈치 코드는 추리/스릴러/미스터리 장르의
소설로, 추리소설답게 수많은 수수께끼와
암호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출간
이후 가장 큰 인기를 끈 트릭은 '크립텍스'
라는 휴대용 금고이다. 크립텍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26자의 알파벳이 새겨진 다이얼 5개를
정확한 비밀번호로 맞추어야 하는 물건이다.
그 안에는 내용을 기록한 파피루스가 담겨
있다. 하지만 억지로 열으려고 한다면
크립텍스 안의 식초 병이 깨져 파피루스를
녹여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영영
내부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번 라이팅
챌린지의 주제를 보면 크립텍스가 떠오른다.
오늘의 주제는 왜인지 모르게 너무 어려워져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머리를
부여잡곤 공공 앓아야 했다. 비밀번호의
사전적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밀번호와
자물쇠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나 까지
올라가고 나서야 번호식 자물쇠에서부터 저
크립텍스가 떠올랐다. 다빈치 코드에서
시작돼서 수많은 애호가들에게 비밀 금고의
상징이 된 크립텍스. 그리고 그 비밀번호.
편법 따위는 통하지 않고 오로지 그
비밀번호로만 풀 수 있는, 잘못 건드렸다면
영원히 비밀을 묻어 버린 채로 사라져 버리는
금고. 비밀번호가 없다면 그 안에 든 것이
보물 지도든, 위험한 비밀이든 무엇이든 그저

끈적하게 녹아내린 섬유질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 8 💬 2

조은채(간호학과) 되게 갖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금고네요...! 저도 이번 주제 읽기 어려웠어요... 잘 읽고 갑니다.

2025/11/04
tuesday, pm 8:48 | 14 읽음
허태원(소프트웨어학부)

#2일차

나는 수 많은 비밀번호를 써왔다. 어렸을 적 처음 인터넷을 접하며 나만의 비밀번호를 만들어 게임 계정을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살아오며 수 많은 비밀번호가 생겼다. 비밀번호는 기억과 습관으로 쌓인다. 처음엔 복잡하고 자주 틀리지만 어느새 손가락이 먼저 알고 있다. 그 익숙함 속엔 나의 과거 그리고 나만 아는 흔적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밀번호는 점점 늘어나고 또 잊히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간다.

새로운 삶의 조각을 쌓을 때마다 이전의 나는 점차 사라져가는 것 같다.

오늘 이 글을 쓰며 과거의 내가 쓰던 비밀번호를 떠올려 보았다.

그 속에는 어린 시절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처음으로 만든 SNS 계정, 집 비밀번호, 휴대폰을 장그던 손가락의 습관이 있었다.

단순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이지만 그 안에서는 내 인생의 시간이 숨어 있다. 비밀번호는 단지 보안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현재의 나의 삶을 지켜주고 다시 추억하게 해주는 조용한 열쇠 같다.

😊 6 💬 2

박혜진(빅데이터전공) 비밀번호와 함께 추억도 쌓아가네요

2025/11/04
tuesday, pm 9:17 | 14 읽음
조은채(간호학과)

#2일차 #비밀번호

부모님과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지 꽤 됐다. 어린 시절엔 안전을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통제를 받았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건 당연했다. 내가 수상한 검색을 보였을 때에는 휴대폰 잠금을 열어 기록을 확인 당하는 일이 꽤 있었다. 내가 비밀번호를 바꾼다 해도 어차피 부모님이 열려면 열어야 했기에, 언젠가부터는 그냥 그대로 두었다.

지금도 부모님은 나를 어리게 여겨서인지 그리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차츰 나이를 먹으면서 내 휴대폰은 오로지 나만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자유가 인생의 목적(?)인 나로서는 휴대폰만이라도 더 이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만약 지금까지도 종종 휴대폰 검사를 받아야 했다면 휴대폰에 일기도 못 쓰고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상대가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은행 계좌 비밀번호는 자기만 알고 있었지만, 연인과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란 이처럼 친밀하고 믿을 수 있는 사이란 뜻이기도 하다. 물리적 로그인이 관계의 로그인을 의미한다는 점이 재미있다.

마음을 연다는 건 무슨 뜻일까. 부끄럽지만 나는 아직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 것 같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 충격이었다. '내가 나한테 마음을 연 건지 모르겠다.' 친구로 지낸 지 한참 된 후였는데도... 친구라고 생각한 건 나뿐이었는데도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후 한동안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고민하기도 했다.

각자 지킬 것들이 많은 오늘날에는 디지털 도어락, 공동현관, 온라인 계정 등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일이 참 많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범죄들이 생겨나는데 보안이 강화되는 것이 당연하겠지. 개인주의의 산물이기도 하겠다. 나도 어쩌면 마음에 비밀번호 입력 창을 띄워 두고 살았는지 모른다. 비밀번호가 보편화된 세상에 익숙해진 탓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 7 💬 9

원보경(생명과학과) 저는 반대로 친구가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나 하고 속상했어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오히려 친구의 열려있는 마음을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나 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pm 9:19 | 6 읽음
윤여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2일차 #비밀번호

비밀번호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보통은 가족 생일이나 의미 있는 기념일 등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만, 그 때의 전 원가 특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비밀번호 대신 랜덤한 숫자들을 정해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무조건 까먹을 거다"라고 몇 번이고 경고하셨지만 새겨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열려고 하는데 어제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완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 봐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뒀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밀번호를 알려면 메모장을 봐야하는데, 메모장을 보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자존심이 남아있던 저는 엄마 말대로 비밀번호를 까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저는 비밀번호가 잠긴 휴대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콜렉트콜을 이용했습니다. 부모님은 왜 자주 콜렉트콜을 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냥 콜렉트콜을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해서요."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핸드폰을 쓰지 못하는 불편함이 자존심을 이겼고 부모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실직고했습니다. 부모님께 크게 잔소리를 듣고, 결국 수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초기화하며 해프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기억이지만 초등학교 당시의 저는 엉뚱하고 독특해보이고 싶어했고 그에 못지 않게 자존심도 엄청 강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겪었던 어이없는 에피소드가 이외에도 여러개 있는데, 오늘의 주제를 보고 이 에피소드가 바로 생각나서 적어보았습니다.

적다보니 다른 분도 혹시 어렸을 때 있었던 어이없고 황당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공유해주세요 :)

😊 3 💬 1

김서연(콘텐츠) 전 비밀번호도 비밀번호지만 유독 패션을 잘 기억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번 어려운 패턴으로 설정하고...결국 까먹고

2025/11/04
tuesday, pm 9:32 | 14위
박해원 (생명과학과)

#2일차 : 비밀번호

비밀번호 하나 만들기도 이제는 참 어렵다. 대문자 하나쯤은 기본이고 특수문자까지 들어가야 한단다. 길어도 짧으면 안 된다. 시스템은 끊임없이 지적한다. 이 비밀번호는 너무 약해요. 더 강하게 설정하세요. 마치 누군가가 정말로 내 정보를 훔치려 버리고 있다는 듯한 경고. 정말 나를 위한 건지, 그저 모두가 출연 중인 어떤 연극에 참여한 것 같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이 연극에 꽤 진지하게 임한다. 특히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를 대비한 보안 질문을 설정할 때면 더욱 그렇다. 답은 늘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초등학교 때 키우던 감자지 이름, 나의 선생님 성함, 나의 보물 1호 그저 기억에서만 존재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장치가 된다.

가끔은 나도 그 답을 잊는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기억을 더듬어 본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다 보면 어렴풋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묘한 기분이 든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무엇을 기억하려고 했는지. 미래의 나는 이걸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며 어린 내가 자신 있게 남긴 흔적. 더 큰 나를 믿었던 나에게 미안해진다.

나만 아는 이야기로 만든 열쇠, 스스로에게 보내는 암호가 나를 지킨다. 누구도 열 수 없는 문을 나의 기억으로 여는 일. 지금은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왜인지 모르게 아직도 나는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만든다.

😊 5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어쩌면 나에 대해 고심하게 되는 일상 속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변경하고 설정할 때마다 고마워할 수도 있겠네요!

2025/11/04
tuesday, pm 10:58 | 11위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2일차 #비밀번호

[마흔일곱 번째 접시]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체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 힘을 가늠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추상적인 것을 창조해 내는 입에도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분명 더 괜찮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말을 느끼게 하는 사람, 한 박자 쉬었다가 말하는 사람, 어쩌면 고심하느라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타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뽀뽀뽀, 오늘의 뭉 접시가 닳았습니다.]

😊 3 💬 0

2025/11/04
tuesday, pm 11:03 | 7위
원보경 (생명과학과)

#2일차 #비밀번호

전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 똑같은 것으로 해둡니다. 그게 불가능할 경우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비밀번호를 해두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주 까먹어서 비밀번호 찾기로 비밀번호를 찾거나 비밀번호 변경을 눌러 새 비밀번호 바꿉니다. 그런 이유에서 가장 최근에 비밀번호를 까먹은 이야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약 삼주전 추석연휴가 끝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올때였습니다. 기숙사를 쓰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기숙사 방은 한 학기당 바뀌고 그에따라 방 비밀번호도 당연히 바뀝니다. 그렇기에 제 머리속의 기숙사 비밀번호는 약 3 개 정도가 아직도 가먹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숙사에 계단에서 '이번학기의 기숙사 비밀번호가 무엇이지?'라 생각하면서 걸었던 결과, 전 결국 이번 기숙사 비밀번호를 제외하고만 다 기억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의 룸메이트들도 이제 다시 기숙사에 오고있기에, 기숙사 방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게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룸메이트가 연락을 받아 전 무사히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의 비밀번호와 관련된 이야기는 매우 허무하게 끝났지만, 이 일로 인해 저는 기숙사 비밀번호를 완벽하게 외우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와같이 기숙사에 못 들어갈 일이 없길 바랍니다.

😊 4 💬 0

2025/11/04
tuesday, pm 11:09 | 10위
정우림 (정치행정학과)

#2일차 #비밀번호

오늘은 좀 민망한 이야기를 써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학생 시절, 제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어떤 일이든 제 편에 서주면서도 조언 역시 아끼지 않는 그런 친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누나를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다소 유치합니다만, 비밀번호를 그 누나의 생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누나의 생일이 제 생일과 열흘밖에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이폰 암호부터 넷플릭스 PIN 그리고 체크카드 비번까지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을 크게 바꿔놓은 어떤 이벤트가 있던 뒤로,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번엔 그 누나도 예외가 아니었죠. 배신감보단 죄책감이 몇 겹은 더 앞섰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그렇지만 이 여운이 나를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저를 신경 쓰게 합니다. 안 그래도 저의 그 어려웠던 중학교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누나도 떠오르는데, 아이폰이며 각종 사이트 비밀번호, 캐리어 비밀번호 등 하도 많은 비밀번호에 그 누나를 녹여놓았기에 자꾸만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제시어와 그에 대한 제 글을 계기로,

오래 붙잡고 있던 비밀번호들을 하나둘 바꿔나갈까 합니다.
그런 일은 나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천천히 기억들이 잊힐 테지만,
동시에 그때의 제 진심은 오래 남아 있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4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그때는 비밀번호를 볼 때마다 든든하게 느껴졌을 것을 생각하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비밀번호와 함께 좋은 날들만 가득하길 바라요!



2025/11/04

tuesday, pm 11:18 | 9위
심윤진(바이오메디칼학과)

#2일차

우리들은 모두 다른 비밀번호를 품은 채 존재한다.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우리 안에는 조용히 흐르는 암호가 있다.
DNA의 네 글자 A, T, C, G.
그 단순한 기호들이 조합되어,
우리 몸의 언어가 된다.
세 글자씩 묶이면 코돈이 되는데,
총 64개의 코돈 중 61개가 단백질의 재료인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나머지 3개는 멈추라는 신호를 준다.
이 간단한 규칙을 따라,
우리 각자의 몸은 세포 속에서
매 순간 자신만의 문장을 번역해낸다.

나는 아직 해독 중이다.
내 안에 어떤 코드가 있는지,
무엇이 나를 작동시키는지.

가끔은 오류도 생기고, 수선도 이루어진다.
이 또한 나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언젠가 내 안의 암호가
누군가에게 정확히 닿길바란다.
나는 계속 입력하고, 지우고, 다시 쓴다.
내 삶이라는 긴 서열 속에서
조금씩, 아주 작은 단위로
해독되고 번역되는 나를 그대에게.

😊 4 💬 2

조은채(간호학과) 이과식 고백(?) 같아서
설레네요... 우리 몸에도 암호가 있다는 걸
간파하고 있었어요. 좋은 시 잘 읽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pm 11:33 | 11위
홍예진(바이오메디칼학과)

#2일차 비밀번호

평상시에 우리는 비밀번호를 자주 쓰고는
한다. 문을 열 때에도,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
때에도, 은행 앱을 들어갈 때에도 비밀번호를
쓴다. 우리는 대체 비밀번호를 왜 쓰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비밀번호는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라
생각한다.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사생활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고, 집 도어락을 열거나 은행 앱에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또한
사람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비밀번호는 꼭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하지만
막상 바꾸라고 알림이 뜨면 귀찮아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자주 미루는 사람도 종종
보인다. 그래도 보안을 위해서 꼭 바꿔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혹시 평소에 비밀번호를 바꾸기 귀찮아
미뤘던 사람이 있었다면 보안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 내에 바꾸는 것은 어떨까?

😊 5 💬 3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90일 지나면 비밀번호
변경하라는 메시지를 보고도 종종 넘어갈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바로바로 바꿔야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pm 11:41 | 10위
김수진(미래융합스쿨)

#2일차 주제: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신뢰가 사라진 사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비밀번호를 만들게 되었을까?
신뢰가 깨지며 보안이 생기고, 감시가 생기고
이는 자기검열 사회로까지 나아간다.

비밀번호는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앱들은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ns, 이메일, 학교 앱, 쇼핑앱 등등

우리는 이제 이름보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비밀번호는 단순한 숫자 조합이 아니다.
나의 생일,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 기념일
등등
비밀번호는 나를 증명하는 암호 문장이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나다운 흔적들이다.

비밀번호는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코드이자, 나를 잊지 않기 위한 작은
자물쇠이다.

😊 4 💬 1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비밀번호는 신뢰가 사라진
사회적 상징이다 라는 문장이 공감가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4

tuesday, pm 11:53 | 8위
최연수(인문방송융합미디어전공)

#2일차

영원한 비밀은 없다

2023년 7월, 그 시기에 경상북도 예천군에는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난 듯 폭우가 쏟아졌다.
갈수록 불어나는 강줄기에 시민 몇몇도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다. 지자체는
실종된 시민들을 수색하고자 급히 해병대를
동원했다. 그렇게 실종자를 찾으려 범람한
하천에 들어간 해병대원 한 명이 있었다.
문제는 안전 장비가 없었다는 것. 그가 들어간
순간 하천 바닥이 갑자기 폭 꺼졌다. 그대로
급류에 휩쓸린 그는 14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채수근 일병(당시 계급)은 그렇게
세상에 돌아오지 못했다. 현재 세상에서 흔히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불리는 일의 개요다.

한 청년의 죽음에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다. 책임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 한
명은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을 맡았던
임성근 소장이다. 해병대 1사단은 7월 15일
사단장 주권으로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경북 지역 복구현장 투입에 관해 논의했다.
이때는 '실종자 수색'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해병대원들은 안전 장비 없이 포대
자루와 장화, 삼과 곡괭이를 챙겨서 현장으로
출발했고, 임성근 사단장은 대원들이 떠나기
직전야 "실종자 수색도 과업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결국 사단장의 늦은
명령으로 인해 해병대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챙길 시간은 없었다.

국민 여론이 거세지고, 순직해병 특검이 꾸려졌다. 임성근 사단장은 폭우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에게 있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에서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로 구조 수색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성근 소장은 자신의 핸드폰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것도 특검 수사가 시작됐던 때부터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는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던 올해 10월에서야 핸드폰 비밀번호가 기억이 났다며 특검에 제출했다. "하나님의 거적으로 떠올랐다"라고 말하며 2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허겁지겁 제출한 그의 모습에서는 명예도, 정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비밀번호는 만능이 아니다. 문명의 진보 속에서 만들어진 정보 보안의 결정체는 한 인간의 비겁한 허물까지 가릴 수 없었다. 역시,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없다.

😊 5 🗨️ 0

 **2025/11/04**
tuesday, pm 11:57 | 12위
안도연(러시아 학과)

#2일차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잊었다.
매번 새 걸 만들 때마다 꼭 기억하자 다짐했는데 결국 그 다짐도 매번 잊었다.
사실 내 비밀번호엔 늘 작은 의미가 있었다. 그랜 좋아해서 넣었던 숫자, 좋아하던 영화 캐릭터,

또는 아무도 모르게 만든 단어들 등등 근데 지금은 그 단어들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정했던 건지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걸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때의 나는 이미 바뀌었으니까 비밀번호 하나에 담았던 생각조차 지금의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로그인 창을 볼 때면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라는 문장이 마치 그 당시의 너가 기억나고 묻는 것 같이 느껴진다.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할 때마다 나는 또 새로워진다. 대문자 하나, 특수문자 하나, 숫자 몇 개를 섞어 새로운 나를 만든다. 그렇게 업데이트를 거듭하다 보면 예전의 나는 점점 로그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 하지만 가끔 오래된 계정에 간신히 로그인 할 때 아직 완전히 잊힌 건 아니구나 하며 미묘한 감정이 든다.

😊 4 🗨️ 1

김서연(콘텐츠)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025/11/05**
wednesday, am 12:00 | 16위
송준하(빅데이터전공)

#2일차 "비밀번호"라고 하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듣기 좋은 '음'은 아니다. 높은 음이 불규칙적으로 짧게 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기쁘다. 내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들 중 하나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가족들마다

숫자 버튼을 누르는 리듬이 미세하게 다르다. 그래서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 작은 차이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 소리들을 좋아한다.

😊 3 🗨️ 1

조은채(간호학과) 문현식 사인의 <비밀번호>가 떠오르네요. 참신하고 감동적이어서 평소에도 문득 생각나곤 합니다. 공감되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am 12:20 | 28위
김영선

#2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비밀번호'와 관련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많네요. 나 역시 가족의 생일과 대학학번을 조합한 비밀번호에 # 정도의 기호를 섞어 여러해 쓰는 안전지향형 인간이랍니다. 비밀번호에는 이런 나의 정체성과 추억이 새겨져 있고, 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고투도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기숙사방으로, 쇼핑몰과 이메일에 들어가거나 접속하는 마지막 관문인 비밀번호. 앞으로도 이 관문을 안전하게 잘 통과하기 바랍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 8 🗨️ 0

 **2025/11/05**
wednesday, am 8:07 | 22위
김영선

#3일차 키워드: 낭비

오늘의 키워드는 '낭비'입니다.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때로는 낭비가 창조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낭비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가치 있는 낭비는 없을지도 생각해 봅시다.

😊 9 🗨️ 0

 **2025/11/05**
wednesday, am 9:53 | 21위
김수진(미래융합스쿨)

#3일차 '낭비'
오늘의 키워드가 낭비인 것을 보고 1~2일차와 다르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에너지&쓰레기 낭비 등 낭비하는 행동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런 낭비하는 행위를 통해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시간을 써서 봤던 영화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찝찝하지만 내가 이 영화를 봄으로써 호기심은 해결됐고 이런 결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낼 수 있고 내가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와 싸우고 말싸움을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을 쓸데없이 소모 즉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 소모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고 몰랐던 면을 볼 수 있고 서로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낭비라고 해서 표면적으로 쓰레기와 에너지를 낭비해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낭비만을 생각했었는데 '가치 있는 낭비'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쩌면 일상에 사소한 행동도
누군가가 보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낭비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각자 낭비에 대한 다른 기준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녔지만
지금 당장 그 낭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를 더 잘 알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10 🗨️ 6

이준호(사회복지학부) 수진님께서 낭비로부터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순간을 보내셨다니
대단합니다!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1/05

wednesday, am 10:34 | 18views
이준호(사회복지학부)

#3일차 "낭비" 하면 저한테는 가장 먼저 레고
장난감이 떠오르네요. 저는 어린 시절에
레고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레고
중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레고
닌자고' '레고 키마의 전설'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장난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대형마트에 가시면 항상
쫓아가서 장난감 코너로 뛰어가서 레고를
보러 갔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레고를 사면
로봇 세트, 드래곤, 전투기, 성전 버전을
고려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레고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저는 특정 레고에서
좋아하는 캐릭터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닌자고'에서는 닌자에서는
로이드, 카이를 좋아했고, 빌런 중에서
가마돈, 모로를 좋아했습니다. '키마의
전설'에서는 주인공 사자 부족 라발, 악어
부족 크래커, 아이스 헌터 팽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
캐릭터들만 골라서 샀습니다. 처음에는
캐릭터들이랑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먼지가 쌓여있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생각해 보면 돈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학교를 다니면서 식비, 교통비,
동아리 회비, 전공 책 비용을 내면 한 달
월급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가지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낭비"를 경험 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니까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정말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물건을 사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 9 🗨️ 4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어릴 적 레고 많이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낭비가 돈에 대한
경제관념을 다시 정립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1:24 | 16views
윤지호(일본학과)

#3일차
"낭비"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초중고등학교 때의 게임으로 인한
시간낭비이다. 현재 24살인 나는 어렸을때
정말 많은 종류의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다.
처음으로 한 게임은 메이플로 메이플을

시작으로 넥슨게임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마비노기, 엘소드
마인크래프트 중학교 올라가서는 오버워치와
롤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때까지 롤을
열심히 했었다. 내가 게임에 투자한 시간만
1만시간이 넘을 것이다. 1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다들 들어봤을것이다. 무언가에
1만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게임 전문가는
커녕 내 랭크는 실버였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못해서 라기보다는 팀원이
뭘 여하튼 나는 내 인생에서 초중고2까지
게임에 인생을 걸었고 1만시간 넘게
투자했지만 얻은것과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2를 끝으로 나는 게임을 완전히
끊었다. 이제 아예 흥미를 잃은것이다.
하고싶다는 생각은 전혀 나지않는다. 만약
내가 초중고 11년 1만시간동안 게임이 아닌
그 시간을 다른거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그
시간을 스포츠에 투자했다면 프로가
된다고는 말 못하지만 동네에서 적수는
없을것이다. 영어공부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원어인과 프리토킹이 가능할것이고 독서에
투자했다면 상당한 지식인, 교양인이
되어있을것이다. 왜 나는 그 당시 고작 게임에
그렇게 열정을 쏟았을까 결국 게임은
아무것도 남는게 없는데 말이다. 왜 게임속
캐릭터의 스탯(능력치) 지능과 힘이 낮아
장비를 장착하지 못하는거에 실망했을까
현실속 내 지능이 처참한거는 신경도 안쓰고
말이다. 왜 게임속 내 캐릭터는 캐쉬를 투자해
엄색도 시켜주고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1시간넘게 고민하지만 현실 속 나는 왜
거적때기를 입고 다녔을까 앞으로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남는것이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 7 🗨️ 4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게임을 통한 시간
낭비를 가져본 적 있어서 그 이후에는 게임에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거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2:20 | 17views
하태원(소프트웨어학부)

#3일차

낭비
가끔은 내가 하루를 제대로 쓴 건지 모르겠다.
핸드폰을 켜고 스크롤을 내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보다 보면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때마다 '이건 낭비야'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그 낭비 속으로 들어가곤
한다.
낭비는 단순히 돈이나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닌
것 같다.
감정도, 마음도, 심지어 젊음도 낭비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괜히 애쓰던 순간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괴로워하던 밤들 그건 내
감정의 낭비였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모든 낭비가 꼭 나쁜 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 낭비 속에서 후회를 배우고 진짜 가까운 게
무엇인지 깨닫기도 하니까.
내가 오늘을 허투로 썼다는 자책도 결국
내일을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의 증거
아닐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약간의 낭비하며 산다.
조금의 여유, 조금의 멍, 그리고 조금의 미련
속에서 조금씩 나를 알아가고 있으니까.

😊 9 🗨️ 4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낭비 속에서 후회나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3:08 | 19위
김서영(중국학과)

#3일차 낭비.

오늘 하루를 그렇게 부르고 싶다.

가끔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가버린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시계는 벌써
밤을 가리키고 있다.
핸드폰만 들여다봤을 뿐인데 시간은 조용히
새어나가 있었다.

일어나서 다시 눕고, 밥 먹다 멍하니 있다가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뤘다.
편히 창밖만 보고 있었고 음악만 흐르게
놔뒀다.

그래서 문득 생각했다.
오늘 하루 낭비한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다.
조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같아서.
다른 날엔 쓸모없다고 느껴질 이런 시간들이
오늘은 꼭 필요했던 것 같다.

누군가에겐 낭비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잠깐 숨 고르는 시간이었다.
오늘도 그렇게 조금은 낭비하고 조금은
살아냈다.

😊 9 💬 4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가끔씩은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4:01 | 19위
문전우(철학과)

#3일차 낭비

낭비라는 글자에 내가 시간속에서 끊임없이
선회한다. 나는 무엇을 낭비하였는가. 시간.
돈. 혹은 나 자신을 무분별하게
낭비하였는지도 모른다. '낭비(浪費): 무엇을
정도를 넘게 마구 씀. '사전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한가지 의문이 든다. 정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절약이고 여기서부터는 낭비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선명히
대답하게 된다. 우리에게 영원한 질서가
부재하기에 모든 가치는 고정되지 못한 채
흔들린다. 어쩌면 중세 신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 생각보다 행복했는지 모른다.
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내리는
시간에서 판단은 마비된다. 그러나 현대는
무신론의 시대이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소비를 해야할지 우리가 정해야
한다. 즉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 선포는 보이지 않는
넒은 감옥으로 우리를 가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낭비는 죄일까, 아니면 자유가 남긴
흔적일까. 신이 부재한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낭비라 규정하고 또 스스로 용서해야 한다.

내 생각이지만 낭비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까한다.
시간낭비도 어떤 시간 속에 표기된게 아니라
우리가 표기한 것이다. 우리 손에 있는 디지털
시계에는 낭비된 시간이라고 표기되지
않는다. 학교 인문대 앞에 시계탑에는 낭비가
적혀있지 않는다. 그건 우리 뇌가 판단한
개념이다. 이 말은 우리가 낭비라고 표기한
시간위에 판단을 덧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성경 속 돌아온 탕아는 낭비의
화신이었다. 그러나 그가 낭비를 부끄러워한

채 돌아왔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과
용서를 본다. 만약 그가 자신의 낭비를
죄악이라 단정지었다면, 용서라는 가르침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낭비란
인간이 신 없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몸짓일지도 모른다. 낭비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시험하고, 후회 속에서 다시
자신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낭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하는 과정이다.

나에게는 '아멘'도 없고 '나무아비타불'도
없다. 그러나 끊임없는 새벽에 외치는 외마디
기도가 있다. 이 말을 거론하여 오늘의 나를
매듭지으려 한다. '신에게 대한 최후의
복수는 부정되려는 생애를 즐기치게
살아가는데 있다.' 이상(李箱)이다.

😊 6 💬 0

2025/11/05

wednesday, pm 6:06 | 19위
유채원(일본학과)

#3일차 낭비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낭비했다. 고등학생
때 공부나 대인관계 때문에 우울했던 적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다. 평평 울든 숨죽여 울든 마음이
얽매지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울 일도 아니었는데 감정을
굳이 더 끌어다 쓴 느낌이었다.
감정에 솔직한 건 좋다. 감정을 한계선까지
참았다 터트리는 것보다 낫다. 사실 나는
밖에서는 후자에 가까웠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 갑자기 왜 그래?"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나의 입장에서 꼭꼭 참은 과정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걸
깨닫고는 나는 미리 상대방에게 감정을 조금씩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낭비는 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그러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돈독해진다.
부정적인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을 낭비하자. '낭비'라는 단어 자체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 하지만 나는 단어를
한쪽 측면으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단어에도 얼마든지 긍정을 켜둘 수
있다.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그러니 나는
긍정적이게 감정을 낭비할 것이다.

😊 8 💬 3

정서현(법학과) 긍정적으로 감정을 낭비한다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05

wednesday, pm 6:20 | 12위
하현주(영어영문학과)

#3일차 : 낭비

낭비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부정적인 관념들만 떠올랐었는데, 공지로
올려주는 글을 보고 가치 있는 낭비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최근 여러 대화를 나갔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준비를 하였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시간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투자한 시간이 좋은 결과로
도출되지 않으니 낭비하였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낭비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현 상태가
후에도 계속하여 지속된다면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들은 낭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변화한다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면 지금 낭비라고 되었던
순간들이 밑거름이 되어 나를 발전시킨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든다. '낭비된
시간들'을 먼 훗날 '도약하기 위한 기반'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소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다짐을 올려본다.

😊 6 💬 3

김서연(콘텐츠it)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예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7:10 | 10위
정서현(법학과)

#3일차 '낭비'

저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그 방법만을 고수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비효율적인 행동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낭비를 피해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니 세상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가능성과 배움의 기회가 정말 많았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시간 낭비' 혹은 '돈 낭비' 라고 생각했을 일들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효율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낭비한다'는 생각 대신,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완벽한 효율만을 추구하기보다, 때로는 비효율 속에서 얻는 가치와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6 💬 2

김서연(콘텐츠it) 낭비한다는 생각 대신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 정말 멋지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8:17 | 10위
안도연(러시아 학과)#3일차
#낭비

예전엔 실패를 하면 늘 아깝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행복했을텐데 괜히 노력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시험을 망쳤을 때도, 인간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그랬다. 그냥 시간 낭비했다 하고 넘겼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었다. 그때는 아무 의미 없던 일들도, 왜했지 했던 일들도 결국 남는게 있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등..알 수 있었다

결국 실패는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는 시간낭비,감정낭비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방향을 틀어주는 신호 같았다. 모두 성공만 했다면 아마 지금의 나는 금방 깨졌을거다.

그래서 요즘은 실패를 너무 두렵게만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낭비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 그게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안다.

😊 5 💬 1

김서연(콘텐츠it)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시간 낭비한 것 같았지만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이니 남는게 있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8:28 | 15위
조은채(간호학과)

#3일차 #낭비

마음속 에너지 소비현황은?

- ◆ 먼저 와서 기다린 시간: 97분
- ◆ 쓸데없는 농담: 51분
- ◆ 바라보며 웃은 시간: 834분

- ◆ 이름 부른 횟수: 73회
- ◆ 괜히 다시 읽은 메시지: 112건
- ◆ 좋아한다는 말: 0회

평균대비 365%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2025년 10월분
2025년 11월 30일 까지
납부하실 금액은 0 원

😊 7 💬 3

유채원(일본학과) 재치 있는 글 잘 읽었습니다! 웃은 시간이 많다니 다행입니다. 11월은 500% 사랑하는 달이 되길 바라요!



2025/11/05

wednesday, pm 9:31 | 13위
정우현(철학과)

#3일차

저는 항상 낭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낭비는 저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낭비를 할 때마다 근심 걱정은 쌓였지만 그럼에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전적 낭비, 시간 낭비들은 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낭비들이 모여 저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낭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기준일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것은 저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후회하여 아 낭비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켜보면 그 소비들이 있었기에 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도 질리지 않습니다. 낭비는 소중한 흠 같습니다.

누가 보면 인터넷으로 3시간을 하는 게 낭비입니다. 누가 보면 제가 글을 쓰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결국 어떤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비든 낭비든 결국 중요한 것은 저의 판단입니다. 낭비는 판단 기준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 5 💬 1

김서연(콘텐츠it) 낭비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져 무조건 언종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9:40 | 12위용
김서연(콘텐츠it)

#3일차 키워드 : 낭비

분명 절약하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월말이 다가오면 내 통장 잔고는 5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은행 앱을 열어 결제 내역을 살살이 훑어본다. 쓸모없는 곳에 돈을 썼는지 기억을 더듬어보지만, 아무리 되짚어 봐도 모두 필요한 지출뿐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어'라는 생각에 매번 다음 달에는 낭비를 줄이리라 다짐한다. 제일 먼저 취미에 쓰던 비용을 줄였고, 먹는 것까지 아껴봤다. 그런데도 결과는 같았다. 월말 내게 남은 돈은 5만 원 남짓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 내역을 확인했다. 계좌이체 횟수가 눈에 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여러 번 돈을 보낸 걸까? 확인해보니 남동생이다.

가만 보니 매달 1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있었다. 물론 동생이 그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매번 다음 달이면 갚는다. 결국 내게는 있어도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였다.

돈을 빌려달라는 남동생에게 도둑이라고 짜증 내면서도 나는 왜 매번 돈을 빌려주는 걸까?

😊 5 💬 8

조은채(간호학과) 앞으로는 대출에 이자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ㅎㅎ 농담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가족 사랑이었네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9:45 | 12위용
채은비(생명과학과)

#3일차

#낭비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듣지도 않을 가수의 콘서트에 열을 올리고, 스팩에는 아무짝에도 도움 되지 않을 소설에 빠져도 보고, 시간도 돈도 낭비해 가며 그저 과거에 하늘을 새파랗게 비추던 바다를 다시 보고 싶다는 이유로 여행을 가고. 아무 이유도 이득도 없이... 생텍쥐페리 '야간 비행'의 라비에르는 생각한다. 나는 사람의 삶을 딱딱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모두 '여유가 좀 생기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미뤄온 것이라고. 마치 언젠가는 진짜로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도 할 것처럼. 착륙 후의 자신에게 더 이상의 시간이 너그럽게도 허용될 것처럼. 하지만 여유는 없다. 삶은 우리들에게 다정하지 않은 것이다. 삶을 딱딱하지 않게 해주는 것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책을 읽으려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 알량한 낭만을 찾겠답시고 바다에 가고 싶다 투정하는 것. 좋아한다는 모든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조금은 낭비해도 괜찮지 않은가.

😊 7 💬 4

민시아 (글로벌학부) 낭비가 있기에 청춘이 빛나는 것 같네요.
좋은 글 읽고 갑니다!!



2025/11/05

wednesday, pm 10:02 | 14위용
정우림(정치행정학과)

#3일차 #낭비

'마중물'의 개념을 아십니까?

마중물이란, 펌프에 압력을 만들기 위해 먼저 부어넣는 물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쓰기 위해서 투자하듯 물을 먼저 부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인지, 잘못 이해하는 책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 대통령께서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 홍보하며 나랏돈을 그야말로 살포했죠. 그러나 예산을 써서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그분의 기대와는 달리 더 큰 효과를 불러오기보다는 고정지출을 대체하는 것에서 머물게 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정지출이 10만원이라면, 그 마중물로서 받은 돈으로 대부분은 고정지출 10만원을 대체하고 거기서 추가로 지출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소비가 일어나더라도 민생을 살린다는 그 취지와는 달리 연 매출 50억 이상의 대형 소매점과 맛집,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같은 곳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이미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 관련 통계로 예견된 바 있습니다.

저는 저와 견해가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존중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정책'은 마중물이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 0



2025/11/05

wednesday, pm 10:05 | 14위용
최은실(국어국문학과)

#3일차

너의 옆자리는
나에게만 허락되고
하나뿐인 사랑의 주인은
내가 됐으면 좋겠다

다정한 눈 맞춤은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준 선물로
너의 공간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네가 본 세상 중
절반 이상은 내가 있고
내가 찾는 사람은
내 이름뿐이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낭비해 줬으면 좋겠다

고양이를 생각하며 시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저에게만 허락해 줬으면 하는 바람과 고양이에겐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았습니다.

😊 6 💬 3

김서연(콘텐츠it) 대상이 사람인줄 알았는데 고양이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10:22 | 9위용
민시아 (글로벌학부)

#3일차 주제: 낭비

낭비라는 단어는 다양한 문맥에서 쓰인다.

시간을 낭비했다든가, 돈을 낭비했다든가.

대체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과연 낭비는 언제나 부정적이기만 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시간이 낭비되었다고 느껴더라도
그 안에서 얻은 경험이나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해도
그 과정에서 느낀 즐거움과 만족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낭비했다고 해서
그 순간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때는 그 선택과 감정에 충실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의 행복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같은 후회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나를 책망하기보다
그 시간을 발판 삼아 더 나아가는 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 5 💬 2

조은채(간호학과) 저도 과거가 후회돼서 우울할
때마다 그건 그게 최선이었다고 열심히
생각합니다... 자주 되새기면 좋은 문장들이
많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10:33 | 12월
김영주 (화학과)

#3일차

절망 속에서 낭비된 나의 시간들과
행복을 그 자체로 받아드리지 못해 버려진
순간들이 아깝다.
행복이 뜨문뜨문 찾아올 때면 무의식이
말한다. 이상한 무언가가 찾아왔으니 나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나를 보호하느라 많은 시간들이
아깝다.
고뇌를 하느라 창 밖의 하늘을 보지 못하고,
햇빛이 드는 자리와 보름달 한 번을 더 놓쳤던
날들도 마음에 남는다.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공허히 허비될 시간들 또한 아쉽다.
그러나 그렇게 한없이 낭비되는 바로 그
시간들이 나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불행 속에 일부러 나를
밀어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한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낭비되는 시간과 감정들이 내
인생을 걸쳐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것 또한
아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유와 사랑, 안정은 스스로에서 비롯된다는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걱정만
하기보다, 좋아하는 것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 6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어리숙한 인간이라서
낭비를 하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낭비를
하지만 결국 성숙해질 모습을 생각하니 좋네요!



2025/11/05
wednesday, pm 10:42 | 12월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3일차 #낭비

[마흔여덟 번째 접시]

낭비라는 단어를 보면 여유라는 단어도
떠오릅니다. 마치 내 형제자매처럼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보입니다. 특히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여유와 낭비 중 무엇일지 고민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과나 과정에 상관없이
제삼자가 보는 관점, 나 자신이 보는 관점 등
사람에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태도를 뜻합니다. 삶에 있어서
자신의 태도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이 칭찬을 해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황금 같은
귀한 시간을 그저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바쁜 와중 혼자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순간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누군가에게는 여유와 낭비 등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닦였습니다.
]

😊 6 💬 1

조은채(간호학과) 내가 보기엔 낭비여도 그
사람에겐 여유일 수 있으니 힘부로 속단해서는 안
되겠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10:44 | 11월
최민수(언론방송영상미디어전공)

#3일차

다정함의 낙수효과

과거,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라는 오명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때의 이야기다.
그시절 사람들은 양치를 할 때는 꼭 물컵을
사용하라는 일종의 물절약운동을 학교에서
배웠다고 한다. 물이 흘러넘쳐 낭비되지
않도록 컵 크기에 알맞게만 사용하라는
사유였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잠기는 법. 물이 흘러넘치는 것만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더 철저히
마음을 닫고 실리적으로 변했다. 다정함이
새어나오지 않는 차가운 사회. 낭비와 배움은
한글차이일텐데, 낭비와 배움의 전제조건인
여유가 사라지자 낭비뿐만 아니라 배움도
사라져가는 것은 왜일까.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낭비하지
않기 위한 철저함보다는, 마음낭비를
감수하고서라도 다정히 배움기 위한
여유로움이 아닐까. 다정함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다정함의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 6 💬 2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낭비와 배움을 여유로
 묶은, 민수님의 인목을 느끼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11:06 | 159원
박예원(생명과학과)

#3일차 낭비

처음 '아깝다'는 감정을 느꼈던 건 그 스티커북 때문이었을 거다. 내가 일곱 살이었을 때 가족과 외식하고 돌아오는 길, 문구점 바깥쪽에 걸려 있던 커다란 스티커북. 만 원짜리였다. 500원, 700원으로 슬러시 사먹던 내게는 꽤 큰돈이었다. 그런데 아빠는 그걸 그냥, 망설임도 없이 사주셨다. 나도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거였고,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너무 아까워서, 정작 그 스티커를 거의 쓰지도 못했다.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생이 되면서 생각했다. 별것도 아닌 거에 만 원이나 썼다니. 그냥 낭비였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스티커북은 지금도 기억난다. 그날의 어두움, 아빠의 말투, 스티커북을 들고 걸던 내 발걸음. 그건 물건 하나에 대한 욕심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마음을 눈치채고 그걸 기꺼이 들어준 순간의 기억이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깊게 남아있다. 생각해 보면 내 삶에서 낭비는 많았다. 엄마 아빠가 해줬던 어떤 사소한 배려들, 그냥 기분 좋으라고 사준 것들, 이유 없이 내게 쏟은 애정들. 당시에는 몰랐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 건 그렇게 아깝지 않다. 오히려 오래 남는다. 마음이란 건, 대체로 잘 사라지지 않아서. 그 낭비를 덕에, 나는 조금 더 나를 믿을 수 있었고, 다음의 나로 걸어갈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실은 낭비가 아닐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방식은 늘 계산 밖에서 이루어진다.

😊 7 💬 4

박창준(임상외과학계전공) 낭비라고 여겼던 물건이 가족의 사랑이 담긴 물건로 해석되는게 큰 감동을 주네요.



2025/11/05

wednesday, pm 11:07 | 129원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3일차

어떤 시간들은 손에 잡히지도 않은 채 흐른다. 손가락은 화면 위를 미끄러지며 아무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끝나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낭비'라 부른다. 성장하지 못한 시간, 무언가를 쌓지 못한 하루,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흔적 없는 저녁.

멍하니 새벽을 마주하는 순간에 아주 가끔은 내 안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아 생각이 형태를 갖추어 가는 때가 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미완의 문장. 의미없는 방향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어야 낭비가 아니겠지만 그것들이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망설임은 남는다. 나의 느낌은 게으름인가, 내 사유는 밀린 과제 같은 현실 앞에서 쓸모없는 자기위안에 불과할 뿐이지 않은가. 나에게 필요한 시간은 언제나 남이 보기엔 쓸모없을 뿐이지 않은가?

나는 계속 해매고, 풀리고, 놓칠 것이다. 낭비라 불리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언젠가 만들어질지도 모를 단단한 그릇을 바라며.

😊 7 💬 0



2025/11/05

wednesday, pm 11:09 | 129원
송준하(빅데이터전공)

#3일차 낭비: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해뜨게 씬 낭비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헛되이일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뜨게일까? 우리는 이 단어를 부의 가산과 축적의 관점에서 많이 사용한다. 낭비는 부를 쌓는 것을 방해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미덕이다. 따라서 낭비는 부도덕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돈을 아껴서 삶을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 이는 니체가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서술한 말세인들의 사고방식이다. 말세인들은 건강을 지독하게도 행한다. 말세인들은 그저 평균적인 삶에 만족하는 나약한 인간들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시간과 돈을 해뜨게 썼다. 반 고흐는 안 팔리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허비했다. 니체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평생 팔리지도 않을 책들을 쓰느라 인생을 불행하게 보냈다. 그러나 누가 이들이 시간과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6 💬 0



2025/11/05

wednesday, pm 11:20 | 109원
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3일차 : 낭비

대학생이 되기 전, 아직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할 때는 '내 피같은 용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굉장히 아껴서 썼다. 지하철 요금이 아까워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간식도 최대한 적게 사먹으려고

노력했다. 이랬던 내가,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씬씬이가 달라졌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번 돈은 온전히 '나'만이 사용하는 돈이고, 그 액수가 용돈에 비해 커졌다. 이 격차에 잠긴 고백이 풀렸던 탓인지, 월급을 받으면 돈이 생겼으니까, 월급날이 남았으면 '곧 돈이 생기니까'라는 마인드로 대학생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늘어난 씬씬이를 다시 줄일 때가 왔다.

그동안 사고 싶은 것을 다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는게 확 현실로 다가왔다. 그렇게 다시 조금씩 아껴서 살다가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돈이 생겼다는 기쁨에 너무 해뜨게 쓰지 않았나 돌아봤다. 수입에 따라서 씬씬이가 달라지는 건 맞지만 내 경우엔 이 격차가 좀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월급이 들어오면 나눠서 저축도 하고 생활비로도 쓴다. 돈을 낭비하기도 했지만 낭비함으로써 앞으로 낭비를 덜 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괜찮은 낭비였지않나 생각해본다.

😊 6 💬 3

홍찬미(융합과학수사학과) 제도 이번에 알바 시작하고 곧 첫 월급인데 해뜨게 쓰게 될까봐 조금 먼저 써두려고요... 돈 씬씬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5

wednesday, pm 11:21 | 8위
원예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남비

요즘을 남만이 남비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으면, 조금 불편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남비라고 치부되는 것 같아요. 다만 때로는 가만 멈춰서서 그 당위성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달려나가는 것 모두가 더 많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비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남비할 시간을 위해 더 힘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마무리합니다.

😊 4 💬 1

원보경(생명과학과) 이 글을 읽고나니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5/11/05

wednesday, pm 11:23 | 10위
정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3일차 : 남비

이번 학기는 정말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쓰자고 다짐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빈틈없이 계획했다.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콕콕 채워 들었고, 남는 시간에는 교내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채워 넣었다. 그 외의 시간에도 개인 공부와 자기계발을 계획해 넣었다. 허투루 쓰는 시간 없이 생산적인 활동들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것이 곧 의미 있게 사는 일이라 믿었다. 멍하니 상상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던 예전의 나를 반성하며, 이번엔 정말로 '남비

없는 하루'를 살겠다고 결심했다. 사실 금방 포기할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꽤 잘 이어지고 있다. 일주일에 다섯 번 학교에 나가 21학점을 전공으로 꼭 채워 들고, 동아리와 비교과 프로그램까지 닥치는 대로 참여했다. 집에 와서도 자기 전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는다. 잡생각을 할 틈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남비라고는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는 것 같지 않다. 매일이 피로의 연속이고 세상이 다 부질없게 느껴진다.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느껴진다. 행복하지 않다. 그저 아무 일 없이 누워 멍하니 있고 싶은데, 그럴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멍때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다니. 그 시간을 '의미 없는 남비'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그때가 그립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평온하다. 나에게서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후에야 깨달았다.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인데,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한다. 나는 나를 몰랐기에, '남비'라고 여겼던 시간들이 사실은 나를 살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번 학기는 이미 시작된 이상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다음엔 절대 이런 백백한 일상은 살지 않아야지. 중간중간 나태하게 쉴 수 있는, 그래서 더 행복한 하루들을 살고 싶다.

😊 3 💬 3

최지윤(사회복지학과) 남비를 다르게 말하면 휴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게 당연하니 조금만 쉬길 바라요!

2025/11/05

wednesday, pm 11:29 | 10위
원보경(생명과학과)

#3일차 #남비

남비...제가 느끼는 남비란 뜻은 쓸데없는 지출을 한 것을 말한 부정적인 단어예요. 물론 쓸데없는 지출이란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죠...하지만 전 남비가 쓸데없는 지출만이 아닌 언젠가 쓰이는 밑거름이 된다고 봐요. 특히 전 감정 남비가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감정 남비가 쌓여 저를 단단한 심자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남비를 하고 나 자신을 너무나 나무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나저러나 나 자신이 행동한 거잖아요. 자신을 너무 내몰지 않고 보듬아주길 바라요.

😊 3 💬 0

2025/11/05

wednesday, pm 11:57 | 4위
홍예진(바이오메디컬)

#3일차 남비

우리는 살면서 남비라는 것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시간을 남비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많은 양을 남비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자투리 시간도 알차게 활용하는데 누군가는 시간을 부자마냥 평평 쓴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험 점수를 확인하고 공부를 좀 더 할 걸 후회하여도 이미 시험 점수는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이에에만 할 수 있는 경험들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청춘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걸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3 💬 0



2025/11/06

thursday, am 12:20 | 29위
김영선

#3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절음은 절을 때 남비된다.' 최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정을, 시간을, 돈을 남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 건 아닌지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슈퍼문이 뜬 밤, 예쁘게 잠들기 바랍니다.

😊 10 💬 0



2025/11/06

thursday, am 8:16 | 26위
김영선

#4일차 키워드 : 정의 (justice)

오늘의 키워드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영화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슈퍼맨과 같은 정의로운 영웅을 보며 동경을 했던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불의를 목격했을 때의 감정이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했던 작은 행동에 대해 써보세요. 다른 사람이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때로는 두 집단이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서 충돌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은 너와 나, 사회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9 💬 0

2025/11/06

thursday, am 11:05 | 18회
윤지호(일본학과)#4일차
'정의'

요즘 정의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좀 웃기다.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일수록 막상 자기 이익이 걸리면 제일 먼저 돌아서기 때문이다. 조별과제만 봐도 그렇다. 다들 공평하게 하자해놓고 발표 직전엔 본인의 한 것을 부풀리거나 그러기 때문이다. 나도 처음엔 그런 사람을 보면 열 받았는데 솔직히 이제는 그냥 이게 현실이구나 싶다.

그래서 난 정의를 믿기보단 정직한 이기심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자기 이익 챙기면서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 그게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닌가? 정의라는 말은 너무 멋있어서 오히려 무책임할 때가 많은 것 같다. 다들 '옳음'을 말하지만 정작 불편한 상황이 오면 아무 말도 안하고 외면한다.

한 번은 알바하는 곳에서 신입이 선배한테 정말 사소한 일로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다. 다들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나도 한참 망설이다 그건 좀 너무한거 아니냐고 나보다 한참 선배에게 말했다. 물론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 그 신입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고 나에게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했다. 그때 느꼈다. 정의는 멋있는 말이 아니라 공기 같은 침묵을 깨는 순간에 존재한다고 말이다.

결국 정의로운 세상이란 건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를 낼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한다.

😊 10 💬 5

이준호(사회복지학부)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용기를 내는 것이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6

thursday, pm 12:17 | 16회
유재원(일본학과)

#4일차 정의

정의로운 세상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 정의를 검색하니 1번 뜻에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적혀 있었다. 올바른 것이 나에게겐 애매하게 다가왔다. 3번 뜻을 봤다.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사회를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말에 고개를 가웃거렸다. 매일 뉴스에서 터져 나오는 범죄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악행이 많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에 정의로운 도리어 배척을 받지 않을까. 솔직히 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말에 크게 의욕이 나지 않는다. 세상이 기적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정의를 실천한다. 예를 들어,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또한 나에게겐 정의다. 그냥 정의가 하나씩 쌓여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될 뿐이다. 정의는 따뜻함이다. 따뜻함이 없다고 세상은 갑자기 끝나지 않는다. 따뜻함이 있으면 너그러운 세상이 된다. 너그러운 세상에서 안온하게 살면,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

😊 7 💬 5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세상이 기적처럼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작은

정의들이 모여 큰 정의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6

thursday, pm 12:46 | 14회
이준호(사회복지학부)

#4일차 나는 "정의"롭게 살았는가? 그 전에 "정의"가 어떤 건지 알아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의"를 나쁜 사람은 혼내주고 착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중학생 때 "정의"에 맞는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친구랑 맨날 놀러 다니면서 공부하는 안 하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친구 문제, 성적 문제 등으로 매일 부모님처럼 말싸움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성적이 안 좋다, 맨날 친구랑 놀고 다닌다,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학원은 인간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부모님과 관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부모님께 엄청 크게 혼나고 정신 차려서 고등학교 때 공을 향해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다면 공을 이루는데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 있고, 문제에 답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대학에 들어가서 답을 찾았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말하던 정의가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의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서툰 점이 많고, 누군가를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답은 알고 있지만, 문제 풀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저는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아르바이트 및 활동, 청소년 쉼터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본인의 마음이 긍정적이지 못하면 선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사를 통해서 선행을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정의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 8 💬 4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도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하고 있는 삶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2025/11/06

thursday, pm 2:16 | 15회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4일차 '정의'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은 본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선하게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성악설입니다.

저는 성악설을 믿는 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우선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고 규칙이 생겼으며 우리가 배우는 과정 또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살아가면서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정의라는 개념이 모순됨어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정의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뉴스나 신문속 여러 사건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병집에서 과로로 숨진 20대 직원의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

유족과의 합의로 산업재해 신청이 취소되었다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 측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를 보며 저는 '정의'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는 이상 그 실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정의를 위반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정의'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생각이 일반적인 정의의 개념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게 정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개인의 최소한의 정의가 모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10 💬 6

박해진(빅데이터전공) 이상적인 정의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정의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2025/11/06
thursday, pm 2:42 | 14원
김세영(중국학과)

#4일차 정의.
이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예전에 봤던 데스노트 유지철이다.

그때 무대 위 라이토가 말했었다.
나는 정의다.

그 대사가 유난히 크게 들렸던 이유는, 그게 정말 맞는 말 같으면서도 어딘가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후로 정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졌다. 누군가에겐 선이고, 또 누군가에겐 악일 수도 있으니까.

유지철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지만, 그 믿음이 점점 사람을 집어삼키는 걸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서늘했다.

그래서 요즘의 나는 정의보단 양심을 생각한다.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선택. 그게 내 방식의 작은 정의인 것 같다.

😊 8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한 개념을 읽는 글은 선념의 무서움을 알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된 정의란 과연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네요!



2025/11/06
thursday, pm 4:21 | 13원
김서연(콘텐츠it)

#4일차
키워드: 정의

정의란 뭘까? 사전적 의미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한다. 내게 정의란 좀 복잡한 단어다.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중학교 2학년 때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많은 것이 바뀌었던 때. 나는 아직도 그 때를 잊지 못한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려고 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초반, 가끔 인사만 나누던 다른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냈다. 편의를 그 친구를 A라고 하겠다. 그때의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 했고, 마음이 여렸다. 나는 A의 말에 걱정에 주며 주동자가 누군지 듣고, A를 도와주기 위해 다른 친구들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증거가 모여 학폭위를 열 수 있게 도와줬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없었다. 문제는 학폭위가 끝난 후였다.

학폭위가 끝나자 A는 나에게 "나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때의 나는 이 말을 믿었고 그렇기에 A를 더 챙겨줬다. 다른 친구들은 A를 꺼리는 것 같았지만, 내가 사정해 때때로 가거나 놀 때 A를 끼워주곤 했다.

어느 날 다 함께 매점을 간 날에서야 나는 A에게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다. 나는 평소 매점에 가도 아무것도 안 사고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는 편이라 그 날도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A는 내 옆에서 "난 올라가고 싶어. 빨리 올라가자. 그냥 가자."라는 말을 반복했고 나는 거절했다. 친구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왜 먼저 간다는 건지, 그것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같이 가자고 강요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몇 번을 거절해도 계속 가자고 하는 A에 나는 결국 짜증난 말투로 "나는 친구들 기다릴거야"라고 말했다.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있었다. 복도에서 만나면 보통 인사를 하는데, A가 나에게만 인사를 하고 내 친구들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그 친구들은 A가 학폭위를 열 수 있게 증거를 모아줬는데도 말이다. 친구들은 그 뒤로 A를 더욱 더 좋게 보지 않았고, A는 나에게만 더 친밀하게 다가오며 단둘이 놀거나 단둘이 하교하는 것을 원했다.

설상가상으로, A 일로 내가 학생회에 불려가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런 일까지 발생하니 너무 힘들어 혼자 울기도 했다. 나는 그저 누구를 따돌리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기에 도와줬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 뒤로 A에게 약간의 선을 그었다. 그러자 A는 바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정의란 뭘까? 내가 정의라 생각하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니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

😊 7 💬 4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다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정의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2025/11/06
thursday, pm 4:44 | 15원
정우현(철학과)

#4일차

저에게 정의란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형편없는 일들도 누군가에겐 정의가 됩니다. 모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념을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행위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내세우는 것들 대부분은 사회에서 정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의 구조 안에서 인정되는 한에서 정의가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회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써 정의를 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관심 갖기엔 제 열정이 부족합니다.

정의가 타인에 의해 억압적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이 추구하고 싶은 욕망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의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남을 돕고 싶고 배풀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정의이자 도리이자 행복입니다.

😊 8 🗨️ 1

원보경(생명과학과) 저만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고 내가 정했던 정의가 과연 정의일지 의심하게 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11/06

thursday, pm 4:52 | 16위
윤여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2nd

정의란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너무나 모호하고 많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적 명저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책을 보며 나는 저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도 많습니다.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가정 하는 상황들은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어떤 선택을 비난 할 수 없기에 딜레마 라고 불립니다. 저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결론 내리는 것보다 모호한 그 상태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정의는 없고 또 그런 정의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더 위험할수 있다고 느낍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정의, 그 정의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서로 싸우게 하는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도덕적으로 살아 가도 된다는 이야기라기보다 각자의 정의를 귀 기울여 들어 주는 것이 화합의 시작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7 🗨️ 2

최서연(생명과학과) 정의가 모호하다는 말이 모순적이고 재밌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06

thursday, pm 4:53 | 12위
정서현(법학과)

#4일차 '정의'

정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의(正義)의 사전적 정의(定義)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 즉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정의가 없다면 자유는 빼앗기고, 법은 무의미해지며, 평화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공정함이 사라지며,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페르디난트 1세는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정의가 행해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정의를 간절히 바라고, 소중히 여겨야 하며, 스스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정의라는 가치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정의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의는 결국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 7 🗨️ 0



2025/11/06

thursday, pm 5:34 | 17위
문전우(철학과)

#4일차 정의

혹시 정의의 여신을 아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유스티티아는 대표적인 정의의 여신이자 맹인이다. 그녀는 손에 천칭을 들고 있어 한쪽이 무거워지면 다른 손에 들려있는 칼로 무거워지는 쪽을 베어버린다고 한다. 정의를 상징하기 위해, 그녀의 조각상은 늘 사법기관의 문 앞에 세워져 있다. 이때 검은 법의 무게와 권력을 상징하고 천칭은 법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상징하며, 맹인인 이유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음을 상징한다. 현대에서 유스티티아가 도래했을 때 그녀는 누구를 천칭에 올릴 것인가? 나태, 방관, 침묵을 야기한 죄인도 천칭에 올릴 것인가? 생계가 곤혹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천칭에 올릴 것인가? 그녀는 천칭의 무게만을 느끼고 검을 휘두르므로 그녀 앞에 살아있을 자가 과연 존재할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에 있는 유스티티아는 한복을 입은 채 눈을 뜨고 있고 앉아 있으며 칼 대신 법전이 손에 쥐어져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유순하게 봐준다고 조각상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측은 눈을 가리면 천칭을 바라볼 수 없으며 칼 대신 법을 택한 이유는 한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고서형태의 법전이 자국의 법을 더 고취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정의에 중요한 것에 맹인이든 아니든 칼을 소지하든 아니든 궁극적으로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한가지 든 생각은 정의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수정되어 온 하나의 관념이지 않을까 한다. 고대의 정의는 우리 민족의 부흥과 안전이었다. 중세는 신에서 안식을

찾는 것과 이단을 처벌하는 것이 정의였다. 근대는 계몽이라는 이유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정의였다. 현대는 차별 받는 인간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정의라 여기며 끊임없는 노력을 시도했다. 이러한 정의의 역사를 훑어봄으로써 한가지 공통된 사실은 우리라고 볼 수 있는 공간에 타인들이 조금씩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민족으로, 종교로, 문화로, 마침내 신체로 조금씩 넓어져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과정이 정의의 첫 발자국이라 사료된다. 이처럼 무지와 혐오로 인한 배타성이 허물어 질 때 진정한 정의가 도래하고 미약하지만 시각을 바꾸는 힘이라는 점에서 정의의 참 뜻이 유지 된다고 사유한다.





😊 7 💬 1

채은비(생명과학과) 유스티티아를 예로 정의란 진리가 아닌 관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게 인상깊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6
thursday, pm 6:37 | 201회
정우림(정치행정학과)

#4일차 #정의
미국에선 법무부를 'Ministry of Justice'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정의의 부서'겠죠.
우리는 법을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그 상태를 '선'이라 칭합니다.
악에 반대되는 Goodness의 선. 그리고 동시에 넘어서는 안 되는 Line 말이죠.

Ministry of Justice의 이름 자체는 정의의 구현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권력의 손에 들어가면, 그들이 자행하는 폭력의 근거로 쓰입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규칙이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 선(Line)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는 본질적으로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필연적으로 부정의와 대치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의 또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규정하죠.
또 그에 따라 누군가를 구속하고, 체포하며 처벌까지 하는 일이 정당화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범죄자에 대한 규정과 처벌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사람이 만든 것들이 그러하듯 법이라는 정의 구현 수단 역시 결점이 분명 존재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의는 법의 집행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든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의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권력이 정의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의심하는 끊임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는 영원히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0의 방향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
정의 역시 권력의 독점과 부패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Goodness이자 Line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9 💬 1

김서연(콘텐츠트) 전 정의라는 단어를 너무 좋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그렇지 않은 만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6
thursday, pm 7:30 | 159회
하현주(영어영문학과)

#4일차 : 정의
정의(正義)란 나에게 정의(定義)하기 어려운 단어다. 정의란 무엇인지 예전부터 끊임없이 생각해왔지만 나에게겐 아직도 여전히 쉽게

형용할 수 없는 단어이다. 어디까지가 정의로운 일이고 어디까지가 부정의로운 일인가? '정의로운'의 반대말인 '부정의로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낱말의 반대말은 아는 것은 해당 단어를 아는데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다들 윤리적 딜레마의 여러가지 예시에 대해 알 것 같다. 그 맞불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선택이고, 부정의로운 선택인지 고를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선택하지 못한다.

정의는 무엇인가. 나에게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다. 비록 나에게 해당 단어는 과연 무엇인지 정해진 못하였지만,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며 다시 한 번 생각해볼려 한다. 여러분들에게 정의는 무엇인가?

😊 7 💬 3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정의란 단정지를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공감가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6
thursday, pm 7:53 | 159회
김영주 (화학과)

#4일차

당신이 믿는 정의는 정당한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들에 대해 왜 옳은지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비순응자를 혐오하고 응징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과거와 사정을 무시하고 '악인'으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납득 가능한 근거 아래에서 혐오와 응징은 오히려 정의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한다.
과정에 대한 이해가 거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전면 차단되었고 결과만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스스로 사고할 힘을 잃었다.
당신은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다.

분노가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정해버린 틀을 따라 느끼는 감정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분노는 정의로운가.
정의를 무기심야 휘두른 적은 없는가.

정의가 단순히 사회 유지의 수단이라면, 사회가 잘못된 기준을 가졌을 때, 정의는 왜곡된다. 정의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가 성찰을 통해 세운 원칙 위에 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정한 도덕과 규범은 법 아래에서만 효용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 아래의 정의를 지켰으면 한다. 정해진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려 애쓰기를 바란다. 선과 악은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분야지만, 당신만의 옳음을 좇으려는 노력은 분명 가치있다.

😊 8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악인을 처벌하는 것도 정의롭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성찰적 기준이 좀더 정의로우며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요!



2025/11/06
thursday, pm 8:13 | 149회
허태원(소프트웨어학부)

#4일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의는 자주 들리지만 막상 "정의가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어렸을 적 만화책 속에서 보던 절대선과 절대악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부모의 보호 속을 벗어나 서서히 사회라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따뜻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던 세상은 차가운 겨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람의 말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고,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행동이 때로는 또 다른 폭력이 되기도 했다.

가끔 마녀사냥이 보인다.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며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 거짓 정보, 범죄 같은 사건들을 보고 돌을 던진다. 그 돌에 맞아 쓰러지는 이가 생기면, 누군가는 환호하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돌린다. 과연 그것이 진짜 정의일까?

물론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가해자가 제대로 된 벌을 받지 않을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저런 짓을 하게 된 걸까?"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어쩌면 그들 또한 각자의 불행 속에서 길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그 행동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과 상처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배려하고 사랑하며,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그들이 힘들 때 적어도 내 옆에 있을 때만큼은 잠시라도 편안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힘들 때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정의가 단순히 옳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며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 사람인가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요즘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네요.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하루를 보내세요



채은비(생명과학과) 그릇된 정의는 무성조. 그 사람은 자신이 정의라는 이름 아래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6
thursday, pm 9:00 | 189원
조은제(간호학과)

#4일차 #정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어진 사건이 하나 있다. 고등학생 때의 일이다. 임원진 회의에 갔는데 전교회장 선거와 관련해 토의해야 할 안건이 있어서 소집한 것이었다. 요지는 이랬다. 전교회장 후보로 등록하려던 학생이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후보로 받아주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오래된 일이라 나도 잘 기억나진 않지만 그 당시에 그 학생이 1분 늦은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 혹은 며칠 뒤에 제출했다고 들은 것 같다. 이 학생이 출마하게 된다면 회장 후보는 두 명이 되고, 출마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후보가 단일후보로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었다.

이 문제의 처리는 임원 학생들의 거수투표 두

번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처음에는 후보로 받아주자는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았는데 기한을 놓친 사유가 밝혀지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사유는 파일에 넣어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부주의로 후보자 등록 신청서 종이 가 찢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후보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서명을 해줄 친구들을 많이 구하지 못해서 일이 한참 지연됐다고 했다.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은 그 학생의 책임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면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 출마 반대 측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각하는 학생이라면 회장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였다. 패널티를 주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없어 기각되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그날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던 친구가 정작 자기 일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는 점이다. 회의는 점심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수행평가로 발표할 자료를 점심시간에 완성하려고 했던 그 친구는 제시간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기한을 조금 넘기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말했다. 회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던 학생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했다고 말한 친구였다. 그렇다면 그 자신도 자료를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실로 향하면서 우리는 계속 논쟁했다. 친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사실 나는 아직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그날 저녁 부모님께도 의견을 여쭙었고 다음 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았다. 원칙을 고수할 것 같은 부모님은 의외로, 회장 선거 입후보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정도는 봐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친구들은 원칙은 원칙이므로 봐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회장 선거 입후보의 상황은 중대하고 수행평가 과제 제출의 상황은 사소하므로 당연히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디로부터 사소하고 사소하지 않은지를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인가? 자신 혹은 타인이나에 따라 정의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라고 원칙의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내 입장을 들었을 때 매우 의외라고 말할 정도였다. 정의란 공정하고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정말로 정의인가? 수능이나 면접처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도 아니고, 미성년자인 학생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포용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렇게 쓰고 보니 아까 사소함의 판단에 대해 얘기한 부분과 모순되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글을 쓰면서도 참 헛갈린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아직 나는 논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부끄럽다. 우리는 어디까지 관대해야 할까?



민시아 (글로벌학부) 사람마다 정의의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은 자신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태도는, 어쩌면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2025/11/06

thursday, pm 10:02 | 159회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4일차

하필이면, 인(仁)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은 일본의 제1대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암살했다. 사람을 죽인 안중근이지만 그가 '정의로운 선비'라는 뜻을 가진 '의사(義士)'로 불릴 자격이 있음에는 반문할 여지가 없다. 일단 직관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자기 나라에 풍요로움을 불러온 총리를 쏘아 죽인 사람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연히 넘어갈 만한 일을 좀 더 첨예하게 논쟁해보자. 안중근이 진정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의란 곧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제는 꽤 편리하게 의(義)와 불의(不義)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 명제에는 큰 결점이 있다. 해당 명제에서 말하는 공공(公共)이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말하기에는 '정의란 곧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제가 힘이 돼 주지 못한다. 일본의 공익과 우리나라의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의를 공공의 이익으로 표현해버리면 개개인의 의(義)가 충돌해버리고 결국 협의(狹義)로 남게 된다. 각자의 의(義)를 모아 모두가 인정할만한 대의(大義)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먼 옛날 전국시대, 유가(儒家)의 철학자 맹자의 이름이 천하에 널리 퍼졌던 시절이었다. 당시 전쟁광으로 악명이 높던

양혜왕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맹자를 자신의 나라로 초청했고, 맹자가 이에 응해 서로가 만났다. 양혜왕은 기대에 가득 차 물었다. "선생님께서 제 나라로 먼 길을 달려 와주셨으니 장차 어떤 큰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답했다. "왕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로지 인(仁)과 의(義)가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그는 논리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만약 왕께서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모든 신하도 따라서 각자 가문의 이익만을 쫓길 것이며, 선비나 백성들 역시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뒷사람이나 아랫사람 모두가 이익만을 취하게 되면 결국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맹자의 말처럼 이익이라는 가치가 개개인의 이익으로 환원된다면, 인(仁)이라는 가치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진 도덕적 감정으로 나아간다. 정의가 인(仁)을 근거로 실현돼야 하는 이유다.

안중근이 독립이라는 조선의 이익을 위해 총을 쏘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겠지만, 결과론적인 표현이라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가 진정으로 생각했던 건 일제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 개개인이 가진 슬픔과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이었다. 그래서 안중근이 암살한 건 단순히 조선의 독립을 방해하는 일본 총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짓밟았던 주체였다. 아까 질문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묻는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타국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고통스럽게 빼앗은 자기 나라의 총리를 쏘 죽인 사람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국 정의(正義)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 즉 자신의 공익을 벗어나 상황을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다. 그리고 이런 양심의 근원에 있는 건 타인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자신의 이익을 탐하다가 타인에게 피해끼친 것을 부끄러워하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바로 인(仁)과 의(義)가 우리 본성이라는 증거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정의라는 건 없다"라는 허무주의적 또는 불가지론적 입장이 현명하다고 평가받는 현재이기도 하고, 필자도 이 말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납득한다. 정의라는 단어를 정치적 구호로 악용하는 사람도 많은 것도 문제다. 세계는 모호하고, 어지럽고, 실망스럽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성과 선한 감정에 기대어 희망을 가져보고 싶다. 이익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세련됨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도 '이익도 아니고 하필이면 인(仁)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하필이면 인을 말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정의라는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인과 의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 6 💬 1

박해원 (생명과학과) 이익에서 인으로 전환하는 시선이 참 인상적이네요. 사유의 방향이 참 따뜻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의는 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와 제도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볼게 됐어요. 잘 알았습니다



2025/11/06

thursday, pm 11:16 | 129회
최지은 (사회복지학과)

#4일차 #정의

[마흔아홉 번째 집시]

추상적인 것은 언제나 개념과 기준을 잡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주관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행동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는데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의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흔히 정의롭다는 평을 받을 만한 상황일 때 그 중 한 명만 만족해도 정의가 실현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의라는 가치는 사회가 변할 때 함께 변화하는 가치인데 그 변화의 중심, 핵심적이고 꿰뚫는 불변의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해야겠습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집시가 닳았습니다.]

😊 7 💬 0



2025/11/06

thursday, pm 11:19 | 179회
채은비(생명과학과)

#4일차

#정의
'정의'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진리란 참된 이치. 또는 도리를 말한다. 하지만 정의란 것은 신념과도 같고, 사람들의 신념은 저마다 달라서 결국 정의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어느 세대에서는 노비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였고, 어느 세대에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한 것이 진리이다. 왕은 절대적인 진리였고, 어느 누군가는 우리는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정의로 횡포와 깃발을 들어 왕의 목을 매달았다. 누군가는 범죄자의 목숨을 원하고, 누군가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자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의란 건 언제나 이렇다.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 결과와 과정...

정의는 정의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신념으로, 정의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책을 읽는다. 머리 위를 아득히 덮는 종종한 서가 사이를 헤매면서 나를 바꿔줄, 강렬한 깨달음을 줄 단 한 권의 책이 나타나길 원했다. '타락론'의 사카구치 안고가 도서관을 다니며 그랬던 것처럼 이 근방 어딘가에 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 8 💬 0

2025/11/06

thursday, pm 11:22 | 169원
최은실(국어국문학과)

#4일자

'정의'는 누가 이루는 걸까
알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영화, 웹툰, 소설,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는 '정의'의 승리를 보여 준다. 매력적인 스토리와 감동의 결말로 모두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모두가 바라는 그 '정의'는 현실에서 이뤄지기 어려울까.
스토리 속 주인공을 보면 외로이 싸우거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의 희생이 당연하게 동반된다. 그리고 그 정의를 이루는 건, 초능력이나 자본, 권력등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비범한 능력을 갖춘 주인공이다.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선 인물을 응원하고 그 뜻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인물을 제외한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사는 인물들은 왜 '정의'를 위해 같이 들지 않는 걸까.
주인공들은 '정의'의 싸움을 위해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 이 조건부터 현실에서 이뤄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어렵게 '정의'를 실현한다 해도 사람들은 변화보다 자신에게 피해가 없어 회피했던 그 평범한 일상을 더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정의'의 실패로 오는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 누군가가 해 주었으면 하는 욕망을 다른 곳으로 해소하고 드러낼 뿐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의'는 결말로 보면 아름답지만, 그 과정은 비극적일 수 있다.

😊 6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마치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처럼 결과와 과정이 모두 아름답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의의 의미를 찾길 바라요!

2025/11/06

thursday, pm 11:41 | 129원
원보경(생명과학과)

#4일자 #정의

정의로운 사람의 결단력이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결단력이란, 자신이 하는 행동에 의심을 품지않고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치면 전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에 벌써 그런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도 정의롭게 보이게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인들도 정의롭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전 다행히 아직 정의를지는 않지만, 제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이 정의로워 보입니다. 거기에 힘써려 저 자신도 점점 정의로워질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7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정의로운 남에게 흔들린다고 느꼈을 때만큼은 마음껏 흔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가 오길 바라요!

2025/11/06

thursday, pm 11:45 | 249원
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4일자 : 정의

'정의'라는 주제를 보는 순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생각났다. 초등학교 때,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인상 깊었다. 빠르게 달리는 기차를 멈출 수 없을 때 사람 5명이 있는 선로와 1명이 있는 선로 중 어느 방향으로 꺾어야 하는가? 가난한 자에게는 세금을 덜 내게 하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들은 어릴적 나에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물음이었기에 처음봤을 때의 신기함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세상이 될지 고민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세상은 모두가 '바르게' 행동하는 세상이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단 줄는 것이 '바른' 행동이고, 친구를 괴롭히는 것보단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른' 행동일 것이다. 정의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확신은 못하겠지만 일단 바르게 행동하면 어느 정도라도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불의를 목격했을 땐 사실 엄청난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그저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후에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는 순간 주변의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기에 내가 특별히 정의롭게 행동한 기억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더 놀라운 것 같다. 내가 아직 사고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 이 과정이 끝나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이들이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고 바로 실천할 용기도 있다는 것이니까.

😊 5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트롤리 딜레마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정의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용기가 생기길 바라요!

2025/11/06

thursday, pm 11:46 | 109원
박혜원 (생명과학과)

#4일자 정의

정의의 잣대는 끝없이 변화한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나라나 도시, 심지어 집 마다도 다른 기준을 세운다. 또 누구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도 정의는 다른 얼굴을 가진다.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혹은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는 정의를 재단한다.

어쩌면 대통령이나 정치인처럼 가장 정의로워야 할 사람들은 선진국이 만들어놓은 기준, 법과 양심, 효율과 돈 중 어느 하나를 '정의의 잣대'로 삼을지도 모른다. 요즘은 그 기준 위에 숫자들이 놓인다. 그래프가 오르면 세상이 나아졌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이들의 삶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어쨌든 모두가 숫자의 상승만을 정의처럼 여기며 안도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의실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교회에서 배운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고, 효도하며,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절에서 배운 정의는 나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일 것이다.

정의는 쉽게 슈퍼히어로를 떠올리기 한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날아오는

자동차로부터 겁에 질린 어린이를 지켜주는
방패 같은 존재. 그 방패의 이름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힘 있는 자가 악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 부르기
쉽다.

하지만 기만과 계몽, 그리고 스스로
악자임을 자처하는 몇몇을 구하기 위해 모든
강자들에게 "악자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
새롭게 낳아진 불균형 앞에서 정의의 기준은
다시 한 번 흔들린다.

정의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변화하는 정의를 정의할 수는 없다고 그
자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의조차도, 정의할 수 없는 정의를
정의하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이다.

한 사람의 이익과 사회의 가치를 두고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어제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했던 내가, 오늘은 사회의 책임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다. 그렇듯 정의는 끊임없이 그
가변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변하는 정의 속에서도 변하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정의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디에서나
존재해야 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할 각자의
정의는 언제나 인간다움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다.

😊 5 🗨️ 0



2025/11/06

thursday, pm 11:52 | 10위
심윤진(바이오메디컬학과)

#4일차 스포주의: 용과 주근깨 공주

정의는 언제나 빠른 판단으로 포장되지만,
<용과 주근깨 공주>는 정의가 얼마나
느려야 진실해지는지를 보여준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정의는 누군가를
단죄하는 속도보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머무는 시간에 있다.

여주인공 스킵의 어머니는 감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목숨을 잃었다.
그 선택은 정의로웠지만, 남겨진 딸에게는
깊은 상처였다.
스킵은 어머니가 자신보다 타인을 택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어머니의 '정의'를 상처로
기억한다.
그러나 가상세계에서 '벨'로
다시 노래하기 시작한 스킵은
현실과 마주할 용기를 조금씩 되찾는다.
그곳에서 만난 '용'은 폭력적이라
비난받지만,
현실에서는 학대받는 소년이었다.

'저스티스'라 불리는 집단은 그를 악이라
단정하고 제거하려 하지만,
스킵은 그 안의 고통을 본다.
그녀에게 정의란 응징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타인의 상처를
바라보는 용기였다.
이후 스킵은 용의 현실 속 존재를 찾아나선다.
그 여정은 단순히 한 소년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결국 영화는 정의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
하나는 '저스티스'처럼 규범과 명분의

이름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정의,
또 하나는 스즈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 안는 정의이다.
전자는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후자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낸다.
<용과 주근깨 공주>는 후자의 정의인
공감과 용기로 완성되는 정의를 말한다.
정의는 단호함이 아니라,
끝내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타인을 심판하는 말이 아니라,
함께 물어주는 용기다.
이 영화는 그 느리고 조용한 정의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힘임을 보여준다.

😊 5 🗨️ 2

최시연(생명과학과) 이 감독의 영화를 모두 사랑
하지만 저에게 유독 이해하기 힘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한번
영화를 즐긴것 같아요. 공감과 용기도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06

thursday, pm 11:57 | 13위
송준하(빅데이터전공)

#4일차 '정의란 무엇인가?'
월등히 나를 뛰어넘은 너에 맞서 또 다시
정의를 들먹였다. 사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우월한 것에 대한
시샘과 그것을 갖지 못한 자격지심이 내 정의
연구의 동력이었다. 너의 탁월함을 결박하기
위한 도덕 논증은 지금 돌이켜보면 안쓰럽다.
한 사람의 도덕은 그 사람의 악점을
반영한다고 했던가. 너는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 앞에서 낮부끄러운 당위를 읊을 때
너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제 나는 도덕을 입에 담지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기에.

😊 6 🗨️ 0



2025/11/06

thursday, pm 11:58 | 10위
전다은(디지털미디어콘텐츠)

#4일차: 정의

과거 사람들은 마을에 역병이 돌면 사악한
마녀의 짓이라며 마녀를 잡아 불태웠다.
모두가 마녀를 불태우며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마을에서 가장 약한 죄없는 여성을 마녀로
몰아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었다.
한때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실현하지
못하는 정의를 직접 실현하겠다고 범죄자를
직접 처단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자신들의
행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들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많은 인간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동물을 위협적인 존재로 판단하여 현상금을
걸고 죽인다. 더이상 사상자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물에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들에게 가장
위험적인 존재는 인간이다. 위협적인 인간을
죽이는 것이 동물들에게는 정의실현일지도
모른다.
정의롭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 시대의
정의는 다음 시대의 폭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존재의 정의는 다른 존재의 불의가 되기도
한다. 정의는 언제나 시선의 방향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정의란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는 사회의 통념을
따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정의는 그저 우리
사회가 만든 한가지 시각에서의 기준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진리나 도리에 맞는 걸 떠나서, 나는
그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 6 🗨️ 0

2025/11/06

thursday, pm 11:59 | 891명
홍예진(바이오테디컬)

#4일차 정의

나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일까? 오늘 주제를 보고 나는 나의 '정의'에 대해 곰곰이 고민해 보았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착하게 산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쁘게 행동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살고 나쁘게 산 사람이 안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반대인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황을 보며 현실은 생각보다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나는 정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정의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여러분에게 정의란 어떤 것인가요?

😊 6 💬 0

2025/11/07

friday, am 12:02 | 991명
안도연(러시아 학과)#4일차
#정의

정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어떤 말이나 개념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옳고 바른 도리를 말한다.
우리는 두 가지를 헷갈려 쓰는 것 같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정의라는 단어의 뜻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세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옳음을 구별하고 설명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누군가에게는 바른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한 일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정의를 정확히 정의하려 든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일까?
나는 정의를 그렇게 단정짓고 싶지 않다.
누군가의 아픔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어찌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꾸밈없는 정의일지도 모르겠다.
정의란 끝내 정의할 수 없는 것 같다.

😊 6 💬 0



2025/11/07

friday, am 12:20 | 2291명
김양선

#4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정의(justice)'는 상대적이어서 저마다 정의롭다는 것의 기준이나 상황이 다를 터이고, 그래서 '정의(definition)'하기가 꽤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의 글에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타인을 포용하고 연대하고 공감하려는 마음가짐과 관련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정의를 지니지 않은 현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키워드가 추상적이어서 글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 7 💬 0



2025/11/07

friday, am 12:39 | 1691명
민서아 (글로벌학부)

#4일차 주제: 정의

고민하다 늦어졌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한 번 적어봅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막상 그것을 정의하려고 하면 섣뜻 답하기 어렵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법으로만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틀스가 말한 '무지의 베일' 즉, 정의의 원칙처럼 성별이나 출신,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노력의 결과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이상적인 정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경쟁 속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애쓴다. 그래서 이상적인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기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건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 각자의 양심과 책임이 마음속에 자리잡을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의로운 사회는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타인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 공정하게 행동하려는 노력,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 7 💬 1

하현주(영어영문학과)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네요! 저는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려운 주제였는데, 해당 글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갑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7

friday, am 8:10 | 2891명
김양선

#5일차 키워드 : 그림자

오늘의 키워드는 '그림자'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어쩌면 그림자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는 어떤 모양인가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혹은 사라지는 순간에 대해 써봅시다. 또는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 혹은 늘 따라다니는 과거의 흔적을 '그림자'에 빗대어 말할 수도 있겠지요. '빛'과 '그림자'를 우리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 9 💬 0



2025/11/07

friday, am 10:58 | 1791명
윤지호(일본학과)#5일차
'그림자'

다들 누구나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있다. 아직도 생각하는 건 나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언행에 주의하며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주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나에게 받은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나을지언정 흉터는 남는다. 가끔 정말

빛이 없는 어두운 길을 걸을때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자가 사라진것은 아니다. 그냥 잠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결국 빛이 다시 비치면 내 그림자는 언제나처럼 또 다시 일어나 나를 따라온다. 아무리 도망쳐도 떼어내려 해도 불가능하다. 그림자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도 같다. 아무리 도망쳐도 외면해도 모습은 잠깐 사라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내 과거도 나의 일부니까

😊 8 💬 4

원보경(생명과학과) 그림자가 짙을수록 빛이 더 강해지니까요. 그러므로 외면하기보단 잘못을 직면하면서 빛을 비추는 길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25/11/07

friday, pm 1:31 | 168원
김서영(중국학과)

#5일차 그림자가 있는 시간이 좋다.
요즘은 밤보다 그런 시간이 더 마음이 편하다.

해가 기울고, 아직 완전히 어둠진 않은 그때,
내 옆에 길게 따라붙은 그림자를 보면
왠지 아직 하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예전엔 밤이 좋았다.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있었고,
불 끄고 누워 있으면 세상에서 혼자인 기분이
편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루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아쉽다.

그래서 그런가,
그림자가 생길 만큼의 빛이 있는 시간,
그 짧은 오후의 끝자락이 좋다.
아직 완전한 어둠은 아니고,

그래도 충분히 따뜻한 그 시간 속에서
조용히 나를 따라 걷는 그림자를 보면
조금은 덜 외로운 하루 같다.

😊 7 💬 2

이준호(사회복지학부) 항상 그림자가 함께 해서
혼자 길을 걸어도 덜 외로운 하루를 보내는 글이
공감이 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07

friday, pm 2:18 | 168원
문진우(철학과)

#5일차 그림자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저 그림자는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우리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가
나약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마침내 우리가 굴복해졌을 때 그림자는 우리
앞에 선명해진다.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작품에서 그림자는 심연, 사신,
두려움으로 묘사되고는 한다. 그리고 때로는
들키고 싶지 않은 스스로의 모습처럼
생경하게 느껴지곤 한다. 나 또한 그림자를
잊고 싶었던 기억의 내면화로써 내 길을
따라다니는 심연처럼 느껴지곤 했다. 니체가
말하길 '심연을 들여다 보는 자는 그 심연
또한 그대를 응시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 말을 명시한 채 다시
그림자를 돌아보면 미움함, 분노, 우울,
공황으로 인해 선택을 망쳤던 내 모습들이
겹쳐 보여 그 속에 내가 투영되었다.

그렇다면 평생 나는 이런 그림자를
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림자는 나를 불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일 뿐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플라톤이 말하기를 이 세계는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불투명하고 철학을 통해서 빛의
세계에 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철학의

빛에 찍인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마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망가져 다시
그림자의 품속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할지도
모른다. 어두운 곳에서 나와 바로 햇빛을 본
사람들은 적응이 필요한 법이니까. 빛 속에서
마치 처음 걷는 아이처럼 넘어지고 동굴이
그리워질수도 있으나 우리는 걸어야만 한다.
그것이 인간의 길이었다. 그리고 빛의
세계에서조차 그림자는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다.

하늘을 사랑했던 이카로스는 자신의 힘을
명신하여 두 팔로 하늘을 품었고 추락했다.
그는 바다에 자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못 본 가련한 아해이다. 이 신화는 곧 빛을
사랑하며 전진하되 우리의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라는
비극적인 교훈이다. 로마의 개선장군들은
영토를 정복한 뒤 돌아오는 길에 노예들로
하여금 한 단어를 외치게끔 했다고 한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는 문구이며 우리가 빛에서 안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빛이 모든 걸 비출
때마다 그림자도 하나씩 탄생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내 뒤에 선 그림자를 바라보며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사랑하기로 했다.

모임이 쉬워진다!



😊 8 💬 0



2025/11/07

friday, pm 3:25 | 142원
이준호(사회복지학부)

#5일차 그림자는 저에게 있어 분신,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빛이
있는 곳에서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등교를 할 때,
친구들이랑 같이 길을 걸을 때, 혼자 길을
걸을 때 등 저를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서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저의 감정이 어떤
상태여도 항상 함께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해서 책임을 질 때도 함께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빛나는 순간에 당당하게 내 길을
걸으면서 나아갈 때 내 곁에 함께
있어줬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분신이랑 친구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림자로부터 아픔과 고통,
슬기고 싶은 과거도 있지만, 그런 과거를 겪고
현재까지 그림자의 모습이 보이니까 자신의

과거의 부족한 점을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현주(영어영문학과) 그림자는 언제 어디든 나와 함께하는 친구, 본선 같은 존재라는 접근이 참신한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7
friday, pm 4:40 | 16원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5일차 '그림자'

평소에 '그림자'를 신경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활동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활동이 아니었다면 평소에는 떠올려 보지 않았을 단어들을 생각해 보고

또 직접 적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배움의 기회는 나타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자'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는 항상 어둠 속에서 나를 따라다니지만

빛이 있을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나에게겐 언제나 다양한 기회들이 존재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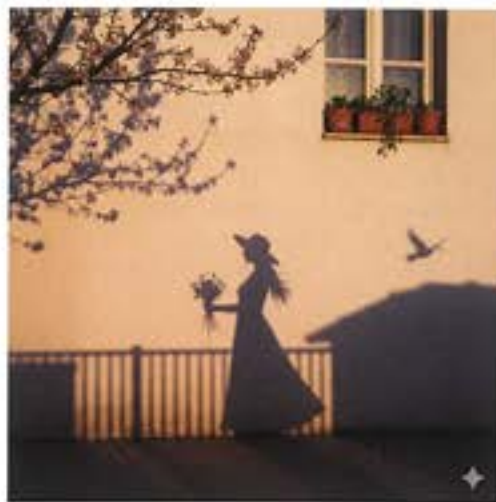
그 기회를 잡을지 놓칠지는

결국 내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두려움에 머물러있지 않고

뭐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호(사회복지학부) 그림자가 기회라는 글이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공감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07
friday, pm 5:32 | 16원
유재원(일본학과)

#5일차 그림자

누구나 인생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급급하였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도리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도 나는 습관적으로 그림자를

감추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그림자를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나도

되게 우울했던 적이 있어. 그때는 자거나 울기만 했어." 이 말을 들은 상대방 대부분이

놀란다. 내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내뱉기에 그렇다는 말이 돌아온다. 그렇게 내 마음은

착잡해진다. 내가 나의 그림자를 너무 공공 숨겼나. 어느 정도 보여주어야 적당한까.

나도 제어하기 힘든 그림자를 공유하는

일에는 큰 결심이 필요하다.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우울한 일을 주변 사람에게 공유한 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였다. 나의 그림자에 삼켜졌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림자를 감추었다. 그렇기에 요즘에도 그때처럼 될까 두렵다. 건강한 두려움이다.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그림자를 소개한다. 언젠가 나의 그림자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을 때가 오면 좋겠다.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아무래도 밝히기 쉽지 않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밝힐 수 있기를 바라요!



2025/11/07
friday, pm 6:16 | 15원
정우현(철학과)

#5일차

내게 그림자는 후회다. 항상 시간이 흐르면 늘 후회를 하고 했다. 중학생 때부터 밤이 되면 지난날의 실수를 슬퍼했다. 지금 그 후회들을 바라보면 정말 귀여운 슬픔이었다.

여자인 친구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 진심을 받아주지 못했던 것,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었다. 겉으로는 가벼워 보여도 속은 굉장히 감성적이었다.

나는 내 감성적인 것들을 보여주지 꺼려 했다. 나는 어렸으니까.

성인이 된 지금도 나에게 후회가 남는다.

아직도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과 진심을 더 고맙게 여기지 못했던 것에 후회를 한다. 이제는 슬픔에 잠기기보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단순히 자책하고 미안해하기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나의 실수를 용인하고 후회를 인정하는

것이아말로 거듭나는 자세라고 느낀다.

실수를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다. 후회를 남기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닌 후회를 남기기 싫어한다는 문장이 인상 깊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7
friday, pm 6:22 | 14원
하현주(영어영문학과)

#5일차 : 그림자

그림자,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낱말 같다. 현재 학교에서 노트를 통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림자에 대해 더 생각해보기 위해 노트 옆에 놓여져 있는 물통의

그림자를 쳐다보았다. 절대 빛 앞에 설 수

없는 그림자. 항상 빛을 받는 반대편에 서있는 그림자. 절대 사물 앞 편에 설 수 없는 그림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빛도 마찬가지로. 절대 그림자 앞에 설 수 없는 빛. 항상

그림자가 지는 반대편에 서 있는 빛. 절대 사물 뒷 편에 설 수 없는 빛.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지만, 빛 또한 그림자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그림자를 부정하고 살지만, 그것이 사물의 앞 편일지. 뒷 편일지 어떻게 알까. 그림자가

있어야만 빛 또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



김서연(콘텐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앞 편일지 뒷편일지 어떻게 알까라는 문장이 인상깊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07

friday, pm 7:29 | 14일음
하태원(소프트웨어학부)

#5일차

그림자

사람은 목표가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리기란 쉽지 않다.

나도 요즘 런닝을 하며 그 사실을 자주 느낀다.

적절한 속도, 안정적인 자세, 균일한 호흡이 모든 것을 신경 쓰며 달려야 어제의 내가 다섯 바퀴를 뛰었다면 오늘은 다섯 바퀴 반을 뛸 수 있다.

하지만 달리기엔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라 생각한다.

한 바퀴를 뛴 열 바퀴를 뛴 결국 스스로의 마음과 싸워야 한다.

뛰는 도중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거나 다른 고민이 스쳐 지나가면 페이스가 흐트러지고 몸은 금세 무거워진다.

몇 번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달려본 적도 있지만 그 다음날 다시 그 각오를 볼때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목표도 그런 것 같다.

내 안의 수많은 생각과 잡념,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빛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 그림자는 언제나 내 발끝에 붙어 있다.

잠시 강해져 그림자를 앞질러도 결국 그것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어쩌면 괜찮은 일일지도 모른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아직 빛이 비추고 있다는 뜻이니까.

수 많은 잡념과 고민,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흔들어도 그 모든 것을 뿌리치려 애쓴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목표라는 빛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나는 오늘도 그림자와 함께 달린다.

😊 6 💬 1

조은채(간호학과) 그림자가 있다는 건 아직 빛이 비추고 있다는 뜻이라는 부분이 너무 좋네요. 계속 곱씹어 생각하고 싶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7

friday, pm 9:25 | 12일음
조은채(생명과학과)

#5일차

#그림자

해가 어슴푸레 넘어가는 시간. 땀으로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끝내 놓은 후 찾아온 정당한 여유를 누리는 중. 읽고 싶던 책도 싹둑 읽었고, 핸드폰도 할 만큼 했어. 이제 뭐 하지?

그래, 산책이나 가자.

벌떡 몸을 일으키니, 당연하다는 듯 내 등 뒤에 따라붙는 내 그림자.

이렇게 생긴 건 세상에 단 하나 뿐일거야.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나의 형상.

꽃보단 과일의 향을 좋아하고, 음악은 재이팝 밖에 안 들으며, 고집도 세고 게으른 내 그림자.

그 모습이 내심 만족스러워. 조용히 미소를 보내 주었다.

사회생활이란 끊임없이 개성을 죽여가는 과정이라지.

더 큰 그림자 안에선 작은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마련이라서.

내 잘못도 아닌 일에 죄송하다 고개를 숙였더니. 그 큰 그림자는 바로 그게

사회생활이라 칭찬하며 내 등을 두드렸다.

내 그림자는 눈에 띄지도 않게 먹어버린 주제에.

나는 잘 해내고 있구나, 하는 기쁨과...

모멸감.

조용히 입을 삐죽거린다.

헛, 그래봤자 어쩔거야.

너도 앞에서는 알뜰 없는 주제에.

이렇게 어두운 밤 그림자 속에서는.

어스레한 어둠 속에 선 작은 가로등 하나. 그 아래 두둥실 떠오르는 선명한 내 그림자.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과 이어폰 하나 달랑 들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로 꼭 채워진

플레이리스트.

편, 어릴라이저를 이렇게 설정하면 베이스가 잘 들린다?

여기에 줄 이어폰의 낭만 한스폰.

봐. 넌 이런거 못하지?

남의 그림자나 잡아먹고 몸집을 불린 너는.

너무 커다래서 이런 가로등만으론 네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

😊 6 💬 1

김영주(화학과) 개성있고 개인의 경험을 재밌게 녹여내는 문체 같습니다!



2025/11/07

friday, pm 9:25 | 10일음
김영주(화학과)

#5일차

우리 모두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난다.

그늘 속에서 바깥으로 내어쫓긴 나는 이를 갈며

처참히 울고 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알을 깨고 빛을

보려 나온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고 있다.

빛만이 있는 곳인데도 그들은 빛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 빛은 분명 따사로울 것이라고 믿으며.

이곳이 나에겐 따사롭지 않다.

내 일부를 알게 모르게 파괴하고 있다.

그렇게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다.

나는 숨죽여, 그러나 틀림없이 느끼고 있다.

끝내 내 종말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불안을

피할 수 없다. 너무 뜨거워 숨이 막혀도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갈 방도 또한 없다. 결국 눈을 뜨고 앞을 볼 수도,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다.

나는 그늘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리석게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달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아래에서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길.

😊 6 💬 1

채은비(생명과학과) 생각이 많아지는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7

friday, pm 9:35 | 15일음
채은비(국어국문학과)

#5일차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 안에서 자란다.

폭풍우와 바람, 따가운 햇빛을 피해 있어 가끔 손끝에 느껴지는 것으로만 알 뿐, 세상이

어떤지 알 수 없다. 가끔 답답함에 그림자를 벗어나기도 하지만 홀로 건디기에 세상은

너무 넓고 가혹할 뿐이다. 부모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지켰고, 그

아이가 커서 홀로 서게 되면, 아이의 그림자를 바라본다. 폭풍우에 쓰러지지 않기를

움츠러들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훗날 아이가 어른이 되면, 아이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을 부모도 같이 바라봐주길

바라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생길 그림자가

걱정되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곤 한다. 그건

그들의 눈에는 그림자 속 지켜주어야 할

아이에 멈춰있기 때문이다.

😊 7 💬 4

채은비(생명과학과) 공감해요. 부모님의 그늘은

돈든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죠. 잘 읽었습니다



2025/11/07
friday, pm 10:16 | 1398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5일차 #그림자

[선 번째 점시]

그림자를 잃어버렸던 소년을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동화에 나오는 피터 팬입니다. 웬디가 바느질로 그림자를 다시 꿰매주자 내버려두고 초대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시켜 줍니다. 여기서 파생된 피터 팬 증후군은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어른의 책임과 현실을 회피하려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증후군은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존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쟁거루족을 포함해 부모에게 기대는 청년들이 많아진 요즘, 피터 팬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도 늘어났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그림자 밑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마냥 탓할 수는 없습니다. 침체된 청년들을 사회로 내보내 각자의 사회적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청년을 향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지원을 받음으로서 사회가 자신을 도와준다는 인식을 심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껌껌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원을 받고 있으니 괜찮다는 느낌을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뽕뽕뽕, 오늘의 문 점시가 다했습니다.]

😊 5 💬 2

박창준(임상의학통계전공) 피터 팬 증후군과 '그림자'를 연결하여 청년 세대의 현실을 짚어주는 통찰이 인상 깊네요.



2025/11/07
friday, pm 10:47 | 1398
김서연(문헌치)

#5일차 키워드 : 그림자

그림자를 보면 괜히 어린 아이가 된 것 같다. 혼자 길을 걷다가 명바닥에 그림자가 보이면 길게 늘어져 있는 그림자를 밟아도 보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키도 눌러본다. 그러다 손으로 이런저런 모양의 그림자를 만든다. 한참 혼자 그림자를 가지고 놀고 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어렸을 때 어머니, 동생들과 함께 종종 밤 산책을 나가곤 했다. 산책길에는 가로등이 있어 어둠이 없었다. 그럼 그 빛으로 인해 그림자가 만들어졌고 동생들과 나는 서로의 그림자를 밟고 밟히지 않기 위해 뛰어다녔다. 막내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때의 나는 동생들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유치했던 것 같다. 몇 번 저를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최선을 다해서 막내를 울렸었다. 이제는 다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 그런 장난을 치지는 않지만 그림자를 보면 아직도 그때가 생각난다.

😊 6 💬 8

김영주 (화학과) 과거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다는 것부터, 어떤 성장이라고 봅니다!



2025/11/07
friday, pm 10:56 | 1408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5일차

저녁에 길을 걸으면
전봇대가 만들어낸 그림자는
커졌다, 작아졌다,
옆으로, 앞쪽으로,
계속 형태를 바꾼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다크서를 아래로 고인 그늘 속에
그 녀석은 슬쩍 숨어든다.
별빛의 잔여물로 존재하는 나,
빛의 파생물로 존재하는 너.

나는 스스로를 밝히려 애쓰면서
동시에 그 어둠에 기대어 산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단지 나를 따라 걷는
또 하나의 피로이자,
나를 증명하는 가장 정확한 증거다.

😊 5 💬 2

채은비(생명과학과) 다크서를 아래로 고인 그늘이란 표현이 인상깊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7
friday, pm 11:07 | 1298
박혜원 (생명과학과)

#5일차

윤하에게

벌써 십일월이다 못 본 지 일 년이 지났네
붉고 노란 식물들이 언제 다 떨어질지 몰라
추운 날씨를 보면 조만간일 거 같아서 아쉽지

않도록 열심히 눈에 담고 있어

네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지 일 년이 지났어
너를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려
모든 불을 꺼놓는 듯
낮에는 장으로 회피하고
밤에는 너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어
너의 그림자가 선명해지는 밤은 곳에는 발을
들이지 않아
그리고 너를 지켜주려는 한 방종의
전봇대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어
우리가 못 본 지 일 년이 지났다

그거 알지, 밖으로 나오면
세상 모두가 발끝에 그림자를 걸고 있어
너의 그림자가 너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듯이
사람들의 그림자는 그들의 모습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의 흔적을 묻으려 들어간 어둠 속에서
그 최후의 선택 속에서 이제는 나오길 바라고
있어

밖으로 나왔지만 정말 힘들 때에는
내가 너의 옆에서 그늘이 되어줄게
잠시라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도록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 그늘이 될게

나도 내 그림자를 달고 여기에 서있어
따뜻해지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

아직도 운하를 기다리며
2025.10 박혜원

😊 5 💬 1

조은채(간호학과) 한줄기 빛 같은 글이네요.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 같은데 꼭 만나길 바랄게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7
friday, pm 11:15 | 12위
원보경(생명과학과)

#5일차 #그림자

보통 사람의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제가 이 사람의 그림자만을 보고 평가할까봐 겁이나요.

초등학교때 정말 안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겁이나 어쩔줄 모를때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의 양면성을 잘 몰라서 그랬나봐요. 그래서 지금은 안 맞는다는 사람도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려해요.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이 있으시나요?



김서연(콘텐츠트)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중학교때 이런저런 일로 안좋게 생각하던 친구가 나중에는 제가 힘들때 위로 해줬던 적이 있어요.



2025/11/07
friday, pm 11:26 | 14위
정세현(법학과)

#5일차 '그림자'

그림자에 대한 나의 추억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평소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나는 친구들을 만나도 사진을 잘 찍지 않는다. 카메라 렌즈 앞에 서면 어색해지고 웃는것도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들과 밤에 만나면 꼭 남기는 사진이 있다. 바로 그림자 사진이다. 친구들과의 추억은

남기고 싶지만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현지 부담스럽고, 그런 나에게 그림자 사진은 이들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땅을 바라본다. 말없이 손을 흔들어버거나, 하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깨를 맞대어보며 여러 포즈를 취하며 그림자 사진을 찍는다. 그렇게 찍힌 사진 속 그림자는 늘 단순하지만 나중에 그 사진을 다시 보면 그때의 발공기, 우리의 웃음소리, 사소한 대화가 떠오르며 추억을 회상해보곤 한다. 나에게 그림자란, 기억을 되살리는 빛의 흔적이다.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단순하지만 내 존재를 뚜렷하게 알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사진을 남길 수 있어 좋네요!



2025/11/07
friday, pm 11:36 | 12위
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5일차 : 그림자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긴다. 작가에게는 책이, 개발자에게는 프로그램이, 음악가에게는 곡이 그 흔적이 된다. 이런 흔적은 한 번 남기면 숨길 수 없다.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 시절의 나를 보여주는 표식이 된다.

그림자도 흔적과 닮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 뒤를 졸졸 따라온다. 떼어낼 수도 없다. 하지만 그림자는 때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한다. 그래서 다행이다.

나는 살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아쉬움은 언제나 남는다. 그래도

괜찮다.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림자는 언젠가 작아질 테니까.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각자의 흔적이 있는 그림자가 그 기억을 잘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적은 나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5/11/07
friday, pm 11:39 | 11위
조은채(간호학과)

#5일차 #그림자

해가 저문 뒤의 세상에게 캄캄한 이불을 덮어주며 모두를 잠재우고 비로소 시작되는 우리들의 일과

더러움 보기 싫단 말들에 어두운 곳으로 숨었지만 우리의 반짝이던 맘들이 모두의 하루를 빛내었지

우리도 빛을 볼 수 있도록 마땅히 나누는 세상 되길 만약 우리들이 사라지면 모두 결국 멈춰버릴 테니



[다큐 시선] 길 위로 출근합니다
www.youtube.com



채은비(생명과학과) 그림자라는 주제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의 가치를 연상하게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



2025/11/07
friday, pm 11:40 | 10위
윤여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3rd

가까워지면 커지고 멀어지면 작아지는 그림자
우리의 모든 행동도
직접 마주 볼 때 더 가까이 들여다 볼 때
오히려 작아지는 법이니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025/11/07
friday, pm 11:48 | 12위
정우림(정치행정학과)

#5일차 #그림자

누구든 자신만 그 실체를 아는 또 다른 나인 그림자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지만 빛이 있는 한, 다시 말해 여러분이 보여지는 모든 순간에 그림자는 함께합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비난합니다. 자기도 그림자가 있으면서 말이죠.

이 내용은 제가 다니는 심리상담센터의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인상적인 말씀들 중 하나를 요약한 글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들에 대해 너무나 쉽게 평가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성향을 고집하면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림자의 존재를 인정할 때 진짜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된 거라고도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들은 게 4년이나 흘렀는데도 그 여남은 개쯤 되는 문장들이 하나하나 기억나네요.

뭐 안팎으로 완전무결한 성인군자만 세상에 존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기는 힘들 겁니다. 사람이니까 가진 나와 다른 이들의 그림자를 사랑까진 아니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라도 가져본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사람으로 남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6 💬 1

채은비(생명과학과) 인상 깊은 글이에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07**
friday, pm 11:49 | 8원클
민시아 (글로벌학부)

#5일차 주제: 그림자

그림자는 또 다른 '나'이다.
그래서 나는 그림자와 함께 성장한다.

그림자는 악점, 후회, 두려움처럼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품고 있지만 그림자와 함께 걷는 길은 결국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는 과정이다.

나에게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은 햇빛이 가장 뽕뽕한 때이다.
그 시간만큼은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며, 지금의 선택을 믿는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그때는 불안과 고민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다.

반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은 하루의 끝이다.
나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끔 일기를 쓴다.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마주하게 된다.
그 감정들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나는 나를 더 알아가고, 조금 더 단단해진다.

과거의 실수나 부끄러운 기억은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든다.
그림자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 같다!

나는 한때 나의 그림자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그림자는 오히려 내 앞길을 비춰주는 길잡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뒤로 나는 그림자를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걸으며, 계속해서 나의 성장을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부탁한다!

😊 4 💬 0

 **2025/11/07**
friday, pm 11:53 | 10원클
홍예진(바이오메디컬)

#5일차 그림자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개인의 개성을 담은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지만 난 그의 모습을 모른다. 그래서 가끔씩 나는 내 그림자가 궁금해지곤 한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을 알지만 나는 그를 모른다는 것이 가끔은 두렵기도 한다.
만약에 그림자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었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자신의 그림자와 좋은 관계라면 순탄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악점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그림자가 궁금할지 궁금하다.

😊 5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일상에서 그림자가 스스로 움직인다면 동생이 하나 생긴 것처럼 재밌으면서도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림자와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면 좋겠네요!

 **2025/11/07**
friday, pm 11:54 | 11원클
최민수(언론방송융합메디언전공)

#5일차

밝은 뒷편에서

그림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밝은 햇빛을 향해, 찬란한 미래를 향해 갈 때는 우리의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그림자가 항상 있다. 밝은 뒷편에서, 우리는 그림자에게 빛지고 있다.

😊 6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항상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 좋네요!

 **2025/11/07**
friday, pm 11:59 | 14원클
송준하(빅데이터전공)

#5일차 프랑크푸르트 공항 탑승게이트
앞이었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다. 창 밖 나무의 그림자는 이미 길었다. 어스름해질 무렵 우리는 헤어졌다. 눈에 눈물이 고여 너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내 눈에 담은 너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밖은 어스름해졌다. 예전에 여름방학을 맞아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다. 자다르의 해변은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평화로웠다. 너는 해변에 누워 정오의 햇빛을 받고 있었다. 그림자가 없을 때 해가 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몰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동안 잠에 들지 못했다. 문자 한 통을 보냈다. 그림자가 사라졌다. 빛과 함께, 두고두고 떠올릴 추억이다.

😊 6 💬 0

 **2025/11/07**
friday, pm 11:59 | 11원클
안도연(러시아 학과)

#5일차
#그림자

아침엔 잘 안 보인다.
햇살이 너무 밝아서

저녁이 되면
보인다.
발끝 옆에
아무 말도 없이 누워 있는 모양으로

가만히 보면
그림자는 늘 나를 닮았다.
기분이 좋을 땐 가볍고
지칠 땐 길게 늘어진다.

밥이 되면 모습이 사라진다.
그럴 땐 조금 허전하지만
없어진다고
사라진 건 아닌 것 같다.

😊 4 💬 0

2025/11/08
saturday, am 12:00 | 13위
정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5일차 : 그림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빛을 받으면 그림자를 만든다. 물체가 있고, 그 물체를 비추는 햇빛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생겨나는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는 언제나 물체를 따라한다. 그러나 아무리 달으려 해도 그림자는 결코 물체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나는 그런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 이상적인 나를 바라보느라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든 이상에 갇혀 살았다. 결국 나는 '나'의 그림자로서, 이상적인 나를 모방하며 살아온 것이다.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아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래야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탐구하기보다, '이상적인 나'가 되기 위해 애썼다. 이제는 안다. 그 이상이 내 내면과 다르다면, 노력으로는 결코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상 속의 내가 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허전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상적인 나'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 위의 실체로서 진짜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 5 💬 0



2025/11/08
saturday, am 12:29 | 26위
김양선

#5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그림자, 내 마음의 그림자. 그림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이번주 마지막날에 나눠봤습니다. 빛이 만들어낸 흔적이 그림자이기도 하지요. 아래 운동주의 시 <흰 그림자>로 이번주 활동을 마감할게요. 다음주 월요일에 2주차 글쓰기 이어가겠습니다. 혹 시간이 된다면 나의 그림자를 비춰보고 관찰하는 주말을 보내기 바랍니다.

😊 10 💬 0



2025/11/10
monday, am 8:07 | 26위
김양선

#6일차 키워드 : 따뜻하다

오늘의 키워드는 '따뜻하다'입니다. 체온이나 날씨가 따뜻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나 시선, 말 한마디가 '따뜻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음식, 따뜻한 영화나 드라마. 우리는 알게모르게 따뜻한 것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지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도. 꽤 쌀쌀한 한 주 시작. 따뜻하게 시작해 봅시다.

😊 10 💬 0



2025/11/10
monday, pm 1:42 | 21위
허한주(영어영문학과)

#6일차 : 따뜻하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오늘의 첫 번째 인증글을 쓰게 되었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저번에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주말 동안 오랜만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왔는데 여러분의 주말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따뜻함을 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인사입니다.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행위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표현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외에도, 그 속에는 따뜻함을 나누는 행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5년 전, 사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었던 코로나 19 시절, 제가 받았던 따뜻함들이 키워드를 받으며 떠올랐습니다. 마스크를 막 쓰기 시작했던 시절, 생필품으로 가득했던 제 손 대신 문을 열어주셨던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그 따뜻함은 저에게 전달되어 제 속에 뿌리를 내린 다음, 저도 언제든 그 따뜻함을 나눠주기 위한 준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날씨는 어느덧 추워졌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을 피워내는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 8 💬 4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인사는 따뜻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나라마다 인사 방법이 다른 것처럼 그 인사의 의미는 특별하기에 아마 현주님의 생각처럼 따뜻함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2:21 | 15위
문진우(철학과)

#6일차 따뜻함

이 주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 따뜻함의 반대어인 냉혹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냉혹하고 외로웠던 순간은 군인으로 복무한 때였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선임을 대하는 태도마저도 어리숙하여 저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는 친구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팔지만 아팠던 이등병, 일병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하루가 지옥 같았던 순간,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임이 다가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어 주었고 그 속에서 봄의 여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고 용원을 받으니 거울 속에 비춰진 초라한 내가 그날만큼은 용서할 수 있을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가장 냉혹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제 마음은 무기력이 뿌리잡게 무엇을 하더라도 '안될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용원과 위로가 뿌리깊은 무기력을 없앴고 마침내 '일단 해보자'는 새로운 희망이 가슴 속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군대 내에서도 각종 체력 훈련이나 사격 훈련에서 우수한 성과를 가진 채로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신뢰를 받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신뢰와 용원을 주고픈 마음이 조금씩 싹 트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정제하며 생각은 감정을 정제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할자 속에 따뜻함을 담아 누군가에게 깊은 봄의 여운을 주고 싶습니다.

😊 8 💬 0

2025/11/10
monday, pm 3:19 | 20위
윤지호(일본학과)

#6일차

따뜻함

어느덧 일본에 산지 8개월차이다. 평일에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알바를 하며 주말에는 친구를 만난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단 한번도 따뜻함을 느낀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2학기때 한 한국인과 친해지면서 한동안 잊고있던 한국인의 정 한국인의 따뜻함을 다시한번 느끼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본인은 친해져도 갑자기 놀자고 불러내거나 말 없이 불쑥 집에 찾아가면 굉장히 실례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웃는 얼굴을 하고있지만 정말 재밌어서 웃는거인지 그냥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건지 헷갈릴때가 많다. 나도 그런 사람들속에 섞여서 그들과 어울렸지만 무언가 인간의 정, 따뜻함을 느낀 적이 없다. 하지만 얼마전 한 한국인과 친해지면서 심심하면 불쑥 서로의 집에 놀러가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간식같은게 남으면 서로 나눠주기도 하며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건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웃으면 정말로 즐거워서 웃는것인지 혹시 속마음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있는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안해도 된다는게 정말 너무 좋았다. 이번 키워드는 따뜻함이다. 물리적으로 따뜻함과 비유적으로 따뜻함이라는 뜻이 있지만 나는 이번 키워드를 보자마자 한국인의 정, 한국인의 따뜻함이 떠올랐다. 유튜브를 보면 헬조선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나오며 한국을 욕하는 댓글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나는 한국이 너무 좋다. 휴대폰만 가지고있으면 지갑을 들고다닐 필요가 없고 교통비가 굉장히 저렴하며 무엇을 이용하든

정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과 따뜻함이 나는 가장 좋다.

😊 10 💬 2

김서연(콘텐츠it) 일본은 그렇군요...갑자기 놀자고 불러내는 게 한국에서는 흔해서 몰랐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3:31 | 14위
정서현(법학과)

#6일차 '따뜻하다'

날씨가 추워진 요즘, 이제는 본격적으로 따뜻함이 간절해지는 계절이 찾아온 듯하다. 차가운 몸을 녹이기 위해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따뜻한 목도리를 맨다. 손 안에 꼭 쥔 핫팩 하나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든다. 길거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꼬치를 먹으며 잠시나마 추위를 잊기도 한다.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전기장판에 누워 있는 순간엔 천국과 다름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운 이 계절을 견디며 따뜻함을 찾아간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유독 마음도 함께 차가워지는 느낌이 든다. 아마도 추운 공기 때문일까, 문득 사람의 온기가 더 그리워진다. 몸이 아닌 마음을 녹여주는 건 결국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와 다정한 손길이 아닐까. 추운 바람이 불수록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지는 계절, 그래서 겨울은 어쩌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웃는 순간이 이 추운 계절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다.

😊 9 💬 2

채은비(생명과학과) 타인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5:33 | 12위
김서연(콘텐츠it)

#6일차

키워드 : 따뜻하다

어느덧 벌써 11월이 됐네요. 쌀쌀한 요즘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으신가요? 저는 얇게 입고 다녔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저는 오늘의 키워드인 '따뜻하다'를 보고 이불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추워지는 날씨에 맞춰 이불을 바꿨거든요. 저는 더위를 많이 타 계절 상관없이 보일러는 항상 외출로 하고 살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추위를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추위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추운 겨울 창문을 살짝 열고 두껍고 부드러운 이불을 어깨까지 덮고 침대에 누워 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온도가 딱 맞거든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도라 애 겨울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딱 하나의 단점은 창문을 닫는 것을 깜박하면 다음 날 아침 매우 추워서 이불에서 뒹박혀난다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춥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제 몸은 그게 아니었는지 감기 걸린 적도 많아요.

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겨울에 어떻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나요?

😊 7 💬 8

김수진(미래융합스쿨) 저도 항상 여름과 겨울이 되면 날씨에 맞춰서 이불이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차갑고 폭신폭신한 이불을 덮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6:18 | 16위
정우현(철학과)

#6일차

저는 제가 써놓은 글들을 볼 때도 따뜻함을 느낍니다. 극복하고 싶은 의지가 담겨있는 저의 글들은 뜨겁고 치열합니다. 인생의 역경들을 극복해온 과정들을 담은 글은 제 마음을 사르르 녹여냅니다. 그 누구보다 저의 심정을 잘 알기에 글을 감미롭게 따뜻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인생에 관한 에세이를 쓰는 게 과제였는데 극복해온 일들을 나열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보람찬 학교생활을 보낸 저 스스로가 대견하고 멋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뜻함이 별거일까요? 마음의 위로,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이면 모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함을 느끼기 위한 필수요소는 온전한 감정이입입니다. 과거의 감정도 잊히기 마련입니다. 새로이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위안을 삼게 됩니다. 우리는 새 출발을 하자며 모두 과거의 일은 잊으려 합니다. 저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들을 바라보고 업적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함은 다른 곳이 아닌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 9 💬 9

김서연(콘텐츠it) 맞는 거 같아요. 제게 있었던 일들을 나열해보면서 전보다 발전했다는 것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7:02 | 15위
유재원(일본학과)

#6일차 따뜻하다

따뜻함을 챙겨야 하는 세상. 요즘 날씨 부쩍 추워졌다. 이에 더불어, 봉어빵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걸 보니 겨울이 왔구나 싶다. 그래서 최근에 옷을 몇 겹씩 입는다. 나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그러지 않으면 혼자 계절이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땀을 흘린다. 걸뿐만 아니라 속도 챙겨야 한다.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갑자기 울적해진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맞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마음이 보내는 SOS에 나는 움푹달락도 못한다. 그럴 때에는 쉬는 시간을 가지며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고, 좋아하는 노래나 영상을 보며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길도 속도 따뜻해졌다면, 이제 그 따뜻함을 나눌 차례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게 반복이 된다면 이 세상은 따뜻해질 것이다.

😊 8 💬 4

김서연(콘텐츠it) 마치 제 속마음을 읽는 것 같네요. 저도 제 속을 좀 챙겨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7:27 | 15위
김영주 (파학과)

#6일차

따뜻하다.
불쾌한 열기가 숨을 턱 막히게 한다.
존재와 존재 사이의 상호 작용을 느낀다.
심장 박동에 맞춰 버둥거리고 있다.
나는 이내 탁해질 너의 눈동자를 가만히 본다.

너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의 잠식을 바는 것 뿐인
너는,
모욕 받는다. 송고할마저 빼앗긴다.
마음대로 글을 내지도 못한다.
나는 식지 못하는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떨군다.

평안을 가능하지도 못한 채 죽은 자들을
생각한다.
그들의 몸엔 무언가 많이 달려있다.
종양을 떠올린다.
그들의 온기는 아직 따뜻하냐.
만저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 7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역시로 대운 따뜻함은
진짜 따뜻함에 건줄 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라요!



2025/11/10

monday, pm 7:29 | 17위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6일차 '따뜻하다'

요즘 저는 따뜻하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뜻함 전기장판, 핫초코, 핫팩

등 겨울을 대비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물건들은 많지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2006년 전에는
사회가 공동체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 돕고 배려하며 정을 나누기 쉬운
사회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금 모으기 운동이
생각하는데
때는 1998년 IMF라는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금을 모아 내놓았고
나라를 위해 단결했으며 그만큼 따뜻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27년 전의 일이지만 현재 시민들의
모습과는 충분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 자신을 돌아봐도
만약 지금 다시 IMF와 같은 위기가 생기고
금 모으기 등의 자발적 캠페인이 열린다면
과연 기부를 할수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애국심'보다 '내가 먼저'라는 마음이
앞서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자발적인 기부를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옳고 잘못됐냐의 문제가
아닌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는
따뜻함을 잘 못 느끼고 살게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주위에 따뜻함을 베풀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차가워지기 전에
따뜻함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제 따뜻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8 💬 2

하현주(영어영문학과) 저도 예전 사회의 정과
지금과 많이 대비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이웃끼리 이사오면 떡을 주고받았던
모습이 흔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런 모습이 많이
줄어들어 마음이 안 좋습니다.



2025/11/10

monday, pm 7:56 | 14위
허태원(소프트웨어학부)

#6일차

날이 추워지면서 요즘 교실마다 난방이
켜지고 있습니다.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 좋지만 따뜻한 공기
속에서 몸이 나른해지고 수업 중 졸음이
사르르 몰려오는 걸 보니 진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2025년의 끝자락에 와 있네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차가운 계절이 오면
우리는 따뜻한 집, 따뜻한 음식, 따뜻한 옷을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마음까지
포근한 겨울 보내세요.

😊 7 💬 2

김서연(콘텐츠it)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8:01 | 12월 8일
이준호(사회복지학부)

#6일자

"따뜻하다" 주제를 나누기 위해 저는 중간고사 기간에 감기에 걸렸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험기간 2~3주 전에 감기에 걸려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감기를 낮기 위해 병원을 2군데 가서 치료를 보고 약을 탔지만 이상하게 감기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감기가 걸렸을 때만큼 공부도 정말 안 났습니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고 폭 쉬었습니다. 폭 쉬고 일어날 때 무지 더웠습니다. 이를 동안은 찜질방에 온 것처럼 더웠고, 평상시에 일어났을 때랑 다르게 엄청 따뜻했습니다.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플 때 침대에서 이불 덮고 쉬는 것이 저에게 따뜻함을 만들어서 한편으로 신기하고 제 몸을 보호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 5 💬 4

김서연(콘텐츠it) 저도 최근에 감기 걸렸었어요. 심하게 걸린 건 아니었지만 코감기라 그런지 숨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불편했었죠.

아플 때는 쉬는 게 최고죠!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8:19 | 12월 8일
최현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6일자

델리만주의 일탈

사회정의에 대한 거대담론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건 겨울철 집안에서 파는 봉어빵이다. 팔봉어빵(팔봉)이나,

슈크림봉어빵(슈봉)이나로 제파가 나뉘는 것이다. 팔자는 양비론을 펼치면서도 끝에 끝까지 가서는 슈크림봉어빵으로 마음이 기운다! 바삭하게 익은 반죽 겉면을 "파삭"하고 베어물면 속에 촉촉한 반죽이 따뜻하게 입을 채운다. 그리고 핵심은 워니워니해도 녹진하면서도 달콤하고 노란 슈크림! 머리부터 시작해 꼬리까지 봉어빵 한 마리를 다 먹고 나면 정말 타인에게 친절하고 앞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혹자는, 이를테면 팔봉장통파들은 슈봉을 이른바 '델리만주의 일탈'이라면서 배척하지만 봉어빵 반죽의 바삭함과 슈크림의 달콤함의 조화! 그 맛을 한 번 본 자는 절대 슈봉의 독창성과 탁월성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날이 춥다. 우리 모두 슈봉과 함께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 3 💬 4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저는 그래도 팔봉파입니다!



2025/11/10
monday, pm 8:48 | 12월 8일
최은실(국어국문학과)

#6일자

오늘 강의에서 교수님이 편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건 따뜻하지 않은가요"

저는 고등학생 때 힘들 때마다 미래의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썼을 때를 기준으로 5년 뒤인 2024년에 읽어 보라는 문구를 쓴 통에 차곡차곡 넣어두었습니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벅찬 감정을 편지에 흘려보냈고 글씨나 종이에서 보이는 눈물,

구겨진 끝자락이 남아있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담은 편지는 서투른 감정으로 추운 계절을 보냈다면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을 때는 봄이 되어 겨울을 품을 수도 있고 보낼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을 알기에 같은 계절을 몇 번이고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 💬 2

김수진(미래융합스쿨) 저도 옛날에 성인이 된 나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림기도 하고 다시 한번 30대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고 싶기도 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9:19 | 12월 8일
윤여진(디지털미디어콘텐츠)

#4th

신기하게도 따뜻함 하면 추운 겨울이 떠오릅니다. 추운 계절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일 겁니다. 덜덜 떨며 방으로 들어와 속 들어가던 이불 안,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손을 따뜻하게 해주던 손난로, 모닥불, 실내의 따뜻한 훈기, 크리스마스 트리들의 노란 불빛. 생각해 보면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우리 주변에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과 함께했다면 겨울은 오히려 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하루하루도 나에게 무엇이 닥치나보다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지에 달려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6 💬 1

최지윤(사회복지학과) 생각해 보면 불빛의 색깔로도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불빛들로 주변이 채워지길 바라요!



2025/11/10
monday, pm 9:20 | 12월 8일
안도연(러시아학과)

#6일자
#따뜻하다

겨울이 되면 유난히 냄새도 따뜻해지는 느낌. 거리엔 어묵 국물의 김이 나고 손끝은 얼었지만 봉어빵을 쥔 손은 따뜻하다. 단순히 뜨거움이 아니라, 추운 계절이 만들어낸 작품 같다.

생각해보면 따뜻한 음식이 특별한 건 그 음식의 맛 때문만은 아니다. 여름에 먹는 국물은 업기만 하지만, 겨울엔 같은 국물이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겨울의 차가움이 따뜻함의 가치를 완전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야 비로소 온기를 느끼고, 그 순간 따뜻한 음식은 한 끼가 아니라 체온이 된다.

엄마가 끓여주는 따뜻한 된장국, 친구가 건네는 봉어빵 한 봉지 속에는 온도 이상의 정성이 담겨 있다.

입안에서의 따뜻함보다 오래 남는 것은 음식을 건넨 마음의 온기다. 겨울의 차가움은 결국 사람의 따뜻함을 더 빛나게 만드는 배경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겨울이 낭만있다. 추운 계절이 있어야만 따뜻한 음식이, 그리고 마음이 더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겨울은 차가운 계절이 아니라, 따뜻함이 피어나는 계절 같다.

😊 7 💬 3

홍예진(바이오메디컬) 저도 어묵 국물 참

좋아합니다. 겨울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온기가 스며드는 게 좋더라고요.



2025/11/10
monday, pm 9:25 | 13회
정우림(정치행정학과)

#6일차 #따뜻하다

2003년 개봉한 영화 '몬스터'에서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아일린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셀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관객들은 극중 셀비의 구애로 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영화가 막바지로 갈수록 아일린이 받아들이는 사랑은 심하게 왜곡돼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일린이 셀비에게 받은 따뜻함이 너무나 낯선 나머지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집착의 형태로 뒤돌아 버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셀비가 주는 따뜻함을 잃지 않기 위해 연쇄살인을 저지릅니다.

아일린에게 닿은 그 온기는 그녀를 살린 동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같은 범죄자들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아일린이 노숙과 매춘 속에서 평생 찾아 헤메던 건 그저 사람의 따뜻함 그 자체였다는 걸 너무나 늦게 깨달은 그녀의 모습은 비극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겁니다.

저는 무슨 사고나 범죄만 터지면 "우리 모두가 가해자다", "사회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한번 더 돌아보고, 작은 친절이라도 건넨다면 사회적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담이문에서 뒤에 오는 사람을 확인하고 문을 잡아 준다거나, 룸메이트에게 식사 여부를 묻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감사 인사가 뒤따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작은 친절이 모여면 큰 힘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9:30 | 10회
송준하(빅데이터전공)

#6일차 "그들은 살기 어려운 지방을 떠났다. 온기가 필요해서였다. 게다가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사람들과 몸을 비비고 있다. 온기가 필요해서다." [1] 나약하게 자란 사람들과 쇠약한 사람들은 따뜻함을 찾는다. 그들은 무리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다. 그들에게는 웅크리는 미덕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1]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장의창 역, 서울:민음사, 2004, 23쪽



2025/11/10
monday, pm 9:40 | 14회
채은비(생명과학과)

#6일차
#따뜻하다
따뜻하다.

간밤에 플린 온기가 고여 있는 이불 속. 가물가물한 눈꺼풀 벽면에 아롱지는 햇살 늦은 정오의 늦잠이다. 고인 알기가 진득한 이불. 맨살에 스치는 보드라운 촉감. 일어나기 싫다. 꿈알거리면서도 조금 버거운 온기. 바닥에 눌러붙은 볶음밥이라도 된 것 같아.

몸속 뇌수도 혈액까지도 뜨끈해져 녹진해진 것 같다. 용암? 아니, 그것보다는... 녹인 초콜릿?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생각하기를 포기하곤 멍해진 머리. 결국 건디지 못하고 절절하게 뜨거워진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고 만다. 영 상쾌해진 않은 기상이다.



최지운 (사회복지학과) 아침에 딱 컸을 때가 노곤노곤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어나기 싫지만 모두 힘내길 바라요!



2025/11/10
monday, pm 10:00 | 9회
홍예진(바이오메디컬)

#6일차 따뜻하다.

날씨도 쌀쌀한 요즘 따뜻한 음식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추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봉어빵 냄새가 어디선가 솔솔 납니다. 그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봉어빵을 파는 포장마차가 보입니다. 추운 날에는 더더욱 사람이 물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석적인 맛인 팔 봉어빵과 달달하고 부드러운 슈크림 봉어빵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묵도 같이 파는 곳이 있는데 어묵도 같이 먹으면 두 배로 맛있습니다. 추운 날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시면 추운 몸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봉어빵과 어묵 덕분에 겨울이 그다지 싫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울 하면 생각나는 따뜻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김서연(콘텐츠it) 전 어묵하고 호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2025/11/10
monday, pm 10:24 | 12회
김서영(중국학과)

#6일차 따뜻하다.
그 말만 들어도 어떤지 겨울 공기 속에서 하얀 숨이 피어오르는 느낌이 든다.

아침에 이불 속에서 살짝 눈을 뜨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내 얼굴에 닿는다. 그때의 온도가 딱 좋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오늘 학교 앞 카페에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컵을 두 손으로 감싸니까 괜히 마음까지 녹아내렸다. 한 모금 마시니까 입천장은 살짝 데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따뜻하다는 건 꼭 편하다는 뜻이랑 닮아 있는 것 같다.

예전엔 따뜻하다는 말이 그냥 날씨에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젠 사람한테도 쓸 수 있구나 싶다. 누가 웃을 때 그 표정이 괜히 마음을 풀어주거나, 지나가다 조심히 가라는 한마디 들었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질 때 그런 순간들이 다 따뜻하다. 아무리 추운 날이어도, 그런 말 하나면 손끝보다 마음이 먼저 녹아내린다.

사람 사이의 온도는 날씨보다 훨씬 빨리 변하는 것 같다. 누군가의 한마디, 한눈빛이 하루의 공기를 바꿔놓는다.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포근하고 안정감을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들로 가득 차는 하루가 많아지길 바라요!

2025/11/10
monday, pm 10:37 | 12월 8일
정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6일차 #따뜻함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타야 할 10-1번 버스가 1분 후 도착한다는 알림이 떴다. 부랴부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정류장으로 달려가는데, 내 옆으로 15번 버스가 지나갔다. 순간 10-1번인 줄 알고 놀랐지만 아니어서 안심하고 속도를 늦췄다. 그런데 15번 버스 기사님이 내가 그 버스를 타려는 줄 아셨는지 아무도 없는 정류장 앞에서 나보다 먼저 멈춰 10초 넘게 기다려주셨다. 감사했지만 동시에 죄송했다. 나는 그 버스를 탈 생각이 없었으니까. 괜히 혼란을 드린 것 같아 뒤에서 오고 있는 10-1번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잠시 후 15번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달려가는 나를 보고 잠시 멈춰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 언젠가 진짜 15번을 향해 뛰어오는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아침이었다.

😊 5 💬 3

최은실(국어국문학과) 아침에 이런 경험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 *

2025/11/10
monday, pm 10:43 | 17월 8일
조은채(간호학과)

#6일차 #따뜻하다

금방 데워진 밥그릇
입김으로 식힌 수저

맛당은 팔들의 체온
앉았다 일어난 자리

입었다 벗어준 외투
빌려준 장갑의 안쪽

불을 쓰다듬는 손등
반 뼉 거리의 숨결

얼어붙을 듯한 길을 걸다가도
돌아오면 언제나 나를 녹이던
돌아보면 코를 시큰하게 하는
영영 식지 않을
그 온기

😊 8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많은 예시들이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들로 보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해 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길 바라요!

2025/11/10
monday, pm 11:01 | 13월 8일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6일차 #따뜻하다

[선한 번째 점시]

전 더위를 많이 탑니다. 특히나 여름 같은 계절이나 해가 뽕뽕하고 맑은 날에는 그 뜨거움에 진저리를 칩니다. 그래서 햇볕이

내리쬐는 날보다 우중충한 날, 구름이 많고 그늘이 많은 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따갑고 뜨거운 느낌이 드는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날이 올 때면 한 번씩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태양이라는 주체는 똑같은데 왜 이런 건지 항상 궁금하고 신기합니다. 마음 상태, 주변 기온, 바람의 유무 등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마치 태양이 나를 달래주는 것 같아 드물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뽕뽕뽕, 오늘의 문 점시가 닦였습니다.]

😊 5 💬 1

조은채(간호학과) 저도 평평한 날 별로 안 좋아해서 공감합니다. 특히 습도가 높으면 더더욱요. 그치만 습도가 낮고 햇빛이 구름 사이로 적당히 쏟아지는 날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2025/11/10
monday, pm 11:09 | 13월 8일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6일차

오늘 오전 9시에 시작한 수업이 끝나고, 점심으로 뜨끈한 순대국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도 다음 수업까지는 아직 현참 남아 있었다. 식곤증 때문인지, 아니면 어제 늦게 잠든 탓인지 졸음이 밀려왔다. 결국 나는 침대로 향했다. 늦게 잔 이유를 변명하자면, 어젯밤은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있었다. 응원하던 팀이 우승하는 바람에 도파민이 폭발해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비록 kt가 졌지만, T1과 kt 그 10명의 청춘이 만들어낸 게임 속 열정은 정말 뜨거웠다.

꿈인지 현실인지 경계가 흐려질 무렵, 벌써 3시가 다가왔다.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말처럼, 내 체온으로 데워진 이불 속은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다. 꾸물거려다 결국 학교로 향했다.

오늘따라 햇볕이 유난히 따사롭다. 낮은 자외선 지수에도 집타가 생기는게 싫어서 양산을 들었지만, 양산에 채 가려지지 않은 청바지 위로 전해지는 온기가 오히려 기분 좋다. 피부 아래로 스며드는 햇살에,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모든 것은 단백질이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문장이 문득 떠올랐다. 오늘 오전 식물생리학 수업에서도 통하는 말이다. 호르몬도, 사이토카인도 결국 생명을 이어주는 단백질의 언어다. 하늘 아래 햇살을 받는 식물들도 나와 같은 따스함을 느낄까. 그들도 분명 이 온기 속에서 자라고 있을 것이다.

약 1년 전, 강아지 '씨니'가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 그 작은 몸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던 온기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생명이 꺼진 자리엔 차가움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따뜻하다'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말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 같이 잠을 자며 내 이불을 먼저 덮혀주던 씨니. 그 따스함은 이제 기억 속의 체온으로만 남아 있다.

오늘, 나는 다시 삶과 죽음이라는 밀연 속에서 여러 종류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 모든 것은 아직 내가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해준다.

😊 5 🗨️ 1

조은채(간호학과) 오늘 지랑 시간표 비슷하시네요.
**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니 세상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글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11:20 | 13위
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6일차 : 따뜻하다

오늘은 추웠던 날씨와 다르게, 마음만은
따뜻하다. 선물같이 월급이 들어왔다. 어느덧
아르바이트를 한 지도 2년 차가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첫 월급날이
생각난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의미있게
사용하고 싶어서 어디에 쓸지 며칠 안
고민했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가족 잠옷을
매했다.

그때가 마침 겨울이어서 털 옷을 샀다. 돈
아끼라고, 왜 잠옷을 사냐고들 그랬지만 막상
다 같이 맞춰 입으니 귀여웠고 다들 좋아했다.
신나서 사진도 찍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치킨을 주문해서 같이 먹으니 더
맛있었다.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한 하루였다.
오늘 받은 월급도 따뜻하게 써야겠다!

😊 6 🗨️ 3

원보경(생명과학과) 잠 잘때 입은 잠옷도 중요한
옷이라 생각해요. 귀여운 잠옷을 입고 자면 전
기분이 좋더라고요

2025/11/10
monday, pm 11:36 | 10위
원보경(생명과학과)

#6일차 #따뜻하다
우리집은 언제나 봄이다.
엄마의 눈빛에 아빠의 다정한 목소리에,
언니의 무심한 행동들이,
언제나 따뜻한 봄임을 느끼게 해준다.

집에 봄샘추위와 같은 냉랭한 분위기가
맺들때도
꽃가루와 같은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집은 언제나 봄이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도 언젠가 따뜻한 바람이
불 것이다.
언제나 봄인 우리집은 따뜻하다.

따뜻하다란 말에 시뵈에 떠오르지 않아 짧은
시를 써봤어요

😊 4 🗨️ 2

최은실(국어국문학과) 봄은 아름답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반갑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봄이 주는 기분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11/10
monday, pm 11:43 | 10위
박혜림(생명과학과)

#6일차

11월인데
벌을 봤다

토실토실한 몸으로
꽃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잠시나마
따뜻한 공기에 미련이 남아

그래 너희가 늦은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식어버린 세상을 탓하며

따뜻함은 질서가 아니고
계절의 순서도 아니고
누가 정해둔 온도도 아니고

그냥 남은 마음
아직 식지 못한 마음

이제 몇 달은 보지 못하겠지
괜히 오래 담아본다

😊 5 🗨️ 1

최지윤(사회복지학과) 가끔 아직 꽃이 핀 곳을
보면 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벌들을 위해서라도 따뜻함이 빨리 오길 바라요!

2025/11/10
monday, pm 11:59 | 12위
민서아(글로벌학부)

#6일차 주제: 따뜻하다

"따뜻하다"는 말은 물리적, 감정적, 사회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물리적 의미로는 온도가 높아 차갑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감정적 의미로는 사람의 마음이나 분위기가
다정하고 포근한 느낌을, 사회적 의미로는
배려와 친절, 그리고 공감 같은 인간적인
온정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나는 오늘, 그중에서도 감정적, 사회적 의미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따뜻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때로는 눈에 보이기도
한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따뜻함은 손으로 잡을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이 건네는 말 속에, 눈빛 속에,
그리고 아주 사소한 행동 속에 담겨 있다.

진심에는 형태가 없지만, 그 울림은 마음을
통해 전해진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따뜻함을
드려내게 된다.

무심한 듯 건넨 커피 한 잔,
추운 날 묵묵히 기다려주는 마음,
밤 늦게 돌아가는 길에 조심히 들어가라는 한
마디.

그런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따뜻함이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따뜻함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보이게 된다고!

😊 3 🗨️ 0

2025/11/11
tuesday, am 12:25 | 24위
김영선

#6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다보니 따뜻한 집과 음식, 음료
이야기가 많네요. 따뜻한 이웃과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요. 다행입니다. 차갑고
삭막한 세상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으니깐요. 내일은 기운이 더

내려간다고 하니 건강 잘 챙기시다.

**이번 주는 형용사나 부사로 키워드를 제시할까 합니다. 내일 아침에 새로운 키워드로 만나요



2025/11/11
tuesday, am 8:07 | 25일째
김영선

#7일차 키워드 : 연결하다

오늘의 키워드는 '연결하다'입니다.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디지털 연결망, 마음과 마음의 연결,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려 했던 경험 등 '연결'의 힘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혹은 어떤 기술과 연결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어떤 연결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2025/11/11
tuesday, pm 12:39 | 17일째
문진우(철학과)

#7일차 연결하다

작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우리를 잇는 실이다. 이 말은 역사에 아슬아슬 사라진 사람들을 기록하고 다시 읽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관계는 미약하게나마 그들과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동일한 인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억과 그 기억을 활자로 가지런히 놓혀 소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환 서사시로 잘 알려진 오디세이아는 꽤 많은 오디세우스가 수 많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려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기도 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여 신의 노여움을 받는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와 국적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분명한건 그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며 그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밤하늘의 북극성을 지도 삼아 항해를 이어나갈 때 전율이 일었습니다. 고작 별이 빛난다는 이유로 그 넓은 바다에서 삶을 회복하는 모습은 수 많은 좌절에도 글을 쓰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고독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제가 여기에 존재함을 글자로 쓰는 까닭에 유난히 고독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읽는다 함은 독자와 제가 미약하게나마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니, 별을 노래하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 시인처럼 저는 제 길을 적어나가야겠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1:52 | 15일째
김서연(콘텐츠)

#7일차
키워드 : 연결하다

오늘의 키워드인 '연결하다'를 읽고 SNS가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21세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관계를 형성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서로의 언어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죠.

어렸을 적 저는 외국인 친구와 온라인으로 채팅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저는 지금보다 영어가 훨씬 서툴러서,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가며 상대의 채팅을 겨우 읽고 영어로 답장하곤 했습니다. 서툰 소통이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SNS에서 연결을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은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의 인연을 유지해 줄 때였습니다.

문득 이 소통 창구가 없었다면, 중학교 시절 친구와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소원해질 수 있었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붙잡아준 것은 SNS였습니다. 저에게 연결이란 소중한 인연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연결이 꼭 새로운 것에만 이어주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 공감하며 읽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2:36 | 14일째
여준호(사회복지학부)

#7일차
"연결하다" 저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대로 연결이 되어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처음 입학

했을 때 같은 과에 아는 사람이 초중고 같이 나온 동창 친구 한 명 말고 없었습니다. 작년 개강 첫 날인데도 주변 동기들은 서로 맞는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과 동기 친구는 본반이나, 지도교수님이 달라서 전공 수업, 오디세이세미나 수업을 같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강 첫 날에 혼자서 전공 수업, 오디세이세미나 수업을 들으려 갔습니다. 오디세이세미나 수업 때 지도교수님께서 중요사항을 말씀해주셨고, 바로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진행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한 친구의 자기소개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인스타 아이디를 말하면서 친해지고 싶으면 디엠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디세이세미나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 친구에게 친해지고 싶다고 디엠을 남겨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을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하였고, 그 때 친구는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었고, 그 친구를 만나면서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통성명을 했고, 그 친구는 제 이름이 자기랑 절교했던 친구랑 이름이 같다고 말하면서 친구로서 첫 만남이 되었고, 그 이후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랑 친구들이랑 연을 맺기도 하고, 서로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가 되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 친구에게 디엠을 남기면서 다양한 인연의 친구들을 만나고, 나를 알고 있는 동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신기했습니다. 친구들끼리 학식부터 시작해서 학교 근처 식당, 카페, 영화관, 노래방, 뷔페, 무한리필 고깃집, 학교 축제와 학교 행사들을 같이 참여하게 되었고, 심지어 한 친구랑은 복수전공이 같아서 수업 수강신청할 때 시간표를 같이 짜서 서로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변 친구들이랑 친구의 지인, 수업을 같이 듣는 학우분들, 지도교수님도 아실 정도로 서로가 잘 아는 친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디엠이 아니었다면 아마 연결된 관계를

만들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친구로부터 주변 관계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어 친구에게 고맙기도 합니다.

😊 9 💬 2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친구들의 연결을 통해 친해진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제가 연결해 줘서 친해진 친구들도 있어서 고등학교 때는 다 같이 어울려 다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3:06 | 931원
윤지호(일본학과)

#7일차
"연결하다"

가장 먼저 이 키워드를 보자마자 떠오른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연결 즉 인간관계였다. 유치원 초,중,고,대학교,군대 어딜가나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내가 어려서인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귀찮게만 느껴졌고 성가시다고만 느꼈다. 한마디로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따위 없어도 혼자서도 잘 할수있다. 잘 살수있다. 이런 개동철학을 고등학교때까지 가지고있었고 가진건 취향도 없으면서 항상 나 잘난것에 살았다. 잘난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그러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런 개동철학과 함께 입대를 했다. 물론 결과는 다들 말해도 알것이다. 나는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그냥 작살이 낫고 내가 얼마나 가진게 없고 약한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전역을 하고 정신적으로 큰 성장을 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가오는걸 기다리는것이 아닌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졌다. 전역후 새롭게 사귄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먼저 다가간 사람들이었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다.

😊 5 💬 0

2025/11/11

tuesday, pm 3:21 | 109원
정서현(법학과)

#7일차 '연결하다'

연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는 지금은 이미 멀어진 사람들을 떠올리게 된다. 한때는 같은 취미를 즐기고, 같은 노래를 좋아하며, 같은 미래를 향해가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고, 이 연결이 오래 지속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려졌고, 어떤 관계는 사소한 오해나 순간의 감정으로 틀어졌다. 그렇게 하나 둘 연락이 끊기고, 사진 속에만 남은 얼굴들이 늘어갔다. 돌아보면 연결이라는 것은 그만큼 섬세한 것 같다. 끈처럼 단단히 묶인 것 같아도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풀리고 흩어져버린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 비록 지금은 멀어졌더라도, 그때의 연결은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5 💬 0

2025/11/11

tuesday, pm 4:39 | 139원
최은실(국어국문학과)

#7일차

"연결"에 대해 생각하니 시대를 연결하는 경험을 나누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의 전공은 많은 고전 문학이나 고전 문헌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리포트를 자주 씁니다. 과거의 기록 즉, 글로 기록된 모든 것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연구하는 이유는 정보가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을 현대로 연결하는 것 즉, 끊임없이 향유하는 것이 시대를 연결하고 지금의 시대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알아내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문학보다 고전 문학을 좋아합니다. 작품이 쓰였던 시대를 살아간 작가의 생각과 시대를 이해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 7 💬 2

채은비(생명과학과) 저도 고전문학 정말 좋아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의 모습을 느낄수 있다는게 좋지 않나요. 잘 읽었습니다 :)

2025/11/11

tuesday, pm 4:56 | 139원
김서영(중국학과)

#7일차 연결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친구랑 웃었던 시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통했던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 같았다.

나는 원래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인사만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한마디 먼저 건네보려고 한다.

전에는 혼자만의 공간이 제일 편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누군가 옆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같이 밥을 먹거나, 웃거나, 심지어 아무 말 없이 걷는 시간도
그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만으로 충분하다.

끊어진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요즘 조금씩 배우는 중이다.
사람 사이의 연결은 쉽게 끊어지는 만큼 생각보다 쉽게 이어지고 또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 5 💬 1

김서연(콘텐츠아트) 저는 아직도 초면인 사람과는 힘든 것 같아요.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는 모습이 멋지시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5:30 | 119원
최연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7일차

공백을 채우는 사람들

언론을 공부하는 전공 특성상 글을 쓸 일이 많다. 대략 4000자 정도 되는 신문 기사를 하루 동안 골골대며 써내고, 빠근함이 느껴지는 손목을 주무르며 한숨 돌리던 어느날 든 생각이 있다. "대체 왜 기록해야 하는가?" 대단히 철학적인 공상에 잠겼던 찰나였지만 아직 남은 과제, 날아간 시간, 빠근한 손목까지...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건 포크로 거리는 배였다. 이미 밤 11시를 넘어버린 시각, 거창하게 먹기는 좀 그러니 육개장 컵라면 하나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평소 즐겨보던 만화 '원피스'를 보면서 컵라면 하나를 먹을 계획이었다.

만화 원피스에는 '포네그리프'라는 물체가 존재한다. 포네그리프는 고대어가 쓰인 거대한 석판으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쓰인다. 그리고 이 포네그리프에는 그 시기에 일어난 모든 역사가 써있는데, 작품 내 세계의 역사 중 900년 전부터 800년 전까지의 딱 100년의 기간에는 해당 기간에 제작된 포네그리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전 세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채 공백으로 비어있다고 해서 '공백의 100년'으로 불린다. 작품 내에서 악역으로 통용되는 집단이 의도적으로 이 시기의 역사를 지운 것이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컵라면 익기를 기다리며 본 원피스의 장면은 작품 내 역사학자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포네그리프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었다. 모든 기록에는 의도가 있다.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남기는 행위는 후대에 막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즉, 기록은 시공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일인 것이다. 현재 원피스의 주인공 일짚모자 루피와 그의 동료들은 포네그리프를 하나 하나 찾아가며 '세계의 진실'에 근접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원피스'란 결국 무엇일지를 제일 궁금해 하지만, 필자는 과연 '공백의 10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제일 궁금하다. 모든 기록에 의도가 있다면, 기록을 지우는 것에도 의도가 있을테니.

나름대로 내린 "대체 왜 기록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연결하기 위해서"다. 공백이 발생해버리면 과거와 현재는 단절되고 만다. 그래서 그 공백을 자신의 글로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기자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 위해서. "왜 연결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답하겠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더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공상에 잠기다 다 물어버린 사발면을 순식간에 해치우고 다음 글을 쓰고자 다시 노트북으로 자리를 옮겼다. 손목은 그대로였지만, 정신은 더 이상 빠근하지 않았다.

😊 7 🗨️ 0



2025/11/11
tuesday, pm 6:39 | 141원
정우현(정우현)

#7일자

가장 중요한 연결은 자신과의 연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과거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이 현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이어져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다 무너져내릴 거 같아도 결국 저에게는 좋은 양분이 됐습니다. 때면 무너질 거 같아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나중에 어떤 일로 이어질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일들이 나중에 업보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래를 예상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쌓아 올린 일들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마다 제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정하고 그 일들을 해냈을 때 매우 뿌듯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현재의 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버티고 버티서 24살의 제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사건과 수많은 선택들이 이어져서 현재의 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타인과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단절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이해 관계지 타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이해해야 모든 연결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7 🗨️ 2

김서연(콘텐츠)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결과들이 쌓여 지금의 '나'가 되었죠.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6:44 | 11원
연도연(연도연 학과)

#7일자
#연결하다

세상은 생각보다 연결되어 있다. 누가 일부터 뭐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연결이 된다. 길을 걷다 스친 눈빛과 말 한마디와 짧은 도움 같은 것들이 어디선가에서는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사소한 행동이 하루를 바꾸기도 하고 작은 친절이 기억에 오래 남을 때가 있다. 그런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실 하나가 나에게 연결되는 느낌이다. 살다 보면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실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곁에 남아 있다는 걸 느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연결되는 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 5 🗨️ 1

윤소정(사회학과) 맞아요 누군가의 사소하고 작은 친절이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그 친절함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세상은 생각보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7:12 | 10원
하태원(소프트웨어학부)

#7일자
물건과 물건, 사람과 사람 같이 세상은 수많은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선이 끊기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연결이 끊기면 고립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연결하면 오히려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졌다가 또 생겨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연결이 끊겼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다시금 연결할 곳을 찾으려 되고 맞지 않는 곳이라면 다른 곳을 찾아 나아가면 됩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났듯 살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듯 안 맞는 친구와 헤어지고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가듯 삶은 그렇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그 속에서 진짜 나와 맞는 사람과 세상에 닿게 됩니다

😊 6 🗨️ 3

김서연(콘텐츠)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든 인연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끝길 인연은 끊기더라고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8:04 | 12월
유재원(일본학과)

#7일차 연결하다

세계와 연결. 얼마 전 한림대학교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에서 진행요원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내가 맡은 일은 강의실 보조였다. 발표자가 왔는지 확인하고, 발표자의 USB를 컴퓨터에 연결시켜 발표자료를 옮기고, 한 세션이 제시간에 끝날 수 있게 시간 관리를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의 박사 및 석사분들이 오셨다.

"발표자신가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이다. 발표자라고 상대가 대답하면, 일본 USB를 받아 발표자료를 옮겨 놓는다. USB 연결을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세션 시작 시간이 다가온다.

내가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함으로써 세션과 연결된다. 시작 시간에 맞추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다. 그리고 사회자를 보며 이쪽으로 오시라고 부드럽게 손짓한다. 세션과 나는 이미 연결되었다. 발표자와 연결되기 위하여 크게 팔을 흔든다. 첫 번째 세션에서 남은 발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종이에 글씨를 썼다. 맨뒷자리에서 혼자 열심히 '도전 골든벨'을 하는 느낌이었다. 발표자가 뒤쪽을 안 보는 것 같을 때에는 팔을 크게 휘둘렀다. 그러면 대부분 나의 긴박함을 알아보고 말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데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느긋하게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명함을 교환하며 서로 연결되다. 때는 두 번째 세션이 끝난 후 주어진 점심시간이었다. 명함 주고 받기가 시작되었다. 강의실이

복적거렸다. 사람이 다 나가야 밥을 먹으러 갈 수 있던 나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그래서 이참에 즐기자는 생각을 하였다. 나의 사회성을 끌어모아 몇 분의 명함을 받았다. 나는 따로 명함이 없었기에 연신 "스미마센."을 입에 달았다. 그렇게 10분쯤 지나니 대부분이 강의실에서 나갔다. 총 4번의 세션과 연결되고 일이 끝났다. 힘들었지만 값진 시간이었다. 학술대회는 연결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관계, 연구, 생각 등이 이어져 시너지를 낸다. 세상 만물은 유기적일까.

😊 7 💬 1

조은채(간호학과) 혼자 열심히 도전골든벨 한다는 표현이 넘 웃겨요. 마치 저도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받았어요. ㅋㅋ 이런 학술대회에도 많은 연결이 있다니 새롭네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8:51 | 15월
박혜원 (생명과학과)

#7일차

단어 사이에 붙어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데, 없으면 문장이 허공에 흩어진다.

'너'와 '나' 사이에 조사 하나 없으면, 그건 이미 둘이 아니라, 각자의 고립이다. 가까이 보여도 사실 그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다. 조사는 그 틈을 메우는 다리 같은 거다.

'의'는 소유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무엇이 무엇, 사람의 마음, 나의 생각. 그 안에는 닿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

누군가의 말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때,

그건 아마도 조사가 빠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서툴지만 정확히, 짧지만 단단히. 그 작은 것 하나가 말의 틈을 채우고 붙잡아둔다.

세상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에게 '와'가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큰 말들을 쏟아도 끝내 닿지 못할지도 모른다.

결국 연결이라는 건, 거창한 다리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말을 이어주는 작은 조사 하나 같은 걸지도 모른다.

😊 6 💬 2

채은비(생명과학과) 조사에서 이어짐을 인상하셔서 인상 깊어요. 잘 읽었습니다 :)



2025/11/11

tuesday, pm 9:47 | 15월
조은채(간호학과)

#7일차 #연결하다

곧 수능이다. 수험생 신분은 벗어났지만 이맘때 고생한 기억만은 여전하다. 나는 수시와 정시를 둘 다 준비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시보다 수시를 준비하며 받은 스트레스의 총량이 훨씬 컸다. 중간 기말 시험에 수행평가, 각종 자율활동, 면접 준비까지... 게다가 발표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혼자 말하는 일에는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술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니 이제 그만 생각하도록 하겠다. 이런 언급이 또다른 누군가의 괴로운 기억을 상기시켰다면 사과드린다.

그 당시에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세특 활동 간의 '연결성'이었다. 경쟁한 생기부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여겼던 그것. 이전의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후속 활동으로 연결하며 답을 찾는 과정이 생기부에 녹아 있어야 했다. 사실 단순히 '많이 했는가'보다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기 위한 진로 적합성 평가 요소이었지만, 그때 나는 일단 비슷한 내용이면 어떻게든 옥여넣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아예 중복되는 내용도 많아 참 황당하다.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기록의 집합체나 다름없다! 그리고 진심이 아닌 것들만 모여 있어 허무하고 부끄럽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주하는 것 같고, 도망치고 싶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서로 대화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내가 정말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생기부에 기입된 희망 진로와 무관한 활동에 몰입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느껴졌다. 자연스레 호기심이 가는 활동에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었다면 어땠으려나. 생각해보면 인생은 길고 입사 실패는 내가 마주할 시련 중 별거 아닐 텐데, 정말 근시안적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웃긴 점은 지금도 취업 때문에,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넘어지지 않으려는 버릇을 고치기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을 쓰며 잠시 과거와 연결되었다. 그동안 삶이 실선보다 점선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다. 자신감이 없었던 것도 지금까지의 삶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언젠가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연결된 나를 찾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몰두하겠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한 내가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 7 💬 2

유재원(일본학과) '거짓된 기록의 집합체'라는

말에 씩씩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저 집합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진로와의 연결성에 치우친 나머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실을 인지하나 못하나는 천지 차이겠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은채님은 끝없이 성장하실 겁니다! 공감 많이 가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9:58 | 12위
원보경(생명과학과)

#7일차 #연결하다

행동이 다른 행동을 넘어서 상황까지 연결시켜주는 것 같아요.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면 그걸 수습하기 위한 다른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연결되고 그 여러 행동들이 나에게 힘든 상황으로 연결 시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최대한 내 선 안에 있는 행동을 하려 노력해요. 왜냐하면 반대로 좋은 행동을 이어서 하면 나에게 좋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다들 행동을 연결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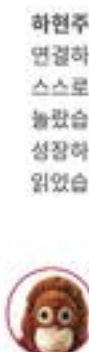
2025/11/11
tuesday, pm 10:03 | 12위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7일차 '연결하다'

저는 '연결하다'라는 동사를 좋아합니다. 궁금증에서 시작된 질문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며 결국 저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스스로를 한층 더 성장시켜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이 큼니다. 아버지는 어릴적부터 "모르는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연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르거나 궁금한 것이 생기면 생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질문하고 연결하며 사고력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연결하다'는 단순한 연결의 의미를 넘어 스스로를 더 성장시킬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결을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한층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10:16 | 13위
정우림(정치행정학과)

#7일차 #연결하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15년째 드럼을 배워왔고요, 중학생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교내 밴드의 일원이었습니다. 다른 악기보다 속도 붙여 배우기 좋고, 스트레스 푸는 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밴드부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공연 준비 중 각자의 악기 연습으로 분주할 때 드러머는 항상 외롭습니다. 만약 드러머가 다른 세션처럼 개별 연습을 하면 특유의 큰 소리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겠조. 게다가 공연할 때는 많은 경우에 맨 뒷자리에서 연주합니다.

어떤 유형의 조직이든 '나 없으면 여기 안 돌아가' 같은 한심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두어 명은 있죠. 그러나 밴드는 좀 다릅니다. 확실하건대, 다른 포지션이면 몰라도 드럼 없이는 제대로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박자 때문이죠. 드럼은 비트를 매개로 박자를 전달해 각 세션들을 연결합니다. 연습할 때는 고독하지만 실전에서 묵묵히 중책을 맡은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실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드럼은 광장 같은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텅 비면 볼품없지만 하나둘 악기들이 모이면, 실사 그들이 서로 거리가 있더라도, 적절히 어우러지게 하는 광장입니다. 모두를 하나로 묶는 연결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연(콘텐츠it) 드럼을 광장에 비유하신게 인상깊네요. 드럼은 밴드에서 없어서 안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드럼 덕분에 더 신나고 멋진 공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10:19 | 11위
윤여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5th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너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오고간다. 이럴 땐 잠시 모든 스위치를 내린다. 와이파이드, 알람도, 생각도 잠시 멈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과 연결된다.

때로는 연결되기 위해 연결을 끊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연결이 때로는 끊어야 할 때도 있다는 문장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1
tuesday, pm 11:10 | 9위
김영주 (화학과)

#7일차 우리는 어느때보다 연결되어있지만 외롭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진정으로 우리는 이어줄까? 우리는 모두와 이어지는 대신 깊이를 잃었다. 옛 이웃사촌과 현재의 인스타그램 친구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피상적인 관계는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을 치유해주지 못한다. 현재 우리는 어느때 보다 진정한 연결이 필요하다.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서로를 이해해주고 지켜주는 연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정신 건강이 회복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2025/11/11
tuesday, pm 11:13 | 10위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7일차 #연결하다

[선두 번째 점시]

오늘 친구들과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고 웃으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피도 쉬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결속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지만 연결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같이 떠돌고 웃는 동안 서로를 향한 유대가 강해지는 것을 느껴졌는데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서로 보고 웃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해아졌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뽀뽀뽀, 오늘의 몫 점시가 다했습니다.]

😊 5 🗨️ 0

2025/11/11
tuesday, pm 11:23 | 13월8
하현주(영어영문학과)

#7일차 : 연결하다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기를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되어야 해
누가 먼저라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alone?

가수 10cm의 서울의 잘 못 이루는 밤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해당 노래의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후 연결하다 라는 키워드를 받았을 때 바로 이 노래가 떠올라 해당 노래를 재생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노래 가사가 시사하는 바처럼, 저는 키워드를 봤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따뜻하다 라는 키워드를

안부라는 행위를 떠올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 시켜주는 것 중 하나는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록 혼자 있으려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록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얘기를 들어 주며,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며 힘이 드는 순간들을 타파할 수 있는 무언가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7 🗨️ 3

조은채(간호학과) 안부를 묻는 일이 사소해 보여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랜만에 좋은 노래 들네요. 감사합니다.

2025/11/11
tuesday, pm 11:27 | 9월8
민시아(글로벌학부)

#7일차 주제: 연결하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잠시 스쳐간
인연까지도.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연결된다.

버튼 하나면 대화가 시작되고, 화면 너머로
감정이 전해진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끊어지고, 말아지기도
한다.

가까이 있는 듯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어쩐지 단절된 듯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다. 그건 어쩌면 연결의
본질이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연결이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연결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신뢰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눈빛,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

사람과의 연결은 결국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
그 경험을 통해 또 한 번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용기 내어 다가가 본다.
완벽하지 않아도, 어색해도 괜찮다.
먼저 마음을 건네는 순간, 또 하나의 연결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나는 한 걸음 더
성장한다.

😊 3 🗨️ 0

2025/11/11
tuesday, pm 11:29 | 10월8
진세라(융합과학사학과)

#7일차 : 연결하다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서, 친했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반이 되면서 만나는 횟수가
줄고, 연락도 점점 줄어 결국 멀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저는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남곤 했습니다.

얼마 전, 아직까지 연락을 이어오고 있는 거의
유일한 중학교 친구가 수능을 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응원 선물을
보냈습니다. 집도 멀고 학교도 달라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친구이기에 기꺼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응원 메시지와 함께 수능이 끝나면 만나자는
약속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시간은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게
고마웠고, 여전히 마음이 닿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4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서로 마음이
연결되었다면 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요!

2025/11/11
tuesday, pm 11:38 | 9월8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7일차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자궁 속,
하나의 양수 안에서
또 다른 심장이 뛰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양분을 나누어 먹고,
같은 박동에 맞춰 자랐다.
그 시절의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우리'였다.
'연결하다'는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떨어져 있어도 닿을 수 있는 감각,
다른 길을 걸어도 같은 뿌리로 이어진 흔적.
유전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끈이
우리 사이에 조용히 남아 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머니와 쌍둥이와의
연결된 감각을 잊고 지냈다.

그러다 오늘 주제를 따라
흐린 기억을 되짚어보며
문득 내 배꼽을 바라보았다.
배꼽을 바라보다가,
그 안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이
숨 쉬는 듯 느껴졌다.
끊어진 줄 알았던 그 연결은,
사실 여전히 내 안에서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의 박동과 온기가 내 세포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진다.
'연결하다'는 붙어 있는 일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는 일.
나는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실 위에 서 있다.

😊 3 💬 0

2025/11/11
tuesday, pm 11:39 | 11월 11일
홍예진(백아미디어)

#7일차 연결하다

무언가를 연결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연결은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신뢰와 정성인 것
같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과 정성을 들여 상대방에게 잘
해준다면 경계를 풀고 잘 지낼 수 있다.
하지만 도중에 신뢰를 잃을만한 일을 한다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만큼 무언가를
연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새로운 것과 닿을 때는
것은 언제나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언제나 좋길 바라요!

2025/11/11
tuesday, pm 11:46 | 11월 11일
송준하(백대아터전공)

#7일차 사람들끼리 연대를 한다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최초의 연대를 종교로 추정한다. 공통된
믿음은 우리를 뭉치게 한다. 그 동안 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기독교, 유교,
공산주의 등등. 현재 우리를 이어주는
거대서사는 자본주의다. 이제 돈이 우리를
뭉치게 한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에 반해
자본주의의 기간은 짧다. 다음 이데올로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4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강한 연대는 강한 힘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강한 연대는
이로운 것에 관련되길 바라요!

2025/11/11
tuesday, pm 11:47 | 11월 11일
정다은(디지털미디어콘텐츠)

#7일차 : 연결

데이터가 없는 나는 언제나 와이파이를
찾아야만 인터넷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귀찮아서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산다. 의외로 나쁘지 않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재밌는 건 많다.
그중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게 크롬
공통게임이다. 인터넷이 끊겼을 때만 할 수
있는 이 단순한 게임은 한 번 시작하면
최고기록을 뽐 때까지 손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하도 하다 보니 이 작고 하찮게 생긴

픽셀 공통에게정이 들었다. 그런데
최고기록을 경신하려는 순간, 갑자기 연결된
와이파이에 의해 절망스럽게도 내 공통은
멸종해버린다.
가끔은 차라리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공통게임만
따로 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 그 게임을
한다. 한때 연결되지 않았을 때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던 것을, 이제는 연결된 상태에서
일부러 찾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 3 💬 2

김서연(콘텐츠) 맞아요, 크롬 공통 게임
재미있고 그 게임하려고 일부러 와이파이와
데이터 둘 다 비활성화한 적도 있어요

2025/11/11
tuesday, pm 11:55 | 11월 11일
채은비(생명과학과)

#7일차 #연결하다

어렸을 때 즐겁게 읽었던 책이 있었다.
'마틸다'라는 책이었는데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영화화까지 된 책이라서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작중에서 마틸다는 굉장한 책벌레인데,
도서관에 있는 어린이용 책들을 모조리 읽어
버린 후 처음으로 읽은 '어른용' 책이 바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다. 그 장면을
보고 나도 그 책에 관심이 생겼고, 그 때문에
수능이 끝난 후 독서를 할 여유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장장 두 권에
걸친 '위대한 유산'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곧 당황으로 바뀌고 말았는데,
바로 '마틸다'에선 꼬마 픽과 노처녀 허비삼
부인이 거대한 저택에서 벌이는 놀라운 모험-
이런 식으로 묘사되었던 '위대한 유산'이,
모험은커녕 거만한 신사들에 대한 비판과
부의 허상에 대해 묘사한 냉정하기 짝이 없는

소설이었던 것이다.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무튼, 이렇게 소설은 이따금씩 나의 현실과
연결된다. 나는 마틸다가 즐겁게 읽었던 책을
따라 읽으며 그 허상의 인물과 같은 경험을
공유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마틸다에게
'위대한 유산'을 소개시켜주었던 사서가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는 마틸다와 비슷한 감상을
내놓을 수 있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다. 제인 오스틴, 아서 코난
도일, 스코트 피츠제럴드의 마호가니 가구들,
신사들의 브랜드 한잔. 깃펜과 만년필,
나만의 화원이나 알프스의 고원 따위에
로망을 가지게 되고, 나의 취향을 만든다.
'해저 2만리'의 네모선장이 사랑했던 바다를
좋아하고, 노르웨이의 숲에 나오는
와타나베가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의 3분의 2 이상은 내가
즐거워 읽던 책들이 만든 취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내가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이다. 내가
읽어왔던 모든 책들이 나와 가느다란 실
하나로 연결되어 나의 일부가 되어준 것이다.

😊 4 💬 0

2025/11/12
wednesday, am 12:21 | 11월 12일
김영선

#7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감정과 감정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영어 connect는 왠지
contact를 떠올리게 합니다. 연결되고,
연결하는 것은 곧 접촉하는 것이겠죠. 연결을

통해 집착을 내려가는 청춘이 되기 바랍니다.



2025/11/12
wednesday, am 8:05 | 19위
김명선

#8일차 키워드 : 바꾸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꾸다'입니다.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습관, 주변 환경, 세상의 규칙 등) '바꾸다'는 동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최근에 바꾼, 혹은 바꾸고 싶은 물건, 바꿈으로써 변한 효능감에 대해서 써도 됩니다.



2025/11/12
wednesday, am 11:59 | 14위
조은채(간호학과)

#8일차 #바꾸다

안경을 바꾸고 싶다. 초등학교 때 유행하던 스타일을 고수한 지 거의 10년이 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나는 안 변했다. 내 얼굴에 어울리지도 않는 걸 그냥 샀다가, 귀찮아서 비슷한 걸로만 계속 써온 결과가 이 모양이다.

친구가 말했다. 내가 안경을 쓰면 초등학교 같은데, 안경을 벗으면 드디어 고등학교 같다고, 돌려 말했지만 결국 안경이 없는 편이 낫다는 뜻이겠다.

요즘은 안경과 렌즈를 번갈아 사용한다. 렌즈는 비싸고 불편해서 아예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된다. 그러나 눈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부작용도 걱정된다.

내가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수술은 개뿔 그냥 아무 안경이나 대충 걸치고 살 것이다. 하지만 안경 하나에도 그런 생각이 따라붙는다. 안경을 바꾸면, 외모를 바꾸면, 사람들의 시선도 바뀔까? 어울리는 안경을 고르다 보면 결국 남에게 보기 좋은 나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게 된다.

외모를 가꾸는 일이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는 안다.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은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외모를 관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들일 때면 종종 의문이 든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일인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짓을 견딜 수 없다면 무인도행뿐이겠지.

그래도 소소하게 나를 바꾸는 일들이 일상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



유채원(일본학과) 저도 남의 시선에 휩쓸리는 편이라 공감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나'를 보는 건 주로 타인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화의 종착점은 본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12
wednesday, pm 1:27 | 12위
문전우(철학과)

#8일차 바꾸다.

저는 약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에 재학하는 지금까지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을 조금 잃으시더니 이제는 대소변 활동도 의지대로 되지 않아, 건강한 제 할머니는 이제 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렇게 바뀐 할머니를 모른 채 지내다 적이 많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내가 아는 할머니가 아니다.' 지금의 할머니를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알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그런 할머니가 진심으로 사랑한 제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할머니를 인정하면 그 시절의 저도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그런 것들에게 집착할수록 고통스럽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나 마음 한편으로는 외면하고픈 충동을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지내고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제 눈으로 보다 보니 재겐 삶의 변화가 참 두렵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나이를 먹어 신체가 바뀌고 병이 들어 이전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뀌며 마침내 죽음으로써 삶의 변화가 참으로 눈앞에 생경히 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저 나를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것은 저의 뇌가 종합해 판단하므로 나를 바꾸는 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쉬운 것은 변화한 할머니를 가려진 품에 안고 돕는 것이 저의 미약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바뀐 시대를 열심히 쫓아가셨고 이제는 잠시 쉬셔야 할 때입니다. 저는 바뀌어 가는 시대를 조명하고 뒤쳐진 사람을 위해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변화는 두렵지만, 할머니 곁에서 나를 조금씩 바꾸어 가는 일이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뀌어 가는 것은 할머니뿐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천천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2025/11/12
wednesday, pm 3:25 | 13위
윤지호(일본학과)

#8일차 바꾸다

내 현재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 23플러스이지만 바로 전 기종이 갤럭시7 엡지플러스이다. 고등학교 1학년때 아빠가 갤럭시7 엡지플러스를 어디서 구해오셨고 나는 그걸 2023년까지 썼다. 솔직히 불편한건 없었고 사이즈도 크지않아서 손에 확 감기는 촉감이 좋았고 가벼워서 쓰기 좋았다. 군대에서도 물론 나는 갤럭시7 엡지플러스를 썼고 선임과 후임들은 나의 휴대폰을 보고 유물이라고 놀리기 일쑤였고 휴대폰 반납시때내 휴대폰을 제출하면 간부들은 두폰(휴대폰을 2개 가지고 하나만 제출하는 것)쓰냐며 뭐라하기 일쑤였다. 휴대폰 기능이나 그런것들로 불편한적은 없었지만 휴대폰 최대용량이 60GB밖에 없어서 용량부족맞고는 난 딱히 불만이 없었다. 그렇게 수년을 쓰다가 23년 전역하자마자 휴대폰 용량이 모자라서 폰을 바꾸었다. 아빠는 나에게 수고했다며

갤럭시23플러스 최신폰을 사주셨다. 솔직히 용량부족 문제만 아니었으면 나는 계속 기존의 폰을 쓰고싶었다. 수년동안 사용해서 너무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갤럭시7엣지플러스에서 23플러스로의 업그레이드는 거의 체감상 주먹도끼를 쓰다가 전기톱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물을 처음 발견한 원시인 정도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같은 물건을 수년 사용하면 알게모르게 그 물건에 정이드는 것 같다. 휴대폰을 바꿀때도 빨리 바꾸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섭섭하면서 그런 말로 형용할수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로부터 2년 넘게 지난 지금 아직도 나는 갤럭시23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무 불만도 없이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 갤럭시7이 생각나기는 무슨 최신폰 최신식이 좋기는 하다.



😊 7 💬 4

유재원(일본학과) 저도 지금 휴대폰을 4년째 쓰고 있어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불편한 점이 크게

없으니 안 바꾸게 되더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2

wednesday, pm 5:49 | 10위
최현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8일차

불가즉지(不可則止)

조언을 잘 해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려 할 때 내 삶의 방향을 말로써 바꿔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 잘하는 방법을 물으면 심중팔구 진지하고 무거운 조언보다는 건조하고 쉬운 조언을 한다고 한다. 스스로의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고 남의 조언은 참고용이라면, 어차피 무거운 조언은 부담으로만 다가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불가즉지(不可則止)'의 태도라고 한다. 쉽게 말해 조언을 안 들으면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 남의 삶을 억지로 바꾸려 드는 것은 설령 그게 옳은 방향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라 해도 폭력이 된다. 결국 억지 조언은 본인을 욕보이는 행위이기도 하다. 친구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 어렵지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도 그 친구의 삶과 결정 자체를,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게 아닐까.

하나 더. 조언을 잘 하는 사람을 보면 대다수가 인정할만큼 바르게 본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은 타인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내' 삶부터 선하게 바뀌어나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 내가 그들의 조언에 설득당한 건 유려한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증명한 진정성 때문일 수도 있겠다.

😊 6 💬 1

유재원(일본학과) 건조하고 쉬운 조언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항상 누군가 조언을 바래면, 대단한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저이기에 더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언에 설득당하는 게 상대의 진정성 때문이라는 말도 와닿았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르더군요. 덕분에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불가즉지' 좋은 단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2025/11/12

wednesday, pm 5:50 | 13위
김서연(콘텐츠)

#8일차 키워드 : 바꾸다

저는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막상 사용하는 것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PC에 연결할 새로운 스피커를 구매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택배가 온 지 3일이 지나고서야 겨우 박스를 뜯었지만, 아직 연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스피커는 그저 이마트에서 판 것을 아무거나 구매한 거라 디자인도 별로였고 공간 활용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스피커는 제가 좋아하는 분홍색이고 가로로 되어 있어 받침대 아래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선택했어요.

저는 분홍색을 좋아해서, 자취하기 전에는 '집의 모든 것을 분홍색으로 채워 거야'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취하게 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격 문제도 있었고, 제가 원하는 기능의 제품에 분홍색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홍색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저의 집은 분홍색, 하늘색, 흰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집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나중에 취직해 돈을 벌면 제 취향에 맞게 집의 물건들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 7 💬 7

하현주(영어영문학과) 자취를 하시는 군요! 저도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집의 물건들을 분홍색으로 바꾸신다니 너무 예뻐 것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2

wednesday, pm 5:51 | 13위
정우현(철학과)

#8일차

제가 가장 크게 변화했던 이유 중 하나는 환경을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환경이 바뀌면 저도 바뀝니다.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뀌고 행복의 차이가 너무 극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힘들다면 환경을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환경 탓만 해도 안 됩니다. 저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저를 바꾼 것이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제 감정을 돌아보고 제 판단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인지 저의 능력이나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인지 판단이 쉽습니다.

결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환경도 노력도 인간관계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타인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을 돌아보고 환경을 바꾸어나가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바꾸지 않아도 되니 조금만 힘을 내시다!

😊 7 🗨️ 4

조은채(간호학과) 누군가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분이네요.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들 모두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멋있으세요. 그리고 일기 쓰는 습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2
wednesday, pm 6:31 | 14위
정서현(법학과)

#8일차 '바꾸다'

저는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어디에 소속되어 일해본 경험이 부족하며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작은 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조별활동, 팀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단 활동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대학 졸업 후 나가야 할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생활 경험이 중요하고 언제까지나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하기 싫은 일로 분류하여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범위를 제 스스로 좁힐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 학생의 신분으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대학이라고 생각하여 올해 많은 일들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혼자만의 세상에 머물러 있던 제

모습을 바꾸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 7 🗨️ 4

최시연(생명과학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2025/11/12
wednesday, pm 6:37 | 12위
하태환(소프트웨어학부)

#8일차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바꾼다. 옷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다. 처음엔 단순히 낡았기 때문이거나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서 바꾸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세상은 늘 변한다. 계절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바꾸다'는 건 단순히 겉모습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변화는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는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은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어제보다 더 성숙해지고, 어제의 실수를 통해 배우며 조금씩 더 나은 나로 바뀌어 간다.

'바꾸다'는 단어는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다. 바꾼다는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니까. 오늘의 나를 내일 더 나은 나로 바꾸는 일 그게 어쩌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과정 아닐까.

😊 6 🗨️ 3

최지윤(사회복지학과) 생각이나 마음도 금방금방 바뀌니 사람 그 자체도 많이 바뀌는 것이라 느껴집니다. 내면의 변화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라요!

2025/11/12
wednesday, pm 6:55 | 10위
김수진(미래융합스쿨)

#8일차 '바꾸다'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합니다. 어머니는 매번 청소를 하실 때마다 가구 위치를 바꾸시는데요 어릴 때는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시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의 위치를 옮기시는 것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을요. 이 작은 행동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매번 새로운 시작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머니의 현명한 생각을 누구보다 지지합니다. 저도 변화를 즐기고 더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의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바꾸는 것은 처음에 불편할 수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변화는 내가 생각지 못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려고 합니다.

😊 9 🗨️ 10

김서연(콘텐츠it) 저희 어머니도 요즘 가구 위치를 자주 바꾸시는데 확실히 집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2
wednesday, pm 6:58 | 12위
이준호(사회복지학과)

#8일차

'바꾸다', '바꾸다' 하면 마치 저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친구들로부터 '바꾸다', '바꾸다'에 관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동아리 친구와 사귀게 되었고, 그 친구와 마음이 잘 맞아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다니는 소울메이트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착하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집에서 점심을 깨뜨렸는데, 할머니에게 들켜지 않으려고 2층 높에서 켜진 점심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야기하면 잠깐 혼나고 끝날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친구의 성격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친구는 원래 저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조언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놀러 다니던 중, 저는 엄마와 전화로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난 나머지 핸드폰을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영향을 받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제 행동을 보고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그 친구와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봐도 모르는 척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을 때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저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는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몰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반에 소화기를 뿌리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 친해진 친구와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 친구와 다른 반이 되었고,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매일 그 친구 반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에도 그 반에 가게 되었고, 친구와 거의 매일 연락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의 모습이 점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는 돈을 자주 빌려 달라고 했고, 돈이 없을 때는 택시를 타고 저에게 전화해서 택시비를 대신 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더 줄 테니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라며 저를 부러먹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자신의 손이 다치든 말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 저 역시 점점 그 친구처럼 변해갔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저도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화를 쉽게 내는 성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두 친구와는 연락을 끊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저와는 달리,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 바뀌기보다는 스스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 6 💬 0

2025/11/12
wednesday, pm 8:13 | 12월용
최지은 (사회복지학과)

#8일차 #바꾸다

[선생님께 점수]

저는 어렸을 적 이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학도 했는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입학한 학교와 졸업한 학교가 많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들을 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미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라 그런지 전자가 좀 더 강하게 느껴졌고, 덕분에 이사, 전학의 이미지는 제게 외롭다거나 슬프다는 느낌이 아닌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기회처럼 뇌리에 박혀있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바뀐 환경에 맞닥뜨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뽕뽕뽕, 오늘의 문 점수가 닳았습니다.]

😊 7 💬 1

조은채(간호학과) 오히려 어린 마음에 외롭고 슬퍼질 수도 있는데 설렘과 기대감이 크셨다니 내면이 단단하신가 봅니다. 인사이드 아웃1의 주인공이 이사를 가서 힘들어하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에 비해 자운님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다행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11/12
wednesday, pm 8:58 | 14월용
최은실(국어국문학과)

#8일차
<습관을 바꾸다>

저는 습관을 바꾸는 데는 기록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 일이 많으면 기억나지 않아 놓치는 일들이나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바꿔 보려 새해마다 다이어리를 구매하고 할 일들을 적고 목표를 세우는 등

정리하고 기록하지만 결국 빈 공간이 가득했습니다. 스스로를 바꿔보려 이런저런 시도를 하였고, 올해 기록을 세분화하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독서 기록, 일기, 미래 계획, 일정 확인, 체크리스트, 꿈 기록, 아이디어 정리, 가계부, 공부 계획, 생각 정리를 작성합니다. 이 모든 것을 2권에 기록하려다 보니 큰 부피와 무거운 무게에 결국 펼쳐보지도 않았습니. 그래서 2026년에는 목적에 따라 노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이나 디지털기기는 확인, 수정을 하려다 다른 곳으로 빠져서 시간을 허비할 게 분명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미루거나 잊어버리는 습관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 8 💬 4

채은비(생명과학과) 저도 다이어리를 써 보려고 계속 도전하는데도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져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2
wednesday, pm 9:09 | 12월용
유재원(일본학과)

#8일차 바꾸다

과제에서 오타를 발견하였다. 서둘러 오타를 수정하고 파일을 바꾸었다. 분명 맞춤법 검사기도 돌리고, 소리를 내어서 읽기도 하였다. 과제를 제출하고 잘 올라갔나 가볍게 확인하던 차에 오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왜일까. 파종의 극치를 경험한 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다. '다음부터 아예 인쇄하여서 읽어볼까.'하는 생각이 솟구쳤다. 읽는 방식을 바꿀 때마다 과제는 새롭다. 컴퓨터 화면에서 읽을 때, 휴대폰으로 읽을 때, 소리를 내어 읽을 때, 인쇄하여서 읽을 때 등 방식은 다양하다. 숨어있던 오타가 빠짐 고개를 내밀기도 하고, 비문이 나 좀 낱달라고

소리치기도 한다. 여러 방식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제한다. 그러다 가끔 놓친 것들은 교수님이 끌어올린다. 그리고 나에게 직격탄을 날린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새롭게 보이는 비문에 어안이 빙빙하다.

실도 방식을 바꾸어가며 살아야 한다.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나쁜지는 않지만, 편협한 사고방식을 갖기 쉽다. a가 옳을 때도 있고 b가 옳을 때도 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나를 보고 죽대가 없다고 말한다. 죽대가 없는 것은 나쁜가. 나는 사람이 몽당 바퀴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물론, 선악의 차원이거나보다는 단순한 의견의 차원에서 말이다. 바뀌면서 사람은 성장한다.

😊 6 💬 4

성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저도 제가 쓴 글을 읽을 때마다 수정할 부분들과 오타를 계속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2025/11/12
wednesday, pm 10:08 | 14월용
정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8일차 : 바꾸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꾸어야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근데 이제는 꼭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다.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 이젠 너무 애쓰지 말자.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

😊 7 💬 3

채은비(생명과학과) 바뀐다는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2
wednesday, pm 10:45 | 8월
진세리(융합과학수사학과)

#8일차 : 바꾸다

지금 당장 바꾸라고 한다면, 생활습관을 바꾸고 싶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다. 아침 일찍 나가 일을 한 뒤 수업에 가야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려면 꼭 일찍 자야 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중간고사 기간 동안 공부하느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그것도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지금도 늦게 자고 있다. 요즘 정말 피로가 쌓인 게 느껴진다. 그래서 하루빨리 예전처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대학생'이 되고 싶다. 오늘은 이 글만 쓰고 빨리 자야겠다.

😊 5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도전이 성공하길 바라요!

2025/11/12
wednesday, pm 10:47 | 12월
정우림(정치행정학과)

#8일차 #바꾸다

조선은, 그 이전이나 이후면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국가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왕과 그 측근만이 철권을 휘두르고 나머지는 복종하고 침묵했죠.

아무리 로렌스 사극을 찍고 찬란한 과학기술로 소리나는 물시계를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강대국들에 휘둘리다 나라는 망했고, 그 주검 위에 기적적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식 마인드'는 아직 건재합니다. 우리는 자꾸 국가에게 무언가를 바랍니다. 일자리와 집값, 학생들 급식, 요즘엔 소득도 책임지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들 중 정부가 나서서 해결된 게 있던가요?

없던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려고 하니 노인 취업자만 늘어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였고,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인해 집을 못 사게 했고, 학생들에게 맛있는 급식을 먹이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고용 시장을 얼어붙게 해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가 신용하고 있죠. 국가는 본질적으로 나를 돌봐야 하는 유모가 아닙니다. 국가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유연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나를 국가는 나를 돌봐줄 존재라고 믿죠. 임금을 하늘이라 부르며 복종하던 사고방식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오며 더 기괴한 형태로 뒤틀어진 겁니다.

이 조선식 마인드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국민이 능동적으로 국가를 움직인다는 개념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투표 한 번 하고 인증샷만 찍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뉴스 기사도 제목만 읽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국민에게 탁월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진짜 바뀌어야 할 건 의식의 방향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이끌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조선식 마인드 탈피의 첫걸음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 💬 0

2025/11/12
wednesday, pm 10:49 | 10월
김서영(중국학과)

#8일차 바꾸다.
오랜만에 내일을 바꿨다.

한동안 손톱 상한 것도 있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팁 제거만 하고 맨손으로 다녔는데 벌써 한 달은 된 것 같다. 맨손으로 다니다 보니까 뭔가 손이 허전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귀찮아서 계속 미뤘다.

근데 친구가 브라운 네일 하고 온 거 보고 가을이네 싶어서 저번 주말에 시간 내서 셀프네일 했다. 가을이니까 핑크 브라운에 체크 넣었는데 생각보다 잘 됐다.

별건 아니지만, 기분이 확 달라진다. 손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루가 조금 더 예뻐진 기분이다. 역시 가끔은 이런 작은 거라도 바꿔야 한다. 할 때는 살짝 귀찮고 오래 걸려도, 하고 나면 역시 만족감이 크다.

😊 5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악세서리 등을 하면 내 자신을 좀 더 신경 쓴 느낌이 드는 듯 합니다. 귀찮아도 예쁘니 맛지네요!

2025/11/12
wednesday, pm 10:51 | 12월
민시아 (글로벌학부)

#8일차 주제: 바꾸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글은 조금 가볍게 써보려 합니다 ㅎㅎ

저는 드디어... 최근에 아주 오랜!! 고민 끝에 가방을 바꿨습니다~

평소에 들던 가방은 크기가 작아서 노트북을 파우치에 넣어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방을 너무 막 쓰는 바람에 요즘 노트북이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ㅎㅎ....

그래서 큰 결심 끝에, 드디어 큰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엄청난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구매한 가방이 어제 택배로 도착했는데요!

기다린 만큼 너무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효율성도 너무 좋았구요! 진짜 삶의 질이 300% 상승했습니다,,

저는 원래 보부상이라 이것저것 많이 넣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이 예쁘게 잡히는 거 있죠? ㅎㅎ

이제 한동안은 이 가방을 아주 든든히 애용할 예정입니다~

가방을 바꾸는 일처럼, 우리의 삶도 가끔은
낯은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움을 들여놓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새로운
나를 향한 첫걸음이 숨어 있을 거예요!

😊 6 💬 10

원보경(생명과학과) 가방만 바꾸기만 해도 맘에
너무 두근두근거리죠~ 너무 귀여운 글에 공감하고
갑니다.



2025/11/12

wednesday, pm 10:53 | 13위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8일차

라인프렌즈 미니니 시리즈의
제니니와 나기를 좋아한다.
직고, 아마도 세상 근심 하나 없어 보이는
그 무표정이 좋았다.



(왼쪽: 제니니, 오른쪽: 나기)

그런데 어느 날, GD의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조아'라는 캐릭터가 새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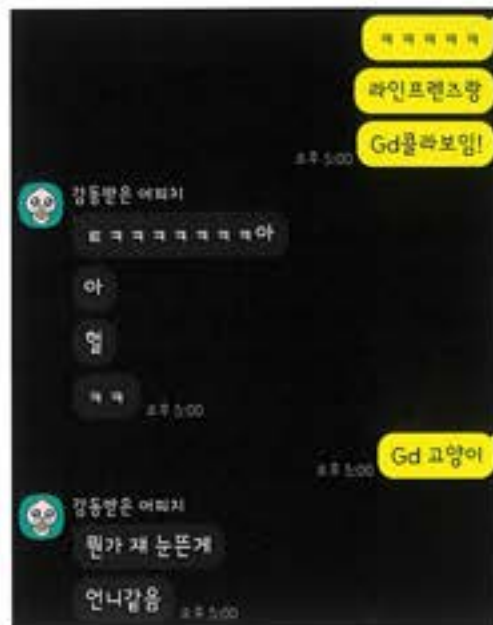
LINE FRIENDS

RECOFFMIND



요하게 시크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그 미묘한 온도에 마음이 가서
어느새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었다.
"뭔가 재 눈뜬 게 언니 같음."

우리끼리, Band!



동생의 한마디에 괜히 더 애착이 생겼다.

최근 '룸엔' 화장품 브랜드와의 콜라보
제품이 나왔을 때,
평소 색조 화장을 거의 안 하던 내가
그 캐릭터 때문에 립을 샀다.

모임이 쉬워진다!



칙칙한 날,
뽕한 색으로 나를 바꾸는 립.

이렇게 덕질로도 날 바꿀 수 있다.

😊 7 💬 1

조은채(간호학과) 캐릭터 디자인이 매력있네요
덕질할 맛 나겠어요!



2025/11/12

wednesday, pm 10:54 | 12위
허현주(영어영문학과)

#8일차 : 바꾸다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자신의 면모에서 바꾸고
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싶은,
것들이 모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버스 기사님께 버스를
타며 인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려 노력했고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내릴 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 노력중인데 아직은

어렵습니다.

몇 년 전, mbti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당시 찾아본 영상에서 한 유튜브 댓글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뀐다. 정말 그럴까? 이 의문을 몇 년 동안 생각하고 고민해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때 당시와 현재의 mbti 유형이 정반대인데, 그 댓글이 생각날 때마다 당신이 틀렸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본질적인 성격은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 댓글이 맞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때 당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열정이 컸었고, 지금도 그때 당시 만큼의 열정은 아니지만 여전히 저의 소망은 같습니다. 세상은 큰 숫자입니다. 그 중 사람 하나 라는 숫자는 굉장히 작아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은 그 하나들이 모여 만들어지니까요. 그 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에는 항상 처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을 넘으면 모든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일도 그 처음을 넘기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 💬 6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여러명의 소망이 모여면 정말 큰 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2

wednesday, pm 10:55 | 11월8일
윤여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6th

나는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다. 메뉴도 늘 먹던 것만, 카페도 늘 가던 곳만 가고, 새로운 것에서 오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편이다. 그러던 와중 '안락지대'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활동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안에만 머무를 수록 안락지대는 점점 좁아진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일상 작은 요소들을 조금씩 바꾸려고 해본다. 새로운 메뉴도 도전해보고, 안 가던 곳도 가보고, 해보고 싶었지만 걱정이 앞서서 못했던 새로운 취미 학원도 끊어본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며 내 안락지대를 점점 넓혀가 본다.

😊 4 💬 3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저도 주로 하던 것만 하고 먹던 것만 먹는 성격입니다. 안락지대가 넓어져도 온근 편할 것 같으니 좋네요!

2025/11/12

wednesday, pm 11:11 | 10월8일
박혜원 (생명과학과)

#8일차

사람은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의 모양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알투, 익숙한 표정,
그 아래에는 오래된 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아도
바꾸려는 마음만은 잊지 말자고

그냥 일어나는 일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손을 뻗어 일으키자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말해보고,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세상은 그대로여도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 5 💬 2

원보경(생명과학과) 맞는말인거 같아요 현재에 안주되어 있기보단 마음가짐을 달리하도록해야 발전이 있더라구요

2025/11/12

wednesday, pm 11:13 | 12월8일
안도연(러시아 학과)

#8일차
#바꾸다

매일 일어나면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핸드폰 보고,
똑같이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근데 진짜 지나가는 하루들이 아까워서
하나만 먼저 바꿔보기로 했다.
하루 중 제일 먼저 하는 일을 바꿔보았다.
그동안 늘 뜨면 핸드폰을 봤다.
하지만 이제 핸드폰 대신 물 한 잔 마시기로
했다.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잘 사는 느낌이 났다.

더 아침 공기가 더 선명해 보였다.
이후에 작은 습관 몇 개를 더 바꿔보려고
한다.
자는 시간, 일어나서 걷는 거리..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조용히 내가 달라지고 있을 것 같다.

😊 5 💬 2

김서연(콘텐츠)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는 건 좋은
방법 같아요. 차근차근 변화시키다보면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2025/11/12

wednesday, pm 11:21 | 10월8일
원보경(생명과학과)

#8일차 #바꾸다

대학을 오면서 사는 환경, 친구, 공부하는 것,
먹는 것, 생활패턴 등 정말 많은 것이 바뀐것
같아요.
정말 많이 꾸미고 다니게 되었고 생각보다
친구는 적게 사귀었구요.
먹는 음식을 생각해보면 금식이 다시
그리워져요.
고등학교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나요.

하지만 이런 여러것이 바뀌었더라도 역시
나는 나라고 봐요.
말이 좀 웃기지만 사람의 본질을 바뀐
않더라고요.
또 나 자신이 바뀌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뀐 나 자신에 만족하시나요?

😊 5 💬 3

정우현(철학과)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기분은
잠시지만 태도는 평생이기에 이 태도 그대로
가져가려 합니다.

2025/11/12

wednesday, pm 11:24 | 11월
송준하(빅데이터전공)

#8일차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빠르게 바뀐다. 변화는 긍정적인 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빠른 변화는 많은 것들을 소외시킨다. 우리는 소외되는 것들을 물질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적인 부분은 소비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 많은 쓰레기들이다. 기존의 상품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 정신적인 부분은 현대인의 우울이다. 인간 정신은 소모품처럼 생산을 위해 쓰여진다. 요즘 주목 받고 있는 사회 현상인 청년 우울도 성과사회에서 소진되는 정신의 결과일 것이다. 미디어는 변화와 생산을 부추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는 사회에서 우리는 유지하기를 통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유지하기를 통한 머물러 있음은 소외하지 않는 공동체와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6 💬 2

윤소정(사회학과) 모든 것이 바뀌는 사회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2025/11/12

wednesday, pm 11:31 | 11월
김영주(화학과)

#8일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네 인생은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어찌할 도리 없이 흘러간다.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나를 좌절하게 만든다. 시린 손으로 빚어낸 눈사람이 녹아내리는

것에서조차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변질하는 것 가운데에서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쓸모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은 나를 미련하게 만들었고, 미련한 나는 진심으로 소망한다. 사무치는 어린 나의 시간들과 나를 채워준 사람들, 남은 내 생애를 걸어서라도 그곳에서 변치않길.

😊 6 💬 1

최지윤(사회복지학과) 나를 둘러싼 것들은 많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들에 걷는 길을 같이 걸어주길 바라요!



2025/11/12

wednesday, pm 11:51 | 10월
채은바(생명과학과)

#8일차

#바꾸다

난 변하고 싶지 않아. 그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무엇이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인가.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할 때, 눈 앞에 놓여있는 돌덩이 안에 이미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나는 단지 잉여인 것을 제거할 뿐, 조각상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그럼 나는 어떤 형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돌덩이로 사람은 태어난다. 그 돌덩이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변해가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걸까. 어디까지가 모난 부분, 잉여, 다듬어 내야 하는 나의 단점, 변해야만 하는 부분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지켜내야 할 나의 자아, 개성, 특징인 걸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살아가면서 수십 가지의 정이 우리를 향할 때,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그쪽은 감내할 수 있어. 나도 싫어하는 나의 한 부분인걸.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 내게는 정말 소중한 나의 한 부분이야.

어떤 부분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처럼 매끄러워지고, 다듬어지고. 어떤 부분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 그 자체로, 채석장에서 때어낸 모습 그대로. 변화는 괴롭다. 설령 그 부분이 깎아 내야 할 나의 단점이라도, 정을 맞는 순간은 고통스럽다. 간직해야 할 부분에 정을 맞는 것은 그 당시에는 깎이는 줄도 모르거나 설령 알더라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저 무감한 눈으로 바라보게만 되더라도, 그렇게 깎아 낸 표면은 그 자리에 남아 계속해서 까칠거리고, 피를 흘린다. 나는 그 순간이 두렵다. 내가 언젠가 놓아버리지 말았어야 했던 파편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가. 언젠가는 깎아 냈어야만 했던 날카로운 부분이 나를 다치게 하는 순간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따금씩, 내가 살아오며 변해왔던 과거의 모습들과, 가로등 아래에 비친 내 형상의 그림자를 마주할 때면, 그 두렵던 순간들마저 나를 이루는 형상이 아닐까. 하며 이런 변화의 과정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 6 💬 4

조은채(간호학과) 감동적이에요. 많이 고심해서 쓰셨을 것 같아요.. 나 자신도 조각이 될 운명이라면 그 운명의 키를 남이 아닌 스스로가 쥐었으면 좋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2

wednesday, pm 11:59 | 9월
홍예진(바이오메디컬)

#8일차 바꾸다

바꾸는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일까? 사람들은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만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바꾼다는 것은 기존에 쓰는 무언가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새로운 것을 쓴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씩은 아날로그가 필요할 때도 있다. 젊은 세대인 우리는 키오스크를 잘 쓰지만 노인 분들은 키오스크를 쓰기 어려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키오스크를 쓰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나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멤버십을 이용하는데 가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렇듯 아날로그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은 좋지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분들은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새로운 문물에 적응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바꾸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 4 💬 0



2025/11/13

thursday, am 12:20 | 20월
김형선

#8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바꾸는 것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전제로 합니다. 물건과 습관. 사람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바꾸는 것이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절로 바뀌기를 바라지 않고, 바꾸려는 의지가 여러분의 글에서 느껴지네요. 오늘도 늦은밤 생각과 글 마무리하느라 수고했습니다.

😊 6 🗨️ 0



2025/11/13
thursday, am 8:12 | 22위
김영진

#9일차 키워드 : 가끔

오늘의 키워드는 '가끔'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닌, '자주'도 아닌, '가끔' 하는 일이나 만남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끔 찾아오는 낯선 감정, 가끔 꺼내보는 추억, 가끔 마주치는 인연 등, '가끔'이라는 부사가 주는 여백에 대해 써봅시다.

😊 8 🗨️ 0



2025/11/13
thursday, am 11:10 | 13위
윤지호(일본학과)

#9일차가끔

나는 가끔 과거가 그리워진다. 내가 초등학교 1~4학년때가 말이다. 정말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아무 걱정과 불안이 없었으며 그냥 가족들과 친구들과 노는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게임이야기랑 매주 일요일 저녁에 하는 개그콘서트 이야기를 했으며 방과후에 집에오면 투니버스로 원피스, 괴담레스토랑, 팽구, 도라에몽, 안녕 자두야, 명탐정 코난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넥슨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내면 정말 완벽한 하루였다. 토요일은 격주로 학교에 가며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경찰과 도둑, 일음명을 하고 서로 놀며 육은 전혀 하지않으며 순수하고 깨끗한 말만을 했다. 일요일은 친구들과 같이 교회에 가며 초등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서 게임을 하거나 밥을 먹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었다. 나는 아직도 메이플스토리 브금이나 마인크래프트 브금을

들으면 그 당시의 감정, 느낌, 향수가 느껴진다. 딱히 지금이 불안속스러운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정말 완벽하고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다. 이미 끝난일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중요한것은 현재와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한다. 머리로의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과거의 향수가 그리워지는것도 어쩔수없다고 생각한다.

😊 6 🗨️ 3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지도 초등학교때 경도(경찰과 도둑)했던 시절이 그림네요



2025/11/13
thursday, pm 12:34 | 14위
문준우(철학과)

#9일차
가끔

오늘처럼 겨울 바람이 꽤 깊숙이 파고들면 나는 가끔 상념에 젖어들곤 합니다. 향기는 추억을 살기에 참으로 넉넉한가 봅니다. 겨울의 건조한 바람, 누군가의 이름 모를 향수, 하다 못해 도서관의 낡은 책 냄새 같은 것들은 때때로 우리가 잊고 지나온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일까, 향기는 가끔 뒤를 돌아보게 하는 바람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기에 어제를 바라보는지. 두고 온 것 없이 가벼운 몸 경쾌히 이끌고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손에 움켜쥐고 싶었던 게 남아 있나 봅니다. 내가 잘 때들었지 못한 사람들이나, 어려워 책장에 꽂아둔 내 책이 가끔씩 눈에 들어올 때 향기가 내 몸에 잔잔한 전율을 건넵니다.

어느 집 앞에 지나갈 때 누군가의 된장찌개는 나를 어느 공간에 매이게 합니다. 어린 시절 맛별이 하시는 부모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베란다에서 창밖을 내다볼 때 외할머니는 나를 달려려 된장찌개를 가끔 끓여시곤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맛이 듬뿍 담긴 음식을 바닥까지 해치우며 해지는 오후를 내다보곤 했습니다. 이제야 머리가 굵어지고 가끔 할머니 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지만, 가끔 궁금해지곤 합니다. 제가 할머니의 황혼에 짐이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되곤 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의 손과 눈으로 저를 쓰다듬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걱정이 무색해질만큼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문턱에서 발을 멈추곤 하던 서리 낀 유리엔 할머니의 이름 한번 써 보고 지웁니다. 향기는 사라지지만, 손끝의 온기는 잠시 더 머물기에 가끔 그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 어렵다며 책장에 마구 꽂아둔 책을 어른인 제가 되어 따라가듯 할머니의 추억도 때로는 빛이 바래 남아있겠지만, 저는 손끝의 온기로 읽어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 가끔씩 떠올리는 빛바랜 추억이 선명히 살아나는 날입니다.

😊 8 🗨️ 2

하현주(영어영문학과) 정말 깊숙히 다가오는 글인 것 같네요. 특정 향기를 맡을 때마다 그와 관련된 추억들이 같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향기를 가끔 뒤를 돌아보게 하는 바람에 비유하신 것이 인상에 깊습니다. 필자분의 좋은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2025/11/13
thursday, pm 2:13 | 14위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9일차

가끔의 역설

'뉴스'가 되는 조건 중에는 특이성이란 것이

있다. 주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가 적은 희귀한 사건일수록 뉴스가 된다는 뜻이다.

세상은 체계와 관습이 포괄하는 선에서 원활히 돌아간다. 그러나 가끔 그 체계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 발생하고, 가끔 관습 속에서 예외가 일어난다. 기자는 그 '가끔'을 포착하는 사람들이다.

가끔 일어나는 문제가 뉴스가 되지만, 사회는 그 문제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말하자면, '가끔의 역설'이다. 그럼에도 가끔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희생자는 조금씩 발생하기 마련.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까지... 사회 전체로 보면 가끔이지만, 우리가 사고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끔의 역설'을 돌파해야 한다.

😊 9 🗨️ 4

김서연(콘텐츠) 뉴스에 나오는 가끔 일어나는 일의 피해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2025/11/13
thursday, pm 2:38 | 13위
이준호(사회복지학부)

#9일차

오늘 키워드는 "가끔" 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 가끔 생각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초등학교생이셨을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는 외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항상 친할머니 댁으로 가서

친할아버지를 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시고 가족들을 잘 못 알아보실 때도, 유일하게 저만은 기억해주셨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만 찾아뵈었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던 시절, 부모님과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뵈 할아버지의 모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서든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손자가 되겠다"고요.

그 이후 저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며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5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할아버지께 증손주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끔 할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버스를 타다가, 혹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할아버지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도 조금은 아려옵니다.

이번 라이팅챌린지를 통해 여러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끔'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그리움과 감사함을 함께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할아버지와 추억이 제게 주는 힘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세상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가끔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리움을 힘으로 바꾸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 8 💬 4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분명 할아버지께서도 어디서든 자랑스러워하시는 손자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3
thursday, pm 2:50 | 16댓글
정우현(철학과)

#9일자

저는 가끔 깜박합니다. 저는 가끔 잊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가끔이 모여서 저의 일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전 바보 같습니다. 답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저는 제가 무지하다는 사실밖에 알지 못합니다.

가끔 저는 제가 부럽고 가끔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가끔이던 자주던 저는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저와 다를 때 저는 불쾌합니다. 항상 제가 아는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세상이 이룬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 자신이 통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될지 어디로 될지 모르는 제가 가끔은 무섭습니다.

감정은 그대로지만 외형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물질과 사물들은 변화하지만 저는 늘 그대로입니다. 감정이 저일까요 외형이 저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저일까요 변하는 것이 저일까요? 그 무엇이 정말이라도 저는 저이고 싶습니다. 무엇이 저를 구성하던 저는 저이고 싶습니다. 분해되고 조각조각

나버려도 저는 저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정우현이 되고 싶습니다.

😊 10 💬 3

채은비(생명과학과) 가끔 나도 모르던 내가 뛰어나오는 순간은 두려운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3
thursday, pm 5:30 | 15댓글
하현주(영어영문학과)

#9일자 : 가끔

가끔,
가끔,
가끔..

가끔이라는 글씨를 천천히 되짚어 보면, 평소 모습과 대비되는 문장들이 뒤따라 올 수 있는 것 같다. 가끔 평소엔 안 먹던 때문 음식이 먹고 싶단거나, 가끔 평소엔 잊고 있었던 특정 추억이 떠오른단거나, 가끔씩 평소보다 무기력해진단거나. 가끔이라는 낱말 뒤에는 여러 상황을 담은 문장들이 올 수 있으며, 그 상황들은 가끔씩 다가오지만 마치 큰 무게의 추를 달고 오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소 큰 영향을 줄 때도 있는 것 같다. 그 가끔의 시간 뒤에는 잠시 사색에 잠기는 순간이, 또는 일상에 영향을 주는 순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끔이라는 그 잠시 동안의 순간이 우리에게 큰 획을 남기고 갈 때도 있는 것 같다. 가끔이라는 낱말을 다시 천천히 되짚으며 나에게 가끔 다가오는 순간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잠깐 동안의 순간 뒤에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갖고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볼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다.

😊 8 💬 6

김서연(콘텐츠it) 가끔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장을 읽고 제가 가끔을 붙였던 것들을 돌아본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3
thursday, pm 5:41 | 13댓글
상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9일자

https://youtu.be/hADEylydt2M?si=RGVqHCpg_eknbwZM



[에디터 PICK!] 자우림(Jaurim) - 편이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애써 웃음지어 보여도
나는 알고 있어
때로 너는 남들 몰래 울곤 하겠지
특별할 것 없는 나에게도
마법같은 사건이 필요해
울지않고 매일 꿈꾸기 위해서
언젠가의 그날이 오면
Oh let me smile again in the sun"

밴드 자우림의 '편이아' 가사 앞 부분이다.
가끔의 유의어 '때로'가 쓰여서,
오늘의 주제인 '가끔'과 연상되어 생각났다.

"어디론가 남들 몰래
사라져 버릴수만 있다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내보일 것 하나 없는
나의 인생에도 용기는 필요해
지치않고 매일 살아남아 내일도, 내일도
언젠가는그날이 올까.
아직 어둠에 가려진 그날"

사실 '팬이야' 가사중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한다.
가사 그대로 나도 가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애초에 아예 없었던 사람이고 싶다.
지나가버린 내 젊음, 돌이킬 수 없는 과오,
그것들로 여러 마음에 얼룩진 응어리.
그 위에 서 있는 지금의 나.
그럼에도,

"I'm my fan
I'm mad about me.
I love myself"

'팬이야' 노래의 후크 부분처럼
모순적이게도 나를 사랑하여
우울한 감정을 감춘다.
그렇게 가끔 나는 '팬이야' 가사에 이입한다.

😊 5 💬 2

김서연(콘텐츠it) 처음 들어봤는데 노래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새로운 노래 알게 되었네요.

2025/11/13
thursday, pm 8:08 | 11월8
허태원(소프트웨어학부)

#9일차
가끔은 별거 아닌 일이 괜히 즐겁다.
배가 고파 학교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다가
초등학생 이후 거의 먹지 않던 찹쌀떡
치즈볶이를 집어 들었던 순간이 그렇다.
운 좋게 브레던코에서 생크림 소금빵을 사
먹은 날도 그렇고 학교 운동장에서 사는 애기
선배님이 아무렇지 않게 내 무릎 위로
올라왔던 순간도 떠오른다.
과제는 점점 많아지고 공부도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경 쓸 게
 많아지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나를 다시
안정시키는 것 같다.
별거 아니지만 또 별거 아닌 그 순간들이
쌓여서 하루가 조금 따뜻해진다.
가끔 이렇게 웃기고 즐겁고 괜히 행복해지는
일이 나중에 내가 힘들어질 때 조용히
떠올라서
"그래도 그때 괜찮았잖아" 하고 힘을 주는
추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런 사소한 순간들을 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다.

😊 7 💬 2

하현주(영어영문학과) 저도 생크림 소금빵을 사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가끔씩 다가오는 일상
속 소중한 기억들이 한 데 모여 나중의 자신에게
활력을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3
thursday, pm 8:27 | 11월8
정서현(법학과)

#9일차 '가끔'

가끔, 이유 없이 그때가 생각난다. 유난히
햇살이 따뜻했던
오후, 아무 걱정 없이 웃던 얼굴,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랐다. 지금은
서로의 안부를 묻기 조심스러울 정도로
서로가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간은
잔잔하게 흐르면서도 한 편으로는 잔인하게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 사진 속 우리의 웃음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예전 같지 않다.

그때의 나는 미래를 꿈꾸며 실레었고, 지금의
나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는다. 참
이상하다고 느낀다. 행복은 언제나
지나가야만 보이는 거 같다. 그래도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하는

온기다. 그래서 오늘도 가끔, 조용히 그때를
그리워한다.

😊 5 💬 0

2025/11/13
thursday, pm 8:28 | 11월8
김서영(중국학과)

#9일차 가끔은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는
기분이 든다.
어제는 분명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체력이 바닥난
사람처럼 축 처지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또 아무것도 못
하겠고.

가끔은 사람 사이의 간격도 이상하게
느껴진다.
가까운 친구가 괜히 멀게 느껴지고,
평소엔 잘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편해지고,
누군가의 한마디에 마음이 들쭉였다가
또 금방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가는 그런
날들.

그러다 또 어느 날은
별일도 없는데 기분이 괜히 안좋아지고,
하루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흘러가기도 한다.
그래서 가끔이라는 건 그냥 생각이 잠깐 다른
데로 새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간 같다.

😊 7 💬 3

김서연(콘텐츠it)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전 가끔
이유 없이 처지고 힘들 때면 맛있는 걸 먹거나
좋아하는 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나아지더라고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3
thursday, pm 8:34 | 11월8
김수진(미래융합스쿨)

#9일차 '가끔'
저는 자주 아프기 보다 가끔씩 크게 아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병원에 가보니 열이 39.9도였다 a형
독감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끔씩 찾아오는 아픔들이
익숙해질법도 한데 여전히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찾아오는 아픔들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들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가끔'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내가
평소에 잊고 지내던 삶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이 좋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부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이라는 부사 덕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당연했던 일상들이 감사해지고
아프지 않도록 스스로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끔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8 💬 5

김서연(콘텐츠it) 자주 아픈 것보다 가끔 크게 아픈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3
thursday, pm 8:43 | 11월8
김서연(콘텐츠it)

#9일차 키워드 : 가끔

저는 한 노래에 꽂히면 며칠 동안 그 노래만
반복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에
드는 노래를 찾기가 어렵죠. 또한 저는 모르는

노래는 잘 안 듣는 스타일이라 새로운 노래를 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게임할 때 배경 음악 대신 듣기 위해 틀어 놓은 노래 플레이리스트나 친구와 노래방에 갔을 때 다른 노래를 접하게 됩니다.

가끔 마음에 드는 노래를 듣게 되면 며칠 동안은 심심할 때 듣는 노래, 게임할 때 배경 음악, 운동할 때조차도 그 노래만 반복 재생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두 곡 정도의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제가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는 달담의 '청록'과 더 크로스의 '당신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노래를 즐겨들시나요?

😊 5 💬 4

채은비(생명과학과) 저도 한 음악에 빠지면 그 음악만 주구장창 틀곤 해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좋아하는 노래임에도 질려버려서 듣기 싫어지는 불상사가... 좋은 노래라도 가끔 듣는게 더 나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잘 읽었습니다.)

모임이 쉬워진다!

2025/11/13
thursday, pm 8:52 | 12918
유재원(일본학과)

#9일차 가끔

잡생각이 많아질 때 가끔 산책을 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 정문에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개천이 있다. 흐르는 물 따라 산책로를 걷다 보면 마음이 맑아진다. 그러다 이름 모를 새나 오리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염없이 걷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산책로의 끝은 자전거 도로와 맞닿아 있다. 자전거 도로에도 좁게 인도 표시가 이어져 있지만 산책로를 걷다가 아스팔트를 걸으면 기분이 적적해진다. 그래서 나는 자전거 도로의 시작점에서 집으로 되돌아 온다. 가끔 산책로에서 벗어나 북적거리는 변화가로 나가기도 한다. 그곳의 북적거림은 나의 잡생각을 앗아간다. 서서히 예쁜 색으로 물들이는 산책로와는 매우 다르다. 땀방울이 경적 소리에 생각이 달아난다.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나지만 가끔은 시끄러움에 포위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학상 시끄러운 곳에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가 몰려오기도 한다. '가끔'의 소리에 집중해 보자. 가끔 무언가를 꼭 먹고 싶다는가 어디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여건만 된다면 무조건 '가끔'의 말을 듣는다. 그래야 인생이 즐거워진다.

아래는 산책하며 직접 찍은 사진들이다.



모임이 쉬워진다!

우리끼리, Band!

최시연(생명과학과) ㅋㅋㅋㅋㅋ 이글을 보고 겨우
잊고있었는데 다시 떠올랐어요.. 감사합니 ㄷ ㅏ ...

2025/11/13
thursday, pm 10:07 | 1298
정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9일차 : 가끔

가끔은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혼자 어디론가
조용한 곳에서 누워서 잠이나 자고 싶을 때가
있다. 내게 소중한것들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것들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려
더이상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끔이 매일이 되어 점점 더 마음속에서
세력을 키운다. 정말 어디론가 가서
쉬어야겠다.

😊 4 💬 2

김서연(콘텐츠)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하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럴 때는 쉬고 오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025/11/13
thursday, pm 10:49 | 1298
원보경(생명과학과)

#9일차 #가끔

저는 못기지만 가끔 청소합니다.
청소는 가끔씩 하게 됩니다.
더러운 책상이 깨끗해져있는 것을 보면
맘이 뿌듯해져 자주하자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오랫동안 방치하는게 청소입니다

😊 4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저는 생각 정리 용도로
청소를 가끔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만 하면 좋네요!

2025/11/13
thursday, pm 10:52 | 1298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9일차 #가끔

[선내 번째 접시]

저는 본가에 그리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기숙사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딱히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주말마다 자주 갑니다. 직접 가서 있다보니
안락하고 편함이 문득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고 사회인이 된 사람들이
오래 말하듯 본가가 고향처럼, 차가운 사회 속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거라는 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가끔씩 느끼는 온기에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뽕뽕뽕, 오늘의 몫 접시가 닳았습니다.]

😊 5 💬 0

2025/11/13
thursday, pm 11:29 | 998
연시아 (글로벌학부)

#9일차 주제: 가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나의 학창시절은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였다.
같이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공부하고, 놀며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각자 다른 학교로
흩어지고,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니 매일 보던
친구들이
어느새 '가끔 만나는 친구들'이 되었다.

연락도 가끔, 만남도 가끔
예전보다 교류는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막상
마주 앞으면
예전의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해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용히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의 안부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의 삶을
챙기는 관계.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며
그럼에도 여전히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관계.

그게 어른이 되어 만나는 우리의 관계이다.
예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가끔의 만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그 시절의 온도를 잃지
않고
조용히 서로를 기다려주고 있었다.

😊 1 💬 0

2025/11/13
thursday, pm 11:30 | 1298
박혜원 (생명과학과)

#9일차 가끔

아직 뜯지도 않았던 나침반을 꺼냈다. 한 치
오차 없이 내가 갈 길을 가리키는 것이 이
작은 도구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숫자도,
계산도, 기준도 모두 그 정확함 위에 놓인다.

나의 삶에서는 그 정확한 방향이 오히려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걸 알려주는
나침반과, 가르침도 많고, 감도 충분한데
정작 나는 서 있는 자리조차 설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

가끔은 고장난 나침반을 믿을 때가 있다.
정확한 동서남북으로 내 발 끝의 목적지를
이끄는 대신 나를 이곳에 잠시 세워둔다. 나는
멈추어 머뭇거리다가 비로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순간에 오히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렷하게 알게된다.
계획에서 벗어나야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방향이 드러날 때도 있다.

내가 갈 길은 좁은 직선이 아니다. 나는
어디에나 갈 수 있으므로 누구나 될 수 있다.
고장난 나침반의 흔들리는 바늘이 내 솔직한
마음을 짚어준다.

그래서 나는 가끔 멈춘다.
제자리에서 잠시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비로소 나의 방향을 찾는다.

😊 6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때로는 멈춰서

방향에 따라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듯 합니다.
전혀 속마음을 들여다 볼 기회가 많길 바라요!

2025/11/13

thursday, pm 11:41 | 10월
홍예진(바이올레디컬)

#9일차 가끔

나는 가끔이라는 말이 좋다. 평범하며 항상 똑같은 지루한 일상을 바꿔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가끔씩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보기도 한다. 평소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별다른 것 없는 일상이라 일기에 쓰기도 좀 그렇지만 가끔씩 새로운 경험을 하면 내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다.

이와 같이 난 가끔을 심심했던 일상을 바꾸는 무언가가 있을 때 쓴다. 시험기간이 되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 가끔씩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박람회 구경을 가기도 할 예정이다. 다른 사람들의 가끔의 의미는 무엇일지 궁금해졌다. 여러분의 가끔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처럼 가끔 특별한 경험을 하시나요? 만약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 어떤 경험일지 궁금하네요.

😊 5 💬 1

김서연(콘텐츠it) 맞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가끔 원래 가던 길과는 다른 길로 집에 돌아가곤합니다. 물론 그러면 시간은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리고 제가 걸지라 길도 몇번 잃지만 좋은 경험했다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3

thursday, pm 11:53 | 9월
윤여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7th

가끔은 그냥 완전히 쉬고 싶을 때가 있다. 리포트 마감도, 팀플도, 알바도 다 잊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다. 근데 또 가끔은 엄청 의욕이 넘쳐서 새벽까지 과제에 몰두하거나 다음 학기 계획까지 다 짜놓는다. 이 오락가락할 때문에 내가 좀 이상한가 싶기도 한데, 그냥 이게 나인 것 같다. 무너졌다가도 기어이 다시 일어서는, 가끔은 반짝이는 나. 그러니 지금 우울해도 괜찮다. 이 '가끔' 속에서 다시 힘낼 순간도 분명 올 것이라고 믿는다.

😊 5 💬 2

김서연(콘텐츠it) 그런 날들이 있죠. 화이팅입니다!!

2025/11/13

thursday, pm 11:55 | 10월
전세라(음향과학수사학과)

#9일차 : 가끔

저는 가끔 음악을 들읍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끔 '새로운' 음악을 들읍니다. 저는 음악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음악을 사랑합니다. 팝송, 클래식, K-pop, J-pop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도 늘 음악과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끔"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막상 음악을 들을 땐 늘 듣던 노래만 반복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한국 가수의 곡을 듣고, 또 좋아하는 일본 가수의 곡을 듣고... 장르는 다양해도 결국 제 플레이어리스트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완전히 새로운 곡이 끌립니다. 그럴 때면 스포티파이를 잠시 떠나 유튜브로 넘어옵니다. 평소에는 스포티파이에서 음악을 듣는데, 오래 쓰다보니 제 취향을 너무 잘 파악해 비슷한 노래만 추천해주거든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유튜브 '음악' 탭에서 낱파만큼 스크롤을 내려 본 적 없는 제목과 썸네일을 찾아 들어옵니다.

간혹 이렇게 해도 아는 노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근처에 있는 처음 보는 썸네일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재생하자마자 들리는 간주가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곡은 바로 찜해둡니다.

오늘의 추천곡은 Why Don't We의 ** <8 Letters> **입니다. 가사도 예쁘니 꼭 보면서 들어보세요!
<https://youtu.be/C3DlM19x4RQ?si=POIzYnqETU0ZwkEn>



8 Letters -Why Don't We
[Official Music Video]

😊 5 💬 1

김서연(콘텐츠it) 저도 항상 듣던 노래만 듣다가 가끔 새로운 노래를 들곤합니다. 추천해주신 노래 좋은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3

thursday, pm 11:59 | 9월
안도연(러시아 학과)

#9일차

#가끔

기념일은 기억을 붙잡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떠올려보면 오히려 잊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닐까 싶다. 우리는 어떤 일을 완전히 잊을 수 없어서 그 기억을 달력 위에 적어놓는다. 그날을 한 번 떠올리고, 사진 몇 장 찍고, 마음속에서 조금씩 내려놓는다. 그렇게 매년 반복하다 보면, 처음의 아픔 감동 설렘은 점점 멀어진다. 어릴 땐 생일이 1년 중 가장 특별한 날이었다.

하루 종일 축하받고 싶었고, 그 날은 나에게 맞춰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생일은 그냥 평범한 하루가 된다. 누군가의 축하 메시지를 보며 잠시 웃고 이내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건 슬픈 일 같지만 자연스러운 일 같기도 하다.

사랑했던 날도, 헤어졌던 날도, 처음이던 날도 결국엔 지나간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일이라 부르며 잊을 준비를 한다.

기억이 너무 선명하면 현재를 살기 어렵다. 그래서 기념일은 잊히는 과정의 이름일지도 모른다.

😊 3 💬 0

2025/11/13

thursday, pm 11:59 | 12월
송준하(빅데이터전공)

#9일차 가끔: 시간적 · 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게

'가끔'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간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 '공간'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큰 축이므로 보편적이다. '얼마쯤'은 잘 모르는 수효나 분량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뜻이 없다. '있게'는 자리나 공간을 차지함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가끔이라는 단어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간격'이다. '가끔'은 '간격'이다. '가끔'은 1)시간적, 2)공간적

거리를 나타낸다. 3)사람들의 관계가 벌어진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뜻은 생소하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벌어진 정도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본래 사람들 사이에는 틈이 있다. 이는 쉽게 간과되는 사실이다. 우리가 다름을 쉽게 존중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간격이 세 번째 의미를 되찾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 4 💬 0

2025/11/14
friday, am 12:05 | 11월8
김영주 (화학과)

#9일차

나는 가끔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괴로워한다. 스스로 되뇌이는 사고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든다.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언가에 갇혀있다. 물려받은 올바름은 평생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는 사회 속으로 내뿜겨 혼란스러워 한다. 끝이 없다.

비극적이지만 올바름을 내 자손에게 다시 물려주어야 한다. 그 생각들이 또 얼마나 그들을 괴롭힐까? 어쩌면 올바름의 탈을 쓴 고통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4 💬 0

2025/11/14
friday, am 12:20 | 11월8
김영선

#9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매일 하는 일, 매일 만나는 사람, 자주 하는 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보다 시간의 간격이 넓은 가끔 하는 일,

가끔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해야 하는 일이 많아 '가끔'의 여유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요. 늦가을이지만 날이 맑은 요즘, '가끔'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는 시간도 즐기기를 바랍니다.

😊 6 💬 0

2025/11/14
friday, am 7:54 | 20일8
김영선

#10일차 키워드 : 갑자기

오늘의 키워드는 '갑자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기회, 혹은 갑작스러운 이별 등 여러분의 삶에서 '갑자기' 발생했던 사건이나 변화에 대해 써봅시다. 혹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 7 💬 0

2025/11/14
friday, am 11:02 | 13일8
유채원(일본학과)

#10일차 갑자기

나는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대처하는 순발력이 느리다. 예를 들어, 갑자기 교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면 굳는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입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엄청 멋있게 느껴진다. 다음에는 나도 잘 대답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아르바이트 질문 폭탄기. 나는 MICE 분야의 운영요원 단기 아르바이트를 가끔 한다. 그럴

때마다 사전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돌발 상황을 최대한 만나지 않기 위한 질문을 주로 한다. 질문을 많이 하니, 사전교육 날이나 첫 근무일에 직원에게 내 이름을 말하면 "아~"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의도치 않게 내적 친밀감이 쌓이는 모양이다. 그 정도로 나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작스레 닥치는 일을 꺼려 한다. (여행에서 갑자기 행선지를 변경하는 일 등은 나의 의사가 반영되었으니 도리어 좋아하는 편이다.)

일본은 매뉴얼의 나라다. 전공 수업을 들던 중 흥미롭게 꽂힌 문장이다. 일본 서점에 가면 지진에 대한 매뉴얼, 매뉴얼에 대한 매뉴얼 등 다양한 매뉴얼 책이 있다고 한다. 매뉴얼을 좋아하는 나이기에 딱 어울리는 전공을 선택하였다는 생각도 들었다.

매뉴얼에 있는 것만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다. 예상 밖의 일은 자주 일어난다. 그 일이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매뉴얼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한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이에 대한 대응을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그저 일이 지나갔다는 점에 안도하려고 한다. 그런 일에 골머리를 알아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다.

😊 5 💬 2

채은비(생명과학과) 저도 일기용엔 능력이 떨어져서 공감이 돼요... 그래도 지나간 일들을 급뻗으며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4
friday, am 11:25 | 14일8
윤지호(일본학과)

#10일차 갑자기

정말 갑자기 한 순간이었다. 친구랑 약속이 끝나고 집가는 길 무선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아무생각없이 집에가고있었다.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지만

의식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가까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이 보였으며 얼굴이 보이는 순간 온온한 향수냄새도 함께 났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였다. 여기서 아무말도 안하고 이 사람처럼 헤어지면 두번의 기회는 없다. 이 사람처럼 두번다시 길거리에서 마주칠 기회는 없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다. 그렇게 우리는 지나쳐서 그 사람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나는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생각하기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저기요' 였다. 어떤말을 할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정말 갑자기 내 몸과 입이 멋대로 움직였다. 그렇게 그 사람은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당황해서 황성수설했지만 뭐 어떻게 내가 말을 건 의도는 전했다. 나는 그 순간 느꼈다. 역시 용기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남자는 직진이다. 남자는 자신감이다. 모든 특별한 일은 예고도 없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나는 바로 칼같이 꺼졌다.

😊 4 💬 0

2025/11/14
friday, pm 12:12 | 12일8
정우현(철학과)

#10일차

저는 예상치 못한 일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평탄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며 자책하고 저 자신을 감아먹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은 결국 기회였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대부분은 사실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단지 제가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기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결국 저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도 적어도 더 좋은 태도를 가져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은 저 자신을 수양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갑자기 일어날 일에 대해 기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채은비(생명과학과)실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일들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4
friday, pm 12:41 | 13위
문진우(철학과)

#10일차 갑자기

평화가 이룩한 곳에 갑자기 굉음이 일었습니다. 포탄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자욱하게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머리에 짐을 이고 손에 제 자식 손 놓칠까 짊어지며 목적 모른 채 달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16살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 고향과 작별 인사할 틈도 없이 남한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당시 할아버지의 나이는 한창 의무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하루를 보내도 모자란 시기였습니다. 그 당연한 하루가 갑작스럽게 붕괴되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엄격하시고 얼굴에 노여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아마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누리지 못해 생긴 감정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누구도 원망하는 말 하지 않은 채 담배만 피워 대셨습니다. 아마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로서도 할아버지의 청춘을 보상해줄 단계를 찾기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평화는 종으로 만든 기둥에 서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수많은 사상가, 정치인, 독립 운동가가 종이와 혈서로 만든 평화이지만, 결국 언제 어디선가 이해관계의 불합치로 쉽게 깨지고야 맙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결코 전쟁을 보지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전쟁이란 역사에서만 보는 현상이며 제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보지 못할 죽은 단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20대에 진입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중동에서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누리고 있는 평화도 어쩌면 작은 바람에 무너지는 종으로 만든 탑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고요한 평화에 왜 인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언젠가 갑자기 깨지기 쉬운 유리병 같기 때문이라는 점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점도 조금씩 명료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폭력의 충동을 억제하며, 종으로 만든 탑을 덧대고 덧대어 마침내 태풍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는 평화를 구축하는 게 저의 일이자 모두의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구적인 평화는 없을 수 있겠으나, 그건 인간이 닦아야 할 하나의 과제이면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5/11/14
friday, pm 4:53 | 11위
최현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0일차

갑자기의 전조

갑자기란 없다. 모든 일에는 그 전조가 있는 법. 일찍이 미국 산업 안전 연구의 선구자였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1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고 29건과 징후 300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의 하인리히 법칙을 내놔다.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이 법칙은 1929년에 75,000건이 넘는 사고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실증적 결과물이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란 전조가 없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필연적으로 그 사고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책상을 탁하고 치니 청년이 억하고 '갑자기' 죽었다는 거짓 논리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갑자기 일어났다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다시 공감이 생각해볼 때다. 과연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났는지, 알짜이 예고된 일이었는지.



2025/11/14
friday, pm 7:28 | 11위
정서현(법학과)

#10일차 '갑자기'

살을 변화시키는 일은 언제나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다. 초·중·고 시절

내내 소수의 친구들과 조용하게 지내던 나는, 스스로를 적당히 무난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 용기도 부족했고, 늘 익숙한 자리만을 선택했었다. 그런데 대학에 외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뛰어들었다. 그 과정에서 전보다 훨씬 넓은 관계를 마주하게 되었고, 이것은 나에게 큰 변화였다.

그리고 매해, 나에게는 나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다. 작년에는 같은 과 동기였다.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서로 존재조차 몰랐던 사이였는데, 2학기부터 갑자기 가까워지더니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같은 과 동기 언니와의 인연이 찾아왔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들어가게 된 조직에서 만나 기쁜 일과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며 어느새 깊은 신뢰가 쌓였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인연들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나를 이전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도 한다.



2025/11/14
friday, pm 7:39 | 8위
윤여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8th

예전에 어떤 일본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다. 사람의 관심사, 꿈도 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꿈이 생길 뻔 언제든 그 꿈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장면을 보고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늘 궁금한 것, 꿈꾸는 것을 언젠가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있을때 이 대사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 나의 꿈과, 열정도 유통기한이 있으니 갑자기 문득, 생각날 때 그렇게 갑자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 것 같다.

😊 3 🗨️ 1

김서연(콘텐츠it) 맞는 것 같아요. 열정이 막 생기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열정이 사라지기도 하나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4
friday, pm 8:31 | 9월8
허태원(소프트웨어학부)

#10일차

갑자기 모든 일이 한꺼번에 틀어지는 날이 있다.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말을 안 듣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면 이상하게 그날만 안 오고, 겨우 시간을 맞춰 열차표를 잡았는데 도착이 늦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이 밀려온다. 심지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별레가 날아와 음식 위에 떨어지거나,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열평하던 바퀴가 튕고 망가지거나
그 자리에서 한숨만 나올 때도 있다.

그런 순간들은 이유도 없고 예고도 없다. 마치 세상이 잠시 나를 시험하는 듯한 기분이 들고
가슴은 괜히 답답해지고 몸도 마음도 동시에 지친다.

그럴 때 나는 억지로 버티려고 애쓰는 대신 그날 하루만큼은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려고 한다.

어차피 잘 안 풀리는 날은 억지로 해도 더 꼬일 때가 많다.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풀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갑작스러운 나쁜 하루를 만나면 그저 잠시 쉼표 하나 찍어두기로 한다.

쉬려고 멈춘 그 시간이 다음 날의 나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 3 🗨️ 1

김서연(콘텐츠it) 허태원님 말처럼 그런 날 잠시 쉬는 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4
friday, pm 9:08 | 11월8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0일차

저는 "갑자기"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전화랑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과 동기로 같은 전공 수업과 복전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 강의실을 갈 때 같이 갑니다. 현재도 이 친구랑 같은 시간표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수업 강의실을 항상 같이 가기 위해서 CLC 회담터에서 만남을 약속합니다. 저는 집에서 통학하고, 친구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갈 때 저는 미리 학교에 도착해서 CLC 음감실에서 음악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립니다. 원래는 제가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 합니다. 그때 친구는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와서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몇 번 반복이 되고 난 이후로는 이제 친구가 수업 갈 준비가 끝나면 전화를 해서 수업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음감실에서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쉬고 있다가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져서 어느 시간대에 친구가 전화를 하는지 알게 돼서 시간에 맞춰서 약속 장소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강의실을 갑니다. 전화로부터 갑자기 서로가 놀랐던 기억입니다.

😊 6 🗨️ 0

2025/11/14
friday, pm 9:47 | 8월8
김수진 (미래융합소)

#10일차 '갑자기'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말이죠 예를 들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거나 통증이 발생하거나, 물건이 망가지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예전에 없던 일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이 대부분 갑작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갑작스러운 사소한 순간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기회가 나타나는 순간, 감정이 변하는 순간, 진로를 찾는 순간 등 생각해 보면 갑작스러운 우리 인생에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두려울 수도 있고 기대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고 유연해지고 싶습니다

😊 5 🗨️ 0

2025/11/14
friday, pm 10:05 | 9월8
하현주(영어영문학과)

#10일차 : 갑자기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도 갑작스럽게 힘이 드는 때가 있다. 오늘의 글쓰기가 나에게 갑작스러웠다. 그래서 담지 않게 조금 미루다가 하루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들은 인간에게 너무 큰

파장을 일으킨다. 우리 사회에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들이 그러하다. 혹시 성수대교 붕괴 참사에 대해서 접해본 적 있는가? 얼마전 친구가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기사님께서 성수대교 붕괴 참사에 대해서 얘기해주셨는데 그 기사님은 다리 붕괴를 바로 앞에서 목격한 분이셨다. 이러한 사고들은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꺼번에 너무 큰 쓰나미를 들고 와, 모든 것을 휩쓸고 가버린다. 쓰나미가 오기 전 경보라도 울려주면 좋겠지만, 항상 소리 없이 다가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들은 우리의 평생을 앗아갈 수도 있다. 이런 큰 무게의 추들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항상 우리에게 갑자기 곤두박질 친다.

😊 3 🗨️ 2

김서연(콘텐츠it)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들은 참 무섭죠. 욕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조심한다고 해서 다 피할 수도 없고...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4
friday, pm 10:16 | 12월8
김영주 (화학과)

#10일차

보도블록 위로 크게 거슬리지 않는 군열이 보인다.

그 군열을 따라 생각없이 걷는다. 무의식적인 흐름과 그 회썹엔 입김이 퍼진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입김은 어떤 존재의 비행처럼 뿜어 나간다.

갑자기 이질적인 무언가가 시선에 들어온다. 자칫 잘못 밟은 뻔한 누군가는 질서를 난데없이 깨버린 그것을 스치듯 훑어본다.

주인을 잃은 물건인가.
입김이 돌연 끊기고, 내딛는 발걸음을
멈춘다.
손가락 두 마디 남짓한 새가 부자연스럽게
누워 있다.
살아 있을까.
어떤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가만히
고민하는 사람.
시끄럽게 떠돌던 한 연인이 걸음을 멈춰선다.
도움을 주려나실은 사람 앞으로 남자는 새의
몸통 앞에 카메라를 가져다 댄다.
한 쪽 손은 자신의 연인의 손과 여전히 맞물려
있다.

뽀뽀함을 뒤로하고 신호등을 건너 다시
반대편을 바라본다.
연신들리는 서터 소리의 충격이 말라붙은
혈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혀 알아지지 않는 감정에 불쾌할 뿐이다.
깜박이는 신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그러나 곧 꺼져버린 신호등.
그는 가야하는 길로 발걸음을 다시 돌린다.

😊 5 💬 1

채은비(생명과학과) 잠깐 멈춰서 한참을
읽었네요... 이 주제에서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니
너무 잘 읽었어요

 **2025/11/14**
friday, pm 10:19 | 8위
김서영(중국학과)

#10일차 갑자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분명 아직 2주나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그 2주가 통째로 스쳐 지나가 버리고
시험이 내일로 다가와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이 안 난다.

요즘은 특히,
전에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울여름을 지나고 나서부터
시간이 미끄러지듯 흘러가 버린다.
마치 하루 길이가 조금 줄어든 것처럼.

이런 속도면
잠깐 멍해진 사이에도
또 내일이 되어 있고,
계획표에 적어둔 것들은
반박에 못 채운 채로 밀려만 간다.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좋아하는 순간들에서는 괜찮았는데,
지금처럼 버겁고 정신없는 날들에서는
그 빠름이 조금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래도 결국
오늘은 오늘대로 지나갈 거고
내일은 내일대로 올 테지.

그래도, 정말
시간이 조금만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

😊 3 💬 0

 **2025/11/14**
friday, pm 10:38 | 7위
김서영(콘텐츠it)

#10일차 키워드 : 갑자기
지난달 갑자기 컴퓨터가 안 켜졌다. '설마
망가진 건 아니겠지'라는 불안한 생각을 하며
전원 버튼을 한 번, 두 번 더 눌러봤다. 하지만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창을 켜
관련 증상을 찾아봤다. 몇 가지 해결책이
있었고 하나하나 시도해 봤다. 불안했던
직감이 맞았던 것인지 다 소용이 없었다.
모니터는 멀쩡했고, 본체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as를 보내야 했다. 하필
망가져도 시험 전전주, 그것도 과제가 많은

시기에 갑자기 망가져 한숨만 나왔다.
노트북도 있기는 하지만 노트북은 충전선이
짧고 멀티탭도 없어 중간중간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했다.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본체가 왔다.
본체 메인보드에 이상이 있었다고 했다. 난 뭐
한 것도 없었는데 왜 그랬냐며 아빠에게
여옸다. 아빠는 "갑자기 전력이 끊겨서
그랬을 수도 있대."라고 말하셨다. 그동안 한
번도 컴퓨터 전력을 끊은 적이 없어 곰곰이
생각해 봤다. 본체가 망가지기 전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잠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본가에 있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as가 잘 돼서 다행이다.

😊 3 💬 0

 **2025/11/14**
friday, pm 10:39 | 6위
장다은(디지털미디어콘텐츠)

#10일차 : 갑자기

오늘도 모니터 앞에서 수십 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 멍하니 있다가도 어느 순간 정신이
들어 일을 후다닥 해치울 때가 있다. 아무런
 예고도 없다가 갑자기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하루가 통째로 바뀌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을 바꿔 놓는
사건들은 대부분 갑자기 찾아온다.
인과관계가 있든 없든, 그 뒤에 어떤 시간이
숨어 있었든, 결국 걸으려는 모두 갑작스러운
일처럼 나타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래서 나는 그냥 운명을 믿기로 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은 내 손을 벗어난 일이고,
잘되면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면 되고, 잘되지
않으면 그저 운명이었을 뿐이다. 굳이 의미를
덧붙이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열심히 살면 언젠가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힘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설명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건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일이 그만큼
갑작스러웠을 뿐이다.
그냥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한다.

😊 3 💬 0

 **2025/11/14**
friday, pm 10:41 | 8위
송준하(빅데이터전공)

#10일차 결정적인 사건은 생각할 거들도
없이 빠르게 나타난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닷컴 버블
붕괴(2000년),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
모두 인간의 안일함과 자만심이 만들어낸
사건들이다. 이들 모두 확률상 희박하지만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확률 모델은
효과적이지만 맹점이 있다.
이상값(Outlier)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인공지능의 시대, 2007년 나심 할레브가
제시한 개념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 4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를
막기 위해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흐름을 잘 느끼길 바라요!

 **2025/11/14**
friday, pm 10:42 | 9위
정우림(정치행정학과)

#10일차 #갑자기

양치하며 거울을 볼 때 갑자기 키가 큰 걸
느낍니다. 기사를 읽을 때 어려운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내고는 갑자기 성장한
나를 보고 놀랍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갑자기 내가 성인인 걸 다시금

상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키나 학력, 나이의 성장은
분명하게 정작 내 자신의 본질적인 발전은
없다는 불안이 갑자기 들어닥칩니다. 눈으로
보기엔 난 컸는데, 내면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괴롭습니다. 준비 없이 맞은 그 감각이
사실이기에 아픕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두던 이야기인데,
털어놓으니 후련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 1

채은비(생명과학과) 보기 싫은 나의 어떠한 부분이
어느 날 돌연히 내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죠. 너무
커져버린 외면 앞에서 나의 내면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순간. 그래도 그 순간이 너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읽고 갑니다.

2025/11/14
friday, pm 11:06 | 7월 8일
최은실(국어국문학과)

#10일차

영화나 소설, 애니메이션, 일상 속 대화 등 그
안에서 '갑자기'라고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해외 영화나 시리즈 드라마 등을 볼 때
처음 본 사람과 키스하거나, 누군가가
돈금없이 죽는 등의 그런 상황에서 느끼곤
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갑자기'라는
이유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집중해 따라가던
흐름을 방해해 버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즐거운 자극 또는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때론 불편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저는 공포영화에서 이야기와
상관없이 귀신이나 jump scare가 빈번하게
등장하면 짜증이 납니다.

작품을 감상할 때 현실적인가, 일어난 이유가

설명 가능한가, 일어나야 했는가, 전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작품성을
높였는지를 생각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고 계속 '갑자기'의
요소가 등장한다면 즉시 보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은 흐름을 따라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등장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어느 순간 물입을 때는
순간은 의아하긴 하지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요소보다 재밌는 요소가 더
많길 바라요!

2025/11/14
friday, pm 11:13 | 11월 8일
채은비(생명과학과)

#10일차

#갑자기

너희들은 어디에서 그렇게 불쑥 나타나서
나의 하루가 되어준 걸까.

오늘의 첫 번째 안녕과 마지막 안녕
걸어가는 길의 궤적이 순간 겹칠 때
시야의 바깥에서 갑작스레 나타나서
그대로 잠시 발맞춰 걷다가 걸다가
나타났던 그대로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리지.
속 쓰린 시절 인연.

친구, 동료, 어르신, 모든 그대들.
갑작스러운 우연일까. 아냐. 우리는 어디선가
이렇게 만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닐까.

그걸 운명이라 부르던가.
삶의 여기저기서 불쑥 튀어나와 나를 놀라게
하던 너희들이.

나에게

모든 인연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걸 가르쳐준 친구야.

너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

그 시절을 전부 잡아먹어 놓고는
나타났던 그대로 홀연히 사라져 버린 거니.
언제 난데없이 나타났다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인연.
애들아, 우리는 오래 가자.
조금만 더 발맞춰 함께 가자.
어쩌면 그 갑작스러운 순간이
영원이 되어줄지 모르니

😊 4 💬 0

2025/11/14
friday, pm 11:15 | 9월 8일
한시아 (글로벌학부)

#10일차 주제: 갑자기

나는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성향 자체가 파워 J라 그런지, 예상 밖의 돌발
상황이 생기면 예전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유연해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대처 능력도 차근차근 키우고 있다.
나는 보통 플랜 A, B, C까지 세워두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은
언제든 찾아온다.

그래서 요즘은 그 순간을 피하려는 마음보다
어떻게든 즐겨보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결국 내가 스트레스 받아봤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음만 더 지쳐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가끔은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연이 건네는 선물이라고 할까나 ㅎㅎ

아마 인생은 내가 준비한 계획과, 준비하지
못한 순간들이
적당히 섞여서 완성되는지도 모르겠다.
그 틈새에서 조금씩 유연해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
요즘 내가 배우는 가장 큰 변화다.

😊 3 💬 2

김서연(콘텐츠) 마음이짐이 좋으신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4
friday, pm 11:38 | 8월 8일
안도연(러시아 학과)

#10일차

#갑자기

어느순간 진짜 갑자기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졌다.
예전엔 하루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아침부터 밤까지, 다시 아침이 와도
줄에 연결된 구슬들처럼 이어졌는데
언제부터인지 그 연결이 딱 끊겨버렸다.
하루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흐르던 때가
있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된다.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조각처럼 따로 떨어져 굴러다니는 느낌
그래서 그런지 기억도 잘 안 남는다. 어제 뭐
했는지도 흐릿하고
조금 정신 차리면 일주일이나 다 갔다.
마치 누가 내 인생에 빨리감기를 눌러버린 것
같다.
내가 뭘 바꾸거나 한게 아닌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세상만 혼자 속도를 올린
것 같아서 뭐지 싶다.
나는 그대로인데, 시간이 나만 두고

알지러가는 기분?
그래서 가끔은 언제 이렇게 빨라진 거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진짜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시간만 성급해진
것 같아서

😊 3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시간은 정말 느린 것
같으면서도 빠른 듯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는
하루가 많아지길 바라요!

 2025/11/14
friday, pm 11:40 | 7월 8일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10일차 #갑자기

[선다섯 번째 접시]

갑자기의 대명사가 원지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장난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장난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라도 누적되면 한 번씩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장난을 왜
알리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 갑작스러움이
싫어서인 듯 합니다. 평소 불안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좋아하는데 장난은 불시에 오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말장난은
편찮지만 몸으로 하는 장난 (깜짝 놀라게
하기, 밀기, 치기 등) 은 때때로 친구의
호감도 하락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민한 성격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면 좋겠습니다.

[뽕뽕뽕, 오늘의 몫 접시가 닳았습니다.
]

😊 3 💬 0

 2025/11/14
friday, pm 11:41 | 7월 8일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10일차
갑자기,란 말은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림자 같다.
준비해둔 표정도, 미리 정리해둔 마음도
그 앞에서는 어수선하게 흩어진다.
가끔은 갑자기,
숨이 턱 막힐 만큼 어떤 기억이 떠오른다.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문장들,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이름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를 불러세운다.
안 그래도 마음속엔 늘
어둠과 빛의 작은 파편들이 교차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감정 하나가
전체 균형을 흔들어놓기도 한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갑자기'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확인한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진심,
침묵 속에 돌리는 나의 생각,
그것들이 조금씩 나를 다시 정렬시킨다.
그리고 그 조용한 정렬의 틈에서
나는 깨닫는다.
모든 변화가 사실은
갑자기 온다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고 없이 스며드는 그 순간을
조금은 두려워하면서도
조금은 받아들이기 준비를 한다.
갑작스러움은 언제나 낯설지만,
그 낯설 속에서만
나는 나의 다음을 발견하니까.

😊 3 💬 0

 2025/11/14
friday, pm 11:43 | 5월 8일
박혜민 (생명과학과)

#10일차

갑작스러운 마음은 언제나 나를 망친다. 나는
계획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 예상 밖의
감정은 언제나 출입금지,이었는데 분명한 내
계획, 곳곳이 세워둔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자꾸만 침범! 특히 자기 전에. 정리해 둔
생각들이 한 줄씩 무너진다. 내 밤은 조용해야
하는데 약속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이
감정은 내놓고 선을 넘는다.

기분에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이었나, 이제
내가 의심된다. 제멋대로인 마음을 붙잡을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 아직은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순 없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그냥 한 번 껴보는 거 뿐이야. 아마도!

😊 3 💬 0

 2025/11/14
friday, pm 11:45 | 7월 8일
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10일차 : 갑자기

저는 갑자기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걸 즐기고, MBTI가
J여서인지 미리 정해진 일을 수행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제 성격과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갑자기' 할 때 더
즐거워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
보기입니다.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방에서
스트리밍 앱으로 보는 영화도 좋지만, 저는

영화관에서 직접 보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집
근처에 영화관이 하나 있는데 손님이 거의
없어 조조든 낮이든 밤이든, 마치 대관한
것처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보기도
하고 동생이나 친구와 함께 보기도 하는데,
누구와 보든 영화관에 앉아 있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최근에는 그 영화관이 문을 닫아서 자주 가지
못했지만, 곧 주토피아 2가 개봉하면 다시
영화관으로 달려갈 생각입니다. 11월 23일에
개봉한다고 하니, 여러분도 시간 되면 보러
가보세요!

😊 4 💬 0

 2025/11/14
friday, pm 11:54 | 12월 8일
조은애(간호학과)

#10일차 #갑자기

갑자기 울었다. 사적인 일이다. 평소엔 정말
준비하기 싫고 부담으로 여기던 일이 하나
있었다. 오늘도 그걸 하는데 갑자기 그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일을 선택한
과거가 후회스러웠다. 나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만약 알았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이걸 하고 싶지 않다.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 나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그런 짓을
할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하기 싫다고 도망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걸까? 이전의 결정을 그냥
반복하고 싶은데 안 될까? 돈이 걸린
문제니까, 다른 사람도 연관된 문제니까,
그래도 잠시 견뎌야겠다. 용기와 책임감을
배우자.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충분히
만끽하자. 이번엔 피할 수 없어서 즐겨야

하지만, 다음엔 최선을 다해 피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통해 나에게 이런 면이 있음을
깨달은 셈이다.

공교롭게도 어제의 팔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징징거리고 싶은
날이 있는 법이다.

😊 6 💬 0

2025/11/14
friday, pm 11:55 | 11월 14일
원보경(생명과학과)

#10일차 #갑자기

언제나 갑자기 머리를 잘라요
왜 머리는 갑자기 지겨울까요
언제나 후회할걸 알면서도
갑자기 머리를 자릅니다

😊 3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저도 오늘 갑자기 머리를
잘랐습니다. 중독적이어도 마음에 들고 좋길
바랍니다!

2025/11/14
friday, pm 11:56 | 11월 14일
홍예진(바이오메디칼)

#10일차 갑자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지만
막상 상상을 현실로 만들면 이것저것
틀어지거나 삐걱대는 일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상황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될 때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건 단순히 내 생각이지만

'갑자기'라는 단어는 좋은 상황보다는 나쁜
상황에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주로 쓰이곤 한다. 그래서
무언가가 한순간에 일어나면 '갑자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앞으로 내 인생에도
너무 갑작스럽게 나쁜 일이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

😊 3 💬 0

2025/11/15
saturday, am 12:20 | 20일 15일
김영선

#10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11시가 지나면
서 하루종일 공공거리며 생각했던 글들이
'갑자기' 이 밴드에 주르륵 올라오는 것
같아요. 11월이 되니 '갑자기' 시간도 빠르게
가고, '갑자기' 생각도 많아집니다. '갑자기'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과 기대로,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마무리하는 즐거운 주말은 '갑자기'
온 것은 아니겠조?

편안한 주말 보내고, 다음주 5회 남은 챌린지
잘 마무리해 봅시다.

😊 3 💬 0

2025/11/17
monday, am 8:01 | 26일 17일
김영선

#11일차 키워드 : 질문

기운이 영하로 떨어진 쌀쌀한 월요일입니다.
잘 챙겨입고 한 주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모든
지식과 성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질문을 던져보았나요? 정답이 없는
질문, 정답이 있는 질문 어떤 쪽이었는데?
혹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질문에 대해 써도 좋습니다. 질문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 7 💬 0

2025/11/17
monday, pm 2:33 | 13일 17일
하현주(영어영문학과)

#11일차 : 질문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돈"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있을까?
해당 질문은 내가 이따금씩 생각해 보는
질문이다. 돈 없는 세상에 대해서, 가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곤 하는데, 먼 고대
시대부터 생산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의 필요성 여부를
생각하면 돈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재화, 자산이라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과연 정말로 존재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곤 한다.

돈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하다가, 창
밖을 바라보니 밖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패딩이나 상가 건물들 등
모두 것들이, 돈이 있어야만 거래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새삼스레 다시금
생각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
돈이라는 건 태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새 인간이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고
스스로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학기 교양
수업에서 들었던, 월세를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어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화가
계속 생각난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무형의 가치인 돈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현재 시점에서 돈이라는 가치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울 것임을 안다.
하지만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인류가 다른 길을 갔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세상에 그려졌을까?
질문이라는 키워드에서 조금 벗어난 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평소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 이기에, 이렇게 글을
써본다. 돈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있는가?

😊 4 💬 2

김서연(콘텐츠) 제 생각으로는 돈 없는 세상은
존재하기 힘들 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 해도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이
아닌 특정한 사람이 할 줄 아는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결국 그게
'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7
monday, pm 2:40 | 13일 17일
윤지호(일본학과)

#11일차 질문

다들 누구나 한번쯤은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인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해본적이 있을것이다. 답도 아마 각기
다를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삶,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 운명의 짝을
만나서 오래도록 같이 사는 삶, 자신의 취미에
헌신하는 삶 등 굉장히 많을 것이다. 나도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고 아직도
답을 못찾았다. 대기업에 취업해서
스트레스와 업무에 치이며 사는 삶은 돈은
많이 받을지언정 별로 행복하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을 했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정도로 나는
여유롭지 않으며 연애를 해도 이 사람이
운명의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받은적도 없다.
현재 내가 내린 행복한 삶이란 건강하며 돈이
많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라는 쪽으로

치우쳤다. 다들 어떠한 삶이 본인에게 있어 행복하며 좋은 삶인지 묻고 싶다.



최은실(국어국문학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제게 충분하다면 서로가 행복하고 좋은 삶이지 않을까요.



2025/11/17
monday, pm 2:56 | 13위
문진우(철학과)

#11일차 질문

기운이 떨어지듯 생각도 쉽게 식는다. 그래서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오늘의 선택은 어제의 나를 설득할 수 있을까?"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멈춰버린 사고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불씨다. 우리는 종종 정답을 찾느라 바쁘지만, 사실 성장의 순간은 정답이 아닌 의문을 품은 바로 그때 일어난다.

역사를 바꾼 철학자들 역시 질문에서 출발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물음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고, 칸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근대 철학의 지평을 바꿨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다시 정의하려는 용기였다.

나에게 '질문'은 거울과도 같다. 감정이 무뎌질 때, 삶이 지루해질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의 나는 진짜 나인가?" 이 질문은 때로 괴롭고, 대답은 늘 불완전하지만, 덕분에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흔들리며, 성장한다.

결국 질문이란, 살아 있다는 증거다. 정답이 없어도 좋다. 중요한 건 묻는 용기와 멈추지 않는 사고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또 다른 나에게 묻는다. "다음엔 어떤 질문으로 나를 흔들 수 있을까?"



2025/11/17
monday, pm 3:18 | 12위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1일차 "질문"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니까? 저는 작년, 올해에 똑같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사회복지 와서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는 아동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로 갈등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있었기에 이 질문의 정답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전공으로 청소년학 수업을 들으면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처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꿈을 향해서 가는 게 좋을까 질문의 정답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청소년 관련 활동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고민에 더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라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둘 다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랑 선배들은 다 목표가 정해져있고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이 두 직업의 선택 질문에 정답을 적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정답을 적기 위해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경험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이나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질문의 정답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연(콘텐츠) 저는 지금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7
monday, pm 3:39 | 11위
정우현(철학과)

#11일차

질문하는 삶은 대체로 걱정적입니다. 한시라도 여유로운 적 없을 때 저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저의 마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내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내면이 아닌 외부로 향할 때 끝없는 분노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분노는 혐오로 번졌고 혐오를 멈추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만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의문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과연 정말 후련하고 행복할까요? 오히려 덜 알고 그만 알려는 것도 제정신을 지키는 방법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저 스스로에게는 질문합니다. "너 지금 행복하니?" 저는 대답합니다. "응"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제 상황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마음속으로 던지는 질문들은 저를 안정시켜 줍니다. 어쩌면 의문들을 간직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는 방법은 아닐지 생각하게 되네요. 알면 다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저는 저를 향한 질문만 적당히 묻고 적당히 대답하겠습니다.



조은채(간호학과) 이 글을 읽으니 질문이 무조건 좋은 면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공격이 될 수도 있고요... 말썽처럼 내면을 향할 때 그나마 안전하겠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조차 알면 다치는 것이 있네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5/11/17
monday, pm 6:01 | 13위
유재현(일본학과)

#11일차 질문

질문은 즐겁다. 나의 궁금증이 해결되어 속이 시원하니 즐겁다. 질문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운이 좋다면 진짜 답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결로 끝난다. 내가 고민한 만큼 답이 주는 개운함과 즐거움은 커진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질문을 하면 보너스 청수를 준다는 말에 한 질문은 눈 깜짝할 새에 내 머릿속을 떠난다. 답변 또한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듯 사라진다. 그러나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도달한 질문은 쉽사리 잊히지 않는다. 질문에 코팅이 씌워져 구겨지기가 어려워진다.

사람은 질문으로 성장한다. 이해가 가지 않거나 모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나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저 하고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질문을 주저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일종의 쾌감을 얻기 때문이다. 질문이 처음 하기가 어렵지 몇 번 하면 전혀 두렵지 않다. 모두가 당연하게 질문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은채(간호학과) 보너스 점수 주는 질문... 좋은데
싫어요... 전 지금도 질문 잘 못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니 멋있으세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7
monday, pm 7:27 | 10원
민시아 (글로벌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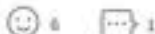
#11일차 주제: 질문

나는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의 주제는 매번 다르고,
때로는 나를 의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건 결국 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나는 계속해서 나를 의심하는 걸까.
어쩌면 나를 속이려는 또 다른 나를 붙잡아
다시 바른 방향으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결국 '성찰'이 된다.
어설픔고 흔들리는 나를 들여다보는 일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
질문은 때로 날 흔들지만,
결국 날 단단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을 통해 더 나은 나로
나아가고 있다.



2025/11/17
monday, pm 7:48 | 10원
하태원(소프트웨어학부)

#11일차

질문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묻는 행위다.
보통 질문을 한다는 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답을 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때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할 때가 있다.
어렸을 때는 바깥 세계가 더 궁금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이 많았다면,
커가면서는 점점 "나"라는 존재에게
질문하게 된다.
지금 내가 어디에서 서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문제는 나도 잘 모르겠다는데 있다.
확신이 서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하게 되고 질문을 많이 할수록
답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릴 때는 그 질문 속에 감춰버리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나는 요즘 나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
학업, 취업, 관계, 미래 등 이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며 묻는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길일까?", "지금 해야 할 건 무엇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질문 속에만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깊어지는 건 좋지만 그 생각에 대한
질문만 쌓여가면 어느 순간 그 무게에
묻혀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질문 뒤에는 결국 행동이 따라야 한다.
질문은 방향을 보여줄 뿐이고 지금의 나를
움직이는 건 결국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이니깐.



2025/11/17
monday, pm 8:33 | 11원
최은실(국어국문학과)

#11일차

질문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한 번의
질문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오랜
시간동안 계속해서 최종 답을 찾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AI를 사용할 때를 생각해보면 한 번의
질문으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
번의 질문과 수정으로 답을 얻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문제가 단순한 답으로
해결될 때가 있었고 반대로 쉽게 느껴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 오랜시간
헤매기도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물음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나의
삶이 나에게도 가치 있지만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책 중에 <데미안>, <순례자>와 같은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제를
좋아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질문이 필요한데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찾게 됩니다. 다만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한 길잡이에 불과하지 답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타인이 생각하는
'인생', '자아'에 대한 질문이 궁금하긴 하지만
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과 답을 찾기
때문이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같이 질문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2025/11/17
monday, pm 8:53 | 14원
채은비(생명과학과)

#11일차

"이름이 뭐야?"
"난 00 출신인데 너는?"
"같이 점심 먹을까?"
"너 해산물 못 먹어?"
"너는 우리 과 왜 왔어?"
"형제자매 있어?"
"MBTI 뭐야?"
"취미로 뭐해? 난 책 읽는거 좋아해."
아 그렇구나.

"너 과제 아직 안 했어?"
"이 교수님 강의 = 0 어렵지 않나?"
"너 안 추워?"
"너 추위 많이 안타?"
"학식? 아니면 나가서?"
"나 자료 찾으러 도서관 가야 하는데 같이
가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넌 이럴 때 어떻게 해?"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너 괜찮아...?"
"개가 또 그래?"
"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지금 넌 어떤데?"
너는? 너는 어때?
응? 아, 나는.....





2025/11/17
monday, pm 9:11 | 10원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11일차 '질문'

저번 연결하다라는 키워드에서 말했듯이
저는 질문하는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질문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질문하는 것도 주변 눈치를 보거나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소한 거라도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을 해야지 스스로를 더 발전 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번거롭고 불편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소한 질문들도 내뱉어볼 줄 알아야
더 큰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가 '가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소한 질문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못졌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2025/11/17
monday, pm 9:16 | 14원
조은재 (간호학과)

#11일차 #질문

...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베일 것 같은 눈발 위에
작고 까만 점들을
고적이며 꼭꼭 심다 보면
12년의 겨울을 실다 보면
잊게 된다

...
그 씨앗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좌우로 고개도 못 젓고
마침표에서 자라난 그 순종적인 줄기를
고작 동글게 구부리기 위해서
아주 큰 힘이 필요했다

지금은 잃어버린
손을 번쩍 들어올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이.

...
겨우내 품었던 생각은
이대로 두면 시들어 죽을 테니

부디 그 날카로운 갈고리가
어느 누구도 찌르지 않길 바라면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소한 점들의 뜻을 거스르며

이제는 어디론가 힘껏
던질 시간.

...
마침내 침묵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간

그 흙씨,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새로운 씨앗이 되었을까?



유재원(일본학과) 물음표를 식물처럼 표현하더니!
흥미로운 비유에 미소를 지으며 읽었습니다.

12년의 초중고를 겪으면 대부분 질문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흙씨를 날리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7
monday, pm 9:21 | 10원
정서현 (법학과)

#11일차 '질문'

나는 오랫동안 질문을 무서워하던
사람이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실이
늘 부끄럽고 두려웠다. 마치 질문을 하는 순간
내 부족함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만 같았다.
질문을 받는 순간에도, 혹시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와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여 신뢰를
잃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앞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질문을 한다는 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 일 또한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임기응변 능력도 생겨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김서연(콘텐츠it) 생각이 달라지셔서 이제는
질문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게 되신 건가요?
멋지네요. 저는 질문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는 것이 무서워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7
monday, pm 9:31 | 9원
안도연 (러시아 학과)

#11일차

#질문

나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다.
선택 앞에서 멈추면 항상 또 다른 물음표가
생긴다. 이게 맞는 방향일까 더 나은 길은
없을까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 나의 동력이 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 어떤 질문을 붙잡고
살아갈지 골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질문한다.
조금 망설이더라도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든다. 아마 내가
걸어갈 길은 수많은 물음표들과 질문이
이어서 만든 새로운 길일 것이다.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새로운 길에는 고민의
흔적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와 결단력의
흔적이 남는다니 좋네요!



2025/11/17
monday, pm 9:36 | 10원
윤여지 (디지털미디어콘텐츠)

#9th

질문을 한다는 건 언제나 참 즐거운 일이다.
질문 후에 답을 찾아 못하더라도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선생님과,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머리를 깨워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했다. 사실 쓸데없다는 것도 다
주위에서 이야기한거고, 그 질문을 할 때의 난
진심으로 그게 궁금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한 질문을 터무니 없는 질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하다. 너무나 답이 명확해서 터무니가 있는 질문들은, 질문의 형태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그 답을 알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질문은 그런 질문들이다. 답이 없고, 수백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으며 대답한 사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질문들을 좋아한다.

😊 4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새로운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니 좋네요!



2025/11/17
monday, pm 9:52 | 11월 17일
정우림(정치행정학과)

#11일차 #질문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은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질문은 대개 간단하게 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저 친구가 왜 좋은가?"
"나는 어젯밤 지하철에서 갑자기 왜 울었을까?"
뭐 이유가 있겠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정확히 맥락을 짚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에 대한 질문은 감정 따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졸업 후 취직에 이어 결혼까지도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어떻게 죽게 될까?"
내 미래의 삶을 상상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답을 얻기엔 힘들 겁니다.
아무리 물어도 답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런 질문의 답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자기 자신의 모양을 더듬어보는 행위만 반복하겠죠.

답을 얻지 못하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또 하고, 계속 합니다.
어쩌면 그 바보같은 짓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5 💬 1

원보경(생명과학과) 나 자신에게하는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란 글을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아요



2025/11/17
monday, pm 10:22 | 10월 17일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1일차

질문은 누군가가 궁금해야 하는 것이다.
의미 없는 질문이 있을까?
말을 이어가기 위한, 알맹이 없는 질문조차 사실은 그 상대와 조금이라도 닿고 싶어서, 대화라는 얇은 실 하나라도 잇고 싶어서 조심스레 건네는 손 같다.
가벼운 질문은 때로 무거운 마음을 감추는 포장지이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물음 속에는
"너 지금 괜찮아?"
"나랑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있지?"
그런 말들이 숨어 있다.

질문은 말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의 움직임에 더 가깝다.
물어보는 건,
그 사람의 세계로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미 없는 질문은 없다.
그저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서툰고 작은 신호가 있을 뿐이다.

😊 4 💬 0



2025/11/17
monday, pm 10:32 | 11월 17일
박혜원(생명과학과)

#11일차 질문

1
강의실 안 모두가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수업 중간에 혹은 수업이 끝난 뒤 질문하는 일은 질문자와 교수님 두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일종의 편찬을 받는 행위가 된다. 한국은 질문을 두려워하는 나라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나라다. 질문은 곧 '시간을 잡아먹는 일', '분위기를 흐리는 일'로 여겨지고, 질문하는 이는 쉽게 "혼자만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기보다는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2
하지만 질문은 알의 경계를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장치다.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힘을 가진다. 질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식의 빈틈을 인정하는 일이며, 그 빈틈이야말로 모든 탐구의 출발선이다. 질문은 무지를 고백하는 동시에 지식 확장의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질문은 무지를 드러내는 용기이자 그 용기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3
질문은 지식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 과학과 철학 모두에서 질문은 탐구의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핵심 요소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답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좋은 질문은 이미 답을 반쯤 품고 있다. 질문이 명확할수록 탐구의 길도 명확해지고, 질문이 깊을수록 그 답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다.

4
사회적 기술로써 질문은 중요하다. 질문은 타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정교한 소통 기법이며, 대화를 이끌고 관계를 확장하는 힘을 가진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행위이다. 질문을 건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말할 자리를 열어주는 일, 그 자리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관계가 자란다. 또한 질문은 상대의 사고 방식을 엿보고, 서로의 관점을 조율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5
그리고 우리는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질문은 자기이해의 출발점이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고 무슨 근거로 그러했는지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던진 질문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며 자기 변화의 기회를 열어주는 심리적 장치가 된다. 나에게의 질문이 바로 자기 성찰의 핵심일 것이다.

😊 4 💬 0

2025/11/17

monday, pm 10:37 | 11월 8일
김서연(중국학과)

#11일차 질문.

오늘 수업에서 내가 제일 늦게 준비한 거.
이번 주 발표자들에게 할 질문들.

사실 이번 주 발표 질문을
미리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우리 팀 발표 준비만 생각하고 있었다.
아 그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머릿속 어딘가에 던져놓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늘,
수업 몇 시간 안 남겨두고 갑자기
아 나 오늘 질문 준비 해서 가야 하는데
그 순간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이미 다른 수업도 있어서
딱 두 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 안에 발표 자료 보고 이해하고
거기서 질문까지 뽑아내야 했다.
대충 보면 안 되고,
표면적인 것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서
괜히 더 마음이 급해졌다.

노트북 켜놓고 솔직히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라도 짜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수업 들어가서 준비해 간 질문을
했더니
좋은 질문이라고 들었다.
정말이지 다행히도 운 좋게 잘 넘어간 것
같다.

왜 나는 꼭 이렇게 매번
마감 가까이 와서야 허겁지겁 할까.

오늘 하루를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발표수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건
아닌지
조금은 돌아보게 됐다.

😊 5 💬 1

원보경(생명과학과) 대답하신 것과 또 수업에서
질문을 한 것 그것을 넘어 수업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2025/11/17

monday, pm 10:45 | 11월 8일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1일차

불치하문(不恥下問)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겸손이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을 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밝히고 질문하는 태도,
그것을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 부른다.
보통은 자기의 밀천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장은 그런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되려
자신의 밀천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나온다.
무조건 자신이 부족하고 모른다는 생각 아래
겸손하라는 것은 아니다. 안다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객관적인 평가 뒤에 날카로운 질문이 따라올
때, 비로소 해답은 다소곳하게 모습을
비춘다.

😊 4 💬 0

2025/11/17

monday, pm 11:08 | 11월 8일
원보경(생명과학과)

#11일차 #질문

질문은 언제나 잘 당황하게 만드는 말
1위예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몹시 어려워하기
때문인거 같아요.
특히 당황했던 질문들이 있는데 바로
길찾기예요.
저는 길치인데 유난히 초행길을 걸을 때 다른
분들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알려주려하지만, 알고보니
반대로 알려줄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특히 곤란한 질문들이 있나요?

😊 4 💬 2

김서연(콘텐츠it) 저도 몇 번 그런 적 있어요. 길을
물어보는데 제가 길치에 방향치기도 해서
동네에서 주차 길을 몇 번 잃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초행길에서 물어볼 때면 난감합니다. 지도를 봐도
잘 못 갈 때도 몇 번 있어서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7

monday, pm 11:16 | 11월 8일
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11일차 : 질문

질문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 것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질문이 많은
고등학생이었다.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했고, 오늘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것도 궁금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등 모든 것을
나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걱정과 부담으로
바뀌었다. 시험을 잘 보면 잘 본 대로,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걱정했다. 걱정하느라 정작 해야
할 공부나 과제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짐했다. 질문을 하지 말자고, 잠시
미뤄두자고.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2학년 2학기인 지금,
질문들이 다시 슬금슬금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미뤄서 방학 때, 제대로
질문에 보려고 한다.

😊 4 💬 2

김서연(콘텐츠it) 저도 지금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질문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7

monday, pm 11:23 | 11월 8일
김서연(콘텐츠it)#11일차
키워드: 질문

여러분은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전 요즘 저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거지?", "난 열심히 하고
있나?" 등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원가를 한 건 없지만 어느새
벌써 대학교 2학년 2학기. 그저 시키는 대로
과제하고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그러다
방학이 되더니 벌써 이 한림대를 다닌 지
2년이 되어가네요. 곧 있으면 3학년이 되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 없다는 생각에 저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질 뿐 변화할 만한 계획은 세우지도 못했죠.
이 글을 쓰면서 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지금이라도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 3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질문을 던지면 예매한 대답이 나와서 딱히 생각을 잘 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요!

2025/11/17

monday, pm 11:33 | 9월 9일
홍예진(바이오메디컬)

#11일차 질문

요즘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교수님께서 항상 수업을 마치시고 나면 우리에게 매번 "질문 있나요?"라고 물어보신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묵묵부답. 손을 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 질문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괜히 질문했다가 틀리기라도 하면 창피해질 것 같아서 망설여지는 것 같다. 나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틀리면 무언가 창피하기도 하고 나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 같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수업이 끝나고 여쭙보는 편이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바로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질문을 하기 조금 꺼려진다. 다른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까? 문득 궁금해졌다.

😊 3 💬 4

홍찬미(융합과학수사학과) 저도 수업이 끝나고 질문하는 편이에요! 수업 중간에 질문 드리면 흐름을 깨는 것 같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목소리 내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5/11/17

monday, pm 11:37 | 9월 9일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11일차 #질문

[신여섯 번째 접시]

질문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궁금증이 일어나 질문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궁금증의 원천은 어디일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라는 말을 특히나 더 달고 다니는데 이 시기에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대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인간의 큰 욕구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 때 궁금한 게 생기면 끝나고 나서 꼭 여쭙습니다. 궁금한 것은 참기 힘든 성격이라 그런 듯 같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으면 타인을 귀찮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막기는 편이지만 너무 심해지면 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을 배려한다는 명목에서 당당해져도 될 상황인데도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따뜻한 시선이 당연한 상황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뽀득뽀득, 오늘의 몫 접시가 덮였습니다.]

😊 3 💬 1

홍찬미(융합과학수사학과) 사실 질문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게 된다는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 따뜻한 시선이 생겨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합니다. 글 잘 읽었어요!



2025/11/17

monday, pm 11:46 | 9월 9일
송준하(빅데이터전공)

#11일차 세상에는 많은 질문이 있다. 모든 질문에 또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종착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칸트가 철학의 궁극적인 물음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했던 것과 유사하다. 위키피디아의 전자 문서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첫 번째 링크의 첫 번째 링크를 계속 타고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철학' 문서가 나온다. 결국 지식이나 지혜를 추구한다면 이 심오한 난제를 마땅히 알게 되는 것 같다. 삶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기도 하다.

😊 4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질문들 중에는 삶을 관통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2025/11/17

monday, pm 11:50 | 9월 9일
정다은(디지털미디어콘텐츠)

#11일차 : 질문

대학은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며 목숨 걸 듯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도 입학 그 자체나 졸업장 그 자체가 인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시를 지나오고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의 의미는 그 자체보다 과정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몰입했는가? 스스로를 어디까지 밀어붙여

보았는가? 사회는 그 과정의 가치를 물었던 것이다.

나는 아직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대학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을 방패처럼 들고 다니며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합리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벌써 올해의 수능이 끝났다. 내가 수능을 본 지도 어느새 3년, 대학에 입학한 지도 3년이 지나버렸다. 학교생활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고, 후회 없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이제야 나도 무언가에 온 힘을 쏟아 노력해보려 한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보고 싶다. 언젠가 그만큼 노력해봤다고 답할 수 있도록 말이다.

😊 3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과정에 중점을 두려 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은 결과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길 바라요!



2025/11/18

tuesday, am 12:00 | 9월 9일
김영주 (화학과)

#11일차

좋아하는 고기를 한 입 베어물었는데 오늘따라 질기다.
밤새 꿈 속에서 시달리고도, 아침이 되면 현실도 만만치 않다.
언젠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왜 이리 불만이 많냐며,
남들은 잠들 틈이 없는데 꿈을 꾸는 것이 너에게는 하나의 고통이냐고.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
스스로 잃어버린 무언가가 생길 때마다 남탓을 하며 버틴 것을 안다.
피하고 싶을 때가오면 웃음이 먼저 나오는 당신에게 묻고싶다.

어쩌면 순간마다 후회하고 있을지 모를 나는
평생 답하지 못할 질문만 떠올린다.

여러분은 평온하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도 평생 답을 알지 못할테니, 쓸데없는 말은 접어두고 제 삶이나 잘 살아봅시다..

😊 4 💬 0



2025/11/18
tuesday, am 12:23 | 21위
김영선

#11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인류 역사의 지적 편력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질문보다 답만 찾는 것 같습니다. 20대, 대학생이 되니 고민과 질문이 많아짐을 여러분의 글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질문이 쌓여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 5 💬 0



2025/11/18
tuesday, am 8:14 | 20위
김영선

#12일차 키워드 : 기다리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다리다'입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기도,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고 그때의 일이나 감정을 써보세요. 기다림은 지루하고 힘들 수도, 기쁘고 기대에 찰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순간,

혹은 기다림 자체가 주는 의미에 대해 자유롭게 써봅시다.

😊 7 💬 0



2025/11/18
tuesday, am 10:27 | 12위
윤지호(일본학과)

#12일차
기다리다

나는 현재 출국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3월에 일본에 와서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인생 처음하는 유학생활에 두근거리고 기대도 했지만 현실이라는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먼저 음식이 너무 안맛았고 인간관계가 정말 쉽지 않았다. 그들과 나는 살아온 환경이 1부터 10까지 전부 달랐다. 어렸을때 투니버스를 보고 넥슨게임 마인크래프트, 리그오브레전드를 하고 학원을 다니며 자라온 나와 어렸을때부터 게임, 학원이 아닌 부활동(동아리)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내온 그들은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깨달았다. 나는 일본에서 알바를 한지 반년이 넘었다. 외국인은 나밖에 없는데 반년넘게 일하면서 깨달은건 나는 일본사회에서 일본인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들이 구사하는 일본어와 나의 일본어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으며 일본어 하나만을 무기로 일본에서 일을 하려면 적어도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정말 힘들것이다. 한국에서의 나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일본에서의 나는 그냥 힘도 능력도 없는 한 사람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나 자신이 있고 싶은대로 있을 수 있고 나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한국으로 가고싶다. 혹시라도 일본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은게 있다. 일본어를 네이티브처럼 구사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일본어 이외에 특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있어야한다. 영어를 잘한다던가 IT계열 기술이 있다던가 일본어를 어느정도 구사하고 그 외에 특기가 하나 이상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 8 💬 4

김서연(콘텐츠)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건 쉽지 않죠.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8
tuesday, pm 2:54 | 12위
최민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2일차

3분

늦은 밤,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걸어 들어와 커피포트의 물을 끓인다. 컵라면 포장지를 뜯고 스프를 털어넣으면, 그때 딱 맞게 '땡'하고 들려오는 소리는 물이 다 끓었다는 것. 그대로 컵라면 용기 안의 표시선까지 뜨거운 물을 붓는다. 그때부터 시작된다. 만고의 역사를 다 읊어내도 끝나지 않을 듯한 3분이. 세상에서 가장 긴 기다림이라는 건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존재할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기분은 정말 기분 탓인걸까. 천상 문과인 필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라는 걸 컵라면 익기 기다리는 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최선이다. 경건한 마음으로 컵라면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다. "오늘 사람을 위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배운 걸 복습해 내면화했는가?" "거짓말한 부분은 없었나?" 일찍이 춘추시대부터 '일일삼성(一日三省)'이라고 불린 위 항목들은 공자가 하루에 세 가지를 반성한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전히, 저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호하지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3분의 기다림이 끝나고 컵라면이 다 익었으니, "잘 먹겠습니다!"

😊 6 💬 2

조은채(간호학과) 저도 마침 라면을 사와서.. 이 글을 읽으며 익기를 기다렸어요. * * 의미 있는 3분을 보내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5/11/18
tuesday, pm 3:41 | 10위
정서현(법학과)

#12일차 '기다리다'

겨울 끝자락, 차가운 공기 사이로 꽃 냄새가 스친다. 나는 해년 이 무렵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맡게 된다. 아직 오지 않은 계절을 기다리며, 기다림은 조바심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금씩 따뜻해지는 어떤 감정이다. 봄은 늘 그렇게 온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라보지 않을 때, 아주 사소한 변화로 찾아온다. 창문 틈을 파고드는 공기가 달라지고,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쩌면 변화하고 싶은 나 자신을 기다리는 마음과 닮았다. 지금은 겨울 같아도, 언젠가는 내 안에도 봄이 오기를 믿고있다. 아직 따뜻하지 않아도, 조금씩 빛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계절을 기다린다. 꽃이 피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기 전의 공기까지 기다린다.

😊 6 💬 0



2025/11/18
tuesday, pm 3:45 | 8위
채은비(생명과학과)

#12일차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부모님께 선물을 받으시나요?

저는 아직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습니다. 다만 20살 전에는 부모님께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았다면 20살부터는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나누거나 직접 같이 구매하려 합니다. 산타를 알기 전부터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모님과 같이 사러 갔기 때문에 짝퉁선물을 받게 된다는 기대가 아니라 갖고 싶은 선물을 함께 고를 수 있어서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마다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는 형제자매가 많은 편이고 사이도 좋아서 같이 쇼핑을 가고 밥도 먹으며, 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합니다. 다만 서로 사는 지역이 달라서 모두를 만날 수 있는 날이 1년에 3번 정도 됩니다. 저희 가족은 크리스마스 전에 각자가 먹고 싶은 음식을 구매해 본가에 오고, 당일에는 외식과 쇼핑을 하러 나갑니다. 서로가 갖고 싶은 선물을 고르면 구매해서 그 자리에서 선물합니다. 저녁에는 배달을 시키고 영화를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가족 분위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더 낭만적이라고 느껴져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떤가요?



채은비(생명과학과) 저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 본지 오래 됐어요. 그래도 그런 날이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해요.



2025/11/18
tuesday, pm 4:21 | 8위
정우현(철학과)

#12일차

저는 기다리는 게 싫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싫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왜 싫냐고 하나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행위는 미래를 예측하고 걱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과 과정들이 저를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며 불안에 떨 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번 결과가 꼬이면 계속해서 꼬인다는 생각에 무한의 굴레로 진입했습니다. 계속 걱정하면 결국 저는 패배자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 인생에서 중요한 병역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걸림돌이 되어 앞으로의 수년간의 미래가 꼬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역 문제를 기다리는 수년 사이에 저는 과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병역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요원을 채용하는 인원은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래서 나라를 원망하고 남자인 제가 싫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며 기다려온 시간들이 값집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적성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학교를 다니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결국 기다린다는 행위도 또 다른 저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2025/11/18
tuesday, pm 4:42 | 10위
문준우(철학과)

#12일차 기다리다

기다림은 우리 삶에서 가장 오래된 감정 중 하나다. 누군가를, 어떤 순간을,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나 자신을 기다리며 우리는 시간을 건너간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계속 데우는 행위에 가깝다.

우리는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흔들린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어떤 날은 시간이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너무 빨리 흘러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기다림은 우리를 천천히 변화시킨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생각하고, 후회하며, 희망하고, 결국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된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삶을 "가능성과 현실 사이의 진자운동"이라 말했는데, 어쩌면 기다림은 그 사이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가장 인간적인 시간일지도 모른다. 기다린다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품는 일이다.

나는 기다림 속에서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어떤 일을, 그리고 미래의 나를 여전히 믿고 있는지를 깨닫곤 한다. 기다림은 늘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나를 지탱하는 희미한 빛도 함께 발견한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라, 흐르는 시간에 내가 조금씩 적응하고, 달라지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과정이다.



채은비(생명과학과)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을 마냥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8
tuesday, pm 5:36 | 9위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2일차

어렸던 나는 눈을 기다린다.
내 기억이 맞다면,
13년 전인가? 14년 전인가
11월 2일에 춘천에 첫눈이 내렸다.
어렸던 나는 손이 빨개지는 와중에도
눈을 뭉쳐서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다.
하하호호 왁자지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렇게 눈 던지며 놀거나,
눈을 굴리며 눈사람을 만들었다.
2025년인 현재 아직 딱히 눈이 오지 않았다.
지금의 나는 눈을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의 내게 눈은 겨울의 일부분,
풍경의 한 폭일 뿐이다.
나무에 내려앉아 눈꽃이 달려거나
뽕안 길을 만들어 두면 뽕뽕뽕 소리를 내는
등심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어린 나는 어디에 있는가.

흙 짙어 버린 나는 이제
눈은 소품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기다리는 그대와
다가올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내리는 새해를
맞이할 날을 기다릴 뿐.



채은비(생명과학과) 첫 눈을 마지막으로 기다려 본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나는 어디로 가 버린 걸까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8
tuesday, pm 7:11 | 13위
김서연(콘텐츠러)

#12일차
키워드 : 기다리다

저는 이번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내일 제가 기다리던 위키드 포 굿이 개봉하는데, 주말에 동생과 함께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평소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잘 보지 않아요. 하지만 재미있는 걸 접하면 한없이 빠져들죠. 위키드라는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친구가 보자고 해서 봤어요. 그래서 기대도 없었죠. 그렇게 본 위키드는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는 영화였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한 글린다에 빠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화 버전 popular를 몇 주 동안 보기도 했죠. 너무 공주님 같고 분홍분홍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르가 판타지라는 것도요. 저는 영화나 웹툰, 소설들이 현실과 차이가 있어서 더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현실과 너무 비슷하면 오히려 이런저런 일이 생각나 안 보고 싶더라고요. 특히 학원들 같은 거 너무 현실감 있으면 못 보는 것 같아요. 예전 일들이 떠올라서요. 그래서 판타지 장르를 매우 좋아해요.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는 동안에는 현실을 잊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는 어떤 건가요?

😊 7 💬 5

채은비(생명과학과)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날을 기다리던 기억이 나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8
tuesday, pm 7:22 | 10위
유채원(일본학과)

#12일차 기다리다

나는 기다리는 것을 잘한다. 놀이공원 줄을 기다린다고, 가게에서 메뉴를 기다린다고,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를 기다린다고 여러 상황에서 기다림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끝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에 줄은 끝나고, 메뉴는 나오고, 친구가 왔으니 말이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때에 따라 힘들게 다가오기도 한다. 어렸을 때 사촌 언니를 굉장히 좋아하였다. 그래서 사촌 언니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주 울었다.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사촌 언니나 주변인들이 종종 하던 말이다. '다음'은 불분명하다.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 그게 어렸을 때는 싫었다. 그러나 지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어찌 되었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나오는 말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면 기다림이 즐거워진다.

라이팅챌린지를 기다리는 것 또한 즐겁다. 항상 챌린지가 끝나면 다음 학기에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방학이 끝나는 건 싫지만 학기 중만의 즐거움이 있었기에 종음과 실음이 상해되었다. 그렇게 나는 또 내일의 키워드를 기다린다.

😊 6 💬 4

정우현(철학과) 저와 달리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군요.. 여유를 배우겠습니다!



2025/11/18
tuesday, pm 8:13 | 13위
채은비(생명과학과)

#12일차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버스정보안내기도 달려 있지 않은 작은 정류장.
내 버스는 얼마나 남았을까.
이미 출발했는가, 아님 곧 도착할까.
아무 정보도 없이 한적한 버스 정류장.
깨진 보도블록 사이 말라비틀어진 풀. 녹슨 기둥과 모진 햇살에 빛바랜 노선도.
무심하게 살을 에는 겨울바람. 무감한 눈으로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그대들.
아, 무언가 할 일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발밑에서 짓이겨지는 지저분한 눈.
언젠간 버스가 올 거라고. 그 버스만 타면 나를 어디에라도 데려다줄 거라고.
그런 기약만을 기다리기엔 이곳은 너무 추워서.
여기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만을 뼈에 시리게 깨닫게 된다.
세계엔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는데도, 나를 받아줄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하염없이 헤메이지 않아도 되는. 내가 있어도 되는 그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그건 아주 조금만 공간이면 되는데도.
조그맣게 한숨을 내쉰다.
공기 속으로 피워올린 흰 꽃.
내뿜은 건 뜨거운 호흡.
조용히 몸을 펴고 일어나
보인 것은. 파란 하늘.

😊 7 💬 2

정우현(철학과) 단어 하나하나가 이쁘네요!



2025/11/18
tuesday, pm 8:52 | 10위
김서영(중국학과)

#12일차 기다리다

해외 앱에서 주문을 했다.
솔직히 처음도 아니어서 오래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이번엔 괜히 더 오래 느껴진다.

한국 배송이 너무 빠른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배 타고 오고 있다니까 늦는다는 걸 머리로 이해하는데 마음은 살짝 조금해지는 느낌이다.

급한 물건도 아니다. 없어도 되는 거라서 오히려 더 느긋해야 하는데
심심하면 앱을 켜서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통관 심사 중'
'배송지로 이동 중'
이렇게 조금씩 글자가 바뀔 때마다 아직도 얼얼한 심은 마음과 동시에 기다리는 시간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도착해 있을것이다
기다리는 건 늘 이렇다.

😊 4 💬 2

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저도 해외 배송 주문인 경우 더 자주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아니었군요**



2025/11/18
tuesday, pm 8:56 | 11월
안도연(러시아 학과)

#12일차
#기다리다

화분 속 방울토마토 씨를 하나를 심었다.
흙을 살짝 눌러주고
물을 주며 잘 자라라 인사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대로인 흙만 바라보며
자라긴 하겠지? 하고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니어도
시간이 천천히 지나는 동안
씨앗은 줄기로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며칠 뒤에 아주 작은 초록이 흙 위로 빼꼼
내밀었다.
내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린 그 모든
순간이
이 방울토마토 새싹을 반김이 되었다
기다림이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헛되지
않은 순간이 된다.
오늘도 나는 화분 앞에 서서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다시 기다린다.

😊 5 💬 0



2025/11/18
tuesday, pm 9:05 | 11월
조은채(간호학과)

#12일차 #기다리다

낯빛줄 끝에서 꿈틀거리는 꿈은
잡힐 듯 말 듯 멀어진다

반복해서 뜨거운 물에 담가진다
양금처럼 묵묵히 멀어진다

기다림은 약자의 몫이었다

오래도록 우리면
쓴맛이 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함께 다짐한다
가라앉았던 몸뚱이를
스스로 들어올리기로
올라가 일출을 보기로

안 올 버스는 생각지 않고
고된 담금질로 단단해진
무쇠와 같은 다리를 끌고
지평선으로 걸어가겠다

세상 저 끝에서 해를 들어올려
창물보다 더 뜨거운 별을 감싸안고
별보다 더 뜨거운 서로를 열싸안고
기꺼이 온몸으로 타오르겠다

그렇게 우리의 향이
세상에 우러나도록

😊 1 💬 2

채은비(생명과학과) 항상 표현력이 너무 좋은것
같아요...잘 읽었습니다



2025/11/18
tuesday, pm 9:08 | 10월
허태원(소프트웨어학부)

#12일차

기다림은 이상하게도 시간을 가장 느리게
만들면서도 끝나고 나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

버스를 기다릴 때는 1분이 10분처럼
느려지고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는 잠들기
전까지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릴 때는 휴대폰 화면을
괜히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다림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더 뚜렷해질 때가 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아 그냥 걸어갈까'
고민도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답장이 안 오는 동안 괜히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된다.

기다림은 어쩌면 나를 멈춰 세우는 시간 같다.
계속 달리고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잠깐 멈춰선 그 틈에서 다시 보게 한다.
기다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니지만 기다리는 동안 조금은 성숙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천천히 단단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기다림이 너무 괴롭더라도
완전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인정하는 연습이라고 해야
할까 싶다.
언젠가 기다림이 끝나고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아마 지금의 이 답답한 순간들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겠다고 생각이 든다.

😊 6 💬 0



2025/11/18
tuesday, pm 9:49 | 9월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2일차 "기다리다" 저는 기다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평일에는 친구들이랑 수업을
같이 가기 위해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추위도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유는 그저 외로웠던 나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항상
기다리면서 살다 보니 이제 친구들이 저를
기다려줍니다.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보람있는 이야기 입니다. 내가
항상 기다릴 때는 그저 하나의 일상이었지만,
이후에 친구들이 저를 기다려주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저 일상의 이야기인데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많은 것을 경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6 💬 0



2025/11/18
tuesday, pm 10:28 | 9월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12일차 '기다리다'
기다림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녹아있습니다
누군가는 설렘을 누군가는 떨림을
저는 애절한 기다림도 좋고 애뜻한 기다림도
좋지만
애타는 기다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시로 운동회에서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전 주자를 기다리면서 오는 감정
또는 대학 발표의 결과를 보기 전 감정과 같이
상황과 크기는 다르지만 애타면서 기다리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어릴때부터 기다림을
배웁니다
자아가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기 전부터
부모님에 의해 우리는 음식을 먹거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다림을 배우고 때를 쓰거나
울면서도 기다림을 익힙니다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
저희는 울고 그들을 구별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다양한 기다림을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느낀 감정의
기다림은 어떤 것인가요?

😊 5 🗨️ 0



2025/11/18
tuesday, pm 10:31 | 12월 8
정우림(정지형정학자)

#12일자 #기다리다

자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CGV VIP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극장을 찾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봅니다. 로맨스만 빼고요.
영화를 사랑하는 저는 영화에 대해 더 멋있게
설명하려고 전문 용어들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인상적인 단어는 단연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입니다.

직역하면 '기계를 타고 내려온 신'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연극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기계를 탄
절대자가 내려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치입니다. 사실상 작품의 터무니없는
전개에 대한 조롱으로 쓰이죠.

저는 아직 스무 해도 못 살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회는 그 누구보다도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간절히 원한다고
느낍니다. 특히 우리 청년 세대를 체험하며 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웃을 수만
있는 게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벌써부터 취업이 두렵습니다. 국가의 앞날이
여러모로 어둡고, 싸움이 끝없이 일어나며
항상 시끄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또 그게 청년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가가 다 해결해줄
거야",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하며 좋은 세상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 아닐까요—인생 선배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현실에서는 타노스의
핑거스냅도, 티렉스의 극적인 등장도
없습니다.

결국 좋은 세상은 누군가 나서서 마법처럼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해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며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닐까요?

부족하지만 제 글을 읽은 분들께
기다림보다는 시작을 택하자는 제 생각이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 2

채은비(생명과학과)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만 했지 뜻은 처음 알았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8
tuesday, pm 10:34 | 9월 8
채은비(생명과학과)

#10th

쇼핑을 끝내고 난 뒤의 기다림은 이상하게
 즐겁다.
물건을 받는 순간보다, 그 전이 훨씬 더
신난다.

사람들의 리뷰를 뒤져보고,
그걸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재생한다.
통장을 스쳐간 돈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다 마침내 택배가 도착한다.
상자를 뜯는 순간은 행복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생각보다 짧게 끝나고,
그 물건은 어느새 내 방 침대 밑에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는 다른 물건들에
합류하며
한 번의 쇼핑 사이클이 또 다시 막을 내린다.

얼마 뒤 나는 침대 밑의 물건들은 잊고
또 다시
쇼핑업을 열 것이다.

😊 4 🗨️ 3

채은비(생명과학과) 쇼핑은 딱 물건을 고르는
순간이 제일 즐거울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18
tuesday, pm 11:14 | 8월 8
홍예진(바이오메디컬)

#12일자 기다리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은 설렘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두렵거나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치과에 가서 진료를
기다릴 때는 한없이 무섭고 두렵다. 내가 관심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걸 기다리는
것은 즐겁지만, 반기지 않는 사람이 내가 먼저
인사해 주길 기다릴 때는 기분이 나쁘기만
하다. 이렇듯 기다리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기다림은 항상
우리의 곁에 있다.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해도
보통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한다. 나는 그것을 행복한

기다림이라 생각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시로 겨울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붕어빵을 살 때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것도 행복한 기다림이다.
몇 분만 지나면 갖 나온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먹을 수 있으니깐 말이다. 이처럼 기다림은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가요? 사람마다
기다림의 의미는 각각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좋은 기다림만 있기를
바랍니다.

😊 4 🗨️ 0



2025/11/18
tuesday, pm 11:21 | 9월 8
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12일자 : 기다림

기다림은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 아무 때나
치킨을 먹는 것보다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게 더 맛있고, 매일 옷을
사는 것보다 월급날을 기다렸다가 사는 게 더
감질난다. 콘서트도 마찬가지다. 매일매일
가는 것보다 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는
게 훨씬 더 기대되고 설렌다.

요즘 나의 가장 큰 기다림은 바로 콘서트이다.
이번 주엔 무려 4개월 만에 가는 콘서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티켓팅을 하고, 드레스
코드에 맞춰 옷을 준비하고, 어떤 굿즈를
살지도 미리 생각해뒀다. 이 순간순간이 너무
신났다. 이렇게까지 설렘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기다림'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다림이
없었다면 물론 좋긴 했겠지만, 지금처럼
벅차게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다.

다가오는 올해의 마지막 콘서트. 벌써부터

새해 첫 콘서트도 기다리고 있다. 빨리
2026년이 왔으면!

😊 6 💬 2

채은비(생명과학과) 요즘 저의 가장 큰 기다림은
택배예요. 드디어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기타를
샀거든요. 이런 기다림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

2025/11/18
tuesday, pm 11:24 | 11월
정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12일차 : 기다림

나를 전, 드디어 내 애착 인형을 목욕시켰다.
내 팔뚝만큼 꽤 커서 자주 씻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낱을 잡아 마음먹고 깨끗하게 빨았다.
날씨가 맑고 건조하여 바람도 많이 불어
이들이면 충분히 마르리라 생각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두었다. 혹시나 싶어 햇볕이
들지 않는 밤에는 제습기까지 돌려주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인형은 생각보다 정말
마르지 않았다. 물을 가득 머금은 채 잔뜩
무거워져 여전히 축축했다. 이들이면 끝날 줄
알았던 기다림은 어느덧 나홀이 되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차디차고 바람이 부는
밖에 며칠 동안 두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나홀의 기다림은 참 길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 학교 다녀온 후,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매번 빨랫대를
들락날락하며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길고도 짧았던 기다림을
끝내고 인형을 다시 따뜻한 실내로 데려왔다.
오늘은 이 깨끗하고 뽀송해진 인형과 꼭 같이
잘 것이다.

😊 4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빨리 말했으면 좋았는데
기다림의 미학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형이

깨끗해지니 좋네요!

2025/11/18
tuesday, pm 11:36 | 11월
하현주(영어영문학과)

#12일차 : 기다리다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생각난 시
한편을 공유하고 싶다. 고려 시대 시인
최사립이 쓴 기다림(待人)이다.

천수문 앞 버들개지 날리는데
술병 하나 들고 돌아올 벼슬 기다리네
지는 해에 눈 빠져라 장정은 저물어도
지나는 행인 벼슬이 싶어 가까이 오면 아니네

天壽門前柳絮飛 一盞來待故人歸
천수문전류서비 일호래대고인귀

眼穿落日長亭晚 多少行人近却非
안천낙일장정만 다소행인근각비

몇 년 전에 우연히 접한 시인데 지금도 내
머릿속에 드문드문 떠오른다. 기다리다 라는
동사의 곁에 오는 목적어를 곰곰이 떠올려
봤을 때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이
시는 특정 사람을 기다리는 감정이 고스란히
잘 느껴지는 것 같다. 기다리다와 한
뉘음으로 뉘일 수 있는 단어들에는 보고싶다
간절하다 등이 있는 것 같다. 기다리다의
사전적 정의는 '오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지나게 하다' 인데, 특정한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단순히 시간만 지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차마 형용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 4 💬 0

2025/11/18
tuesday, pm 11:38 | 11월
박혜원 (생명과학과)

#12일차

강아지에게 기다리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려, 단순히 멈추라는
뜻이고, 강아지는 그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멈추어야 하는지, 얼마나
멈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함은 어찌 보면 가장 솔직한
태도입니다. 강아지는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한 의미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다림 그
자체에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도 기분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잘했다고 하면 움직일 뿐입니다.
사람의 기다림은 이와 다릅니다. 사람은
기다리며 수많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조금 불안해졌다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계속 변하고 그 변화를 또 해석하려고 합니다.
결국 기다리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마음이 더
피곤해집니다.

강아지의 기다림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멈춰 있는 동안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유지되는 한, 기다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다림도 결국 이 신뢰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반드시 불안과 같이 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멈춰 있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기다림은 충분히
견딜 만해질 것입니다.

😊 2 💬 1

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강아지의 기다림과
사람의 기다림의 차이에 대해선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18
tuesday, pm 11:41 | 11월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12일차 #기다리다

[선일곱 번째 접시]

저희 집은 잠깐 맛발이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였는데 부모님 모두
일을 나가시면 뚱뚱하면서도 조용한 집이
공허해 보였습니다. 장녀인지라 동생 한 명을
같이 돌보면서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밥은 이미 다 해두셔서 배고플
일은 없었지만 둘만 있으면서 어렴풋이,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의 부재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싫어하지만
귀가를 계속 기다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위해 늦게 오길 원하면서도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이 양가감정은 어디서
나온 걸까 궁금합니다. 어릴 때의 조용하고
공허한 집 속에서 느낀 이 감정은 아직도
느껴지는데 이혼 가정에 비하면 배부른
감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뽀뽀뽀, 오늘의 뚱 접시가 닳았습니다.]

😊 2 💬 0

2025/11/18
tuesday, pm 11:43 | 11월
원보경(생명과학과)

#12일차 #기다리다

전 언제나 자기전 침대에 누울 시간을
기다려요
전 침대가 좋거든요
이번엔 겨울이라 겨울용 이불과 털
이불갈개를 깔아

더욱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요
그래서 그런지 누울 시간이 더욱더
기다려지네요
여러분은 하루중 어떤시간을 가장
기다리시나요?

😊 3 💬 3

채은비(생명과학과) 저는 저녁 시간을 기다려요.
수업이 다 끝나고, 할 일도 급하지 않다면 더욱
여유로운 시간이요.

2025/11/18
tuesday, pm 11:55 | 6월 18일
김영주 (화학과)

#12일차

기다림은 절망과 꽤나 가까운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둘은 동시에
찾아오니까요.
저는 워낙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라, 인생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기다림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버티는 일인
것도 같습니다. 결국 버티는 일은 나를 조금씩
달라 없애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2 💬 0

2025/11/18
tuesday, pm 11:59 | 9월 18일
송준하(백대이커전공)

#12일차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또 다시
고개를 들어 누구인지 확인했다. 시간이 유독
가지 않았다. 너가 오기로한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부에 집중도 잘 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명이 지나갔다. 발소리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을 때였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너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야 나는
무엇에서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다. 굳이
말하자면 기다림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 마신
기분이었다. 문이 열려 바깥 공기가 들어
와서, 혹은 너가 내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 3 💬 0

2025/11/19
wednesday, am 12:18 | 6월 19일
한서아 (글로벌학부)

#12일차 주제: 기다리다

한겨울을 기다리는 중이다.
춥지만, 나는 그 계절의 공기를 너무
좋아한다!
유난히 선명한 겨울 냄새,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순간 느껴지는 그 묘한
간장감까지.
마치 날 찌르는 듯한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내가 따뜻하게 살아 있음을 느낀다.

생각해보면 '기다린다'는 건 단순히 어떤
시점을 향해
가만히 서 있는 일이 아니다.
기다림에는 작은 설렘이 있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기대가 섞여 있다.

겨울을 기다리는 나도 그렇다.
너무나도 추운 계절이지만, 그 안에만 있는
감정과 냄새와 온도가 있어 해마다 다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든다.

기다림은 결국, 다가올 순간을 미리 사랑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내가 아직 오지 않은 한겨울을 마음속에서
먼저 맞이하듯이.

😊 2 💬 0

2025/11/19
wednesday, am 12:22 | 11월 19일
김양선

#12일차 오늘도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며
여러분이 올린 글을 주욱 읽어보고 마감글을
올립니다. 사람들, 물건을, 음식을 기다리고,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고 우리 일상은
기다림의 연속인 듯합니다. 기다림은 기대를
남기도, 그리움과 상실감을 남기도 하죠. 이
모든 기다림이 숙성과 성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 5 💬 0

2025/11/19
wednesday, am 7:58 | 27일 19일
김양선

#13일차 키워드 : 호호

'호호'는 의성어일까요? 의태어일까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호호'는 (1)입을 오므려
내밀고 입김을 잇따라 내뿜는 소리나 모양을
가리키기도 하고, (2)입을 동그랗고 작게
오므리고 간드러지게 웃는 소리나 모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니 따뜻한
불어행이나 국물을 '호호' 불며 먹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찬 손을 '호호' 불어 따스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하', '호호' 웃었던 행복한 기억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의성어이기도,
의태어이기도 한 '호호'에 대해 써봅니다.

😊 6 💬 0

2025/11/19
wednesday, am 9:00 | 13일 19일
하현주(영어영문학과)

#13일차 : 호호

'호호'라는 키워드를 보니 왠지 모르게
자연스레 호행맨이 떠올랐다. 단순히 호로
시작해서 그런 걸까? 아마 의성어와 의태어의
호호를 둘 다 지닌 캐릭터이기에 그런 걸
거다. 자신의 머리를 떼어주어 나눠주는
호행맨. 아마 따뜻한 연기가 날 거 같은
호행을 받은 친구들은 호호 불며 그것을
먹으면 어느새 하하 호호 웃게 될 것이다.
호호 연기가 나는 호행을 나눠주어 호호
웃음을 나눠주는 호행맨. 타인을 위해 거리낌
없이 자신의 머리 일부를 떼어 주는 호행맨.
나는 그런 호행맨을 본 받고 싶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큰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호행맨의 선행이 지금 생각하니
무척 대단한 일로 느껴진다. 윤리와 사상에서
나오는 성인의 정의를 검색해보면, 선한
본성을 완전히 실현하여 도덕적으로 완벽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의미한다고 나온다.
우리가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봤던 호행맨이
그 성인의 완벽한 이상의 모습이 아닐까?

😊 7 💬 1

채은비(생명과학과) 호행맨을 두고 가장 약한
히어로라고 하더라고요. 슈퍼 히어로 처럼 강한
힘으로 나를 지켜 줄 순 없지만, 따뜻한 온기 한점만
나누어 줄 수 있는 호행맨이 사실 가장 필요한
히어로가 아닐까요.



2025/11/19

wednesday, am 11:39 | 11월
윤지호(일본학과)#13일차
호호

오늘의 키워드를 보자마자 나는 겨울에 먹는 간식을 호호 불러먹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역시 겨울에 먹는 간식하면 떠오르는게 오뎅과 붕어빵이다. 내가 초등학교때 거리를 걸으면 붕어빵이나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가 정말 많았다. 겨울에 포장마차의 오뎅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나는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아빠를 졸라 꼭 오뎅을 한두개씩 사 먹었고 그 추운 날 서서 김이 나는 오뎅을 호호 불러 먹고 국물까지 다 마셔야 그제서야 자리를 떠났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간식은 붕어빵이었다. 붕어빵은 세 종류가 있었는데 피자, 팔, 슈크림이다. 당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피자맛이었다. 가족들과 같이 호호 불러 겨울철 간식을 먹었던 추억은 지금도 나에게 있어 소중한 기억과 추억이다. 그 당시 추운 겨울은 붕어빵과 오뎅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 그로부터 10년이상 지난 지금은 왜인지 붕어빵과 오뎅을 잘 안먹는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것인지 그냥 입맛이 바뀐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장마차가 눈에 띄게 줄어든것 같다. 당시 포장마차에서 오뎅과 붕어빵을 파던 사장님들은 잘 계실까 궁금하다. 내가 그 사장님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장님들도 지금 어디선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5 1

김서연(콘텐츠it) 옛날에는 길거리에 겨울 간식 파는 곳이 많았는데 요즘은 없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먹고 나서도 보이면 사 먹는 것

같아요. 자주 볼 수 없어서 그런가..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9

wednesday, pm 1:05 | 12월
문진우(철학과)

#13일차 호호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입김이 절로 새어 나온다. 호호 그냥 숨을 내뿜는 소리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 어릴 적 겨울이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장갑 위로 입김을 불어주곤 했다. 호호, 이제 따뜻하지? 그 말에 녹은 건 손이 아니라 나였다. 그때의 나는 추운 줄도 모르고, 그저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따뜻할까" 같은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살다 보니 겨울은 더 많아졌는데, 누가 내 손에 '호호' 불어주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건 찬 기운을 스스로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가끔, 유난히 힘들어 하루가 얼어붙은 날이면 나는 커피 두정을 열고 홀로 입김을 불어본다. 호호 그 소리가 허공에 사라지는 순간, 나는 잠깐이나마 누군가에게 사랑 받던 시절로 되돌아간다. 비록 돌아가는 건 마음뿐이지만 그 한순간의 온기만으로도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지는 게 참 이상하다. 결국 '호호'는 겨울의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마음의 온도였다.

5 0



2025/11/19

wednesday, pm 3:45 | 12월
최현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3일차

냉삼을 왜 먹어

냉동삼겹살, 줄여서 '냉삼'. 필자는 옛날부터 냉삼을 먹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팡팡 열린 통삼겹살을 얇게 썰어 호일 위에서 익힌다. 후추로 냉동육 특유의 잡내는 잡아주고 부족한 기름기는 소금과 기름을 섞은 기름장에 꼭 찍어 보충한다. 알기 때문에 익는 속도도 빠르다. 여러모로 매력에 있는 음식임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냉삼과 생삼겹살의 가격이 똑같거나, 1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 식당들에서도 굳이 냉삼을 고집했던 필자의 엄마는 이해가 안 갔다.

춘천에는 냉삼을 대표음식으로 파는 '호호식당'이라는 곳이 있다. 엄마가 냉삼이 먹고 싶다면 그곳을 데려 갈 때마다 "냉삼을 왜 먹어"라고 반문하기도 했지만, 엄마는 당신이 어릴 시절을 추억하며 뜨거운 냉삼을 호호 불어먹으며 미소 지으셨다. 사람의 진심어린 미소 앞에서 이해는 딱히 중요하지 않았다. 감정 표현도 서툰 아들이라 그냥 고기를 굽고 같이 먹는 것으로 대신했지만, 어쩐지 그 이후로 냉삼을 먹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날이 춥다. 호일 위에 냉삼을 빠르게 구워 호호 불어먹고 싶어지는 요즘이다.

5 0



2025/11/19

wednesday, pm 4:00 | 12월
김수진 (마케팅협스쿨)

#13일차 '호호'

"호호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어렸을때 다들 한번씩은 이 노래를 불러줬을텐데요. 저는 솜사탕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저 가사 부분을 강조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저 가사의 정확한 구절은 '호호'가 아닌 '후후'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노래 가사를 검색해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호호라는 키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쓰입니다. 저는 초면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웃을 때 가볍게 '호호'와 비슷한 느낌으로 웃거나 미소를 짓고 추운 겨울철 입가에 김을 붙때도 '호호'거리면서 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호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나요?

우리끼리, Band!

솜사탕

최서연(콘텐츠) 작곡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온 솜사탕

하얀눈처럼 희고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손잡고 나들이갈때 먹어본 솜사탕
흑흑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온 솜사탕

하얀눈처럼 희고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손잡고 나들이갈때 먹어본 솜사탕
흑흑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 6 💬 2

김서연(콘텐츠) 저도 오늘 키워드 보고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가사 찾아보고 충격받았죠.....호호가 아니라 흑흑이었더니..

2025/11/19
wednesday, pm 6:44 | 10원
혜태원(소프트웨어학부)

#13일차

호호라는 주제를 보자마자 어릴적 겨울날 먹었던 간식들이 생각납니다. 호떡과 호빵, 오뎡, 계란빵, 델리만쥬 등 많은 것이 떠오릅니다.

용돈도 하루에 천원이던 시절이라 밖에서 사먹을 수 있던 것은 한정적이었고 내가 사먹거나 부모님이 사준 겨울 간식을 먹을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그 따뜻함을 참지 못해서 저는 작은 입으로 바람을 "호호" 불며 식히고 또 급하게 배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먹던 오뎡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국물이 만나 만들어내던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참 선명합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고 입과 몸속이 따뜻해질때쯤 국물이 담긴 컵을 입에서 빼면 차가운 겨울 바람이 느껴질때 숨을 입으로 내쉬면 곧 평소보다 더 진한 입김이 보이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가끔은 그 시절 맛이 더 자극적이고 더 맛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였는지 아니면 추억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 그때의 겨울 간식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달콤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속에 어린 나만의 작은 설렘이 모두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편의점에 가서 피자 호빵을 먹어야할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네요. 다들 맛있는 겨울 간식 즐기며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 5 💬 1

김서연(콘텐츠) 겨울 간식들 맛있죠~ 요즘에는 길에서 보기 쉽지 않아 아쉬워요ㅠㅠ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9
wednesday, pm 7:57 | 12원
안도연(러시아 학과)

#13일차

#호호

나는 웃음소리만 들어도 나이가 느껴지는 기분이 든다.
예를 들어 허허하는 웬지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속도도 느리고, 숨도 길게 쉬는 느낌이고
뭔가 모든 걸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웃는 것 같다.

반대로 호호호는 엄마 같은 느낌이다.
상냥한 느낌이고 둥글고, 조금은 걱정이 섞여보이지만 따뜻하게 흘러나오는 웃음이다.
하하하!는 아빠 같다.
크고 시원해지는 느낌 듣는 사람 기분도 밝아지는 느낌이다
가끔 아빠가 TV 보다가 크게 웃을 때 나는 소리랑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해해해는 아기나 어린사람이 낼 것 같다.
가볍고 장난스러운 느낌, 무슨 이유로 웃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즐거워 보이는 웃음같다.
물론 사람을 웃음소리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살면서 자주 본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웃음소리를 보면
떠오른다. 이런 소리들만 들어도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그 사람이 살짝 연상된다.
가끔은 말보다 웃음소리가 그 사람을 더 잘 설명해줄 때도 있는 것 같다.

😊 5 💬 0

2025/11/19
wednesday, pm 8:51 | 9원
김서연(콘텐츠)

#13일차

키워드 : 호호

솜사탕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저는 오늘 키워드인 '호호'를 읽고 솜사탕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솜사탕 가사

//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온 솜사탕

하얀 눈처럼 희고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본 솜사탕

흑흑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x2)

//

가사를 적기 전까지는 이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사를 적고 나서 몇 번 불러봤습니다. 흑흑이라도 내가 뭘 적지는 않았는지. 생각보다 많이 짧은 노래였네요. 그리고 가사가 호호가 아닌 흑흑이었네요? 지금 가사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뭔가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평생 '호호'인 줄 알면서 살았는데...

어릴 때 많이 부르고 다녔던 노래여서 그런지 크고 나서도 가끔 생각나면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다 크고 난 지금 들어도 신나는 노래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릴 때 무슨 동요를 들으셨나요?

😊 4 💬 0

2025/11/19
wednesday, pm 8:56 | 14원
정우현(철학과)

#13일차

호호 저는 드디어 제가 원하는 공공기관에 사회복지요원으로 합격했습니다. 호호하며 행복할 줄 몰랐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흑흑하며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슬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할머니가 호호하며 김장을 하시는 게 생각납니다. 추운 날씨에도 자식들 먹이려고 김장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보면 할머니와는 손을 호호 불던 겨울에 많이 봤습니다.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시던 할머니도 많이 늙어서 속상합니다. 호호 저는 이제 내년에 사회복지사로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5 💬 5

정우림(정치행정학과) 저는 말렸습니다... 배가 아프네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2025/11/19
wednesday, pm 9:45 | 10명
최은실(국어국문학과)

#13일자

한글에는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는 귀여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데굴데굴, 방울방울, 와글와글, 호호"처럼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외국어를 생각해 봤을 때, 한글처럼 같은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사용해도 의미는 동일하지만, 두 번을 반복해 사용하는 이유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굴데굴"은 부사어로 큰 물건이 계속 구르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즉, 행위나 행동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식혀 먹을 때, "호~"하고 한 번만 입김을 불지 않습니다. 적절한 온도가 되기까지 여러 번 바람을 불니다.

한약 "호호"가 아닌 "호"처럼 한 번만 사용했다면 생생한 표현이 어려우면서도 음절을 통해서도 연속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요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반복된 표현이 귀엽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 4 💬 0

2025/11/19
wednesday, pm 9:53 | 17명
정우림(정치행정학과)

#13일자 #호호

제가 겪은 일입니다.

지난 겨울, 자랑스러운 한림대학교 입학 대기 5번이었던 저는 가슴 졸이느라 이를 정도 굵은 상태로 광화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치고는 별로 안 추웠는데, 밥을 안 먹었으니 체온 조절도 안 되고,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니 영하 1도 언저리였던 그 기온마저 정말 따갑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못 하는데다가 품도 안 난다는 이유로 장갑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09번 버스가 제 앞으로 왔는데, 실망스럽게도 발 디딜 틈 없이 퇴근 중인 사람들로 버스가 가득 차 있더군요. 저는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버스를 오래 기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뭔가 딱딱하면서도 가늘고 긴 물체가 제 어깨를 때리는 걸 느꼈습니다. 순간 강한 악취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예, 어떤 여성 노숙인이 지휘봉을 들고 저를 치며 뭐라고 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오른쪽 에어팟을 귀에서 빼고 그분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ㅎ'이 많이 들어간 문장을 말하는 듯했습니다. 냄새는 점점 심해져 가고 버스가 안 와서 짜증도 더해진 탓에 제가 통명스럽게 "뭐라고요?" 라고 살짝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걸작입니다.

"학생, 그렇게 하면 천 바람 나와. '호' 말고 '하'를 해야지. 호... 하..."

뭐 대단한 이야기일거라고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듣고 나니 너무 허무하더군요. 그래도 자존심상 기를 쓰고 '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버스에 올라타 자리를 잡고 창가를 보는데 그 아주머니가 절 보며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계시더군요. 악역은 느껴지지 않았습지만 좀 기괴한 면이 있었습니다.

집에 다 와갈 때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진짜 그게 될까? 하고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한 번 해봤습니다. '하' 불요.

근데 이상하게도 좀 따뜻해지는 듯하더군요. 제 멘탈만 빼고요.

나중에 광화문 인근 모 은행에 근무하시는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대번에 그분이 '비둘기 마녀'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십년째 그 은행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를 지휘봉을 들고 비둘기떼와 함께 돌아다니며 민폐를 끼치는 분이시랍니다.

그 후로 겨울에 버스를 타기만 해도 그 분이 생각납니다. 마녀의 마법이 의외로 잘 먹히긴 합니다. 그래도 하진 마세요. 체온은 올라가도 체면이 내려가거든요.



영상은 아버지가 제공해 주셨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6 💬 1

김서연(콘텐츠it) 방금 글 읽고 손에 호 하 둘 다 해봤는데 차이가 있네요..? 딱히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19

wednesday, pm 10:12 | 15위
재은비(생명과학과)

#13일자

#호호

ㅎㅎ 하고 웃어 보일 때
생긱이 보이는 하얀 이빨 사이
'ㅏ' 하고 올라오는 뺨 하나.
그 양이 너무나도 웃나 보여
오므린 입술 안에, 입가를 가린 손 아래에
ㅎㅎ 하고 웃는 양 아래에
조용히 감춰 두었습니다.
웃나이야. 웃나야.
가리기에 급급한 나.
'호호' 하고 웃는 나.
'ㅏ' 하고 튀어나온 뺨쪽한 송곳니 위에
올라왔은 ㅎㅎ은 영 가시방석.
웃을 때마다 쿡쿡 나를 찌르는 뺨.
왜 나의 허물들은, 부끄러운 모습들은
감추려고 할수록 이렇게 알뜰게도
나를 찌러대는 걸까요.
'호호' 하고 웃는 나.
너덜너덜해진 웃음.
이젠 됐어 됐다고,
조심스레 도로 꺼내 놓는 뺨.
이젠 나를 찌르지 않는.
앗하하! 하고
사원하게 웃어 보이는...

6 0



2025/11/19

wednesday, pm 10:26 | 11위
정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13일자 : 호호

호호 불면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이
아니고, 호호 불어 먹는 호빵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게 겨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언제나 호빵이다. 따끈하게 찐 팔호빵을 호호
불어 한입 베어 물면, 그 순간만큼 겨울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게 없다.
집에서 보일러 틀어두고 이불 속에서 먹어도
맛있고, 추운 날 편의점에서 갓 데워진 호빵을
차가운 양손에 꼭 쥔 채 먹어도 맛있다.
이제 편의점에 술술 호빵이 보이기 시작했다.
울겨울은 실컷 먹어줘야지.

5 2

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저도 '호호'를 보자마자
'호호 불면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호빵 마음껏 먹는 겨울
되세요!



2025/11/19

wednesday, pm 10:39 | 11위
정서현(법학과)

#13일자 '호호'

겨울이 오면 입김이 나오고, 손이 시려운만큼
따뜻한 음식이 평소보다 더 먹고 싶어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을 호호 불며
기대한다. 어묵 국물의 찰조림함도 호호
소리에 더 부드러워진다. 길거리의 봉어빵을
들고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함과
달콤함이 금세 온몸으로 퍼져 나간다.

뜨거운 국물과 달콤한 간식 사이에서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자신만의 호호하는
순간을 가진다. 그 시간은 잠깐이지만,
온기는 오래 남아 마음을 포근하게 감싼다.
겨울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 언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준다.

5 0



2025/11/19

wednesday, pm 10:44 | 7위
원보경(생명과학과)

#13일자 #호호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호호
따뜻한 대화를 친구와 할 때도 호호
따뜻한 음식, 따뜻한 대화 그리고 따뜻한
사람을 만날때
우리는 언제나 호호 거린다

4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많은 빈도수만큼 좋은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2025/11/19

wednesday, pm 10:46 | 13위
조은채(간호학과)

#13일자 #호호

제가 작년에는 오른쪽 무릎, 올해는 왼쪽
무릎이 번갈아 까졌어요. 원래는 잘 안
넘어지는 편인데... 최근에 사고들이 좀
있었네요.

어릴 때는 집 앞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치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제 상처를
소독해주고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저에게 '호호'는, 상처를 직접 치료하진
않지만, 피를 보고 놀란 마음을 달래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플라시보 효과를 내는 입김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엄마의 입김.

근데 이번에 넘어져 다쳤을 때엔 나를
보호해주고 간호해줄 사람이 가까이에

없다는 게 실감이 되더군요. 스스로
마음속으로 '호호' 입김을 불며 상처를
치료해야 했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동하지
않는 이상 그럴것지요.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면 어쩔 수가
없네요.

세월이 흐르면 더는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될까요? 어리광을 부리고 보호받던 시절은
점점 줄어가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간호하게 되겠조. 가족이든,
환자든... 돌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따뜻한 입김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가끔은 그런 따뜻함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라 믿거든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니까요...

6 0



2025/11/19

wednesday, pm 10:48 | 8위
문여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11th
호호라는 말에는 훈기가 있다.
산타할아버지도 호호 하고 웃고 할머니도
호호 하고 웃고,
다정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호호 하고 웃는다.
어쩌면 호호하는 웃음 소리는 다정하게
살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나도 호호 라는 웃음 소리가 잘
어울리는 할머니가
되기를 바라려.

4 0



2025/11/19
wednesday, pm 10:55 | 92원
유재원(일본학과)

#13일차 호호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아무 생각 없이 호호거리면 바스라질 것만 같은 입김이 나온다. 금방 사라질 입김을 보고 싶지 않아 캔스레 여러 번 숨을 뱉는다. 끝내 사라진 입김에 허한 느낌이 든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나는 입김을 불어 차의 창문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다. 내가 호호거리며 창문에 그림을 그리면 운전석에 탄 어머니는 종종 "창문 더러워."라고 말씀하시며 일회용 물티슈를 나에게 건네주셨다.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나는 토라지기 일쑤였다. 물티슈로 손을 닦고 나니 그림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림을 그렸던 자리에 입김을 다시 호호 불면, 그림이 되살아났다. 금방 사라질 그림이 왜 좋았을까. 사라져서 좋았던 것일까. 최근에는 별로 창문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림 하나에 웃던 아이도 결국 사라진 걸까.

😊 6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동심을 실현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씩 다시 그려볼 마음이 들길 바라요!



2025/11/19
wednesday, pm 11:06 | 11원
박혜원 (생명과학과)

#13일차

'호호'는 사람의 몸이 스스로 온도를 맞추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뜨거워도 나오고,

차가워도 나옵니다. 상황은 정반대여도 반응은 같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찾기 위해 내는 작은 숨입니다.

겨울이 오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음식이 식기까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입김을 불어 온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찬 손을 비빌 때도 입김을 뿜습니다. 가장 손쉽게 자신을 데우는 방식입니다.

웃음의 '호호'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웃을 상황은 아니지만 가벼운 반응은 필요한 순간에 이 작은 소리를 사용합니다.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도 않고 표정을 완전히 숨기지도 않는 중간 지점입니다. 상황을 조용하게 정리하기 위한 감정의 온도 조절처럼 보입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는 말이지만 겨울과 웃음, 당황과 조심스러움처럼 여러 장면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적절한 온도로 유지합니다.

😊 5 💬 0



2025/11/19
wednesday, pm 11:26 | 11원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13일차

"호호(허허) 메리크리스"

흔히 산타 할아버지의 등장 대사로 사용되는 말이다. 어릴 적 나는 산타할아버지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7살의 12월 25일 밤, 나는 자는 척을 하고 숨 죽이며 있었다. 부스럭 부스럭 거리는 거실 쪽 소리에 샤샤삭하면서 최대한 조용히 잠자는 방에서 나와 봤다. 선물이 놓여 있었지만 산타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아, 산타는 없구나,' 그날 나는 산타는 없다고 생각했고 부모님이

주셨다고 확신했다. 그렇지만 아쉽지는 않았다. 어린 나는 거기서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이다.

쌍둥이로 태어난 숙명인지 나는 비교적 왜소하게 태어났다. 2.1kg라는 작은 몸무게로 인큐베이터에 일주일이나 있었다나? 그래서인지 꽤 자주 앓았다. 흔히 가늘고 길게만 말처럼 치명적이게 아프지는 않더라도 빈번하게 몸살이 걸리거나 하는.. 그런 내가 어렸을 때 남은 기억 중 아팠던 어느날 엄마께 흰죽에 김치가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엄마는 죽을 만들어주시고 호-호- 불며 식혀 주셨다.

😊 7 💬 1

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19
wednesday, pm 11:38 | 12원
민선아 (글로벌학부)

#13일차 주제: 호호

너무너무 좋다.. 호호... 입김이 풀풀 나오네!
이럴 땐 역시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이 최고지!
호호... 맛 뜨거

으슬으슬 호호... 벌써 겨울이네
겨울엔 뭐다? 바로 따끈한 붕어빵이지!!!
호호... 불어서 한 입 먹으니 우와!! 너무 맛있다!
역시.. 이 맛이야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 ♡

호호호 겨울이라 그런지 작은 것도 괜히 더 신나잖아?
손끝은 시렵지만 마음은 몽글몽글 따뜻한

계절
겨울이자나

😊 5 💬 0



2025/11/19
wednesday, pm 11:47 | 10원
송준하(빅데이터전공)

#13일차 철쭉 같은 어둠, 산 속이었다. 피가 얼 것 같이 추웠다. 얼어 붙은 손을 녹이기 위해 호호 입김을 내었다. 손은 자꾸 더 차가워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한 번 뱀을 새고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참이었다. 잠이 쏟아졌다. 언제 적이 침투할지 모를 상황이었다. 가끔씩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리곤 했다. 그럴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야간투시경을 들여다봤다.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극심한 충돌에 의해 정신은 피폐해졌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입김을 내면서 손이 따뜻해질길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상황을 견뎌내기 위한 혼자만의 의례에 가까웠다.

😊 5 💬 0



2025/11/19
wednesday, pm 11:50 | 10원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13일차 #호호

[선여덟 번째 접시]

글자를 보면 두 사람이 모자를 쓰고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좋게 양전혀 있는 모습은 마치 정다운 친구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호호 웃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글자들이 사람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데 한글 속의 작은 사회, 그리고 우리만의

작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단어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 배울 점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번외로 스위스 사람들은 스위스라는 글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창을 든 사람이 두 개의 산을 지키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뽀뽀뽀, 오늘의 문 접시가 닳았습니다.]

😊 5 🗨️ 0

2025/11/19

wednesday, pm 11:53 | 9월 9일
김서영(중국학과)

#13일차 호호

라는 주제를 보고

호호 불면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이라는 가사를 가진 영요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어릴 때 맨날 친구들이랑 '진짜 뚫리나?' 하면서 장난으로 호호 불어보곤 했던 기억이 스쳐갔다. 아마 그래서인지 '호호'라는 단어만 보면 자동으로 그 영요 리듬이 머릿속에서 재생된다.

그리고 호호는 입김. 요즘 밖에 조금만 나가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추워서, 나도 모르게 입김 나오나 하고 숨 내뿜어보게 된다. 근데 오늘 아침에 진짜로 호호 불어봤더니 입김이 확 보이길래 '아 이제 진짜 겨울이구나...' 싶었다.

나는 여름보다 겨울 좋아한다고 늘 말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추워지니까 그게 맞는 말이었나 살짝 헷갈린다. 물론 여름의 그 끈적함은 싫지만, 겨울의 이 칼바람도 안만치 않다. 이번 주에 본가에서 기숙사로 돌아올 때 패딩을 입을까 말까 한참 고민했는데, 굳이 벌써부터 패딩은 너무 오바 같아서 그냥 왔다. 지금은 그 결정을 아주 크게 후회하는 중이다.

요즘은 아침마다 '아 진짜 춥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호호 입김 나오는 걸 보면 겨울 특유의 기분이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치만 좀 천천히 추워지면 좋겠다 아무튼 패딩은 다음 주엔 꼭 가져와야겠다.

😊 3 🗨️ 1

울소정(사회학과) 저도 영요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겨울은 춥지만 겨울이 오면 연말이 다가온다는 뜻이라 기분이 몽글몽글해 지는 것 같기도 해요!

2025/11/19

wednesday, pm 11:53 | 12월 9일
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13일차 : 호호

'호호'하면 생각나는 건, 따뜻한 불어빵, 국화빵, 어묵을 호호 불어 식혀 먹는 모습이다. 뜨거운 음식을 식혀 먹을 땐 무조건 호호를 사용한다. 소리 자체가 귀엽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또 언제 사용하는지 생각해 봤는데, 어색한 사람과의 채팅에서 호호를 사용하는 것 같다. 친한 사람과의 연락에서는 'ㅋㅋㅋㅋ'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만 아직 덜 친한 사람과의 연락에서 쿡을 남발하긴 쉽지 않다. 이럴 때 '호호', '오호호'를 보낸다. 어색함이 있지만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쓰기 적절한 말인 것 같다. 다음에 누군가와 연락을 할 때, 꼭 기억하고 써봐야겠다.

😊 4 🗨️ 2

홍예진(바이오메디컬) 그리고보니 호호라는 어감이 참 귀엽네요 *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2025/11/19

wednesday, pm 11:59 | 10월 9일
홍예진(바이오메디컬)

#13일차 호호

호호라는 오늘의 주제를 봤을 때 나는 겨울철 길거리 간식인 호떡과 호빵이 떠올랐다. 호떡과 호빵은 뜨거워서 호호 불어 먹으면서도 입 안은 뜨겁고 달콤한 맛이 내려퍼진다. 호떡은 지글지글거리던 철판에서 갓 나온 녹차호떡이 제일이다. 기름없이 구운 호떡도 담백하니 좋지만 그래도 난 철판에 지글지글 구워지는 호떡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 호빵은 집에 가져가서 데워먹을 수 있어서 좋다. 편의점에서 파는 비싼 호빵을 사서 추운 겨울에 호호 불며 먹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겨울이 왔음을 느낀다.

😊 4 🗨️ 5

채은비(생명과학과) 녹차호떡이랑게 있군요...! 너무 궁금해요

2025/11/19

wednesday, pm 11:59 | 7월 8일
김영주 (화학과)

#13일차

호호 하고 웃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이 표현은 아주 널리 쓰입니다. 동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그런 식으로 웃으며 행복하게 마무리를 짓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결말들을 읽을 때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수두룩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어떤 불쾌함이 있습니다.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당할 수 없는 어떤 경계의 이야기. 시작은 굉장히 불행했지만 마법같은 운명으로 행복을 얻어내는 주인공과 저렇게 될 수만은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던 어린 내가 있습니다. 한숨조차 눈치보며 내쉬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호호하고 웃으며 끝나면 그만인 동화들에서 남는 감정은 허탈함도 있습니다.

😊 4 🗨️ 0

2025/11/20

thursday, am 12:02 | 11월 9일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3일차 "호호" 요즘 날씨가 최저 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져서 밖에 있으면 호호 입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전공 박람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함께 전공 박람회에 가서 다양한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상품을 받았습니. 도장 4개 찍고 밖에서 휴리스랑 아이스티를 받기 위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이랑 호호 입김을 불면서 기다렸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지금도 방금 텀플을 끝내고 학교 건물 밖을 나와서 집 가는 길인데 입김을 불면서 집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우니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 5 🗨️ 1

조은채(간호학과) 와.. 휴리스 너무 맛있었겠네요. 늦은 밤까지 과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2025/11/20

thursday, am 12:21 | 18위
김양선

#13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호호'라는 단어는 봉어뱀과 따뜻한 국물, 달콤한 솜사탕과 같은 공유 기억을 호출하는 것 같네요. 또 '호호'는 상처를 치료해주는 위로의 단어이기도 하고, 호탕함과 다른 작은 즐거움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해가 지면 입에서 '호호' 입김이 날 것 같은 날씨가 시작되었어요. 따뜻하게 하루 마무리 하세요. ☺

5 0



2025/11/20

thursday, am 7:58 | 20위
김양선

#14일차 키워드 : 온도

오늘의 키워드는 '온도'입니다. 온도는 뜨거운 정도, 혹은 차가운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온도는 꽤 다양하게 쓰입니다. 날씨를 가리킬 때는 기온이라고도 하고, 사람의 몸의 온도는 체온이라고도 하죠.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언어나 말에도 온도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용해봤을 법한 '당근마켓'에는 사용자 평판 점수(애너 온도)를 의미하는 '당근온도'가 있지요. 여러분의 말의 온도, 당근 온도, 혹은 소개하고픈 온도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7 0



2025/11/20

thursday, am 11:42 | 13위
윤지호(일본학과)

#14일차 온도

오늘은 언어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책 이야기가 아닌 말투? 말버릇? 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 하고싶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 군대 해외를 거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낀것은 언어의 온도는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다. 언어의 온도가 높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낮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거리를 두고 싶어진다. 언어의 온도를 올리기위해 내 나름대로 책도 읽고 생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이 나왔다. 우선 첫번째는 뒷담을 하지 않는것이다. 뒷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도 남들에게 뒷말이 나오게 된다. 두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이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말이다.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비판을 하기는 너무나 쉽고 칭찬을 하는것은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비판은 결국 적을 만들고 적대감이 생길 뿐이다. 네번째는 남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않는것이다. 타인의 장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단점을 찾기는 너무나 쉽다. 내가 그 사람의 단점을 열거하고 이런 부분을 고치면 훨씬 좋을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아니겠지 보일뿐이다. 남의 단점을 발견하고 고쳐줄 시간에 본인의 단점을 발견하고 본인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천만배 이득이다. 다섯번째는 논쟁과 싸움은 피하는 것이다. 수려한 말솜씨와 정확한 근거로 상대방을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치자. 이긴다면 물론 기분은 좋을것이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과연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나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줄까? 절대 아니다. 상대방에게 남는것은 나에게대한 혐오와 굴욕감 뿐이다. 말싸움뿐 아니라 길거리 싸움도 마찬가지이다. 길거리 싸움에서 최고의 무술은 육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않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는 사람이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한다. 그럴때는 이해하길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그냥 외계인이라고 생각해라. 몸을 구성하는 물질도 인간과는 다르고 나랑은 이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우리는 전기회로의 구성과 원리는 모르지만 노트북,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을 너무나 쉽게 사용한다. 정확한 구성과 원리는 모르지만 그냥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진다는 것만 알고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고 존재만을 인정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야기 하고싶은건 한참있지만 너무 길어지기에 이만 줄이겠다. 오늘 내가 쓴 내용은 내 생각도 들어있고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도 어느정도 인용했다. 살면서 읽은 책 중 정말 인상깊게 읽은 책이기에 다들 한번씩은 읽었으면 한다. 속담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인 즉슨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완벽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대체 당시 사람들은 몇 수 앞을 내다본건지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오늘 나의 글은 5000만 대한민국 인구 중 1명인 나 개인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을것이다. 오늘 나의 글은 그냥 나 한사람의 개똥철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주면 좋겠다.

5 0



2025/11/20

thursday, am 11:59 | 12위
김서영(중국학과)

#14일차 온도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요즘 내가 하루종일 붙잡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서 조금 웃음이 났다.

아침에 기지개 켜면서 방 온도를 먼저 본다. 기숙사 난방은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 따뜻하지도 않고 가끔은 미묘하게 덥기만 해서 환기하고 싶어지는데 창문 열면 바로 열풍바람이 훑 들어오니깐 그냥 이불 속에서 온도랑 타협하는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근데 재밌는 게 같은 온도여도 기분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어제는 살만했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추운 숫자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카페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 공기 온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내가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해도 확 따뜻해지고 어떤 사람은 별말 없는데도 계속 서늘하다. 그래서 요즘은 온도가 숫자만은 아니구나 싶다.

이상하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도 날씨처럼 왔다갔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나는 조금 따뜻해지고 싶은 날이다.

온도 조절이 참 어렵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부드러운 공기 속에 있고 싶다.

마침 오늘은 집에 가는 날이니까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하는
주말을 보내고싶다
늘어지게 뜨끈한 침대에만 있고 싶다

😊 4 🗨️ 0



2025/11/20
thursday, pm 12:52 | 14원
문진우(철학과)

#14일차 온도

사람의 온도로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워낙 깊은 수심에 사는 생물이라 그런지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나도 누군가의 온도에 화상을 입은 적 없는지 마음을 더듬거려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말했던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화상을 입히지 않았을지 회고해보았습니다. 잠 슬프게도 내가 받은 상처는 선명했지만 내가 준 상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책에서 사랑이란 타인의 온도와 내 온도가 맞아가는 지점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온도에 깊은 추위를 느껴 도망친 일도 타인의 온도에 깊은 더위를 느껴 그림자로 피서 갔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저에게 적합한 온도를 찾았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당히 얼굴을 잊지 못할 만남. 뜨겁고 장황한 조연 대신 위로 담긴 농담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햇살 한 줄 들어오지 않는 추위임에도 유난히 제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 7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신경써서 말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대화였던 적이 다들 있을 겁니다. 모두 서로의 온도를 잘 맞추길 바라요!



2025/11/20
thursday, pm 4:37 | 8원
최민수(언론방송유통학미디어전공)

#14일차

항상성(恒常性)

인간의 체온이 평균 36.5도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과학적 상식이다. 이 평균 체온에서 1도만 떨어지거나 높아져도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나 1년 365일 내내 체온이 36.5도이기는 어려운 노릇. 자칫 컨디션 관리를 잘못하거나 추운 날 옷을 안 여민 재빨리 한참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고열에 시달리는 게 우리 사람들이다.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 맞춰 체온을 항상 36.5도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다. 이를 항상성(恒常性)이라고 한다.

항상성은 비단 육체의 온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음의 온도에도 항상성은 존재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아파 오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 덩달아 자신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타인의 고통과 행복에 저절로 반응하는 능력이 바로 마음에 항상성이 있다는 증거다. 간혹 '마음의 감기'에 걸리면 이런 항상성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타인의 행복을 보면 되려 자신이 불행해지거나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다. 그러나 감기는 약을 먹고 몸을 편히 쉬면 서서히 낫는다. 마음의 감기에 걸렸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두며 이겨내 보자. 세상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성이 존재하니까.

😊 4 🗨️ 0



2025/11/20
thursday, pm 5:29 | 7원
민시아 (글로벌학부)

#14일차 주제: 온도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중학생 때 처음 읽어보았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온도'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온도는 단순히 따뜻함과 차가움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감각처럼 느껴졌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온도를 마주한다. 어떤 말은 마음을 데워주고, 어떤 말은 같은 문장이어도 차갑게 꽃힌다. 그래서 온도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말투, 표정, 속도 같은 작은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온도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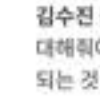
관계도 결국 온도의 문제인 것 같다. 따뜻한 사람 곁에서는 편안함이 생기고, 차가운 태도는 작은 상처처럼 오래 남는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불편하지 않은 온도, 느리지만 따뜻하게 스며드는 온도! 그런 온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이 차가운 날에도 스스로를 천천히 데워줄 수 있는 사람! 온도는 결국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방향에 따라 조용히 바뀌는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학우분들도, 누구보다 자신에게 먼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 3 🗨️ 2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자신에게 먼저 따뜻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걸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20
thursday, pm 5:49 | 11원
정우림(정치행정학과)

#14일차 #온도

제 못생긴 손은 아버지 유전자와 제 15년 드럼 인생이 복잡하게 뒤엉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그래도 못생겼는데 커지고 두꺼워지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제 신체에서 가장 자신 없는 부위가 손입니다. 뭐 다 마음에 안 들지만요. 이 손을 보고 다들 '노력의 흔적' 또는 '따뜻한 마음의 증거' 라고들 합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제 손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타인의 따뜻한 온도가 저를 향할수록 제 안에서는 이 못생긴 손의 불평과 파종 가득한 온도가 피어오릅니다. '노력의 흔적'과 '따뜻한 마음의 증거'같은 말들은 제게는 그냥 제 못생긴 손을 어떻게든 띄워 주려고 포장하는 듯한 것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전 뽀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거립니다. 그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제 마음은 정작 손을 뻗어 도움을 구해야 할 때도 그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 차가운 사람으로 기억되겠죠.

😊 4 🗨️ 1

김서연(콘텐츠it) 손..저도 손이 자신 없는 부위입니다. 제 손을 볼 때마다 너무 짜리뭇하고 애같은 느낌이라 좀 그러더라고요. 남들과 손 크기를 재볼 때도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보다 작을 때도 많았어요.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저는 이 작은 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20
thursday, pm 6:06 | 13위
최은실(국어국문학과)

#14일차

한림대학교에는 온수가 나오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손을 씻기 위해 물을 틀면 수도꼭지에서는 얼음을 같은 냉수만 나옵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 인문대나 기초교육관처럼 오래된 건물들에는 히터가 잘 나오지 않거나 없는 곳이 있어서 차가워진 손이 좀처럼 녹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지만 혼자 있을 때는 손을 비비고 따뜻한 온수를 마시고 주머니에 넣어가며 차가움을 버티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주는 온도가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온도 있지만 서로에게 전해지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좋습니다. 차가운 손을 씻기 전 따뜻했던 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차가울 때마다 잡아주던 친구의 손이, 그 존재가 떠오릅니다. 자기 손이 식어도, 나의 손을 거리낌 없이 잡아주는 다정함은 모두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안 순간에는 더욱 따뜻하다고 느껴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4 💬 1

김서연(콘텐츠it) 온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군요? 온수쪽으로 둘러서 틀은 적이 없어서 몰랐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20
thursday, pm 7:18 | 6위
하태원(소프트웨어학부)

#14일차

어린 시절 시골로 향하는 아버지의 차 뒷좌석에 앉아 의자를 뒤로 살짝 눕히고 편안히 누워 있던 기억이 있다. 창문을 조금 열면 달리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따뜻하면서도 눈부신 햇빛이 함께 들어왔다. 그 바람과 햇빛이 섞여 만들어낸 온기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채워주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괜히 깊은 만족감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와 눈꺼풀이 사르르 무거워졌다. 그때는 웃도 불편하지 않았고 당장 해야 할 일도 없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고 나를 지켜주는 부모가 곁에 있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이던 그 짧은 순간에만 느낄 수 있던 특별한 평온함이었다. 그리고 하늘도 꼭 맑아야 했다. 그런 날만 느껴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와 안도감.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린다. 그때의 나는 얼마나 편안했을까 얼마나 따뜻했을까. 그리고 문득 생각한다. 언젠가 다시 그 온기와 느낌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 3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가 주는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잘 간직하길 바라요!

2025/11/20
thursday, pm 7:21 | 8위
유재원(일본학과)

#14일차 온도

매일 샤워기와 나는 사투를 벌인다. 레버를 조금 올리면 화상을 입을 것만 같고, 조금 내리면 북극 여행을 떠난다. 언제나 물 온도의 적당한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여름에는 그래도 더우니까 가끔 찬물로 샤워를 하였다. 겨울에는 춥다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가 어렵다. 물에 닿지 않으면 냉기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한 번 씻기가 참 복잡하다.

나는 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항상 샤워하고 나오면 창문을 열고 머리를 말린다. 안 그러면 씻은 노력이 땀으로 지워진다. 드라이기도 더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번갈아 사용한다. 더위를 위해서는 차가운 바람만 쓰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반대한다.

나에게 알맞은 복장은 무엇일까. 추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입으면 실내에서 나만 혼자 계절이 여름이 된다. 그렇다고 얇게 입으면 인간 진동기가 된다. 그래서 그냥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다닌다. 더우면 벗으면 되고, 추우면 다시 입으면 된다. 어찌 되었든 항상 땀파구는 있는 법이다.

😊 4 💬 2

김서연(콘텐츠it) 공감합니다. 샤워기 온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ㅠㅠ

2025/11/20
thursday, pm 8:33 | 7위
정서현(법학과)

#14일차 '온도'

최근에 나의 말의 온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나는 내가 건네는 말이 다소 차갑게 들릴 때가 많다는 걸 느낀다. 실제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말투가 차갑다거나 딱딱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편이다. 그래서 미사여구나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고 단정한 문장을 사용하려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나는 내 말의 온도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분위기를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의 온도는 단순한 말투를 넘어서,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물론 단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나는 더 따뜻한 온도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 4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가끔씩 주변에 말을 잘 정리하고 말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정리가 되길 바라요!

2025/11/20
thursday, pm 9:24 | 12위
조은채(간호학과)

#14일차 #온도

고백하자면 나만 인간은 수많은 정온동물 중에서 어쩌면 유일한 변온동물 돌연변이일지 모릅니다

미지근한 의욕을 데우려 아침마다 핫초코를 마십니다

사람들의 서리 낀 말투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대화 중의 서늘한 침묵은
상상만 해도 떨리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 과열된 공기를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옵니다

친구들의 따가운 눈총 밑
정수리도 불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온동물로서
불편한 점도 많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달릴 때 느껴지는 바람은
머릿속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환영에
어느새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은
얼어 있던 기분을 데워줍니다

여름날 추억을 떠올리며
겨울에도 포근히 잠에 듭니다

고백하자면 나란 인간은
수많은 정온동물 중에서
어쩌면 편잡은 변온동물
돌연변이일지 모릅니다

😊 7 💬 5

최시연(생명과학과) 일상 생활에서 감정의 변화를
온도로 표현하신 건가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각 상황 표현들을 즐기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20
thursday, pm 9:41 | 12위
정우현(철학과)

#14일차

저는 제가 가장 마음의 온도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민한 성격 탓에 사람 심리를
잘 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온도를 맞추는 것은 꽤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읽는 것은
예민함이지만 온도를 맞추는 것은 정성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맞춘 온도가 맞다고
우기던 과거가 후회스럽습니다.

사람마다 느낄 수 있는 온도가 다른 것인데
저만의 온도가 맞다고 우기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저에게는 안성맞춤인 온도가
누군가에게는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울 수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결국 각자에게 맞는
온도가 있을 뿐인데 그 사람을 바보라고
여기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사람마다 느끼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시행착오 끝에 배웠습니다.

언어의 온도 그것은 마치 탐험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주치고 부딪혀야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맞춤형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피하지 않고 부딪혀야 합니다. 가식
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상대의 온도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온도를 정확하게 재주는
온도계보다 중요한 것은 보살피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보살피주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 8 💬 3

최시연(생명과학과)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글인것 같아요. 남의 온도를 아는것보다
보살핀다는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와닿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20
thursday, pm 10:00 | 5위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4일차 "온도"

저는 사람의 마음에는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차가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온도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편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마치 햇볕
아래 잠시 서 있는 듯한 온도죠. 반대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어쩐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마음은 겨울 공기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이 온도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서로에게 기대고 신뢰할수록 따뜻해지고,
오해나 상처가 쌓이면 금방 차가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의 온도를 맞추는 일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온도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조금 더 부드러운 날이
되겠지요.

😊 2 💬 0



2025/11/20
thursday, pm 10:08 | 12위
김수진(미래융합스쿨)

#14일차 "온도"

온도는 보통 어느정도 끝내는점을 기준으로
섭씨, 화씨, 켈빈 등 온도 단위가 정해져 있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공식적으로 온도는 정해져있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온도는 무척이나 다릅니다

같은 온도라도 누군가는 추위를
누군가는 더위를 덜 느끼거나 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몸에 열이 많은 편이라서
더위를 많이 타고 추위는 덜 타는 편인데요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반팔옷을 찾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계절 중 여름은 가장 싫고
가을과 겨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느끼는 온도는
개인적인 요소(체질, 환경 등)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걸 우리 모두 체감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 챌린지를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은 온도에 따라서 사계절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 7 💬 4

채은비(생명과학과) 저도 몸에 열이 많아서 여름을
싫어해요! 차라리 겨울이 좋더라고요



2025/11/20
thursday, pm 10:10 | 12위
심유진(바이오메디칼학과)

#14일차

온도감이 달라진다.
머리가 어질거리며 열감이 오른다.
'아, 물살.'
온몸이 무겁고 나른하다.
이불을 덮어도, 등을 웅크려도
몸 안쪽 어딘가가 계속 달아올랐다.
마치 내가 나 자신을 발열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가 몸이고 어디부터가 마음인지
흐려진다.

온도는 숫자로 재어질 수 있지만
몸이 아픈 건지,
생각이 식지 않는 건지,
가끔은 그 경계조차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들로 잠에 들다 추위가 물려온다.

서늘함, 차가움.
해가 뜰랑말랑,
아... 아침이다.
1교시 수업에 가야 한다.

😊 7 💬 4

채은비(생명과학과) 몸의 온도는 숫자로 세어질 수 있지만 생각의, 마음의 온도는 그럴 수 없다는 걸 몸살과 연결시킨게 인상 깊어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20

thursday, pm 11:09 | 12월 8일
채은비(생명과학과)

#14일차

#온도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옷깃을 파고드는 한기. 수도꼭지를 타고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 너무 오래 틀어놓아
텅텅해진 난방기의 바람.
그 온도에.
문득, 견딜 수 없도록 서늘해지는 것이다.
나를 무척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사실 아주 온 좋은 아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리 크게 부족하지 않는에도.
분명 아까잠에 다정한 친구들과 내일을
기약하며 돌아선 주제에.
이유도 모르고 뱃속에 시리는 한기에
사무치며 외로워진다.
나는 왜 우울해지는 걸까.
어쩌면 그 다정스런 가족의 온기가 가끔은
너무 버거워서.
그럼에도 가지고 태어난 특출난 재능 없음이
서러워서.
그 노란 종이 몇 장 쥐기 위해 선 불탄 앞은
너무 뜨거워서.
흘려보내야 했던 옛 친구의 기억이
원망스러워서.
그 온도는 조금 버거웠다고.

남들에 비해 그리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삶의 주제에.
한심한 자기 연민.
사치스러운 마음의 온도.
나를 추하게 만든다는 걸 아는데도.

😊 7 💬 3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두세 번 읽은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20

thursday, pm 11:12 | 9월 8일
박혜원 (생명과학과)

#14일차 온도

물은 끓기 전 잠깐 멈추는 시간이 있다.
온도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표면은 고요하다.
그러다 어느 순간을 지나면 갑자기 거품이
터져 나온다. 이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한다.
변화는 미리 땀이 고, 드러나는 순간만
갑작스럽다.
0도 아래에서도 얼지 않고 버티는 물도 있다.
이 물이 충격 하나에 갑자기 얼어붙는 현상을
과냉각이라고 한다. 조건은 충분인데 시작은
늦다. 겉으로는 그대로지만 그 안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져 있다.

사람도 임계점이 있다. 분명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감정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 사람에게서는 과냉각도
있다. 이미 지칠대로 지쳤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다 사소한
계기로 마음이 갑자기 식어버린다. 그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
축적된 결과다. 사람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고
드러나는 순간은 짧다. 그래서 누군가의
감정이 갑자기 변할 때 놀라지 않으려 한다.

이미 그렇게 될 만한 상태가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한번 터지면 다시
주워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모두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길 바라요!



2025/11/20

thursday, pm 11:20 | 11월 8일
김서연(콘텐츠트)

#14일차

키워드: 온도

나는 원래 살면서 온도를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았다.

하지만 춘천에 온 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온도를 확인한다. 한림대에 입학하고
처음 겪어보는 춘천의 3월이 너무 추웠기
때문이다. 춘천에 오기 전에는 내가 추위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3월에 햇빛을 찾아 해에는 나를 볼 수
있었다. 그 뒤로 항상 온도를 확인한다.
춘천의 추위는 무서운 것 같다. 너무 춥다.

최근에 병원 때문에 본가에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서울과 춘천의 온도차에 놀란다.
서울에서는 내가 춘천에서 평소 입고
다니던 겉옷이 덥게 느껴진다. 서울에서는
그냥 긴팔 티셔츠에 후드집업 정도만 입어도
충분할 것 같다.

이제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은데 패딩을 지금
꺼내 입어야 할지 고민이다. 지금부터 이
정도로 추우면 12월에는 얼마나 더 추울지
걱정된다.

😊 3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지역 차 온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가끔 겪는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길 바라요!



2025/11/20

thursday, pm 11:24 | 8월 8일
윤여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12th

당근 온도는 어떻게 올리는 걸까
답장도 빨리 해 보고 예누리도 해 보고 리뷰도
열심히 했었지만
오르지 않는 내 당근 온도
90도인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경이로울
지경이다

😊 2 💬 2

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저도 당근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지 않아서 공감되네요 ㅎㅎ



2025/11/20

thursday, pm 11:24 | 11월 8일
원보경(생명과학과)

#14일차 #온도

성인이 되고나서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언제나 제 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해요
너무 뜨겁지는 않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려
해요
말에 온도를 통해 사람들이 잘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해주길 바라거든요.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
높은 온도로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사람들을 더 높은 온도로

인식해서
그 온도를 쫓아 가는 거겠지요.

😊 3 🗨️ 2

김서연(콘텐츠it)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20
thursday, pm 11:26 | 10월
안도연(러시아 학과)

#14일차
#온도

나는 평소에도 온도 변화에 민감한 편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 하루의 감정도 달라지는 것 같아서
사람의 기분도 온도에 따라 달라질까?라는
질문이 생겼다.
이를 확인하고 싶어서 관련된 연구들과 내가
겪은 경험을 함께 비교해보았다.
우선, 인간의 몸은 체온과 기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체온이 떨어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도가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경계를 하게
된다
살짝 짜증이 나거나 불안감이 증가하기 쉽다.
추울 때 사소한 것도 예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반대로 따뜻한 환경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느슨해지고 뇌의 긴장이 감소한다.
실제로 적당한 온도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며
편안함이라는 신호를 준다고 한다.
예를 들어 따뜻한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은
차가운 컵을 든 사람보다 상대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는 실험이 있다.
물리적으로 따뜻한 것이 심리적인 따뜻함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내가 느끼는 변화와도 비슷한
것 같다.
방 온도가 내려가면
몸이 경직되고 일어나기가 싫은데
햇빛이 들고 따뜻해지면
편히 마음도 가벼워진다.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온도가 몸과
감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 같았다.
작은 온도 변화가 하루의 감정을 바꾸는
이유는 온도 변화에 예민해서 뿐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환경에 맞춰 변화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 3 🗨️ 0

2025/11/20
thursday, pm 11:40 | 9월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14일차 #온도

[원아홉 번째 접시]

사진이나 그림을 볼 때면 가끔씩 그 온도가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불타는 듯 새빨간
노을, 어두운 세상에 내린 흰 눈, 창문에서
들어온 노란색으로 가득 칠해진 방 등을 보면
공감각이 활성화되는 듯 합니다.
공감각이라는 개념을 고등학교 때 배우며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시각의
청각화, 청각의 시각화 등 한 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다른 기관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지된 무언가에서 온도를 찾는
것이 숨겨진 이스터에그를 발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씩 당연하게 제 주변을 감싼
세상을 보며 오늘의 온도는 어떤지 확인하게
됩니다.

[뽀뽀뽀, 오늘의 몫 접시가 닳았습니다.
]

😊 3 🗨️ 0

2025/11/20
thursday, pm 11:51 | 9월
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14일차 : 온도

친구와의 관계에서 몇 도가 적당할까? 내
친구 관계를 돌아보면, 처음 만나자마자
친해진 친구가 있고, 반년은 얼굴만 아는
사이였다가 우연한 계기로 급격히 친해진
친구도 있다. '온도'라는 키워드를 접했을 때,
친해진 속도의 차이가 내가 이들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첫눈에 '절친이 될 운명'이라고 느낀
친구는 새 학기가 되어 우연히 만난 아이였다.
그 당시 나는 '친구 좋아!' 모드여서 타인에
대한 기본 호감도가 70도 정도였던 것 같다.
짜증이 된 뒤 3일 내내 붙어 다녔고, 서로의
기본 정보부터 취향까지 그 3일 동안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순식간에 호감도가
8~90도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온도로 남아 있는
친구이다.

반면,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만 반년이 걸린
친구도 있다. 당시 나는 '사할.. 번거로워'
모드였고, 친한 친구들에게만 내 에너지를
쏟았다. 친한 친구에게는 65도였다면, 덜
친한 사람에게는 50도 정도였다. 그러다 반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며 기본 호감도가
60도로 올라갔고, 그제야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 우연히 과거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밥도 같이

먹게 되면서 관계의 온도가 올라갔다. 지금은
75도 정도 되는, 가장 자주 보는 친구이다.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들면 손이 따뜻해지고
찬 물을 들면 손이 차가워지듯,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온도도 달라지는
것 같다.

😊 4 🗨️ 2

김서연(콘텐츠it) 처음 만나자마자 친해진 친구가
있으다니 부럽네요! 저는 낮도 많이 가리고 친한
친구의 벽이 좀 있는 편이라 그런지 적어도 반년은
돼야지 제대로 친해지는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20
thursday, pm 11:53 | 12월
학원주(영어영문학과)

#14일차 : 온도

사람을 구성하는 여러 온도 중 체온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 싶다. 사람의 적정 체온 온도는
36.5도 -37.5도로, 여기서 1도 씩 올라갈
때마다 우리 몸의 온도는 한계점까지 올라가
40도 이상이 될 시 제대로 된 기능을 점점
하지 못한다.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생존에
필수적인 생화학적 과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니, 우리 몸에 관한 흥미롭고도
무서운 구성체계 중 하나이다. 간혹 드라마나
만화를 보면 등장 인물이 불의의 사고로
생애의 경계 안에 마주 서 있는 면들이
나온다. 이때 체온이 꺼져가던 순간, 마주
맞잡은 두 손이 점점 차가워졌던 순간, 인간의
몸에서 따뜻함이 점점 차가움으로 바뀌지는
순간들의 이미지가 키워드를 받았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다. 언젠가 이야기 속에서
접했던 비극적인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버려서 었을까. 체온이 식어버리는
순간은 생명체에겐 너무 비극적인 일이다.

😊 5 🗨️ 2

채은비(생명과학과) 처음으로 천인척의 장례식을
갔던 날이 생각나네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20

thursday, pm 11:54 | 10월
홍예진(바이오메디컬)

#14일차 온도

요즘 기온이 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날씨가
마치 한겨울 같다. 너무 추워서 차가운 물로
손을 씻는 게 너무 싫다. 공중 화장실에서
가끔씩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
손이 시린 적이 꽤 있다. 요즘 같은 때 그러면
추워서 장갑 생각이 절로 난다. 그래서 집에서
겨울 장갑을 찾아가지고 다니려 한다. 손을
씻을 때 물 온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겨울에는 특히 손을 씻고 나오면 시린
찬바람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스며든다.
그래서 더 추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손을 씻으면 물기를 좀 없애고 바로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것 같다.

😊 3 💬 4

채은비(생명과학과) 전 장갑 목도리장은 연이 없던
남쪽 지방 사람인데 올 겨울에 처음으로 북쪽의
영추위를 느끼고는 하나씩 장만했습니다...



2025/11/20

thursday, pm 11:59 | 9월
송준하(빅데이터전공)

#14일차 온도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도가
적절해야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 우리는
우연한 계기로 적절한 온도의 행성에서
태어나 세상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생명체의 온도는 그의 형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이
 좋게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신의

온도 또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 너무 끌어
넘쳐도 인생이 힘들고 너무 낮으면 맛있다.
우리의 신체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듯
정신의 온도도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유지해야 한다.

😊 4 💬 0



2025/11/20

thursday, pm 11:59 | 11월
김영주 (화학과)

#14일차

사람은 온도에 굉장히 취약하다
아무 준비없이 특정 온도에 노출된 우리의
신체는 재빠르게 움츠린다.
본능에 충실한 몸은 바로 그렇게 반응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차갑게
대한다고, 냉기 뿐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온기조차 지키기 쉽지
않다.
콘크리트 길 바닥에 움크려 생각한다.
춥다. 이곳은 너무 춥다.
하찮은 몸에 덜어놓을 담요 하나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

😊 4 💬 1

채은비(생명과학과) 차갑지 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읽었어요.



2025/11/21

friday, am 12:19 | 12월
김영선

#14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오늘 하루
날씨에 대해, 사람의 온기에 대해, 말의
온도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적절한
온도를 지키려는 마음도 읽혀졌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온도는 어땠는지 떠올려보며
하루 마감 잘하기 바랍니다.

😊 5 💬 0



2025/11/21

friday, am 12:37 | 12월
장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14일차 : 온도

누군가와 싸웠다. 항상 똑같은 이유로
싸우는데 오늘도 그랬다. 싸울때 그렇게 열이
오르는데 좀 지나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다.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데우는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면 더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오늘은 방이 유난히 더 춥고 온도가 낮은 것
같다. 이 밤을 잘 견뎌내보자..

😊 3 💬 1

조은채(간호학과)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라요.
좋은 밤 되세요.



2025/11/21

friday, am 8:28 | 22일
김영선

#15일차 키워드 : 기록

챌린지의 마지막 날 키워드는 '기록'입니다.
15일간의 글쓰기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매일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은 단순히 과거를 붙잡아
두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사진이나 일기, 블로그 등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을
남기고 있나요? 공동체 차원에서도 기록은
아카이브로서 중요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개인에게도 공동체에도
중요한 기록. 여러분이 기록을 남기는 방식,
인상깊었던 기록들에 대해, 혹은 이번
챌린지에서 여러분이 남긴 기록에 대해
써보세요.

😊 9 💬 0

우리끼리, Band!

2025/11/21

Friday, am 10:51 | 179원
윤지호(일본학과)#15일차
기록

나에게 기록이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자 벌써 7년이 넘었다. 고등학교 1학년때 영어학원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루 몇문장이라도 일기를 써보라는 말을 수업시간에 했었고 나는 그날 바로 집에가서 달에 쓰는 일기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쓰기 시작했다. 그게 2018년 11월 내가 고등학교 1학년때이다. 그렇게 나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고있다. 나는 달에 쓰는 일기 라는 어플로 2~3년 정도 썼는데 불편한점이 한두개가 아니라 지금은 노선으로 일기를 쓰고있고 매우 만족하며 쓰고있다. 내가 쓰는 일기는 남들이 쓰는 방식이랑 조금 다르다. 남들은 글로 하루 있었던 일과 느꼈던 일을 쓰겠지만 나는 하루 있었던 일 느꼈던 일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 파일 등 오늘 내가 사용한 모든 문서파일을 일기에 첨부한다. 내가 휴대폰으로 받은 메일이나 카톡 연락 그리고 오늘 재밌게 본 유튜브 동영상 링크 오늘 과제로 만든 ppt나 엑셀파일 이런 정말 사소한것들 하나까지도 모두 일기에 첨부한다. 일기를 쓰면서 느낀거는 정말 기록해두지 않으면 모두 잊혀진다는 것이다. 당장 나는 2주전 주말에 내가 뭘 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에서 좋았던 일이나 안좋았던 일 모든것을 기록해두고 싶다. 그리고 연말인 12월30일 일기에는 올해 내가 가장 자주 들었던 음악을 첨부하고 마지막 날인 12월31일에는 올해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나 소식 올해 유행했던 챌린지나 음악을 첨부하고 올해 나에게 무슨일이 있었고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고 내년 목표는 무엇인지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다. 결국 남는거는 사진과 동영상이라는

말은 정말인것같다. 가끔씩 심심할때 과거 내가 쓴 일기 과거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기기도 한다.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상기하고 반성한다. 다들 일기를 쓰는 보람과 재미를 한번 느껴봤으면 한다.



😊 6 ... 4

최은실(국어국문학과) 저도 노선을 사용하지만 일기를 쓰기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나 사진 등 첨부파일로 넣으면 하루가 더 풍부하게 기억될 것 같아서 2026년에 저도 사용해야겠네요!



2025/11/21

Friday, pm 12:15 | 159원
문진우(철학과)#15일차
기록

우연치 않게 부모님이 모아둔 내 편지를 읽은 적이 있다. 글은 어수룩하고 뜻도 중구난방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너무 낯설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떠오를 정도로 순수하게 빛나는 나는 현재의 나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이곳에 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동안 그 여운에 젖어 잠시 망설이다 똑같이 기록을 하기로 했다. 그래야 미래의 내가 읽을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집필의 취미를 넘어 장래에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이것이었다. '나는 살아왔고, 살아있고, 살아갈 것이다.' 이 간단한 한 문장을 여러 갈래의 문학 작품으로 승화하기 위해 지금도 이 도전에 뜻을 밝혔다.

그 동안에 15일 라이팅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내가 놓쳤던 것들이나 혹은 잊어버렸던 꿈들이 활자로 춤을 추며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 어린 시절의 형수를 불러 일으키는 향기들, 무심코 지나갔던 타인들, 좌절했던 순간들이 언어로 글을 쓰며 읽으니 기록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한 역사학자는 인류문명이 멸망 시 다시 현재의 문명으로 복구하는데 얼마정도의 시간이 드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면 5년안에 복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우리의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무너져 버린 우리는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기록이 없으면 존재도 흐려진다. 우리 기록되지 않은 문명의 이름과 사람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사라져가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글을 남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 7 ... 2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저도 잠시 멈췄던 것 같아요 글 잘 읽었습니다!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11/21

Friday, pm 3:00 | 129원
최현수(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15일차

글밥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아야 하나...?" 이 말이

우스갯소리에서 진심이 되어가는 우리 나이대다. "뭐 해 먹고 살긴, 아마 모두 흰쌀밥 지어 먹고 살겠지." 이런 일차원적인 대답으로 애써 문제를 회피해보려 해도 우리는 '먹고 산다'라는 게 단순히 음식의 섭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먹는다는 건 산다는 것과 직결돼 있다.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직업을 밥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예컨대, 용접일을 하는 사람은 '쇠밥'을 먹고 산다고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글밥'을 먹고 산다고 한다. "나중에 뭐 해 먹고 살거냐"는 질문에 필자는 대학 입학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글밥을 먹겠다고 선언해왔다. 기자를 꿈꾸면서.

기자에게 기록을 한다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세상에 남긴다는 의미를 뛰어넘는다. 기자에게 기록이란 생존이고, 대의(大義)이며, 작품이다. 기자는 글을 쓰지 않으면 죽고, 글을 쓰는 것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완결된 기사 한 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갈아 넣는다. 기록이란 키워드를 보자마자 심장이 뛰는 것을 보니 아직은 기사를 꿈꿀 필자인가 싶기도 하다. 비록 현재도 매번 기록을 위한 취재를 다니며 바쁘고, 때로는 골머리를 앓는 주제에 당청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쓰며 하나의 주제를 세상에 기록하는 순간, 그 어느때보다 즐겁고 보람차다. 아까 하나 빼먹은 말이 있다. 기자에게 기록이란 곧 행복이다. 정확히 말하면, 기록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기자 적성에 맞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질문에 대한 답은 같다. 필자는 나중에 글밥을 먹고 살 거다. 기사를 하면서!

😊 8 ... 2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나중에 뭐 해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은 저도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기자라는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11/21
friday, pm 3:08 | 12월
민시아 (글로벌학부)

#15일차 주제: 기록

나는 기록을 많이 하는 편이다.
기록은 지금 이 순간을 앞으로의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흔적으로 남겨주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 토크 메모장을
이용하기도 하며,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을 때면
생각 노트를 꺼내 조용히 글을 써보기도 한다.
매일 쓰는 일기와 한 달을 마무리하며
작성하는 블로그도
나에게는 작은 의식 같은 일이다.

기록은 나에게 아주 소중한다.
지난 시간을 떠올리게 해주고, 앞으로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흔들리던 순간을 적어두면 다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행복했던 순간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꺼내
보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펜을 든다.
기록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날의 마음을 가만히 붙잡아두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기록하는 일은, 언젠가 쌓여 지금의 나를

증명해주는
작은 보증서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최은실(국어국문학과) 그 순간에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기록하지
못해서 후회를 종종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틈틈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2025/11/21
friday, pm 3:16 | 12월
이준호(사회복지학부)

#15일차 오늘도 키워드에 맞는 저의
경험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록"입니다.

저는 원래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번 말해준 내용도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나서야 기억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일정을 잊지 않기 위해 캘린더에 기록하자."
그때부터 학교 특강 일정, 시험 기간, 병원
예약, 봉사 시간 등 놓치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면 바로 핸드폰 캘린더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습관의 효과를 크게 느꼈던
날이 있습니다.
11월 3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서둘러서 타고 집으로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캘린더 알림이
울리고 동시에 친구에게서 "어디야?"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서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서둘러 내려 바로

어르신택으로 향했습니다. 캘린더와 친구의
연락이 아니었다면 봉사 일정을 완전히
잊어버려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기록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은 단순히 메모가 아니라 제가
책임감 있게 일정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튼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할
때보다 한결 마음이 편해졌고,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기록하는 습관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기록은 이제 하루를 더 단단하게
살아가게 해 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실(국어국문학과) 기록을 하면 중요한 일정을
빠르게 파악해서 준비하거나 다른 일정을
조율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꼼꼼하고
잊어버린 약속으로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2025/11/21
friday, pm 5:59 | 12월
최은실(국어국문학과)

#15일차

저는 부모님과 통화할 때 녹음을 합니다.
혹시 유튜브 "땀"이라는 채널을 아시나요?
여러 영상 중 한 여성이 엄마와 통화하며
잔소리를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잔소리지만 그
끝에는 핸드폰 화면 속 녹음 재생 버튼이
보입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고 평범한 대화
뿐이지만 나중에, 언젠가 될 지 모를 날에
부모님과 이야기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점차 잊혀질 목소리를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12월 말이 되면 그동안 녹음된 기록들을
정리하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김수전(미래융합스쿨) 저도 땀이라는 채널
 좋아해서 다 봤던것 같아요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11/21
friday, pm 6:12 | 12월
정우현(철학과)

#15일차

기록은 저에게 있어 사실이 담긴 내용이
아닙니다. 감정과 영혼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정우현이 남긴 기록들은 제 생각들이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우현의 숨결이
담겨있습니다. 인생은 감각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감각은 사실이 아닌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발전됩니다. 예술가들이
감각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감각 없이는
예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은 정신의 주축입니다. 감각 없이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는 수많은 기록들을 남기며 이
세상은 결국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감각을 잃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감각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록입니다. 기록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숨결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래된 숨결은 거두고 새로 태어난
숨결을 내뿜어야 합니다.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마지막 문장이 인상깊네요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11/21
friday, pm 7:17 | 14명
원보경(생명과학과)

#15일차 #기록

저는 언제나 아이폰 메모장에 모든 것을 기록해요.
전화번호, 계정, 살 것 등등이 담겨있죠.
그런것을 넘어 매우 개인적인 제 감정도 담겨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메모를 보면,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수있는거 같아요

😊 7 💬 3

정서현(법학과) 메모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거 같아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5/11/21
friday, pm 8:10 | 11명
정서현(법학과)

#15일차 '기록'

벌써 챌린지의 마지막 날이라니, 이 글을 쓰기
전에 첫 날부터 어제까지의 글의 기록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처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이 꽤 크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글쓰기가 습관이 되었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오늘까지 빠짐없이 글을 남길 수 있게 되어
스스로도 놀랍고 기쁘다.

나는 원래 무언가를 꾸준히 기록하거나,
이전의 나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챌린지도 단순한 미션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매일 글을 쓰며 내 일상과 생각을
돌아다보는 시간이 됐었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소중한 '나의 기록'이 된 것 같다.
이번에도 스스로에게 작은 신기록을 선물한
것 같아 더욱 뿌듯하다.

😊 6 💬 3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무언가를 꾸준히 잘
못하는 편인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꾸준함을
배워가는것 같아요!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11/21
friday, pm 8:13 | 11명
박현주(영어영문학과)

#15일차 : 기록

예전엔 기록의 중요성은 머릿속으로 대강
알고는 있었지만 체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지금도 비슷하다. 기록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이점을 주는지는 알지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지는 못했다가 최근에 체감한
일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을 보면서
이다. 고등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날 시기이고 다신 돌아오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순간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기
바빴다. 일기도 그 중 하나였다. 사진 같은
시각적인 기록들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이나 생각들은 기록하지 못하기에,
일기를 통해 고등학교의 순간들을 하나 하나
남겼다. 먼 훗날의 내가 이 순간을 추억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그
일기장을 다시 펼쳐 보았다. 정말이지, 그
당시의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되살아났다. 쓴
글을 보며 웃기도 하고 회상도 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다시 되돌아보았다. 이것이 기록의
순기능 중의 하나 인 것 같다. 아직 나는
기록의 중요성을 완전히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것 하나는 최근에 느끼게 된 것

같다.

3주가 생각보다 빨리 간 것 같다. 이번에
라이팅 챌린지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단어들을 골똘어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면서 정말 값진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다.
다른 분들이 쓰신 글 또한 보면서 좋은 글
또한 정말 많이 접하고 읽게 된 것 같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모두들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6 💬 2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라이팅 챌린지를 할
때마다 늘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키워드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11/21
friday, pm 8:15 | 12명
허태원(소프트웨어학부)

#15일차 기록

저는 요즘 소중한 사람들과 통화할때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해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기념일마다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사랑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처럼 매일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문득 생각날 때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과 애정에 비해
제가 보낸 마음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할머니의 그 사랑이 당연한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태원아' 하려고 저를 반겨주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귀에서 들리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목소리가 잊혀질까봐
두렵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할머니의 흔적을
찾아 해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할머니가 주신
선물, 할머니가 써주신 편지
많은 것은 남아 있지만 할머니와 함께 찍은
동영상이나 통화 녹음도 하나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가족, 친구, 그리고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록하려합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큰 상실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제 곁에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한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부디 저의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시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도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주소서
또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할
때 무너지지 않고 견딜 힘을 주시고 떠나간
이들이 연옥의 고통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오늘이 마지막 글쓰기네요.
함께 글을 쓰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지난
3주가 참 소중한것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의 날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6 💬 2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글 잘 읽었습니다!
3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11/21
friday, pm 8:47 | 12위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15일차 '기록'

여러분은 기록과 사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물어보면 대부분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기록을 통해

시대를 파악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하는 것처럼 사실이란 거짓이든 우리 민족은 기록을 남겨왔고 이를 통해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록 속에는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기록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적인 기록들이 대표적입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또는 세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며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도도 미래에는 수많은 과거의 기록 중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있겠죠

일상적인 기록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거나 다이어리를 작성하며

저만의 기록을 해나갔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기에

어릴때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기록을 통해 저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라이팅 챌린지를 하게 된다면

또 지원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키워드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앞으로도 하나의 기록 즉 추억 만들기를 소망하며 2025년도 마지막 라이팅 챌린지 활동을 기록합니다



김서연(콘텐츠it) 저도 기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누구나 적을 수 있는 거지만 기록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 성격 등이 들어나니까요. 특히 특정 인물에 대해 분석할 때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21
friday, pm 9:38 | 10위
유채원(일본학과)

#15일차 기록

기록은 영원이 된다. 몇 년 전에 쓴 글을 읽는 순간에 나는 그때로 돌아간다. 글 하나에 나는 이탈리아에서 나뭇배를 타기도, 스위스의 설산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기도 한다. 글을 읽을 때마다 살아움직이는 기억은 지금의 나를 위로한다. 빠르게 바뀌는 것투성이인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이 주는 안정감은 무엇보다 포근하다.

기록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된다. 예를 들면 블로그다. 맛집 후기나 어떠한 꿀팁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마련이다. 더 큰 범위로 가자면 역사서가 이에 해당한다. '구본산참'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창작 또는 참조한다. 기록되지 않았다면 현재는 없다. 그런 생각을 품은 나는 오늘도 무언가를 기록한다.

벌써 챌린지가 끝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이번 학기는 유독 바빠서 과제할 때 빼고는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느낌이다. 나는 당연히

챌린지 활동이 일주일 정도 더 남았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오늘의 키워드 글을 보고 그제야 마지막임을 깨달았다. 3주 동안 여러 사람의 생각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한 주제로 여러 글이 탄생하니, 마치 하나의 나무 같은 활동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한 학기씩 쌓여가며 졸업 후 이 활동이 나에게 편안한 숲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다음에도 여러분과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학기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은채(간호학과) 나무와 숲 비유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챌린지가 유독 빨리 끝난 느낌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2025/11/21
friday, pm 9:53 | 16위
조은채(간호학과)

#15일차 #기록

나는 원래 기록을 좋아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의 일기장을 다시 봐도 마냥 귀엽다기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더 컸다. 그렇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일기 쓰기를 멈추진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방법은 기록뿐이었기 때문이다.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를 계속 기록하게 만들었다.

과거는 필요 없었지만 현재를 살아가려면 감정들을 매일 기록해야만 했다. 그날그날 쓰레기통처럼 쓰인 종이들은 아직도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 굳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쓰레기를 꺼내서 얼굴을 찌푸릴 이유는 없다. 그렇게 과거를 다시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미련이 없었다. 나에게 백업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갤러리를 뒤져봐도 나의 과거는 겨우 1년 전부터 시작한다.

세상에 남긴 내 흔적 자체가 수치스러웠다.

나의 기록은 나를 괴롭게 했다. 바로 어제의 일기, 보고서, 며칠 전 친구와 찍은 사진, 학교 생활기록부조차 나를 슬프게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록에는 나를 위로하는 힘이 있었다. 시, 소설, 수필, ...등등. 괴로운 시절을 건디게 만든 것은 그 시절에 접한 좋은 글이었다.

그러면서 나도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글을 쓰고 싶다. 누군가를 웃게 하는 글을 쓰고 싶다.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글을 쓰고 싶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받아준 세상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내 일기는 아직 감정 배설 외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언젠가 부담없이 펼칠 수 있는 일기를 쓸 것이다. 시는 분명 언에서도 그렇고 언지 다른 글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해석이 자유롭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 하지만 쓰면서 느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부족한 어휘력을 키우고 생소한 시도 읽어내는 훈련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일상을 비일상적으로 풀어야 할 텐데 쉽지가 않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채롭게 써야겠다.

나의 기록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어루만진 흔적이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과연 이 기록은 나중에 다시 보게 될까? 비록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부디 그때의 나는 지금 이 글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저도 기록을 하면서 몰랐던 어휘력이나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11/21

friday, pm 10:02 | 9월 8일
김서연(중국학과)

#15일차 기록

이 단어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일기다.

왜냐면 요즘 내가 하려고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를 꾸준히 적어두면 좋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매일 쓰려고 하면

아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

근데 또 하루 지나고 나면

그날 있었던 작은 일들이 너무 쉽게 휘발돼서 내가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

예를 들어 아침에 먹은 메뉴도

친구랑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그때는 선명했는데

저녁쯤 되면 흐릿해져서

스스로도 조금 아쉽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짧게라도

그냥 한 줄만 적어두려고 하고 있다.

대단한 문장이 아니어도

그날의 공기가 조금 묻어 있는 문장 하나면

며칠 뒤에 읽을 때

아 이때 이랬었지 하고 다시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사실 그마저도 꾸준히 못 해서

한 번에 몰아서 쓸 때가 많다.

오히려 서둘고 짧고 어설피더라도 매일 쓰는 게

그때의 나를 더 잘 데려올 텐데

역시 매일 한다는 건 쉽지 않다.

요즘은 진짜 그런 생각을 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든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제일 대단한 사람이라고.

😊 3 💬 2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귀찮음을 감수하고 꾸준히 실천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 같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나가길 바라요!

2025/11/21

friday, pm 10:15 | 8월 11일
박해원 (생명과학과)

#15일차

기록의 힘을 믿으십니까?

저에게 기록은 과거를 붙잡아두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순간을 다시 꺼내어 그 시간 안에 나를 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지나간 감정이 다시 떠오르고 잊고 싶은 일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과거에 머무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저를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보고 싶지 않았고 그때의 나를 마주하는 게 늘 불편했습니다. 기록은 그 불편함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기록이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해 둔 문장은 과거를 불러오지만 그 문장을 읽는 일은 지금의 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를 기억해줄 글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은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생각이 흘러가 버리지 않고, 내일의 내가 오늘의 온도를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 기록의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힘입니다. 기억은 쉽게 흐려지지만 기록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록의 힘을 믿으십니까?

이제 저는 간절하게 믿습니다.

기록은 미래의 내게 남기는 작은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쌓이면 나는 나를 덜 의심하고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더욱 선명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믿습니다. 나를 어제에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 3 💬 0



2025/11/21

friday, pm 10:26 | 12월 8일
채은비(생명과학과)

#15일차

#기록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독서 기록장을 씁니다. 흔히 쓰는 독서감상문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인상 깊었거나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을 뽑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겁니다.

어떤 문장은 어느 누구의 독서 감상문에 인용될 법 하거나, 누가 봐도 핵심 문장이다 싶을 만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특히 그 중에 마음을 끄는 것은 독서 중에 그냥 지나가도 아무 일 없을 법한 부분이거나,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특히나 좋아했던 부분들을 조금 가져와 볼까요.

'세계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도, 너를 받아줄 공간은-그건 아주 조그만 공간이면 되는데-어디에도 없다.'

'낮은 그렇게 매력적이고 밤은 그렇게 유혹적이어서, 잠을 언제 자는게 좋을지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세계는 아름답고 열정적으로 돌아갔지만, 회전축은 뼈걱거리고 연기가 피어났다.'

'나는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스스로

생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책 속에서 찾아내길 원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리. 내 꿈이 정당했다는 것. 백번 천번 정당했다는 것. 하지만 삶은, 현실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부러워?"

"부럽긴요. 난 너무 나 자신에게 익숙해서 말이죠."

이 문장들은 왜 내 독서 노트에 기록되게 된 걸까요.

어떤 문장은 아무 힘도 없이 소설 속에서 스쳐 지나가고, 어떤 문장은 컷드러진 명언이나, 잘 꾸며진 의미 하나 없이도 내게 다가옵니다. 작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던 순간이, 언어로써 잘 정제된 채로 흘러 지나가다가 내 마음속에 꽉 박혀 옵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에 전 기록을 합니다. 내게 다가온 이 문장들과 책들 사이에서 내 마음을 발견하길 원해서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 속에서 찾아내길 원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가 왜 이 문장들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은 당신이 읽은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라는 말처럼, 기록해온 모든 책들이 나의 일부가 되어주길 바라서요.

😊 5 💬 2

김서연(콘텐츠) 좋은 것 같아요. 전 독서를 할 때 딱히 뭐 하는 게 없었는데 저도 해봐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21

friday, pm 10:51 | 10월
심유진(바이오메디컬학과)

#15일차

우리는 대부분의 순간을 흘러보내면서 산다.
대부분의 생각은 머릿속에서 부서지고,
대부분의 감정은 표정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가끔 기록한다.
기억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된다.
틀린 맞춤법, 뒤편 감성,
도중에 멈춰버린 생각 하나까지도
그때의 나였다는 증거가 된다.
어떤 날의 나는 강했고,
어떤 날의 나는 지나치게 조용했고,
어떤 날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안으로만 무너지고 있었다.
기록은 그 무너짐조차도 버리지 않는다.

가끔 예전의 글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그때의 나를 처음 만난다.
그 때는 지금보다 더 서툴렀고,
지금의 나보다 더 솔직했고,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다.
기록은 미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기 위해 쓴다.
나라는 존재가 한순간도 헛되이 스치지
않았다고
조용히 증명하기 위해서.

😊 4 💬 1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과거의 자신과 마주치면
지금의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장했길 바라요!



2025/11/21

friday, pm 11:13 | 10월
송준하(빅데이터전공)

#15일차

수분이 마른다.
딱딱하게 굳는다.
가끔 미세하게 움직인다.
온 몸에 꽃힌 바늘은 뇌를 생각이 없다.
미동도 없어진다.
창백한 빛이 비춘다.
겨우 글을 쓴다.

그렇게 붉은 군더더기.
또 다시 죄를 짓는다.

😊 4 💬 0



2025/11/21

friday, pm 11:29 | 10월
강서현(콘텐츠it)

#15일차

키워드 : 기록

나는 기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기보다는 관심이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귀찮게 느껴진다.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수단이자 추억이 된다는 것도. 하지만
못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내 모습을
남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참 일기를 썼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의
일기를 읽어보면,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화난
일들이 많았다. 왜 나는 기뻐했던 일보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록으로 남길까?
즐거웠던 일들도 기록해 두면 좋을 텐데.

일기를 읽을 때마다, 당시의 나는 마음을 기댈
곳이 오직 일기장뿐이었다는 것을 느낀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아도, 화나고
불안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일기를 쓰면
그때의 나는 참 정신적으로 약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기록들이
있었기에 발전한 지금의 내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 3 💬 4

김수진 (미래융합스쿨) 좋은 감정어든 안 좋은
감정어든 그날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3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11/21

friday, pm 11:33 | 8월
윤예지(디지털미디어콘텐츠)

#13th

기록은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보다 사람의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내 기억력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안
좋으니 나한테 기록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다.
그날 할 일, 다음 주에 있을 친구들과의 약속,
해야 할 과제와 완료한 과제같이 정보 위주의
기록이 많다.
최근에 시작한 기록이라고 하면 본 영화와
드라마를
기록하는 것이다. 작년부터 특히 영화를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떤 영화를 봤는지 기억이 잘
안나고 그 영화는 어땠는지 보고 난 직후의
생각이 가물가물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 나 드라마 한편을 다 보고
나면
바로 휴대폰 앱을 켜서 짧게라도 별점과
한줄평을 입력 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기록을 봤을 때 그
당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 할 수 있고 또 더 재밌는
부분은 몇 년 뒤
그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흐름을 알 수 있고 내 변화를 기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한 기록은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 4 💬 2

채은비(생명과학과) 저는 읽은 책을 기록해요.
생각 날 때마다 꺼내보면 즐겁더라고요. 잘
읽었습니다.



2025/11/21

friday, pm 11:39 | 11월
진세라(융합과학수사학과)

#15일차 : 기록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일기를 쓰는 걸
선호하시나요? 메모장에 타자를 칠 수도
있고, 일기장에 자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의 저는 손으로 직접 쓰는 일기를
택했습니다. 여느 사람이 그렇듯 연초에는
열심히 다이어리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그날 바로 기록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더 길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개강 후 바빠지면서 어느새 일기는
뒤틀린 되었습니다. 멈춰 있던 다이어리는
방학이 되어서야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걸
먹고, 쇼핑을 하는 등 일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세가 개강 후에도 이어졌고,
9월이 되어도 꾸준히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마의 10월이 오면서 다이어리는 다시
책장 한쪽에 고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 다이어리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글을 써보려고 라이팅 챌린지에 신청했습니다. 라이팅 챌린지의 주제가 마냥 쉬운 편은 아니었지만, 생각할 거리가 있어 좋았습니다. 11월은 일기 대신 챌린지 글로 채웠으니, 다이어리는 담당하게 12월에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다이어리를 훨씬 자주 쓴 것 같습니다. 작년엔 다이어리가 너무 깨끗해서 '돈 낭비가 아닌가?' 싶었지만, 올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다행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빠른 다이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 5 💬 3

홍예진(바이오메디칼)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셨군요 * 멋지네요! 저도 남은 시간동안 다이어리를 열심히 채워보려고요!



2025/11/21
friday, pm 11:45 | 9월 8
최지윤 (사회복지학과)

#15일차 #기록

[예순 번째 접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의 과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남길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기록하기란 쉽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과거들을 펼쳐보면 뿌듯함과 예뻐함이 꽤 쏠립니다. 남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위로받기도, 감탄하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양던 밴드에 때로는 비눗고 때로는 기뻐던 나날들이 모여 천을 덮듯 기운 조각보처럼 서로를 이어주었습니다. 우리만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열심히 해주신 모든 분들, 추운

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는 말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뽀뽀뽀, 오늘의 문 접시가 닳았습니다.]

😊 5 💬 1

채은비(생명과학과) 지윤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2025/11/21
friday, pm 11:46 | 9월 8
정우림(정치행정학과)

#15일차 #기록

인류가 지금까지처럼 복잡한 문명을 이루게 된 요소들 중 가장 공이 큰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면, 맨 앞에 서있는 것이 '기록'일 겁니다.

기록은 인간이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을 발견하며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경험이, 지식이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틀도 벽에서 점토판, 양피지, 종이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일관됩니다. 이 순간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우리 인간만 가진 본능에 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경 기술을 확장했고, 별의 움직임을 계산했으며, 법의 기초가 됐고, 평화를 지키고, 철학과 과학을 발전시켰고, 수명마저 연장시켰습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인간은 매 세대마다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잠깐 숨 쉬다가 죽는 존재에 불과했을 겁니다.

기록은 끝없이 이어지는 두뇌의 연장선이며, 인류 전체의 기억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뇌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먹을 갈아 물과 섞어 글을 쓰거나, 빛을 가두어

사진을 찍고, 이를 이어붙여 영상으로서 시청각적 형태로 가능케 했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아주 긴 사다리랄까요. 우리는 모두 이를 밟고 올라왔고 앞으로 후대를 위해 이를 연장해야 합니다. 그게 변명의 길일 테니까요. 그렇게 인류는 더 먼 곳을 바라볼 겁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아무리 앞날이 어려모로 어둡다지만, 기대해볼 만한 미래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를 위한 아주 작은 보탬이 되고자 오늘을 기록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 0



2025/11/21
friday, pm 11:47 | 10월 8
홍예진(바이오메디칼)

#15일차 기록

매번 생각하는 것이지만 기록하는 습관은 좋은 것 같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소소한 행복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많이 쓰는 것 같다. 나도 올해에는 다이어리를 열심히 쓰려고 하였으나... (중략) 그런 이유로 올해 다이어리도 처음에만 꽤 차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었다. 어느새 11월인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써야겠다. 다이어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쓰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거기다 다이어리를 열심히 꾸미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갓생'을 사는 사람들 말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난 언제쯤 부지런해질지 궁금해지곤 한다. 그리고

꾸준히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 기억력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올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에 열심히 남은 다이어리를 채워보려고 한다.

😊 4 💬 2

김서연(콘텐츠) 다이어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작성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못 쓰고, 그런 변명들이 하나둘 쌓여가면 결국 손이 안 가더라고요..ㅠ



2025/11/21
friday, pm 11:57 | 12월 8
김영주 (화학과)

#15일차

기록은 존재의 확장이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을 떠난 이들과 우리는 계속 이어져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끝없이 목소리를 내고있다. 이어온 문화와 지켜온 가치들은 기록이라는 형태를 빌려 남아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와 감정을 전달받는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만든다.

무언가에 떠밀려 그랬던 것일까. 아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모든 것들을 당신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지였을지 모른다.

이것은 또한 후대를 위해 남긴 어떤 하나의 용원과 격려일 것이다. 우리를 위해 살을 갈아넣은 과거 누군가의 의지를 문자와 사진, 영상과 노래로, 어느 형태의 기록으로 만날 수 있다. 그 무게를 감히 가능할 수가 없다.

😊 5 💬 2

채은비(생명과학과) 인간은 기록을 통해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남기죠... 잘 읽었습니다.

2025/11/21

friday, pm 11:58 | 11월
안도연(러시아 학과)

#15일차
#기록

오늘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다지 특별한 일도 없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도 있었나 싶다
그런데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사소하게 지나쳐간 순간들이 눈에 들어왔다.
일어나면 비춰오는 햇살
떨어지는 낙엽들
집 문을 열 때 느껴지는 익숙한 느낌까지
평범한 하루가 조금은 다르게 보였다
기록은 거창한 것을 남기는 것 뿐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잠시 멈춰 바라보는 것이 기록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썼다
오늘을 조금 남기고 싶어서

😊 4 💬 1

김서연(콘텐츠it) 작은 것 또한 기록이 될 수 있죠.
저는 항상 큰 것만 기록해왔었는데 작은 것도
남기려고 해봐야겠어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22

saturday, am 12:00 | 11월
정다운(디지털미디어콘텐츠)

#15일차 : 기록

과거의 내 일기를 보는 것 만큼 재밌고 시간
잘가고 뿌듯하기까지 한 일은 없는 것 같다.
심심할때 내 일기 보면 시간 순삭이다.

데이터가 쌓인 만큼 재미도 뿌듯함도 배가
된다.

이 일기라는 게 참 좋은 게, 당시 내가 했던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할 생각들을 적으면서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다. 영상처럼 그냥 이걸 우선 시작해서
두서없이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순간 생각이
비워지고 써진 글을 보면 생각이 정리 되고
글을 쓰는 그 짧은 시간동안에도 변화한 나의
생각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 마치 과거의 나에게 미래의 내가
위로를 해주는 것 처럼 느껴진다. 과거의 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고민들과 끝없는
생각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이 고민들을 해결하고
답을 찾았을지도 모르는 내가 다시 이
고민들을 보게 되었을 땐 마치 공감과
해결책과 훌륭한 위로를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 같아 최고의 위로가 된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을 두고 만나게 되는 과거의 미래의 나는
서로 훌륭한 친구이자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나에게 위로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을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 더 많은 기록을 남기고 더 많은 경험을
하여 한층 더 발전한 나를 만들고자
노력중이다.

😊 4 💬 1

김서연(콘텐츠it) 공감합니다. 두렵게 쌓인
일기장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글 잘
읽었습니다.



2025/11/22

saturday, am 12:24 | 23일
김영선

#15일차 글쓰기 마감합니다. 챌린지 마감
글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3주 동안
여러분이 써온 글도 '기록'이 되겠죠. 이
기록이 훗날 여러분이 진정성있게 말과 글,
그리고 가족과 동료, 세상에 대해 생각했던
시절의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3주간 꾸준히
글쓰기 근육을 기른 경험을 기회로 또다른
도전도 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 0